

博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鄭後洙

崔松雪堂文學研究

2006年 12月 日

漢城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古典文學專攻

金 鍾 順

博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鄭後洙

崔松雪堂 文學研究

위 論文을 文學博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日

漢城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古典文學專攻

金 鍾 順

金鍾順의 文學博士 學位論文을 認定함

2006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金 昌 龍 

審査委員 鄭 後 洙 

審査委員 朴 仁 均 

審査委員 金 甲 圭 

審査委員 慎 慶 治 

목 차

제 1 장 서론	1
----------------	---

제 1 절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사 검토	2
제 3 절 문제제기와 연구 방향	7

제 2 장 송설당의 생애	10
---------------------	----

제 1 절 송설당의 家系	10
제 2 절 송설당의 생애	13
1. 제1기(1855~1901) 苦難期	14
2. 제2기(1902~1922) 家門復元和 報恩期	22
3. 제3기(1923~1939) 社會還元期	28
제 3 절 『松雪堂集』의 발간 의의	36
1. 판본 상황	36
2. 『송설당집』의 특징과 구성	38
3. 『송설당집』 발간의 문학사적 의의	42

제 3 장 송설당의 작품 양상	44
------------------------	----

제 1 절 한시	44
1. 敍景詩	50

2. 紀行詩	59
3. 詠物詩	70
4. 自傳詩	86
제 2 절 언문사조	97
1. 단형성과 영물 소재	99
2. 장르의 변용과 실험성	115
3. 한시와 언문사조의 친연성	121
제 3 절 부록에 나타난 題贊	137
 제 4 장 송설당의 의식세계	 142
제 1 절 개인의식	143
1. 가문의식	143
2. 효의식	149
3. 성취의식	153
제 2 절 사회의식	157
1. 국가의식	158
2. 여성의식	176
3. 근대의식	203
 제 5 장 송설당 문학의 의미와 가치	 226
 제 6 장 결론	 230
 □ 참고문헌	 233
□ ABSTRACT	243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목적

송설당(1855~1939)은 흥경래난 당시 몰락한 양반의 후손으로서 몰락한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여성이다. 그의 꿈은 몰락한 가문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일은 조선 말기 여성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국과 근대화의 시작이라는 시대 속에서도 송설당의 가문 회복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가문 복권에 매달린 그의 의지는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또한 조선여인이 유학적 사회제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했을까? 40이 넘은 나이에 궁중을 출입하고, 고종에게 松雪堂이라는 당호까지 받았을까? 그의 문집 『松雪堂集』은 『폐허』, 『백조』보다도 이른 1914년에 원고의 완성을 보았다. 이미 사회 일각에서는 신학문이 대접을 받고, 새로운 서구 문학 사조들이 일본을 거쳐 유행하던 시기였다. 그러한 때에 송설당이 한 시와, 국문가사, 제문, 정부 관료의 제찬 등을 엮은 문집을 펴냈다는 점은 주목할 사항이다.

당시 그가 이뤄낸 일은 특이하다.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 전통 이데올로기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제말의 틈새를 공략한 송설당만의 지혜로움 때문이었는지, 이미 당시 사회에 퍼지고 있었던 전환기 의식의 영향이었는지 時代・思潮史的 연구 여지는 충분하다.

송설당 개인의 삶과 의식이 당대 전체 여성들의 그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송설당은 남달리 문집을 통해 자신의 족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본고는 崔松雪堂이 남긴 문학작품을 통해 구한말의 여성이 근대화 속에서 어떻게 삶을 조망하고 펼쳐왔는지 그 역정을 살피고, 아울러 문집을 발간하게 된 동인을 밝히고, 작품 속에 나타난 의식을 토대로 전통과 근대의 만남, 공존의 실마리를 찾

아 근대의 모습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사 검토

개화기 시대에 발간된 문집은 여러 가지 여건상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송설당집』도 예외는 아니다. 그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것은 말년의 사학 건립에 대한 명성에 가리어진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송설당에 대한 논의는 전 재산을 희사하여 사학을 건립한 여성으로 더 큰 조명을 받았다. 곧 학교 설립 추진, 개교, 사망 등에 관한 언론들의 대대적인 보도¹⁾ 등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문집에 대한 관심은 1962년 한국일보 인물 탐방관²⁾에 ‘詩文集을 最初로 펴낸 崔松雪堂女士’라는 제목으로 연재되면서 그의 문집과 문학세계에 대한 관심이 표면화 되었지만, 더 이상 흥미있는 연구거리는 되지 못했다. 그 이전에도 작품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50년대 송설당을 최초로 언급한 것은 조운제의 『韓國 詩歌史綱』인데, ‘최근의 것에는 崔松雪堂의 歌辭 五十首가 있다’라는 언급 정도였으며, 심재완이 송설당의 생애와 『松雪堂集』을 소개하고, 논평을 더한 것이 독립적 연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심재완은 송설당의 가사문학의 제목을 들어 ‘여사의 한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언어미의 부족이 아쉽다’는 논평과 함께 ‘어려서부터의 한문수양과 환경의 영향’으로 보았다.³⁾

그 뒤 1979년 김준영이 「내방가사론 서설」⁴⁾에서 송설당의 가사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1991년 리동윤⁵⁾은 송설당을 ‘봉건사회의 마지막 여류시인’이라고 자리

1) 『大韓每日申報』 1908년 1월 18일 잡보 ‘文明女士’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1926년 조선 일보를 필두로 1929년 동아일보, 1930년부터는 동아, 조선, 조선중앙 등에 김천고보 설립에 관한 기사가 수십차례 게재되었다.

2) 최은희, 1962년 5월 24일자 『한국일보』, ‘잊지 못할 女流名人들’ 칼럼에 ‘詩文集을 最初로 펴낸 崔松雪堂女士’라는 제목으로 2회 연재.

3) 조운제, 『韓國 詩歌史綱』, 을유문화사, 1954, p.434. 심재완, 「崔松雪堂의 歌辭」 『國語國文學 研究』 제3집, 청구대학 국어국문학회, 1959.

4) 김준영, 「內房歌辭論 序說」, 『민족문화논총』, 노산문화회, 1979.

5) ‘리동윤은 김일성대학 조선어문학부 교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준박사이다. 현재 민족고전

매김하고, 『송설당집』의 가치를 ‘국어시가작품들이 고유한 특성을 가진 점과 양적인 면에서 국어가사만 무려 50여편을 실은 것은 보기 드문 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사의 내용분석에서 소박하고 생활적인 시어와 함께 ‘봉건말기 사회 현실에 비판을 돌린 시가’라는 점과 ‘농민들의 힘겹고 곤궁한 삶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봉건사회 남녀불평등에 대한 도전’의식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논문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압도된 북한학자의 관점에서 연구된 것인 만큼 내용분석에 있어서 색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허철희는 송설당 생애와 詩歌 연구에 맞추었다. 생애를 3기로 나누어 태어나서 한문을 수학한 1870년까지를 修身期로, 선조의 신원설치를 하고 선묘 봉축을 마치는 시기까지를 齊家期, 여생을 애국기로 나누고 있다. 작품 분석에서 가사는 ‘자연물 예찬과 미의식’, ‘개인적 슬회를 통한 현실극복의지’, ‘가문의식과 현실비판의식’ 등을 중요한 세계로 파악했다. 리동윤의 연구와 공통되는 점은 ‘내방가사 중 50여편의 가사를 남긴 것은 최다 수준이라는 점’과, 현실 비판의식을 찾은 점이다. 다만 허철희는 한시와 가사를 비교하되 같은 제목의 두 양식으로 표현된 작품을 제제로 삼고 ‘한시가 간결한 구조 속에 핵심적 내용만을 요약하여 표현했다면, 가사는 유장한 필치 속에 여유있게 구체적 사물을 묘사하였다’며 표현 기법의 차이를 설명했으나, 각 장르별 의식세계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았다.

학위 논문으로는 임명희의 『崔松雪堂』⁶⁾과 임혜영의 『최송설당 가사 연구』⁷⁾가 있다. 임명희는 송설당의 생애를 고찰하고, 그것을 통하여 표출된 문학작품들의 면모를 살피고 있다. 송설당이 말년에 이룬 육영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송설당을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의 고정 인식을 깨뜨리고,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여성의 모범’으로 보았다. 문집의 특징으로는, 마치 자서전을 읽는 듯 한시와 가사 모두 자신의 내력을 중심 소재로 삼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임혜영은 송설당의 생애를 성

발굴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연변 코리아학 소장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松雪堂集의 문학사적 가치’라는 글도 이 작업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조 여류시인 松雪堂의 文學世界』, 『한길문학』 1991년 가을호, 한길사, 1991.재인용) 이 글을 싣는 편집자는 남북한의 국문학 연구 교류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남한 국문학계에 아직 소개되어 있지 않은 『松雪堂集』에 관한 글을 싣는다고 주를 달고 있다.

6) 임명희, 『崔松雪堂』,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7) 임혜영, 『최송설당 가사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장기, 장년기, 노년기로 고찰하고 49편의 가사작품을 연구했다. 특히 송설당의 가사가 기존 규방가사의 면모를 계승하는 일반성을 띠면서 새 시대의 모습이 반영된 특수성을 보여주는지를 밝히려고 했다. 임혜영은 송설당의 작품이 개화기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계몽의식과는 거리가 있으나, 그렇다고 과거 규방가사의 틀 속에 안주하지 않고 남성들의 고유영역이었던 가문과 국가문제를 우선시함으로써 과거 여성들에 비해 의식세계가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를 근대 의식의 성장으로 보고 전통과 근대의 조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보았다. 이 글은 내용 분석에 치우쳐 있어서 형식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시도나 특수성은 미처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백순철은 학위논문 『閨房歌詞의 作品世界와 社會的 性格』에서 여성고난의 대변자로서 최송설당을 대표적 작가로 들고, 고난의 일생과 문집 간행 사실을 간략히 밝히고 있다.⁸⁾

의식세계 연구로는 허미자의 「송설당의 여성콤플렉스와 남자의식」이 있다.⁹⁾ 그는 「근대화 과정의 문학에 나타난 성의 갈등구조」 편에서 오효원, 김명순, 나혜석, 김원주 등과 함께 송설당을 다루고 있다. 그들 중 김명순, 나혜석, 김원주만을 “192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들인 이들은 남성에 대한 성적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문학을 통해서 전근대의 사회 윤리관을 근대적 윤리관으로 전환시킨 역군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송설당과 오효원을 비교한 결론에서는 송설당에게는 “만팔로서 장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콤플렉스와 어머니에 대한 콤플렉스, 여성콤플렉스 등 송설당만의 네 가지 콤플렉스가 있다고 논했다. 이어, 전통사회의 유물인 남존여비 사상을 깨고 실존의 자아실현을 실천하고 있으나, 의식의 표출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시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단정했다. 송설당보다 34년 뒤에 태어난 오효원은 ‘여성으로서 뛰어난 자아실현을 하고, 그 실현방법에 있어서도 발전 확대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둘의 차이점으로 ‘송설당은 끝까지 유교적인 삶을 고수한데 반해 오효원은 기독교 세례를 받았으며, 송설당은 유교적인 여인이라서 남자학교를 세웠으며, 오효원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여자학교를 세웠고, 송설

8) 백순철, 『閨房歌詞의 作品世界와 社會的 性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p.7, p.28.

9) 허미자, 『韓國女性文學研究』, 태학사, 1996.

당이 전형적인 대가집 여주인 모습이라면 오효원은 신여성이었다'고 비교 논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두 여성 모두에게서 자아실현을 통해 동물적 인식에서 인간적 인식으로, 전통사회에서 남녀 의존적이던 상관관계가 자존적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여성의 자아발전이나 자아실현의 새로운 여성상을 표출했다고 분석했다.

허미자는 두 사람의 인식 차이의 근본적 원인은 성격 차이라기보다 34년이라는 시간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천품에서 나온 것인지, 성장환경 때문인지는 작품분석과 생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할 듯 하다. 신여성들이 자란 사회분위기와 다르게 유교적 환경에서 살았던 송설당의 자아실현 기반이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신여성의 자아실현 욕구나 의지와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

최근 들어 송설당이 설립한 김천고보 동창회가 중심이 된 '송설당 기념사업회'에서 '최송설당의 삶과 민족교육, 그리고 문학'을 주제로 '최송설당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발표된 논문은 5편¹⁰⁾이었으나 저자를 기념하는 첫 학술대회인 만큼 깊이 있는 연구보다는 삶과 문학에 대한 개략적인 의미 부여와 자료발굴에 주력했다. 송설당의 행적에 관한 글은 송설당이 말년에 세운 김천고보에서 소장한 여러 자료와 함께 1991년에 발행된 『김천고보 60년사』¹¹⁾에 게재된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날 발표자 중 '송설당 자료의 대부분은 제3자에 의하여 기록 정리된 사실'과 '최송설당의 업적을 찬양하는 입장에서 서술한 만큼 여사의 인생 역정에 대한 사실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¹²⁾고 피력한 것, 이것마저도 '60대 후반 이후에 한정되어 있다'고 했다. 한편 학술대회 중 그의 재산 축적과정에 대한 연구와 교육 업적, 언론자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은 백순철의 「崔松雪堂 歌辭의 문체와 현실인식」¹³⁾으로

10) 김희곤-「崔松雪堂(1855~1939)의 꿈과 삶」, 김호일-「최송설당 교육 이념과 교육활동」, 김형목-「송설당 관련자료의 수집과 내용분석」, 권태을-「崔松雪堂의 漢詩概觀」, 한석수-「崔松雪堂의 文學世界와 現實認識」(『최송설당 기념 학술대회 발표집』, 송설당 기념사업회, 2004).

11)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松雪六十年史』, 삼양인쇄, 1991.

12) 김형목, 「송설당 관련자료의 수집과 내용분석」, 『최송설당 기념 학술대회 발표집』, 송설당 기념사업회, 2004, p.105.

13) 백순철, 「최송설당가사의 문체와 현실인식」, 『고시가 연구』 15, 2005.

‘근대화와 식민화가 함께 진행된 20세기 공간에서 단일작가로서 최다의 가사작품을 창작한 송설당’의 가사 세계를 살펴보고 있다. 송설당을 전통적인 규방가사의 향유층과 다소 이질적인 생애를 살았다고 보고, 그의 가사 소통환경 또한 다를 것이라는 맥락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전통적 미학 속에 나타난 근대 지향성을 읽어낸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문체의 특징으로 ‘가사의 관습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이를 단순히 단조롭게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대적 문체와 결합시켜 보다 세련되게 언어를 가다듬는 노력을 시도하였다’고 보았다. 본격적인 문체연구로 기존의 연구에 비해 진일보 한 논문이다.

그러나 연구사에서 보듯 단독 여성문집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송설당집』의 서지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문집체계와 장르별 연관성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세기에 발간된 문집의 창작환경이나 소통공간이 전통적 문집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의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것은 근대 여성의식과 사회 문화적 환경을 살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송설당에 대한 선행연구는, 생애의 사실적 족적 찾기와, 작품의 일반적인 특징을 규명하는 것들이었다. 문집 발간 이전 송설당의 행적에 대한 자료들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과, 현전하는 것도 말년의 육영사업과 관련한 청송의 글들이 대부분이어서 객관적 관점에서의 송설당의 면모를 살펴보기는 힘들다. 특히 송설당의 생애에서 결혼과 이성문제는 송설당의 여성의식 연구에 단초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설당 측의 기록과 기타 기록에서 혼선을 보이고 있어¹⁴⁾ 난제가 되고 있다.

또한 송설당의 諺文詞藻는 한시의 변용이라 할 정도로 짧은 것이 특징인데, 모두 의심없이 가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허철희가 ‘송설당의 가사는 조선후기의 정형 내방가사에 비해서는 짧은 短型’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리동윤은 ‘그의 시가는 16세기 이후 조선시가에 대두한 부녀가사와도 비슷하지 않으며, 17세기 이후에 출현한 서민출신 여성시인들의 연정주의 시가와 잡가류와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

14) 『松雪 六十年史』에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상북도 홈페이지나, 신문 기사, 또한 송설당기념사업회에서 발표한 자료(김형목, 「송설당 관련자료의 수집과 내용분석」)에는 결혼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다고 보았다. 송설당의 언문사조는 당시 신문 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던 계몽가사로 불리우는 여러 작품들의 공통된 형식¹⁵⁾과 통하는 부분도 있다. 이는 같은 형식의 작품일지라도 어떤 매개체를 통해 발표되었는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근대의 산물인 신문이나 잡지를 매개체로 발표되었다고 해서 개화가사로 보고, 문집에 실렸다는 이유로 전통적 양식으로 치부해버리기보다는 보다 치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시 활발하게 이뤄졌던 문집에 실린 가사에 대한 연구가 우리 문학의 꿋꿋한 맥을 잇는 답이 될지도 모른다.

제 3 절 문제제기와 연구방향

송설당은 조선조와 일제, 전통과 근대, 향촌과 도성, 몰락한 양반과 복권된 사대부, 빈자와 부자, 여성과 남성화된 여성 등으로 양분화 되는 경계선 양쪽을 모두 산 인물이다. 물론 송설당과 같은 시대적·사회적·공간적 경계선을 넘나들며 살았던 인물들도 많았지만, 그를 유독 다르게 보는 이유는 것처럼 정치적·시대적·경제적·공간적·신분적·성적(gender)인 면 등 다양한 경계선을 경험하며 공존한 인물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송설당의 남다른 인생역정은 전통과 근대의 경계를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문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설당 문학연구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다른 문집의 경우와 같이 한문으로 쓰여진 점이 결정적이라고 사료된다.¹⁶⁾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출판된 다수의 죽보나 문집류는 ‘책 아닌 책’이나 ‘구도덕과 가족윤리의 엄연한 존재를 보여줄 뿐 아니라 양반과 상놈, 계급의 변형·재생산되고 있는 병리적 사회현상의 지표라고 인식’할 정도로 푸대접을 받은 점이다. 게다가 문집이 완성된 시기가 1910년대로 당시 유행하던 신문예사조에 밀려서 ‘문집’은 이미 구식

15) 고은지, 「계몽가사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양식적 원리와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4, p.3.

16) 2004년에 출간된 정후수, 신경숙, 김종순 공역 『송설당의 시와 가사』가 『松雪堂集』의 권1, 2의 최초 번역본이다. 그 후 「송설당 기념사업회」에서 전 3권의 번역집을 도서출판 명상에서 2권으로 2005년 12월에 출판하였다.

매체로 인식되고 있었던 터였다. 더구나 문집발간을 새롭고 급진적인 근대의식으로 바뀌어야 할 유교적 습속이나 의식의 잔재¹⁷⁾로 보았기 때문이다. 1920년대에는 물론, 1930년대에도 족보와 유고문집의 발간 종수는 ‘소설’이나 ‘사상’ 영역의 출판물보다 더 많았다.¹⁸⁾ 그러나 이 시기에 출판된 전통적 출판물에 대한 연구는 근대물에 비해 드물다. 이는 이 시기가 새로운 문예사조의 등장이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은 때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전통과 근대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고전문학 연구자들은 이 시기에 발간된 문집이나 유고에 실린 작품보다는 신문과 잡지에 실린 詩歌에만 주목해왔다.¹⁹⁾ 이는 오래 전부터 우리 전통적 문학작품의 매체였던 문집류에 대한 인식부족과 폄하의 태도를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대의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社會燈 歌詞나 애국 계몽가사가 고전문학의 영역에서 연구될 수 있다면, 당대 발간되었던 각종 개인 문집이나 유고에 실린 작품들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본고는 1920년대 출간된 『송설당집』이 여성 최초의 독자적인 문집이라는 역사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제2장에서는 송설당의 생애와 『송설당집』의 서지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송설당의 생애연구는 작품해석을 위한 작업이다. 기초적인 문집의 서지적 상황 고찰은 『송설당집』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기획되고 출판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송설당의 문집 발간의 목적을 살피는 일은 20세기 초 문집발간의 의미와, 문집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문집에 실린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여 송설당 문학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과 근대의 혼재 속에서 생을 보낸 작가인 만큼 그의 작품이 갖고 있는 전통적 문학 요소와 근대의 새로운 양식 사이의 영향관계를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7)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 역사, 2003, p.219.

18) 천정환, 앞의 책, p.218.

19) 조남현-「사회등 가사의 풍자방법」, 강은혜-「개화기 가사 연구」, 장선진-「개화기 가사의 서술구조와 현실인식」, 김영철-「韓國開化期期 詩歌장르의 形成過程 研究」, 윤상룡-「개화기의 시가연구-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시가를 중심으로」, 고은지-「계몽가사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등 이 당시의 가사 연구는 대부분 신문 매체에 실린 가사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송설당의 작가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의 내면의식을 살피는 일은 송설당의 문학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필수적 과정이 될 것이다. 송설당의 작가의식이 작품에 어떻게 노정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은 송설당의 근대의식과 여성의식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송설당집』이 갖는 문학사적 위상을 살피고자 한다.

제6장은 결론으로 논의들을 요약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2 장 송설당의 생애

제 1 절 송설당의 家系

최송설당은 1855년(철종6) 8월 29일 金山郡 郡內面 文山里(지금의 김천시 문당동)에서 아버지 崔昌煥과 어머니 鄭玉瓊 사이에서 無男三女の 장녀로 출생하였다. 본관은 和順이고, 고려의 문하시중 평장사 烏山君 世基를 始祖로 紅巾賊亂에 순절한 忠節公 永濡, 조선시대에는 兵曹參議의 元之, 大司成의 士老, 參判의 漢楨을 거쳐 守愚堂 崔永慶²⁰⁾의 후손이다. 永慶이 曹植의 弟子라는 점에서 문인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崔永慶→崔弘緒→崔誼→崔敬逸→崔承立→崔世浩로 이어지면서 6대조인 崔世浩(1685~1729)는 禮曹佐郎을 지냈으나, 5대조부터는 무과집안으로 바뀌고 있다. 곧 崔重寔(1703~1750)은 折衝將軍 行龍衛 副護軍, 고조인 崔天成(1729~1776)은 咸興中軍을, 증조부 崔鳳寬(1758~1812)은 副護軍(從4品 武官職)이었다. 祖父 翔文은 武官으로 副司果(從6品)를 지냈으며, 5대조 증조부 鳳寬의 3兄弟 가운데 아우 鳳赫은 察訪이고 鳳仞은 생원이었다.

송설당의 집안은 본디 문관 집안이었으나, 가까운 선조들이 무관직을 지내면서 주로 평북 정주와 선천지역에서 살았다.²¹⁾ 그의 집안의 결정적인 몰락 원인은 증조부의 외가 江陵劉氏가 洪景來의 난(1811)에 가담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증조부가 평안도 선천군이 함락되었을 때 무관이었으면서도 대항하지 않았다 하여 옥사되었다. 그로 인해 아들 崔翔文(1785~1847) 등 4형제는 전라도 古阜로 유배되었는데, 松雪堂의 부친인 崔昌煥(1827~1886)²²⁾이 고부에서 태어난 최상문의 아들이다. 최창환은 처음 延安 金氏(1827~1844)를 아내로 맞이했으나 곧 죽고, 21세(1847)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자, 1850년 金山으로 거처를 옮겨 5년 뒤에 부인 鄭玉瓊(본관:慶州,

20) 守憂堂은 정여립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1590년에 죽음.

21) 김희곤, 앞의 논문, p.21.

22)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교주편」, p.321.

鄭在成의 女)에 장가들어 松雪堂을 낳았다.

송설당에게는 손아래 여동생이 둘 있었다. 둘째는 文鎭源(본관:南平)에게 출가하여 아들 文孝永과 文友永을 두었고, 셋째는 曹宇永(본관:昌寧)에게 출가하여 아들(曹傑承)을 두었다. 그리고 남자가 없는 관계로 할아버지 최상문의 아우인 최학문의 손자 光翼²³⁾을 들여 남동생으로 삼았다.

부친이 별세하자 전라도 함평까지 5백리 길을 운구하여 장례를 지내고 上京, 결국 ‘임금의 도움’²⁴⁾으로 가문의 伸冤을 달성하여 89년만에 雪憤伸冤을 이룬다. 그 결과 從弟 光翼에게 英陵參奉을 초임으로 내리고, 사흘 후에는 正3품에 陞資된다. 사촌 漢翼, 海翼도 6품 관직에 올라²⁵⁾ 명실공히 가문을 사대부 반열에 올려놓는다.

송설당의 이름은 호적에도 전해지지 않고 ‘父 崔昌煥 母 鄭玉瓊의 長女, 本貫 和順’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戶主도 崔松雪堂으로 본적이 경상북도 김천군 김천면 대화정 260번지의 1호로 경성부 무교동 94번지에서 轉籍되어 작성되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송설당은 이름이 아니라 호로 불려지던 것이 굳어진 것이며, 1984년에 『和順崔氏 大同宗會』에서 간행한 和順崔氏 大同世譜 卷之二에는 ‘參判 諱漢復 第三子監司 諱重洪 五代孫 通德郎 諱誼派 二十四世’로 족보에 올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딸보다는 사위를 기재하는데 女 송설당으로 二十三世 昌煥의 따님으로 되어 있다.²⁶⁾ 송설당은 친자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으며, 대신 1912년에 양자를 맞아들인다. 양자는 崔光翼의 만11세 된 둘째 아들이었으나, 입양은 오래가지 않고 파기된다.²⁷⁾

이상 송설당의 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조 門下侍中을 지낸 崔世基를

23) 이후 崔光翼→崔爽烈(초명 錫烈, 일명 崔錫台)→崔在鶴(무남4녀, 在文의 장자 鎬가 계자)·崔在德(2남 3녀)·崔在文(3남 1녀 중 장자 鎬 出系함).

24) 그의 시가에는 ‘晚霽雨露愧榮光’는 표현처럼 雨露之澤의 마음을 자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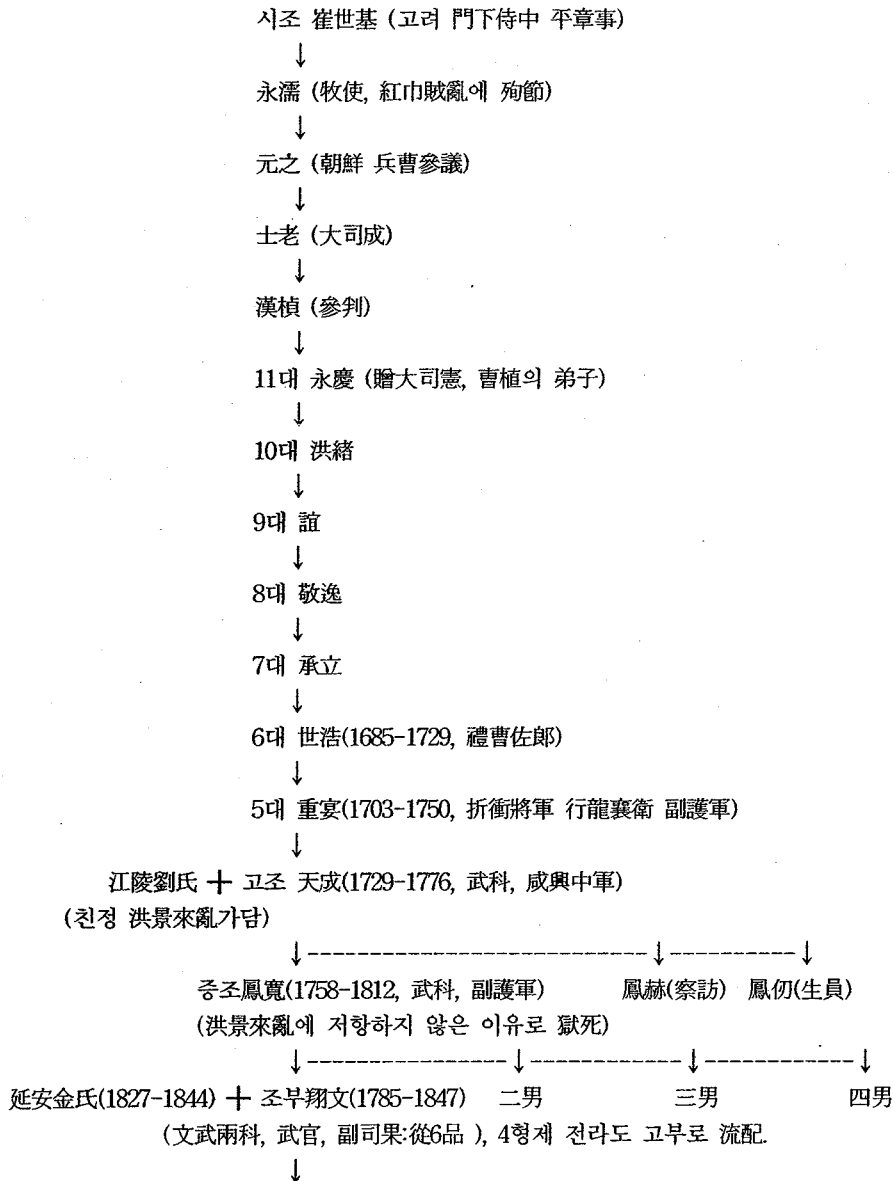
25)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교주편」, p.322.

26) 김호일, 「최송설당의 교육이념과 교육활동」, 최송설당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2004, p.71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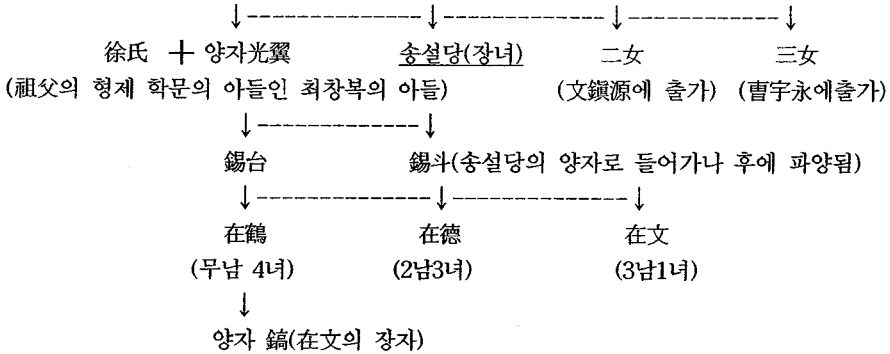
27) ‘입양한 지 14년이 지난 1926년 4월에 정식으로 協議離緣’, 즉 법적으로 입양사실을 취소한 것이다. 주된 이유가 양자 錫斗의 생활태도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일본으로 유학시켰는데 우에노음악학교를 다닌 양자가 예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생활자세를 보이게 되자, 철저하게 계산하고 꼼꼼하게 챙기며 살아온 송설당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라 한다.’(김희곤, 「최송설당(1855-1939)의 삶과 꿈」, 송설당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2004, p.34).

시조로 비교적 높은 벼슬을 지냈으며, 조선조에 들어와 6대조가 禮曹佐郎 벼슬을 한 후, 5대조부터 무관으로 돌아선 집안임을 알 수 있다. 祖父도 武官으로 종6품 副司果를 지내다가 홍경래난을 계기로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귀양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송설당의 아버지대부터는 벼슬에 나아갈 수 없는 가문이 되었다.

<도표 1> 송설당 가계도



鄭玉瓊(1836-1917) + 부친昌煥(1827-1886)



제 2 절 송설당의 생애

근대화와 식민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살았던 송설당에게는 몇 개의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신원설치의 한을 품 조선의 여성’, ‘이씨 왕조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보모’, ‘조선조 마지막 여류 한시작가’, ‘경북의 명문 김천고보를 세운 교주’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수식어가 탄생되기까지 그의 일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송설당의 일생은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다 이 분류는 송설당이 자신이 쓴 「松雪堂記」를 참고로 하였다.

‘소나무가 나에게 질문하여 말하기를 “어째서 하야나?” 눈이 말하기를 “희다고 하지 않겠느냐?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으니” 눈이 “너는 어째서 푸르냐?” “푸르다고 하지 않겠느냐? 뽀뽀 하면서도 늘그막까지 머금고 있으니” 겹게 되지 않는 것과 늘그막에도 지조를 머금고 있는 것은 그 취미가 서로 비슷하니 그들과 벗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청컨대 이 집의 주인에게 한 번 물어보자. 내가 이에 환히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우리 송설당을 아는가, 모르는가? 옛날 우리 선조 수우당 선생께서 기축년 옥사에 피해를 입어 자손들은 이로 인하여 저 시골구석으로 갔다. 선부군께서도 역시 남하하게 되자 나도 시골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바람 타고 씨가 날아와 생겨난 소나무였다. 장성해서는 조심조심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그 당시 나는 암벽에 뿌리박고 있던 소나무였다. 혼자 떠돌아다니며 한 양에 살 때는 겨울철 고개 위에 외롭게 살아가는 소나무였다. 시원스럽게 선조들의 한을 풀고 따뜻한 봄날을 회복하니, 그때 나는 우로(임금님)의 은혜를 흠뻑 받은 늙고 큰 소나무였다. 한

편 조상의 산소를 깨끗이 정돈하면서 추모의 정을 이기지 못한 그 때에 나는 조상의 산소에 부슬부슬 내리는 눈이었다.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여 근심하는 마음이 두근두근할 때, 그때 나는 그늘진 언덕에 내려 깨끗이 쓸지 못하는 눈이었다. 아침저녁으로 근심만 하며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생각만 했던 그 때 나는 밤하늘에 내리는 눈이었다. 흰 머리털로 거울을 바라보자 온갖 일이 상전벽해처럼 되었을 때 그 때 나는 하루아침에 천 길이나 쌓인 눈이었다. 내가 그들과 벗으로 지내려고 하는데, 자네는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겠는가? 푸르름과 흰 것이 흔쾌히 기쁜 얼굴로 서로에게 말하기를 친구와 잘 지내는 도는 사람만한 것은 없으니, 만약 진실로 사물 가운데 사람으로 주인을 삼으려고 한다면 사람 중에 송설이 알맞으리라. 사람과 소나무와 눈 세 가지 이로온 벗으로 삼게 되었다. 내가 처음과 끝을 기록하여 현판에 걸며 송설당이라고 한다.²⁸⁾

그는 「松雪堂記」에서 문집을 내기까지의 자신의 일생을 ‘신원을 하기까지’와 ‘신원을 받은 후’ 두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신원설치를 경계로 각각 자신의 당호인 소나무(松)와 눈(雪)에 비유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문집 발간 이전 까지만을 시기로 잡았으므로 그 이후를 또 하나의 시기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 제 1기 (1855년 ~ 1901년) : 苦難期

제1기를 송설당 스스로 네 시기로 세분화하고 있다.²⁹⁾ 첫 시기는 송설당이 몰락한 양반집의 장녀로서 훈장을 한 부친 밑에서 한학을 배우며 자라다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입을 벌기 위해 혼인을 하지만 파경으로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때이다. 이 시기는 어린 나이로 비교적 주어진 삶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

28) ‘松質于雪 曰奚白爲 曰非白歟 湟而不緇 還質于松 曰奚翠爲 曰非翠歟 鬱而含晚 曰不緇也 含晚也 趣味近與之友 何如 請質于堂之主人 余乃怡然而喜 惕然而悲 曰 子能知吾松雪否 昔吾先組守愚堂先生 被己丑獄事 子孫因鄉焉 先府君 亦南下 余落於鄉而生時 余風前子來之松也 長而憂虞 纏縻脫不得時 余巖酸盤根之松也 伶仃漂泊 家漢陽時 余冬嶺孤秀之松也 快伸先寃 陽春復回時 余雨露老大之松也 抑又瞻掃邱園 不勝愴慕時 余罪罪載塗之雪也 國恩未答 憂心忡忡時 余陰崖未消之雪也 夙夜祗懼 志切報國時 余因天夜到之雪也 皓髮對鏡 萬事滄桑時 余一朝千莖之雪也 余欲與其友子意何居翠白 欣欣然 有喜色 而相告曰 篤友道 莫人若固 願爲物中人而主人 其人中松雪歟 遂結三益之好 余記其顛末 揭之曰松雪堂’ (『松雪堂集』, 권1, 「松雪堂記」).

29) 前註 참조

만 결혼에 실패³⁰⁾한 후 媿家에 남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오는 행동은 범상치 않은 행보다.

송설당이 태어난 곳은 경북 김천이었으나, 그는 ‘古阜宅’이라 불리었다. 古阜는 송설당의 조부가 홍경래난에 연루되어 가문이 몰적 당한 후에 귀양 와서 자리를 잡은 곳이었다. 송설당의 부친은 고부에서 태어나지만, 부친과 첫 아내를 잃고 삼촌과 사촌을 의지해서 경북 김천시 문당동으로 옮겨 산다. 이 때가 1850년으로 5년 후에 송설당의 어머니를 재취하여 송설당을 첫딸로 낳게 된다. 1855년 무남삼녀의 딸이었던 송설당은 부친이 훈장으로 연명한 집안이었다. 송설당이 ‘고부댁’, ‘고부할매’로 불린 이유는 그의 부친이 고부에서 이주해 온 것이 그 집안의 특징이 되어 명명된 듯하다.³¹⁾

송설당은 서당 훈장인 부친의 영향으로 6세부터 16세까지 한문과 한글을 배워 당시 또래에 비해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가진 듯하다. 이는 그가 남긴 문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생전에 그를 안 측근들도 그의 묘비문에 그 실력을 언급할 정도였다.³²⁾ 또한 ‘내 기어이 좋은 아들을 낳아 원한을 풀고 말리라’는 부친의 소원³³⁾이

30) 송설당이 결혼에 실패한 원인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송설당의 유족이나 송설동창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에는 본인이 가문을 위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중의일보』(1930년 3월 15일 4/1~2 「金泉高普校 設立 積極 後援決議, 崔松雪堂 義捐金外 十萬圓 寄附金 募集 自進 寄附 逕至」)대담에서 ‘청춘에 홀로 되어’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본인이 쓴 漢詩 「記夢」에서 ‘남편을 잃은 몸이 되었다’고 술 회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쓰여졌다고 보이는 도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그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경상북도 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송설당과 관련 내용 중에 “홍년을 만나 어머니와 동생들이 끼나라도 잇게 하는 길은, 밥술이나 끓이는 집으로 시집가서 친정식구 먹여 살리는 수밖에 없었다. 교동 사는 백모라는 집으로 시집을 갔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남편 백씨가 죽었다.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봐서 시집을 갔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 후에도 김천에서 상경할 때 남편과 함께였다는 기사(『동아일보』 39년 8월 15일자)와 책(박성수, 「조선의 부정부패 그 멸망에 이른 역사」)도 있어 또 한 번의 부부의 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나 후학들의 자료는 본인의 생전의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경북도청의 기록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함.

31) 김천에 살면서도 고부에서 이주해 온 타향인으로 살았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송설당이 노년에 이룬 김천고보에서도 고부할머니로 불리었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가 김천고보에 가서 만나 본 친척 중 한 분도 그를 고부할머니로 호칭하였다.

32) ‘최원근은 여사의 수장비(壽藏碑) 서문에 ‘嘗聞女子有性이 大抵多偏하고, 且東俗에 婦人이 不讀書라 是以로 婦人而可狀考蓋鮮矣나 惟松雪夫人不然’이라고 한 것처럼 최여사는 과연 한문에 능통숙달하다 할 것이다’(최은희, 『추계최은희 전집』, 『개화의 문을 연 사람들』, 조선일보사, 1991년, p.293.- 이 글은 최은희 기자가 80년대 여성잡지에 연재한 글로서 62년에 한국일보에 쓴 기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최은희 기자는 송설당과 30여 년 중첩되는 세대로서 기자시절 그를 대담한 내용을 기초로 한 듯하다.

송설당 자신으로 인해 무너진 것을 깨달은 때부터 송설당은 ‘아버지, 사내가 아니라 고 아버지의 뜻을 풀 수 없겠습니까? 조상의 원한은 제가 꼭 풀어드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³⁴⁾ 그 후 송설당은 글 읽고 글씨 쓰고 바느질과 길쌈을 배우기에 여념이 없었다.³⁵⁾ 10여년 이어진 부친의 생업이 중단된 뒤 송설당의 집안은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웠다. 송설당이 23세 되던 해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아사지경을 겨우 넘겼을 정도였다. 그 후 출가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입 하나라도 덜고자 인근의 백모씨에게 시집을 가지만, 남편이 죽자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다. 이 시기를 그는 「송설당기」에서 ‘바람 타고 씨가 날아와 생긴 소나무’³⁶⁾라고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시기는 신분을 되찾기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든 아낙으로서의 삶이다. ‘암벽에 뿌리 박고 서 있는 소나무’³⁷⁾로 비유되고 있는 이 시기는 비유만큼이나 강한 인내심과 억척으로 치산에 매진한 후 어느 정도 재산이 모아지자 한양으로 거처를 옮기는 때까지다. 그의 치산의 목적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기 보다 가문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것이었다.³⁸⁾ 본격적인 치산은 40세까지 계속되는데 가문의 신원을 위해서 여자의 몸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재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장사는 물론, 남자가 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다.³⁹⁾ 그의 머릿속에는 궁궐에 선이 닿아야한다는 목표가 이미 세워져 있었던 듯 하다.

송설당은 조상들의 신원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한다. 부친이 훈장을 그만 둔 해가 1870년까지라는 기록으로 보아 그 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시집을 갔던 몇

33) 최은희, 「잊지 못할 여류명인-시문집을 최초로 펴낸 崔松雪堂女士」, 『한국일보』, 1962년 5월 17일자.

34) ‘年甫六七歲 側聞爺孃所言 則曾祖考護軍功公 以守愚堂八世孫 往在辛未 因群小構陷 歿于景來獄事 祖考司果公 坐謫古阜 卒于配所者 遽經幾十星霜 而顧此煢獨 未能挺身鳴冤 安敢曰有其孫也 幸腹中一魂 夢現異兆 故惟俟其嗣續之有人 乃誕非男是女 則吾門坎珂 何日湔滌死 難瞑目云 余時雖幼冲 聞輒愕然 乃自忖于心曰 家門有禍 爲祖雪冤 男女奚論 誓以至死必伸’(『松雪堂集』, 권1, ‘松雪堂序’).

35) 최은희, 앞의 기사.

36) 주28) 참조.

37) 주28) 참조.

38) ‘사대부의 집안이 일어서는 길은 과거시험이 전형이지만, 멸문의 화에 버금가는 별을 받은 처지에서는 그것은 아예 불가능하였다.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조상의 죄를 나라로부터 용서받는 일이 선결조건이었는데 자식들이 과거를 통해 관리로 진출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였다.’(김희곤, 같은 논문, p.22).

39) 『동아일보』 1939년 8월 12일, 「故崔松雪堂 女史의 四十九日祭를 當하야(一), ◇…金泉支局 一記者」.

해를 빼고 상경하기까지는 치산에 충력을 기울인 시기다. 그러면서도 부모님께서는 극진히 효양하고, 동생들에게는 우애가 지극하고, 가난한 친척은 돌보아 주면서⁴⁰⁾도 자기 일신에 대하여는 일전일리도 인색하여 근검저축으로 식산의 방도를 삼았다.⁴¹⁾ 상당한 부력이 생기자 부친과 상의하여 부친이 56세 되던 해 17세 되는 재종제 光翼을 아버지의 양사자로 맞아들이고, 그 해에 서씨 가문에 장가들여 조상의 향화를 받들게 함으로써⁴²⁾ 아들 없는 집안의 근심을 덜어주었다.

그의 나이 32세가 되던 해에 부친이 별세(1886)하여 전라도 咸平 新光面 三泉洞까지 운구하여 장례⁴³⁾ 지내는 남다른 효심과 역적을 보인다.⁴⁴⁾

그 후에도 노모와 여동생 둘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어모면 장터에 주막을 차렸다.⁴⁵⁾ 푼푼이 모은 돈으로 추수기에 쌀을 사서 뒷 곡식은 말곡식으로, 말곡식은 섬곡식으로 불려나갔으며, 다시 섬곡식은 토지로 바꾸었다. 논을 사고 밭을 사고, 1백석이 2백석이 되고 3백석, 4백석으로 점점 불어났다. 그 즈음 되면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일은 어렵지 않은 형편이 되었으나, 조상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돈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음식점 단골이 된 이용교와 같이 산다.⁴⁶⁾ 이용교의

40) ‘屏鳩錢財 會集宗族 可使以農者農 學者學而競惕度日者’(『松雪堂集』, 권1, ‘松雪堂序’).

41) 최은희, 앞의 기사.

42) 최은희, 앞의 기사.

43) 부친의 묘소가 있는 함평 마을에는 아직도 송설당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복권 후 아버지의 묘비를 세우기 위해 큰 비석을 여섯명의 일꾼들이 메고 온 일과, 송설당이 당도할 때 비단 양탄자가 깔려 궁중 왕족이 왔다고 할 정도로 화려했다고 한다.-함평 신평면 거주 이기홍씨의 구술.

44)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321.

45) ‘단순하게 근검절약했다거나 바느질이나 농사로서 유족한 정도의 재산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던 데에는 일반적인 행로를 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이런 형편은 1930년 5월에 발간된 『三千里』 잡지에 발표된 金壽吉의 글에서 “빈한한 書生의 가정에 태어나서 ... 직접 商路에 나서서 여러 방면으로 千辛萬苦를 하여서 ...”라는 대목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김희곤, 같은 논문, p.24), 또한 장사가 주막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요즘 표현으로 술집이었을 것이라는 증언들이 있다.

46) ‘전해지는 일설에는 송설당과 부부의 연을 가진 인물로 김천의 裴文玉과 상주 출신으로 오위장을 지낸 李瑒教가 있다.(박성수, 『조선의 부정부패 그 멸망에 이른 역사』, 규장각, 1999, 131~132쪽) 박성수의 책은 鄭煥德이 지은 『南柯夢』을 底本으로 삼아 당시 사회를 분석한 것이다. 정환덕은 경북 영천출신이자, 김천의 봉계 남전에 우거하다가, 1890년대부터 1908년까지 고종의 측근이면서 侍從院 副卿을 역임한 인물인데, 당시 고종을 중심으로 벌어지던 일화를 기록하였다. 『南柯夢』은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당시 덕수궁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망국의 과정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장면도 있어, 모두 허구로 돌려버릴 자료는 아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용교는 송설당과 일정 기간 부부 관계를 유지한 인물로 판단되지만, 송설당은 만년에 들어 그 사실을 말하

출세를 통해 가문의 신원 길을 모색한 듯 하다.⁴⁷⁾ 차차 재산이 모아져 친정에 먹을 것을 남겨두고, 이용교와 함께⁴⁸⁾ 조상 신원의 길을 찾아 한양으로 올라온다.⁴⁹⁾

고난기의 세 번째 시기는 약 3-4년간으로 한양에 입성한 송설당이 천신만고 끝에 엄비의 신임을 받아 보모가 되어 입궁할 때까지이다. 이 시기는 ‘겨울 고개 위 외롭게 서있던 소나무’⁵⁰⁾라고 쓰고 있는데, 상경했을 때 송설당 나이는 40세였다.⁵¹⁾ 그는 상경 후 경운궁 부근 누룩골(麴洞 현 무교동)에 거처를 마련하고,⁵²⁾ 우선 불교에 귀의하여 인근 사찰을 찾아 헌납을 하며 신원의 방법을 모색한다.⁵³⁾ 어느날 늘 다니던 봉원사에서 고종이 총애하는 엄상궁의 친정 동생⁵⁴⁾을 만난다. 엄상궁의 친정 아우와 깊이 사귀 그는 왕실에서 왕세자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눈치 채고, ‘왕세자 탄생을 기원하는 백일기도를 드려 엄비의 환심을 샀다’는 설과 ‘엄상궁의 거처에 드나드는 문상궁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아들이라는 태점을 쳐줄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송설당은 자신이 엄상궁의 生男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바라옵건대 해산 때 필요한 모든 물건은 소첩이 장만하여 올리려고 하오니 받아 주시도록 주선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이 소식은 엄상궁을 거쳐

기조차 꺼려한 듯하다.’(김희곤, 같은 논문, 재인용).

47) ‘여사는 무엇보다 자기를 행복하게 하자면 자기 남편을 출세시킴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동아일보, 1939년 8월15일자, 「고최송설당여사의 49제를 당하야」-김천지국 일기자).

48) ‘여사는 어릴 때부터 물질의 혜택을 풍부히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소녀시대로부터 온갖 艱苦와 가진 窮乏을 체험하면서 자기의 불행운을 한탄하는 연약한 몸으로 거처를 세파에 시달려 가면서 무엇보다도 일생을 걸어감에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바 있었다. 그리하여 여사는 병신년에 남편 李氏와 같이 서울로 이주를 하였다.’(동아일보, 같은 기사).

49) 경상북도 도청 홈페이지, ‘최송설당여사’.

50) 주28) 참조.

51) 『松雪六十年史』에는 39세에 상경한 것으로 나오는데 송설당의 대담기사(조선일보 1931년 1월1일자) 중에 ‘東學亂에 살 수가 없어 피해왔다’는 말에 주목하면 1895년을 전후로 상경이 이뤄진 듯 하다.

52) 金壽吉, 『崔松雪堂女史一代記 - 三十萬圓을 教育에』, 『三千里』 1930년 初夏號(5월), 49쪽. 그가 무교동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시기는 1907-1908년, 즉 궁궐에 들어갔다가 나온 직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1908년에 그의 거처가 麴洞, 즉 무교동이라는 사실은 당시 신문기사에서 확인된다.(『文明女士』, 大韓每日申報, 1908년 1월 18일자).

53) ‘그 때 여사는 長安大道上을 활보하면서 자기 남편의 출세시킬 길을 탐구하고 있다 한다’(동아일보, 같은 기사).

54) 이 글에 나오는 엄상궁 동생의 남편 李某 과장은 당시 전화과장으로서 고종의 측근으로 지냈다고 하는데 ‘남가문’에 기록된 李圭讚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름은 李圭贊인데, 어느 시기에 처음으로 발령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일단 1899년 6월에 通信司電話課長에 임용된 사실은 확인된다.(『관보』 1298호, 1899. 6. 27).

고종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출산 준비물을 최고급으로 해서 올리자, 영친왕 출산 이후 품계가 오른 엄귀인이 고부댁(송설당)을 불러 소원을 물었고, 그 결과 이용교가 창녕군수의 자리를 얻게 되고, 뒤에 김해군수를 거쳐 진주목사가 되기도 했다.⁵⁵⁾는 설이 있다. 어느 것이 진실이든 이렇게 엄비와 가까워진 송설당은 1897년 고종을 접견한 뒤 왕세자 은(후에 영친왕)의 보모로 임명 된다.⁵⁶⁾ 이로써 송설당은 40이 넘는 나이에 대궐에 들어가 녹봉을 받게 된다.⁵⁷⁾ 당시 실세였던 엄비의 친자이자, 왕의 사랑을 받는 왕자의 보모라는 자리는 권문세가들도 만만하게 볼 자리는 아니었다.⁵⁸⁾ 더구나 1907년에 영친왕이 황태자에 책봉된 것은 그의 지위를 더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을 게 틀림없다. 조선의 여성으로서 중년의 나이에 대궐의 나인으로서 녹봉을 받는 공인이 된다는 일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파격적 사건이다. 여성이 공직자가 되어 녹봉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향아로 입궐한 궁녀나, 의녀를 비롯한 노비들이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40이 넘는 양인의 아낙으로서 궁궐의 나인이 되어 녹봉을 받는 일⁵⁹⁾은 남성으로 치면 입신양명의 뜻을 이루는 것과 같다. 당시 여성의 입신양명은 사회적으로 원치 않는 것이었기에 방법도, 예의도 없었다. 궁궐 나인이나 궁인, 또는 중인으로서 뛰어난 기능을 소유한 자들이 노

55) 박성수, 『조선의 부정부패 그 멸망에 이른 역사』, 규장각, 1999, pp.140~146.

56) 송설동창회, 김천중고등학교, 『松雪六十年史』, 『교주편』, 1991, p.321.

57) 궁녀는 양민보다는 내수사 소속 노비층에서 주로 뽑았지만, 증언에 따르면 각 처소 나인의 여식이나 상궁의 친족 중에서 선정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궁녀의 충원은 각 처소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일단 뽑은 궁녀에 대해서 왕께 보고하여 그 숫자를 제한하였다. 또한 나이도 네 살 때부터 20세가 되기 전이 대부분이었지만, 아기처에 들어오는 궁녀일 경우는 40이 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신명호, 『궁궐의 꽃 궁녀』, 시공사, 2004, pp.114~124).

58) '조선시대 세자책봉은 여덟 살 전후로 이뤄졌으므로 세자의 궁녀들은 세자의 의지보다는 왕이나 왕비가 결정하는 일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세자에게 성심을 바칠 궁녀는 어려서부터 세자를 키운 유모와 보모만한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사실상 세자궁의 궁녀들 중에서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었다.'(신명호, 앞의 책, pp.88-89).

59) '유모의 경우는 공노비에서 선발되었더라도 봉보부인이 되면 자연 면천되었는데, 그 범위가 가족에까지 이른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공노비에서 일약 종1품의 봉보부인이 되는 왕의 유모는 신분적, 경제적 측면에서 조선시대 여성 중에서는 최고의 벼락출세라 할만했다. ...봉보부인이 매년 받는 쌀과 콩 60석은 당시 영의정보다 많은 규모였으며, 그 밖에도 옷값과 식비는 물론 노비까지 받기도 했다. ... 조선시대 왕의 유모나 보모상궁에게 최고의 명예와 현실적 실리를 준 이유는 자명하다. 신생아에게 젖을 먹여 키우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닦으며 키워 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유아 교육에서 유모나 보모상궁이 남다른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신명호, 앞의 책, pp.130~133).

동력 제공을 위해 입궁하거나 관가와 연계되어 녹봉을 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관노의 신분이 많았다. 그러나 송설당의 경우는 아주 특수하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고아한 인품을 지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품이란 한 순간에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보모가 될 만큼 준엄한 사대부가의 부인으로서 아이들을 키운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며,⁶⁰⁾ 궁중의 법도가 몸에 익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 송설당이 장차 조선의 대통을 이을 왕세자의 보모가 된 것은 여러 면에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의 보모로서의 역할은 부족함이 없었던 듯 하다.⁶¹⁾ ‘조상 신원’이라는 목적을 가졌던 송설당이 영친왕을 지성으로 받든 것은 물론⁶²⁾ 엄비와 고종에게도 물심양면으로 충심어린 행동을 보여주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봉원사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였다’고도 하고, ‘출산 준비물을 최고급으로 해서 엄비에게 올렸다’는 이야기는 모두 송설당의 계산적 의도를 반영하는 것들이다. 이런 송설당의 출세담은 ‘계단정책’에 비유되기도 했다.

‘우선 武橋洞에 집을 정하고 權門勢家の 부인들과 교제할 길을 뚫었다. 물론 그들의 남편을 통하여 고종황제께 자기의 뜻이 상달되기를 소원하는 階段政策인 것이다. 한편 진심으로 국운이 융성하고 영특한 왕자가 탄생되기를 축원하여 대찰을 찾아 불공을 드렸다. 때는 마침 엄상궁이 포태중이었고 이 말이 세도가 당당한 李某 과장의 부인인 엄상궁의 친정 아우에게 알려져 그를 사귀게 된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것이다. 최여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벼간 희망 속에서 백일을 하루같이 부처님께 치성을 하였다. 엄부인도 감동하여 형님 되는 엄상궁에게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엄상궁 역시 가상히 생각하고 있던 중 산월이 되매 최여사는 출산 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을 누락 없이 고급품으로 선택하여 엄부인을 통하여 엄상

60) ‘왕비, 세자빈, 후궁은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상궁들을 보모상궁으로 삼았다. 장차 왕이 될 원자의 보모를 뽑을 때는 관료들이 상소를 올려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보모상궁에게 요구되는 기본 심성이나 자질은 유모 못지 않았다. 왕실 사람들에게 어린 자식의 앞날이 달린 일이지만, 나라 사람들에게는 나라의 장래가 걸린 일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것이다’(신명호, 앞의 책, p.131).

61) ‘고종은 최여사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친히 보신 다음 근엄 단속한 태도에 혼연히 호감을 가지시고 즉시로 왕세자의 보모를 명하신 것이었다. 여사는 매사에 신중하고 민첩하여 황제의 신임을 얻어 송설당이라는 호를 하사받았고 조정중신의 부인들과도 익숙히 교제를 하게 되어 조야에서 여사의 세력이 떨치는 판이었다.’ 최은희, 앞의 기사.

62) 암죽을 끓이는 땀감으로는 마른 참깨대가 좋다 하여 시골에서 이를 손수 구해다 썼다 (『한국일보』, 1981년 5월 24일자, 『韓國庶民列傳<19>, 激動의 近代를 살다간 偉大한 韓國人들』.

궁에게 바쳤으니, 이것은 나라님께 진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영친왕이 탄생되고 엄상궁에게 귀비를 봉하게 되며 엄비는 이런 말씀을 고종황제께 주상하였고, 고종은 최여사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친히 보신다음 근엄단속한 태도에 혼연히 호감을 가지시고 즉시로 황세자의 보모를 명하신 것이었다.⁶³⁾

결국 그의 정성은 아들을 얻은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엄비로부터 고종에게까지 전달되었으며, 고종은 그에게 ‘송설당’이라는 당호를 부여하기까지 한다.⁶⁴⁾ 그 후 그 당호는 호가 되고 이름이 된다.

제 1기, 네 번째 시기는 송설당이 1897년 宮中女官이 된 이 후부터 1901년 조상신원의 꿈을 이룰 때까지이다. 송설당이 궁중에 줄을 대어 이루고 싶었던 일은 본인의 출세나 남편의 벼슬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신원이다. 그러나 처음 고종이 송설당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조상의 신원을 거론하지 않고 ‘서울 구경’이라고 말한 후에 엄비에게 향촌의 탐관오리들의 행패를 아뢴다. 이 해 고종은 부정부패 차원의 지방 수령 2백 명을 탄핵하여 고을마다 빈 수령자리가 남아돌 정도였다. 고종은 엄상궁으로부터 최송설당의 말을 듣고 ‘수령으로 나갈 사람이 누군지 기록해 오라’는 명령을 내려 이용교를 창녕 수령에 임명한 것이다.⁶⁵⁾ 송설당은 궁녀의 신분에서 1897년 4월 창원군수가 되고, 1899년 8월에 김해군수에 승진한 이용교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엄비가 있는 경선궁으로 보내게 한다.⁶⁶⁾ 결국 송설당의 용의주도한 계획은 伸冤雪恥의 목적에 접근하게 된다. 보모가 된 지 4년 만인 1901년⁶⁷⁾ 고종에게 조상 伸冤을 상소하여 그 해 11월 고종황제로부터 沒籍의 復權이 내려진다. 복권은 從弟 光翼에게는 正3品을, 재종형제 漢翼과 海翼에게는 6品관직을 내린다.⁶⁸⁾ 사면은 곧 그를 권문세가와 동격으로 올려놓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명실공히 사대부 여인으로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춘 송설당은 권

63) 최은희, 앞의 기사.

64) ‘여사는 매사에 신중하고 민첩하여 황제의 신임을 얻어 송설당이라는 호를 하사받았고’(최은희, 앞의 기사).

65) 박성수, 앞의 책, pp.144~146.

66) 김희곤, 앞의 논문, p.31.

67) 1901년은 엄귀인이 순비로 승격되는 때이기도 해서 송설당의 伸冤은 엄비의 힘이 많이 작용한 듯하다.

68)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322.

문세가와 교제를 트고, 막중한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앉게 된다. 이는 입신양명의 뜻을 이룬 사대부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이 시기를 송설당은 ‘우로의 은혜를 흠뻑 받은 늙고 큰 소나무’⁶⁹⁾라고 표현하고 있다.

2. 제 2 기(1902년 ~ 1922년): 家門復元과 報恩期

제2기는 신원이 된 뒤 문집을 내기까지이다. 이 시기도 송설당은 자신이 쓴 「송설당기」에서 네 시기로 분류하고 있다. 첫 시기(1902-1907)는 보모라는 궁녀 신분 때문에 행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던 시기로 영친왕이 볼모로 잡혀 일본으로 떠남에 따라 송설당이 출궁하는 시점까지다.⁷⁰⁾ 신분은 회복되었지만 궁궐출입이 자유롭지는 못했던⁷¹⁾ 송설당에게는 복권된 신분으로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몸이 된 시기이기도 하다. 결국 출궁 시기를 정확하게 밝힌 기록은 없지만 모시던 영친왕의 渡日이 1907년이므로⁷²⁾ 전라도 함평에 있는 친묘를 수축입석한 해가 1908년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대략 1907년 말이나 1908년 초에 출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남편 이용교는 김해에 이어 진주에서 군수를 하며 부정하게 축재를 하다가 공금횡령 사건(1905년)⁷³⁾에 연루되어 사직을 했을 때다.⁷⁴⁾ 이 시기를 송설당은 ‘조상의 산소를 깨끗이

69) 주28) 참조.

70) 송설당은 망국의 조짐이 나타나던 시기를 궁중 안에서 겪고 있었는데 자신이 모시는 황태자를 다른 나라의 볼모로 빼앗긴 관계자이기도 하다.

71) ‘한번 입궁한 궁녀는 원칙적으로는 평생 궁궐에서 살아야 했다. 게다가 궁녀는 휴가도 없고 사사로운 일로 대궐 밖에 나갈 수도 없었다. ... 그러나 효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사회라 부모 자식을 생이별시키지는 않았다. 그렇더라도 궁녀가 부모를 찾아가게 할 수는 없었다. 그 대신 부모 형제들이 궁녀를 보러 대궐 안으로 들어오는 건 허락했다. 이를 위해 궁녀의 본가에는 대궐 출입증인 신부를 하나씩 지급했다.’(신명호, 앞의 책).

72) 李王根傳記刊行會, 『英親王李根傳』, 共榮書房(동경), 1978, p.71~72, 재인용.

73) “『사법품보』에는 이용교가 1905년 진주군수에서 면직된 뒤 평리원에 간혀 조사를 받았는데, 23,000여냥의 공금처리가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최기영, 『최송설당의 삶과 민족 교육, 그리고 문학 토론문』, 최송설당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p.187).

74) ‘이용교는 창녕으로 부임한 뒤 1년도 못되어 수만금을 모았는데, 이는 창녕의 지세를 깎아 내려 집어먹는 수단을 쓴 것이다. 그 밖에도 그는 여러 부정한 방법을 써서 돈을 모았다. 그런데 이 돈을 모두 경선궁(임비의 처소)에 올려보냈다. 임비는 이 돈을 받고 말하기를 “먼 시골의 수령이 먹는 돈이 內職보다 백배나 되네”하고 감탄했다. 이듬해 이용교는 김해군수로 영전했는데, 창녕에서 하던 방법으로 돈을 모아 전액을 경선궁에 바쳤다. 그 뒤 2년이 못 되어 진주 목사로 승진하여 1백여만 금을 토색질하였는데, 이

정돈하면서 추모의 정을 이기지 못해 조상의 산소에 부슬부슬 내리는 눈⁷⁵⁾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2기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기(1908-1913)는 출궁 후 본격적인 가문복원과 사회 활동이 이뤄지는 시기이다. 송설당은 의연금을 내고, 불사에 헌납하는 등 사회활동을 시작한 동시에 종친회를 열고 墓事를 단장하고 문집발간 준비를 한다. 이 때를 송설당은 ‘임금님의 은혜를 받고도 갚지 못해 근심하는 마음이 두근두근하여 그늘진 언덕에 내려 깨끗이 쓸지 못하는 눈, 나라의 은혜에 보답을 아침저녁 근심하여 밤하늘에 내리는 눈⁷⁶⁾’으로 표현하고 있다. 평생소원인 가문 복권이 이뤄지자 그것을 해원해준 사람들에 대한 보은을 고민하는 시기이다. 송설당이 1908년 1월 의연금을 납부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한다.⁷⁷⁾ 동년 5월에는 그동안 미뤄졌던 친묘를 정비한다.⁷⁸⁾ 친묘는 전라도 함평 신평면에 있는데, 이 곳은 선산이 있는 곳으로 송설당의 조부 최상문의 묘소도 있다.⁷⁹⁾ 또한 花樹會를 열어 원근 宗親에게 田畝와 學資金을 주는 등 가문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12년에 무교동에 큰 저택을 짓고 옥호를 ‘松雪堂’이라고 懸額했다.⁸⁰⁾ 이 곳에서 문집에 게재된 詩歌작품들이 주로 창작된 듯 하다. 그만큼 이 시기는 자신이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많은 일을 하나씩 실현하는 시기이다. 또한 본격적인 치산과 사회사업이 진행된다. 남다른 능력과 지략으로 전국 곳곳의 땅을 사들여 부를 축적하였는데, 특

돈은 홀로 독식하여 경선궁에 보내지 않았고 그 돈으로 널리 부동산을 사들여 거부가 되었다. 이용교의 토색질로 이듬해 진주민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재빨리 사임하여 귀향했다.’(박성수, 『조선의 부정부패 그 멸망에 이른 역사』, 규장각, 1999, pp.146-147).

75) 주28) 참조.

76) 주28) 참조.

77) ‘麴洞居한 有志婦人 崔松雪堂이 共立新報를 購覽하다가 其慷慨激切한 議論을 恒常感歎不已하더니 今番 平壤에서 諸婦人이 共立新報捐助金 募集하는 趣旨書를 傳布하매 崔婦人이 同情를 表하기 爲하야 本社에 金四圓을 傳致하얏스니 該婦人의 文明에 有志는 참 感歎할만 하더라.」(『大韓每日申報』, 1908년 1월 18일자, ‘文明女士’).

78) 김희곤, 앞의 논문, pp.23~33.

79) 전라도 함평 신평면 송설당집안의 선산이 있는 동네에 전설처럼 전해오는 송설당의 修築立石 일화는 묘석을 메고 오는 행렬이 매우 화려하고 대단했다는 것과 땅에 비단을 깔고 지나갈 정도여서 임금의 행차 같았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듯 하다. 왜냐하면 그 때가 1908년이므로 송설당이 바로 궁에서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행차에 궁중분위기가 났을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부친과 조부의 산소였기 때문에 최고의 치장을 하였을 것이다. 구술자에 따르면 비석을 운반할 때는 두 명이나 네 명이 끄는 것이 보통인데 여섯 명이 끌었다는 점과 비석을 진주교도소에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함평군 신평면 거주 이기홍씨(65세) 증언(2004년 6월 28일 서울에서).

80)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322.

히 출궁할 무렵을 그의 재력이 가장 큰 규모로 갖추어진 시기로 보기도 한다.⁸¹⁾ 송설당이 거부가 된 전말에 대한 논의들이 무성하지만 가능성 있어 보이는 주장은 궁중에서 나오면서 엄비나 고종으로부터 토지를 하사받았다는 점이다. 또 1907년 영친왕궁 소속 토지와 문서가 경선궁(엄비 처소)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동궁전으로 이관되는 등 그 소속이 불분명했다. 이 때 일제는 황실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정리하여 황실의 재정적 기초를 해체시키려는 음모를 가지고 궁내부 및 경선궁 소속의 토지들을 국유로 이관하기에 이르는데 이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엄비가 교육사업에 투입하기도⁸²⁾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이 송설당의 토지 소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⁸³⁾ 특히 엄비가 1911년 갑자기 승하하여 미처 창원과 김해지역 등에 이용교와 관련하여 사놓은 경선궁 소유지에 대한 정리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문제기⁸⁴⁾와, 또 하나는 이용교가 지방수령을 할 때 엄청난 부정을 저질러서 축재한 것이라는 의견이다.⁸⁵⁾ 그러나 이용교가 부자가 된 후 송설당을 버렸다는 기록⁸⁶⁾도 있어서 둘의 사이가 나빠져 갈라졌던 시기로 볼 수도 있다. 송설당은 이용교에 대해서 끝까지 함구하여 둘의 사이에 있었던 전말을 자세히는 알 수 없다.

또한 송설당은 1911년과 1912년에 金海에 500석지기 토지를 매입하는 동시에 전국 30개 본사 사찰에 시주를 한다. 또 고향 김천보통학교, 금릉학원,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유지비를 기부하기도 했다.⁸⁷⁾ 송설당의 불가 시주가 불심과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엄비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엄비의 極樂往生을 비는 축원의 의미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김천에서 큰 뜻을 품고 상경하던 날 정화수를 떠 놓고

81) 김희곤, 앞의 논문, p.30.

82) '엄비는 사촌동생이자 당시 군부총장이던 엄준원에게 여학교 설립 분부를 내렸다. 경선궁 소속 재산인 강화군의 토지, 전답, 임야 등 1백 11만 8천 1백 54평과, 부친 토지 77만 5천 2백 42평 및 자하골에 있는 1천여 평 대지에 서 있는 큰 기와집 한 채를 재단으로 제공하였다.' (최은희, 『여성을 넘어 아낙의 너울을 벗고』, pp.110-111), '명신학교가 창립 5주년(1910년)을 지낸 다음 엄비는 경선궁의 재산이 된 용동궁과 신천토지 1백 60만 2천7백52평과, 과주토지 33만 8천21평, 재령토지 88만 2천1백51평을 내서서 확고한 재단을 세우고, 이름을 숙명여학교라 개칭했다.'(최은희, 앞의 책, p.112).

83) 김희곤, 앞의 논문, p.31.

84) 김희곤, 앞의 논문, p.30.

85) 『동아일보』 1939년 8월15일자, '故 崔松雪堂女史의 49일제를 당하야' 김천지국 一記者.

86) 박성수, 앞의 책, p.147.

87)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322.

하늘에 축수를 했다는 기록⁸⁸⁾에서 알 수 있듯이 송설당의 김천시절은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은 없었던 듯하다. 서울에 오면서 불가에 귀의했다는 기록⁸⁹⁾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전에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사찰 기도가 인연이 되어 엄비의 동생과 만나 궁궐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⁹⁰⁾ 것을 미루어 보면 처음에는 교제목적으로 절에 나갔으나 1907년 모시던 왕세자가 일본에 끌려간 일과 고종의 퇴위, 1911년 엄비의 승하 등이 불교에 몰입하게 되는 계기가 된 듯하다.⁹¹⁾ 그 후 송설당의 불심은 깊어져서, 1930년 2월에 김천고보 설립 계획을 확정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자신의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르고, 대청마루에 불상을 봉안하라는 내용⁹²⁾이 남아 있다. 육순이 되던 1914년에는 약을 복용하기 위해 청암사를 방문한 기록이 있으며, 청암사에 대규모 시주를 해서 불타버린 절을 재건하게 한 은인으로 알려져 있다.⁹³⁾ 이 밖에도 여러 사찰에 그 흔적이 남아있으며 북한산, 금강산, 청암계곡 커다란 바위에는 ‘崔松雪堂’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지금도 선연하게 남아있다.⁹⁴⁾

제 2기의 마지막 시기(1914-1922)는 지난 세월을 정리하는 시기이다. 1914(60세)년에 흥년이 들자 고향 교동(시집갔던 동네)의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벼 50석을 희사하여 소작인들에게 慈母로 추앙 받기도 했다.⁹⁵⁾ 또한 이 해에는 104년간 실천된 선천 정주 등지의 선조묘를 奉審하고 비석과 상석을 비롯한 石物을 모두 갖추고 제사를 지냄⁹⁶⁾으로써 60평생 가슴 속에 품어온 오랜 숙제를 해결한다. 1915년부터 문

88) '1894년 여사의 나이 40이 되던 해 그녀는 모부인께 조상을 위하여 설원할 자기의 구체적 방침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음력 3월 어느 날이었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목욕 제계하고 소복단장으로 정화수 한 그릇을 우물에서 떠다가 소반에 올려놓은 다음 두 손을 모아 “이번 일을 소원성취하게 해주소서.”하고 하늘을 우러러 축수 제배한 후 단신으로 길을 떠나 사고무친한 서울에 올라왔다.’(최은희, 『개화의 문을 연 사람들/최송설당』).

89) ‘先祖雪冤에의 비장한 각오로 上京, 누룩골에 거처를 정하고 불교에 귀의하며 雪冤祈禱를 드림’(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321).

90) ‘입궁하기 전에 그가 다닌 사찰은 서울 강남 무역회관 바로 뒤편에 자리잡은 奉恩寺로 알려진다.’(김희곤, 앞의 논문, p.35).

91) 송설당의 한시와 諺文詞藻에는 엄비와 고종에 대한 은혜에 대한 내용이 많다. 한시 ‘純獻貴妃輓’, ‘松雪堂原韻’이나 諺文詞藻의 감은(感恩), 자술(自述) 등에서 고종과 순헌귀비에 대한 보은의 간절한 마음을 그리고 있다.

92) 김희곤, 앞의 논문 재인용, p.36.

93) 김희곤, 앞의 논문, 청암사 인터넷사이트 재인용.

94) 김희곤, 앞의 논문, pp.35~39.

95)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322.

집을 편찬하는 22년까지는 어머니의 죽음과 고종의 승하, 3·1만세운동 등을 겪으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을 느끼는 동시에 60갑자를 넘긴 시점에서 새로운 목표 설정을 준비한 시기로 보인다. 60인생의 정리라는 면에서 『송설당집』의 발간은 송설당 인생의 분기점이 된다. 理想을 위해 목적지만 보고 달리다가 문득 자신의 흰 머리털을 보며 현실에 대한 자각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시점이다. 이 시기를 송설당은 ‘백발로 거울을 대하니 만사가 상전벽해 같았을 때, 나는 하루아침에 천 길이나 쌓인 눈이었다.’⁹⁷⁾고 회한하고 있다.

이 시기에 송설당은 京城婦人會⁹⁸⁾에 거금을 기부하고 日本赤十字社⁹⁹⁾ 특별회원이 되는¹⁰⁰⁾ 등 주변사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1908년에 공립신보¹⁰¹⁾를 위해 의연금을 낸 경우¹⁰²⁾와는 다른 양상의 사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립신보는 1905년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사는 한인교포들이 권익보호와 생활향상을 위해 낸 신문이라는 점이 국내의 정치색을 띤 잡지와는 달리 인식되었을 수 있다. 또한 1914년 고향 주민들의 구호를 위해 50석을 회사하면서 송설당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심적 변화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96) 문집에 실린 송설당의 한시와 諺文詞藻 등에 회갑이 되는 갑인년(1914년)을 맞아 음력 2월에 조카들을 경주와 선천에 보내어 104년 동안 잃어버린 조상묘를 찾게 하고 석물을 제작하여 기차로 운반, 수축(修築)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97) 주28) 참조.

98) ‘경성부인회’라는 명칭의 단체는 없었으며 1919년 3·1만세운동이 벌어지자 정신여학교 교사 신의경(1898-1988)이 서울을 거점으로 애국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결성한 단체로 경설애국부인회가 있다. 이 단체는 4개월 후 ‘대한민국애국부인회’로 재결성된다. 여기서 명하는 1915년의 경성부인회는 당시 경성에 결성되어 있던 부인단체를 모두 일컫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99) 일본적십자사 회원이 된 것에 대해서 친일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때는 국권상실로 인해 1905년 고종황제의 칙령에 의해 창설된 대한적십자사가 폐지되고 일본이 그 역할을 이은 듯하다. 대한적십자사는 송설당이 궁에 있을 때 설립되었으며, 1906년에는 고종이 친히 은사금 2만원을 내려 병원 진료업무까지 보았으나, 1909년 대한적십자사는 폐지되고 업무가 정지되었다.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가 정식으로 창설한 때는 1923년인 것을 감안하면 1915년 송설당이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제적 승인 없는 일본의 지부로서 운영되었을 뿐 조선인들의 창설정신이 이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00)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322.

101) 『共立申報』는 1905년 11월 22일 샌프란시스코의 교포단체 공립협회의 기관지로 안창호가 발간한 신문이다. 처음에는 교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2회 원고를 필사해서 발행했지만 1907년 4월 26일부터 순한글로 4단 4면의 신문을 주1회 활판인쇄로 발행하였다. 1909년에 국민회로 개편통합되었다.

102) 『대한매일신보』에 기사 게재, 주77) 참조.

없지만 자신의 발등에 놓인 불을 끄기에 급급했던 지난날과는 달리 어느 정도 여유를 되찾은 후라서 점차 주변상황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1917년에는 어머니가 별세한다. ‘淨財를 育英에 썬라’는 모친의 유지¹⁰³⁾를 따라 검약한 생활을 하며 고향 김천공립보통학교에 기부금을 내어 조선총독이 이를 포상하기도 하고, 금릉 유치원 및 금릉학원 등에도 유지비 기부를 한다.¹⁰⁴⁾ 1919년에는 김천 고성산록에 정결재를 짓고 김천에 내려올 때는 이 곳에서 거주하며 사람들을 만났다. 당시 다른 가옥형태와는 다른 Ⅱ자형의 1층 기와집으로 전면은 石柱에다가 압록강 紅白松으로써 전부가 목재이며 흙벽이 없는 것이 특색¹⁰⁵⁾이었다. 건축비가 5만원 정도로 김천고보 설립시 본관 건축비와 거의 맞먹는 것이었다는 증언이 있다.¹⁰⁶⁾ 검약했다는 그가 호화로운 주택을 지은 데는 이유가 있었던 듯 하다. 일본에 있던 영친왕이 경성을 갈 때 키워준 보모 송설당을 뵈러 온 적이 있었다는 기록¹⁰⁷⁾을 보면 그를 맞이하기 위한 장소로 마련된 듯도 하다. 이 집은 만해 한용운의 자문을 받았다¹⁰⁸⁾하는데 6·25때 소실되었지만 김천고보 뒷산에 그의 묘소와 함께 터가 남아 있다. 묘소도 정결재를 지은 1년뒤 자리를 잡아 가묘를 설치했던 곳이나, 지금은 학교가 한 눈에 보이는 곳이다. 1935년 정결재를 보조하기 위해 지어진 안채 취백헌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송설당이 식사하던 곳으로, 그의 일상생활을 뒷바라지 하던 가족과 친인척이 살던 곳이다.¹⁰⁹⁾

1922년에는 문집을 편찬, 그동안의 절곡의 삶을 정리했다. 김윤식으로부터 序를 받은 때가 1914년이였다. 序跋은 미리 받을 경우도 있으나, 序에 작품 총평이 실린 것으로 보아 이미 게재될 작품이 완성된 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판된 때가 8년 뒤로 송설당이 자신의 환갑을 기념하여 기획한 문집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계획보다 8년 늦게 출간된 것은 허가가 늦어진 듯하다. 결국 1922년 12월에 『송설당집』

103)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322.

104)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322.

105)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내가 본 松雪堂 -鄭煥玟(前 庶務課長)-」, p.362.

106) ‘북쪽을 바라보는 산기슭에 북향으로 세워졌는데 중앙에 마루가 있고 양편에 대청으로 방과 마루를 각각 하나씩 두었다. 왼쪽 안쪽 방이 송설당의 안방이고 그 앞은 응접실이었으며 반대편은 주로 서재로 사용되었다.’(김희곤, 앞의 논문, p.42).

107)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322.

108)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322.

109) 김희곤, 앞의 논문, p.42.

3권 3책을 발간하여 세계 각국 도서관¹¹⁰⁾에 보내었다. 문집을 발간한 해에 松雪堂은 李仁과의 대담에서 육영사업에 뜻이 있음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계획한다. 이는 어머니의 유훈의 영향 뿐 아니라, 3년 전 '貞傑齋'를 지을 당시 巨海의 '捨少取大'를 강조한 조언이¹¹¹⁾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3. 제 3기 (1923 ~ 1939): 社會還元期

사실상 사회 환원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기부행위는 1908년 출궁 후부터 몇 차례 이뤄진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육영사업에 기부하는 시기는 문집 발간 이후부터 말년까지라 할 수 있다. 송설당은 처음에는 학교를 건립할 계획은 없었던 듯 하다. 김천고보 건립 계획이 알려진 1924년에 송설당은 50원의 의연금을 냈을 뿐 달리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김천고보를 설립하고자 한 김천 지역 유지들이 애를 썼지만 큰 효과 없이 잊혀질 무렵 송설당은 1926년에 "國恩에 보답코자 사회사업에 투자"를 결심하고 재산을 풀어 고아원과 유치원 설립을 돕는일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자기의 재산을 푸러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모든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남자는 세상에 만히 있지만은 그러나 여자로서 더구나 조선의 여자로서는 아득까지 이러한 사업을 하라는 사람을 얼마 보지 못하였는데 시내 무교정(武橋町)에 주소를 둔 최송설당(崔松雪堂)녀사는 방금 칠십이세의 고령(高齡)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재산의 전부를 사회덕(社會的) 사업에 희성하려고 결심하여 혹은 고아원(孤兒院) 혹은 유치원(幼稚園) 등을 설립하여 세상에 부모 업고 어려운 가업슨 아이들을 위하여 또는 어린이들의 교양을 위하여 로래(老來)의 몸을 바치고 가진 바의 물질(物質)을 희생하라 한데 이와가튼 가혹한 계획을 하는 전귀 최송설당(崔松雪堂)은 본시 십칠세 시에 녀관으로서 고종태황제(高宗太皇帝)의 무한한 총애를 받던 중 또한 자기로서 장래의 세상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구든 결심 아래에서 근검치산(勤儉治産)을 한 결과 지금은 수십만원의 재산을 모았는 바 오직 자기에게는 사랑하는 딸도 업고 아들도 업는 중 또한

110)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322.

111) '송설당과 막역지간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도 소의를 버리고 대의를 취하라는 「사소취대(捨少取大)」 정신을 촉구했고, 개인의 극락왕생보다 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육영사업에 큰 뜻을 세워달라고 부탁했다.'(『대구매일신문』, 1998년 8월 12일자, '발굴, 여성운동 대구 경북1백년-최송설당여사').

순종황제(純宗皇帝)께서 니어 승하하심으로 그 때의 애통을 말할 것도 업거니와 이제는 다시 왕가(王家)에 대한 봉공도 곳을 막은 동시에 거룩하신 은혜를 입어서 모흔 재산을 또한 은혜로서 베푸러 국은(國恩)을 갚고 사회를 위하라는 마음으로 전과와 가터 모든 사업을 계획하라는 바 본시 텃성이 자선심(慈善心)에 풍부하야 어려운 소작인(小作人)들에게는 일년 추수를 그대로 내어주고 심지어 부리는 사람들에게 까지라도 어려운 사정을 돌보아줍니 그네들의 친부모보다도 다를 것이 업다 하야 일반은 녀사에 대한 청송이 자자하더라.¹¹²⁾

이 때 김천고보 기성회원이며 사범서사인 李漢驥씨¹¹³⁾에게 김천고보 창립 계획을 듣지만, 자기의 재산으로는 독자적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착수하기를 꺼렸다. 어느 인사가 ‘얼마동안 식리(돈놀이)를 하여 충당하라’고 권하는 말을 듣고 여사는 ‘학생은 민족의 장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상징인데 어디까지나 육영사업은 淨財로써 하야야 한다’고 편잔을 주었다¹¹⁴⁾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때 이한기의 권유가 계기가 되어 어느 날 학교 설립비로 저축해온 재산을 법적 寄附採納하기 위해 변호사 이한기씨에게 정리를 의뢰한다. 그 후에도 1929년에는 금릉학원과 금릉유아원에 기부¹¹⁵⁾를 한 후 1930(76세)년 2월에 이한기씨와 김천고보설립에 관한 계약을 맺고 2월 25일 학교설립을 위해 30만 2천백원을 회사하는 취지가 일간 신문은 물론, 잡지에 보도된다.¹¹⁶⁾

무엇이 장한 일이라고 할 것이 잇겠습니까. 내가 청춘에 홀몸이 되어 젊을 때는 바누질 품과 리와 삭일을 하야 가진 고생을 다해가며 얼마의 재산을 모호고, 언제라도 내가 죽기 전에는 이와가튼 공공사업에 힘을 써 보겟다고 벌써부터 각오가 잇섯습니다만은 뒤불니어(?) 일어나는 집안에 분주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와가터 늦게야 결정하게된 것이 올시다. 금번에 계획한 학교는 특히 젊을때 고생사리로 잇지못할 김천땅에 세울 터로 처음은 백석거리 토디만은 내어두고 전부를 되려 노릇습니다마는 토디갑시 점점 쪼러지고보니 재단법인될 금액에 부족이 생김

112) 『조선일보』, 1926년 11월 16일자, ‘자기가 모은 재산을 푸러 고아원 등을 설립하라고’.

113) 『한국일보』, 1981년 5월 24일자, 「韓國庶民列傳<19>, 激動의 近代를 살다간 偉대한 韓國人들」.

114) 최은희, 『한국일보』 1962년 5월 24일자, 「잊지못할 女流名人들」.

115) ‘김천 황금당 최송설당녀사(崔松雪堂女史)는 종래로 공공사업에 만흔 공헌이 잇서오든 바 이번에도 김천 금릉학원(金陵學院)과 금릉유치원(金陵幼稚園)에 일백원씩을 기부하얏습스로 일반은 그의 특지를 칭송한다더라’ (『동아일보』, 1929년 9월 18일자).

116) 최송설당기념사업회 엮음, 『松雪堂集Ⅱ』, 『최송설당과 김천고등보통학교관련자료 모음』, 도서출판 명상, 2005.

으로 지금은 내가 현재 거처하는 이 집을 내어 두고는 전부 다 바칩니다. 나의 생활비도 재단
으로부터 얼마씩 주는대로 어더쉴 터입니다. 실로 적년 바라든 소망을 달하고 보니 얼마나 유
쾌한 지 모르겠습니다. 압호로 만히 도아주심을 바랍니다. 117)

끝이어 성명서118)를 발표하게 된다.

聲明書

金泉은 吾胎地也 | 라. 此郡은 蓋嶺之衡要而人物之盛이 作一大都會也라. 余自京城으로 有時往
來於松亭에 見湖山이 秀麗하고 可知英材之鍾出이 有倍於矯南列郡이나 然이나 教育階級이 尚未
免幼稚者는 實緣資金之難辨이라. 有志者 | 以是로 爲恨이 久矣로다. 噫라 吾先世不幸하야 家禍
孔慘하야 余 | 生面爲女子하야 孤露終鮮하니 不幸而又不幸也 | 로다. 自髮亂으로 決志於爲祖仲
雪하야 誓不嫡人하되 在親家養慈母하야 勉鳩財하야 專意報先이 經數十星霜矣러니 至光武辛丑
에 泣血叫魂하야 獲怒天日於覆盆之下하야 快拓宿怨하야 幸遂初志하고 因伐石祖衛墓道하며 置
田而奉香火하야 庶効微誠하니 死無餘憾 而環顧一世에 慨然與歡하야 有不能自己者焉이라. 窃念
社會之發展이 在於人材之教育하고 教育之擴張이 未必不係於財政之區劃이로다. 今若緣於財出
하야 當其所當爲 而未達其目的 則是可曰社會急務上 盡其責者乎아. 茲捐金參拾萬貳千壹百圓하

117) 『중외일보』, 1930년 2월 6일자, 「崔松雪堂女史의 美舉 - 무교당 자택으로 방문한 귀
자와 대담 - 30만원의 散財」.

118) 『동아일보』 1930년 3월 5일자, 성명서와 함께 김천고등보통학교(高等普通學校) 창립사
무집행자 이한기씨가 발표한 포고문(布告文)은 다음과 같다.

(布告文)

矯南之金陵은 我東名鄉而儘人物之府庫也 | 也라. 山川이 鍾淑하야 多出英材나 教育階
級이 尙未免幼稚程度故로 有志諸氏 | 慨然乎此하야 第觀位置之便宜와 期會之適當하야
計設中學校하야 經紀已有年而以基本金鳩聚之無路로 及今未遂者也 | 러니 松雪堂崔婦人
이 觀此狀態하고 激然有奮發之志하야 特捐三十萬餘圓金巨額하야 專擔中學校設立經費하
고 一切進行方法을 委任於鄙等일새 茲不揆淺劣하고 今當着手於該事務하야 方在計劃中
矣라. 猶歎休哉인저 崔夫人之特行奇節은 振耀當世에 實有萬丈夫難能之事而其他表表事業
이 可爲模範者 | 據古今史에 固未知多見其匹美也矣로다. 若其舉大略컨댄 婉淑而端莊은
夫人之壺範也요 濃艷而古雅는 夫人之詞藻也요 挺身叫閭하야 快雪先寃은 夫人之盡其也
孝也요 竭心保家하야 矢不適他는 夫人之守其貞也요 堅碣置田은 夫人奉先之誠也요 傾困
散廩은 夫人圖窮之義也 | 라. 凡茲篤行高義는 雷人耳目하야 現代之所共欽 歎而誠服者矣
라. 不必縷縷而今此出資設校는 夫人之特別義務也 | 로다. 惟我社會上嘉惠之幸이 不啻若
昏衢揭燭이요 陰崖發榮이라. 聞風興感하야 萬口同聲으로 攢賀不已로다. 鄙等이 既受專
托하고 罔知收圓하야 茲敢略述便概하야 仰告于同志紳士하노니 統希照亮하소서.

昭和五年

三月三日

金泉郡 金泉面 大和町 二百五十九

番地의 一

財團法人 松雪堂教育財團金泉高等普通學校創立事務執行者
李漢麒 崔錫台 崔東烈 文昌永 高德煥 金鍾鎬 曹相傑

야 以助金泉中學校設立之資하노니 務望僉位는 函圓成就하야 俾有少補於世教風化之萬一하노
라.

昭和五年 二月 二十三日

京城府 武橋町 九十四番地

崔松雪堂

위의 내용이 그것이다. 불교신자였던 송설당은 말년에 해인사에 시주할 생각도 있었다.¹¹⁹⁾고 한다. ‘일제 치하 전국 30개 교구본사에 불구와 불기를 기증할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송설당은 애시당초 전재산을 모 사찰에 시주할 작정이었다. 그때 여사는 73세였고, 후세가 없어 들인 양자마저 패륜아로 일부 넘겨준 재산을 다 날려버리자 파양을 선언했고, 독신으로 살면서 인생의 쓴맛과 무상함을 절실하게 느꼈던 터라, 이생 대신 내세를 보장받는 극락왕생을 원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었다. 더구나 여사의 주변에는 민족 지사들 못지않게 당대 고승들도 많지 않은가. 그러나 당시 여사가 기부처로 여긴 절의 주지가 친일 성향을 지녔던 점과 민족의 앞날을 밝힐 동량을 키워야한다는 소명의식이 오버랩되면서 송설당의 재산은 육영 사업 쪽으로 선회하여 기부했던 것이다.’¹²⁰⁾ 당시 해인사 주지가 불교계의 대표적인 친일분자라는 점 때문에 고보설립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¹²¹⁾고 한다. 송설당의 기부 소식에 김천고등보통학교후원회가 조직되는 등 서울 중심으로 세워졌던 사학이 지방에도 세워진다는 기대감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일제는 실업계 학교 인가만을 내 줄 수 있다 하여 인문계 고등학교를 고집하던 송설당에게 거부 의사를 밝힌다. 송설당이 인문계학교를 고집했던 이유는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역군들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고 올바른 정신을 찾아가는 인재여야 한다는

119) ‘1928년 이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73세의 松雪堂이 고향에서 사법서사를 하고 있던 李漢驥를 불러 기부행위를 위한 재산목록작성을 의뢰했으며, 기부처를 수소문한 결과 陝川 海印寺에 시주하라는 것이었다. 기성회측은 李漢驥와 高德煥을 서울 武橋洞 松雪堂 자택으로 보내 기부처를 바꿔줄 것을 간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萬海 韓龍雲 愛山 李仁 등의 힘을 빌어 1930년 2월 23일자 마침내 松雪堂으로부터 전재산 32만원(전답 1천5백 마지기과 현금 10만원)을 기성회에 회사하겠다는 결심을 얻어냈다.’ (『한국일보』, 1981년 5월 24일자 「韓國庶民列傳<19>, 激動의 近代를 살다간 偉대한 韓國人들」).

120) 『대구매일신문』, 1998년 8월12일자, 「발굴... 여성운동 대구·경북 1백년, 최송설당 여사-中」.

121) 김희곤, 앞의 논문, p.45.

생각 때문이었다.

송설당(崔松雪堂)녀사가 전재산 삼십만원을 내던지어 금천(金泉)에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고서 괴성회를 조직해 가지고 도를 경유하여 총독부에 그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무부(武部) 학무국장은 '실업학교가 아니면 허가할 수 없다'는 의향을 가지었다 하여 지금까지 인가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분개한 재단관계자는 차라리 그 계획을 내어버리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까지 되며 사회의 비난이 분분하여, 이 문제는 장차 어떠한 결과를 비저널가하여 자못 의심품은 주목을 아니할 수밖에 업든바, 122)

각 신문들은 이런 송설당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송설당여사의 일대기를 특집으로 다루는 등 사회 쟁점이 되기도 했다.123) 이런 기사에 대해서 총독부 무부국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124) 실업계나, 보통학교나를 결정하는데 1년여 걸렸으나,125) 송설당이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일제 총독부는 1931년 3월 17일 사립 인문계 김천고등보통학교 설립 인가를 내 준다.126) 그러나 학교건축기

122) 『동아일보』, 1930년 10월 21일자, 「不許可로 世論沸騰은 金泉高普校 實現, 사십만원을 적립해 노렸는데 허가를 안해 비난을 맞은 사건, 實業教育의 前提로」.

123) 『三千里』, 初夏號(1930년 5월 1일), 金壽吉, 「崔松雪堂女史一代記 - 三十萬圓을 教育에-, 특집 기사-이 무렵, 일제는 실업계 학교 강요, 송설당은 인문계 학교(고등보통학교, 줄여서 '고보'라고 부름) 설립 투쟁 전개, 『조선일보』, 1931년 9월 20-21일자, 「향토 교육을 고조하는 金泉高普校를 차저. 『조선일보』, 1930년 5월 13일자, 「김천고등보통교 학제 변경을 중용. 『조선일보』, 1930년 5월 18일자, 「고보학제 변경에 절대 불응 결의·고보가 아니면 기부취소할터. 『조선일보』, 1930년 5월 22일자, 「김천고보 인가로 又復 道에 陳情. 『조선일보』, 1930년 6월 2일자 「實業校主張하든 것 道에서도 問題轉換. 『조선일보』, 1930년 6월 5일자 「당국 기정방침으로 김천고보를 불허. 『조선일보』, 1931년 2월 5일, 「재단법인 송설당교육재단 인가」.

124) '세상에서는 금천(金泉)사립고등보통학교인가를 허가하지안한다고 여러 가지 비난이 잇스나, 나는 그설립을 불가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확일적으로 고등보통학교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지방에 적당하게 제도를 고치는 것이 조캬다고 생각한 바로 이문제로 문부성과도 교섭한 결과 내락(內諾)을 어뎛슴으로 래년 신학기까지는 개교하도록 인가를 할 작정이외다. 그런데 그 제도를 고친다는 것은 교명은 고보로 하되, 그지방에 필요한 실업과목의 교수시수(時數)를 만히 너히 교육의 실업화를 하자는 것인데 금천만 아니라 다른 고보나 중학에도 장차 점진적으로 개혁할 작정이외다. 이와가튼 현행제도를 개혁 하더라도 상급학교와의 연락은 손색이 업도록 하지요. 어썸든 나는 교육의 확일제를 실행하는 사람이외다.' (『동아일보』, 1930년 11월 12일자, 「實業課目 너히 明春엔 開校도록」, 【劃一的教育엔 不贊成】 ◇武部學務局長談).

125) 최송설당기념사업회 엮음, 『松雪堂集Ⅱ』, 「최송설당과 김천고등보통학교관련자료 모음」, 도서출판 명상, 2005.

126) 『조선일보』, 1931년 3월 17일자, 「사립 인문계 김천고등보통학교 설립인가 받음(총독부 고시 제145호), 校章 제정」, 『동아일보』, 1931년 3월 21일자, 「金泉高普校 正式로 認可」.

금이 부족하게 되자 자신의 서울 무교동 집을 내놓는 열성까지 보인다.¹²⁷⁾ 이런 과정에서 송설당은 고향 김천에 금의환향할 수 있었으며 당시 수많은 환영인파가 나와서 만세를 불렀던 길이 지금도 ‘송설로’로 명명(1981년)되고 있다.¹²⁸⁾

김천 고성산록 정결재 부근의 땅을 학교 부지로 선정해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를 짓고 학생모집을 했다. 첫째 5학급만이 인가되어 모집한 학생은 6대1의 비율이란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1931년 5월 9일 강당 낙성식과 함께 입학식이 거행되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송설당의 사회적 명성은 학교 인가를 둘러싼 일로 널리 알려져,¹²⁹⁾ 그의 주위에는 당시 각계 사회 인사들이 모였다. 초대 교장에는 당시 경성중등학교 교무주임이었던 안일영씨가, 교무주임에는 교장과 같은 학교에 재직했던 鄭烈模씨가 취임했다. 이듬해 교장에 취임한 정열모교장이 송설당 사후인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피검되자, 김천고보는 강제 폐교를 당하고 한 때 공립화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송설당은 학교 옆에 지어진 정결재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학생들을 치하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늘 정성을 쏟았으나, 학교 운영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은 듯하다. 월급으로 매달 200원씩을 재단으로부터 받았지만 후에 그 돈들이 다시 학교를 위해 희사되었을 뿐 아니라, 틈틈이 독립운동 자금을 대는 등 독립운동을 비밀리에 후원¹³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7) 『동아일보』, 1930년 11월 12일자 「二萬餘圓의 住宅까지 提供, 金泉高等普校의 校母-崔松雪女史의 熱誠」.

128) ‘송설당은 1894년 3월, 40에 상경하여 36여년을 살던 정든 서울 무교동 私邸를 떠나 1930년 6월 29일 꿈에도 그리던 고향 金泉에 錦衣還鄉하는데 여사의 위대한 뜻에 敬意와 感謝를 표하려 김천역 광장에 나온 수천 김천읍민과 금릉군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 그 날의 환영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교 50주년 기념사업(1981년)의 일환으로 김천역에서 김천고보 정문까지의 도로를 松雪路로, 정문에서 송정까지를 松亭路로 命名하였다. 이는 시내도로 命名의 嚆矢였다.’(김한수<고보3회졸>,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創校 60년을 돌아보며」, p.367).

129) ‘최송설당 등의 사회봉사자들의 가룩한 행위가 西洋式 個人主義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傳說的 朝鮮精神에서 나온 것임을 기뻐하였다.’(『東光』, 6월호(1932년 6월 2일), 李光洙, ‘옛 朝鮮人의 根本道德 全體主義와 求實主義 人生觀’, ‘평양의 백선행여사를 위시하여 김정해, 왕재덕, 조성신, 김인정, 최송설당, 박주성, 김진홍 제여사와 기타 남자들의 기부 예찬’ (『開闢』, 제2호(1934년 12월 1일)에서 金東秀, ‘부호의 각성과 사회사업 예찬’).

130) 송설동창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송설당의 생애와 업적에 ‘1935년, 이 무렵 독립운동가 지원한 듯함’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일제의 감시를 피해 이뤄졌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은 듯하다.

송설당이 사망하기 4년 전인 1935년(당시 81세) 교주 송설당 동상 제막식이 있었다. 이 날 행사에는 천 여 명의 인사가 참여하였는데, 그 중 민족지도자들이 총 망라되는 등 이 날의 성대함을 당시 신문들이 앞다퉈 기록하고 있다.¹³¹⁾ 송설당은 치사를 하는 가운데 특별교실(과학관) 건축비를 위해 2차 회사의 뜻을 밝혀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놀라게 했다.¹³²⁾ 1939년 85세의 나이로 영면한 송설당은 유언으로 '길이 사립학교를 육성하여 민족정신을 함양하라. 잘 교육받은 한 사람이 나라를 바로잡고 잘 교육받은 학생 한 사람이 동양을 편안케 할 수 있다. 마땅히 이 길을 따라 지키되, 내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 동안 저축한 교주 소유의 동산·부동산 등 나머지 전 재산을 학교에 편입한다며 제3차 기부를 해 재단을 다시 한 번 놀라게 했다. 이에 재단측은 오히려 가문 친척들에게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¹³³⁾ 장례식은 교주 학교장으로 거행되었다.¹³⁴⁾ 그가 남긴 김천고보는 51년 9월 1일 학제개편으로 고등학교와 중학교로 분리되어 오늘날 경북은 물론 전남, 충북 등 3개도 90여개 중학교의 우수학생들이 입시경쟁을 벌이는 명문고가 되었다. 김천중고교는 송설당의 기일을 휴교일로 정하고 있는데, 전교생 모두가 가방 없이 등교하여 제사를 지내고 가는 것이 전통이 되고 있다.

송설당의 생애를 그가 문집에 남긴 「송설당기」를 중심으로 크게 3기로 나누어 살

131) 1935년 11월 30일, 「교주동상 제막식 거행(제작자 : 金復鎭), 국내의 민족지도자(宋鎭禹·呂運亨·方應模·白南薰·崔奎東·李仁)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000여명 참석, 金性洙·韓相龍·曹萬植·張利郁·俞億謙 축전」, *呂運亨(조선중앙일보 사장) 기념사 *宋鎭禹(동아일보사장) 축사 *方應模(조선일보 사장) 축사 *李仁(변호사) *朴大輪(승려) 등이 있었다. - 1935. 11. 30자. 『조선일보』 사설 '김천고보의盛事', 『동아일보』 1935년 12월 1일자, 사설 '거룩한 최송설당', 『조선일보』, 1935년 12월 2일자, 사설 '최송설당 여사의 장거', 1935년 12월 5일자~ 8일자, '최송설당여사 동상제막식 소감' -특집기사 4회 연재, 이밖에도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등 송설당의 민족 교육 사업을 대서 특필했다.

132) 『동아일보』, 1935년 12월 3일자, 「三大記念을 機會로 餘生의 手財마자 喜捨, 三萬圓을 特別敎室建費 自擔, 金泉高普와 崔松雪堂」.

133) 『동아일보』, 1939년 8월 17일자, 「故崔松雪堂 女史의 四十九祭를 當하야(四)-金泉支局 一記者」.

134) 7일장으로 엄수된 장례식은 수백으로 헤아려지는 만장과 조화, 3백통의 조진, 수만의 인파로 해서 이 지방에서는 전무후무한 규모로 진행됐다. 재학생 과 동창생 3백여 명이 악대 뒤를 따르고, 만장과 화환을 앞세운 동창생의 운구대 뒤에 수천명의 조객이 김천고보 발원 현장에서 장례식장(공설운동장·현 모암 초교)까지 끝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어졌다. 묘소는 학생들을 굽어보는 학교 뒷산에 위치해있다. (『대구매일신문』, 1998년 8월 12일자, 「발굴... 여성운동 대구·경북 1백년, 최송설당 여사-하」).

펴보았다. 송설당 자신이 문집을 내기까지의 자신의 생을 소나무 [松] 와 눈 [雪] 에 비유하여 두 시기로 나눈 것을 참고로 하여 문집 출간 이후부터 사망까지를 3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의 전 생애는 경계인의 삶이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공간적, 신분적, 경제적, 성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극의 삶을 산 인물이다. 대립적인 양극화가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공간, 즉 김천과 서울의 삶이 49년 : 35년,¹³⁵⁾ 전통적 습속의 생활과 근대계몽의 사회 분위기가 40년 : 44년, 상민과 양반이 46년 : 38년, 조선과 일제(을사조약 기점)가 50년 : 34년, 가난한 삶과 부호의 삶(1901년을 기점)이 46년 : 38년, 여성(1910년)과 남성화된 여성이 55년 : 29년 정도로 양쪽을 충분히 경험한 인생이다. 그러나 거의 반이 전통적 유교의식을 존중하고 실천하며 살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면, 나머지는 그것을 박차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머지 생은 과업의 완성에 주력한다. 또한 나라의 주권상실로 인해 자신이 일생을 바쳐 이뤄낸 과업의 의미가 희석되어가는 새 이념의 도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가문 재건에 매달렸다. 또 누구보다 근대의 바람을 정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몸에 배인 전통적 습속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근대사회 현상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도 않았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의 나이가 이미 50이 넘은 때여서 신여성들처럼 적극적으로 근대 문명의식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반부의 그의 인생의 전격적인 변화는 여자도 사회 전면에 나설 수 있으며,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상경하기까지 송설당에게는 여자는 사회적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송설당이 남편과 함께 상경한 것은 여성의 몸으로는 직접 가문의 복권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남편의 입신양명을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지했고 실제 스스로 목적을 이루었다. 당시 송설당이 지냈던 궁궐은 근대의 모든

135) 서울에서 김천으로 거처를 완전히 옮기는 때가 1930년 6월이다. 그러므로 서울생활은 대략 36년간이다.

조짐이 매일 새롭게 전개되는 곳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며 그 연장선에서 후반기 삶도 이어진다. 조상의 묘를 정리하고 가문을 세우는 일과 사찰을 돌며 불사에 헌납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은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명복을 비는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 결국 말년에 모아진 재산을 불사에 헌납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이미 변화한 주변 환경이 그를 만류하게 되어 끝내 고향 김천에 후학들을 키워낼 수 있는 사학건립에 모든 재산과 여생의 정열을 쏟으며 일생을 마친다.

송설당이 말년에 이룩한 일은 조선의 전통적 이념에 크게 어긋나는 일은 아니다. 신식 학교 건립에 관심을 갖고 성심으로 실행한 때는 70이 넘는 나이였다. 대부분의 생을 조선의 관습과 이데올로기의 지배 속에서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외부적인 강요나 사회적 관습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스스로 택한 삶이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송설당은 근대의 바람이 거센 곳에 있었으면서도 어떤 새로운 이념에도 편승하지 않았다.

제 3 절 『松雪堂集』의 발간 의의

1. 판본 상황

송설당이 설립한 김천고보의 역사를 담은 『松雪 六十年史』에 실린 「송설당 略歷」에는 ‘1922년 12월 1일 自著 『崔松雪堂文集』 三卷 三冊을 간행하여 세계 각국 도서관에 보냄’이라고 쓰여 있다. 또 ‘三卷 三冊으로 나온 책은 1991년 김천고보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송설당의 恩德을 기려 그 문집을 영인하여 합철하기로 하였다’¹³⁶⁾고 기록되어 있다. 원본은 1922년 당시 李敦熙의 題簽과 필경사의 글씨로 쓴 본문은 석판으로 인쇄하였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36)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434.

고려대학교 소장본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자료유형 고서
개인저자 최씨부인
서명/서지사항 松雪堂集(并)附
 崔氏夫人(朝鮮) 著
판사항 石印本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22
형태사항 3卷3冊: 31.4 × 20.8cm
일반주기 序: 甲寅(1914)…金允植序
 後識: 苞山郭齋
 跋: 族從進士晦岡鴻烈

大正十年四月八日 許可

大正十一年一月廿九日 印刷 (非 賣 品)

大正十一年十二月一日 發行

京城府武橋町九十四番地

著 作 兼

發 行 者 崔 松 雪 堂

京城府西小門町三十九番地

印 刷 所 朝鮮印刷株式會社

全

印 刷 者 羽 田 茂 一

京城府武橋町九十四番地

發 行 所 崔 松 雪 堂 本 第

쪽수는 접히는 부분을 두 쪽으로 나누지 않고 한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 두 배의 쪽으로 계산된다. 즉 1권은 102쪽, 2권은 94쪽, 3권은 142쪽 분량인 셈이다. 총3권은 비단으로 싼 투캅에 담겨있다. 고려대학교에 소장된 것은 동아일보사에서 기증했다는 도장이 찍혀 있으며, 각권이 시작되는 앞줄 오른

쪽 하단에 음각 양각의 송설당인이 두개 찍혀 있다.

그러나 「松雪六十年史」에 게재된 영인된 합본에 찍힌 도장과 고려대학교 소장본에 찍힌 도장의 글씨체는 같으나 찍힌 면이 다르며, 임기중 소장본에는 송설당 도장 자리에 소장인의 도장이 찍혀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발간된 문집인 만큼 필사본으로 베껴서 전해진 문집이 아니고, 인쇄된 판본이어서 그런지 이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2. 문집의 특징과 구성

1) 특징

『송설당집』의 구성은 발간 목적, 소통공간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송설당집』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발간 목적이 자신의 인생역정을 표현하는데 주력한 자서전 성격이 강하다.

둘째는 대부분 문집은 작가의 사후에 편찬되지만 『송설당집』은 자신이 살아 있을 때 후손들의 힘을 빌지 않고 자신이 직접 준비했다는 점이다. 이는 「송설당집서」를 쓴 김윤식이 글을 써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송설당 본인이었음을 말해주는 集序에서 알 수 있다.

셋째는 권3 부록에 次韻詩나 題贊을 쓴 사람들 중 평소 잘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점이다. 본래 문집에 실는 글들은 생전이나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이 그를 기리거나, 함께 하면서 오고간 글들을 실는 경우이다. 그러나 송설당 문집에 題贊을 실은 사람들 중에는 송설당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만나서 차운시를 써주었거나, 송설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부탁을 해서 써준 경우¹³⁷⁾가 있다. ¹³⁸⁾ 부록에 실린 160여수의 시들 중에는 자신의 내력을 모르

137) ‘石樵曹議官 示余以松雪堂韻 求和甚勤’ (黃山樵夫 鄭蕃, 『松雪堂集』, 卷3, ‘松雪堂原韻’), 肆於今日秋庭之囑 余爲文 其非發詩歌被管絃之好意耶’(嵐清 南重熙, 『松雪堂集』 卷3, ‘松雪堂序’).

138) ○‘石樵曹議官 示余以松雪堂韻 求和甚勤 余曰 詩與畫相似 若畫冬嶺之雪松而不成 反爲

는 이들에게 일일이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거나, 다른 이들을 시켜서 받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는 여성들도 읽을 수 있도록 諺文詞藻를 수록했다는 점이다. 이 구성은 그의 문집의 독자층을 여성층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발간 목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도 諺文歌詞를 문집에 넣지 않는 보통의 관념을 깬 것이다.

다섯째는 그가 「송설당집서」를 의뢰한 김윤식에게 자신의 문집 발간의 목적을 직접 말한 점이다. 대개는 본인이 문집을 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자신의 발간 목적을 밝히는 경우 또한 흔치 않다.

대개 조선조에 발간된 문집의 큰 특징은 사대부들의 전유물이며, 문집에는 국문 가사 작품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게재되지 않는 것이 통례였다. 수 천 권의 문집이 발간되었지만 가사가 실린 문집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¹³⁹⁾ 이런 전례를 뒤집고 과감히 49제의 諺文詞藻를 수록한 점도 매우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여성문집에 당시 관료를 비롯 남성들만의 「松雪堂原韻」을 차운한 시가 대거 게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한편으로는 시문을 쓰는 여성 작가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 당대 문단풍토를 짐작케 하기도 한다. 또한 문집 서발문의 저자와 글씨를 쓴 필진 또한 당대의 내로라할 만한 인사들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집의 특징이 되고 있다.

2) 구성

泰山之雨松 子其詳言之松長幾尋雪深幾尺曰 此非眞松眞雪 乃崔女史之 引而自號也 曰夫人之號 古有蘭雪軒 今又有松雪堂乎 余筆拙 倘不以失眞 見譏於窮巷之靈耶 是可愧也' (黃山樵夫 「松雪堂集」, 卷3, 「松雪堂原韻」).

○「京城崔松雪堂女史也 客有過我而言者曰 松雪之寓志 吾子其知之否 余曰 我曾未見崔子矣 其志之趣向' (此淵 朴喜在 「松雪堂集」, 卷3, 「松雪堂原韻」).

○「余生長僻隅 尚不知崔松雪堂之爲何等女士也 日其姪錫台甫 以石村尹尙書之序 訪我從父於恭山之深 求一言于其集之首 從父自居以病廢 不事人家文字已三四載矣 錫台甫 遂向余而揖曰 吾姑氏 有特異之節 而既不得蒙尊先生之筆矣 則子不可無一言也(苞山 郭籛, 「松雪堂集」 卷3, 「松雪堂集後識」).

139) 「대부분의 문집이 한문인데 비하여 孤山遺稿 中の 歌辭, 松江全集 中の 歌辭, 蘆溪集 中の 歌, 雙巖集 中の 歌辭, 俛仰亭集의 俛仰亭長歌, 不憂軒集 中の 不憂軒歌, 松巖集, 獨樂八曲, 頤齋全書 中の 木州雜歌 등이 한글표기로 수록되어 있음이 특이하다.' (김윤미, 앞의 논문, P.4).

『송설당집』은 본문만 총 198면이며, 권1은 윤양 김윤식의 「松雪堂集序」가 머리에 실리고, 그 뒤로 한시 167제에 242수와, 문 4편이 실렸는데 「松雪堂序」와 「松雪堂記」, 「祭文」 2편으로 모두 76면이 실려있다. 권2는 諺文詞藻라는 제목 아래 49제의 諺文詞藻 작품이 놓였다. ‘가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歌辭’라는 말 대신 ‘諺文詞藻’라는 이름을 쓴 것과 한글 옆에 한자어일 경우 반드시 한자를 병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권3에는 ‘부록’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목록이 나열되었다. 아래는 부록의 목록과 참여자들이다.

「次松雪堂原韻及題詞七言絶句七首 五言律詩三首七言律詩一百五十一首」- 霞山 南廷哲(前內部大臣)와 133명

「松雪堂詞」- 鳳南 文鎮源, 鶴山樵夫 韓在教 (이상 2명)

「松雪堂賦」- 宜默 南世熙(前監察)

「松雪堂序」- 石村 尹用求(前秘書), 嵐淸 南重熙, 弘任翁 李曾夏, 晚菊 鄭潛, 玉淵 朴喜澤, 此淵, 朴喜在, 樵齋 白南洙(이상 7명)

「松雪堂記」- 凝川 孫鵬九, 從姪 錫胄, 梧泉 徐榮必, 嵐淸 南重熙, 勉谷 黃五秀, 天岡 李萬鼎, 逸遊 金毅洙, 淡源 鄭廉基, 薇山樵夫 鄭煥梓, 新安 朱恩錫(前參奉), 朴喆東(進士), 金昌植(進士), 樂山 裴周弼, 趙東義, 金鍾震, (이상 15명)

「松雪堂說」- 霞山 南廷哲(前內部大臣), 二山 崔元根(族從), 石村 李秉宰(前司果)(이상 3명)

「松雪堂銘 并引」- 左山 李英九(進士)

「松雪堂上樑文」- 梧泉 徐榮必

「松雪堂表」- 權錫泰

「松雪堂傳」- 平山 申鉉中,

「松雪堂集後」- 靜岡 崔孝根(族從)

「松雪堂集後識」- 苞山 鄭瀾

「松雪堂集跋」- 晦岡 崔鴻烈(族從進士)

부록에는 11개의 문체에 167명(중복 포함)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次松雪堂原韻及 題詞」는 총 133명이 쓴 161수가 수록되었으며, 목록에서 밝혔듯이 「松雪堂原韻」을 차운한 七言律詩 151수와 차운을 하지 않은 시 10수가 실렸는데 칠언절구

7수, 오언율시 3수이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한 문체는 15명이 지은 記, 7명이 지은 序의 순으로 이 세 분야에서는 중복되는 작가도 있다. 문집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벼슬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 40여명으로 26%정도인데, 그 중 전직 벼슬을 밝힌 사람은 21명으로 전 현직이 반반이다. 벼슬은 내무대신을 비롯해서 특진관 비서관, 참의, 종2품, 정3품, 감찰, 참봉, 군수, 주사, 과장 진사 등이며, 가족이나 집안사람임을 밝힌 경우는 11명으로 次韻詩와 集後와 跋文을 썼다.

『송설당집』 부록에는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관계로 죽음을 애도하는 글은 없는 반면 「송설당원운」을 차운한 여러 사람의 차운시와 辭, 賦, 序, 記, 說, 銘, 上梁文, 表, 傳과 「松雪堂集後」,와 「後識」, 「松雪堂集跋」이 실려 있다. 부록의 배열 순차는 일정한 규범이 없는데 문집 주인공의 생사와 관계없이 주인공에 대한 전기를 기록하고 회고하고 있다. 즉 어떤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저작자에 대한 이야기가 소재가 되는 글들이다. 『송설당집』도 마찬가지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여타의 문집과 다른 점이라면 挽이나 祭文이 아닌 詩와 文 등 문학적 성격을 띤 글들이 많다는 점이다.

보편적으로 문집 목록에 나타나는 작품은 약 150여편이나 되지만, 그 중 대부분 모든 문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식은 15개 내외가 된다.¹⁴⁰⁾ 『송설당집』에도 대략 17개 양식의 글이 실려 있다. 그 중 사물의 발단과 끝맺음을 적은 序는 「集序」를 비롯 송설당 자신이 쓴 序와 7명의 동료가 쓴 序 등 9편이 실려 있다. 漢詩는 저작자의 작품 167제와 차운시 162수가 실려 있으며, 언문가사는 작자의 작품만 49제 실렸으며, 記는 송설당 자신이 쓴 1 편과 15명이 쓴 것이 실렸다. 악부시 계통의 시가인 詞 2편과 賦 1편, 說 3편이 실렸으며, 銘이 1편, 上梁文 1편, 傳 1편, 表 1편, 「書松雪堂集後」와 「後識」가 각각 1편씩 실리고 끝으로 跋이 실려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송설당집』 구성 또한 발간 목적을 짐작하게 한다. 여성으로서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한시 167제를 권1에 넣은 것과 부록으로 ‘송설당’ 차운시 160여수와 序, 傳, 說, 詞, 賦, 銘, 表 등을 당대 장안의 관료 및 사대부 160여명이 쓴 점에서 자기과시적 목적의식을 읽을 수 있다. 이들 글의 성격상 모두 문집의 주인공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찬양하는 글이다. 또한 권2에 諺文詞藻를 안배한

140) 김윤미, 앞의 논문, p.22.

것은 사대부가의 양반부녀자들을 염두에 둔 송설당의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漢詩와 「松雪堂序」와 「松雪堂記」 두 편의 文에 표현하고 있는 자신의 한 맺힌 과거와 꿈을 이루는 내용을 2권 諺文詞藻(한글)에서 다시 자세히 중복하여 표현함으로써 한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회포를 헤아릴 수 있게 했다는 점은 주목해 볼만하다. 이는 漢詩와 文은 사대부 양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사는 사대부가의 부녀자 독자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성이다.

『송설당집』은 조선조 남성들처럼 일반적으로 평생 동안 짓는 창작품이 아니라,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창작되었다는 점이 개별성이자 특수성이다. 게다가 그의 글은 자서전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한시와 국문가사 등 다양한 말하기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특징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통신적 관점과도 통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함인가가 곧 작품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3. 『송설당집』 발간의 문학사적 의의

우리 역사상 문집의 시초는 최치원의 『桂苑筆耕集』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송설당처럼 본인 스스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생전에 출간한 여성문집은 흔치 않다.¹⁴¹⁾ 더구나 『송설당집』은 발행된 해에 세계 각국 도서관에 보내지기도 했다.

그러나 송설당이 문집을 편찬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적 사고의 영향이라고 보기 보다는 우선은 금권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앞장의 생애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재산과 권력은 정치적 상황은 물론, 문화적 활동까지도 그 제약적 요소를 거둬버릴 수 있었다. 이는 곧 당시 사회가 자본주의시대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일이

141) 소해왕후 한씨(1437-1504)가 지은 「內訓」이나 李憑虛閣(1759-1824)의 「閨閣叢書」 등 주로 규범류에 해당하는 저서는 작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생존 중에 자신이 직접 편찬 하기도 하였지만 實用書로서 문집의 범주에 넣기는 어렵다.

기도 하다. 삶의 방법은 반유교적인 반면 목표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정점을 향한 것이었다는 모순을 갖고 있는 송설당의 삶의 모순은 그가 목적(신원)을 이룬 후에 완벽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게 하는 짐이 된 것이다. 신원한 후에 송설당은 다시 사대부의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부녀자가 되어야만 완벽한 유교체제의 일원이 될 수 있었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울배반적인 자신의 과거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 바로 『송설당집』 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송설당집』의 주제는 ‘송설당의 모든 것’이다. 이는 기존의 문집간행이 조선(祖先) 숭배와 문벌중시에 둔 것에 비하면 파격적이다. 물론 복권한 가문의 내력과 문묘 정리 등 가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만, 송설당 개인의 치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도 적지 않다. 만약 이 문집이 송설당 사후에 후손들에 의해 발간되었다면 다른 문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후손들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선조를 기리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설당집』의 주조를 이루는 것은 伸冤雪恥의 원인과 과정이다. 金允植이 쓴 「序」에서부터 漢詩, 松雪堂序, 松雪堂記, 歌辭, 附錄의 次韻詩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가문의 멸망의 일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雪冤의 광명을 되찾고 선묘를 다듬고 가문을 바로 세우는 일, 광명을 되찾아 준 임금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결심의 되풀이다. 이는 『송설당집』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이며, 『송설당집』이 다른 문집과 다른 점이다. 대개의 文集은 평생을 두고 틈틈이 썼던 작품들이 사후에 엮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송설당집』은 발간 목적을 갖고 기획된 출판물이다. 이 점이 『송설당집』의 개별성이며, 사회 문화적으로는 저술활동의 근대적 작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개인이 세상에 알릴 목적을 갖고 생전에 기획하여 출판한다는 것은 전통 문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 3 장 송설당의 작품 양상

『송설당집』은 ‘선조의 원죄를 풀어드리고, 몰락한 가문을 흥기시키고자 각고 정리했던 수십 년간의 정회를 시문으로 남겨놓았다’¹⁴²⁾고 후대인들이 풀이하고 있듯이 『송설당집』의 가장 뚜렷한 내용상 특징은 가문의 복원에 대한 자신의 감회이다.

따라서 문집 전체는 자서전적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감이 모든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한시에서 서사성을 띤 작품과, 가사에서 자신의 내력과 신원설치에 대한 감회와 문호보존, 분묘수축 내용이 장형으로 중복되고 있다. 3권 부록의 작품들에서도 대부분 송설당의 효심과 기개를 찬양하고 있다. 또한 1권의 文 세 편은 모두 작자와 가문의 내력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일생을 당호인 소나무[松]와 눈[雪]에 비유하고 있는 「송설당기」¹⁴³⁾는 뛰어난 구성과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송설당의 한시 형식이 ‘법도에 맞다’는 평¹⁴⁴⁾이 말해주듯이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한시와 별다른 차별성은 발견되지 않지만, 언문사조로 구분되고 있는 가사형식은 기존의 규방가사와 다른 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한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문사조는 형식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작품의 제목이 같은 한시와 가사, 내용이 같으면서도 제목과 장르가 다르게 표현된 작품들을 비교 분석하며 한시와 가사의 상관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시

송설당의 시는 다른 여성작가들의 한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운시는 몇 편 되

142)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松雪堂集解題』, p.435.

143) 註28) 참조.

144) 金允植, 『松雪堂集』, 권1, 「松雪堂集序」.

지 않고 90% 이상이 창작시이다. 또한 소재나 주제, 형식면에서도 매우 다양하고 자유로운 기법을 보이고 있어서 편의상 서경시, 기행시, 영물시, 자전시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송설당의 한시는 총 167제 242수다. 그 형식적 분포는 7언절구가 131수로 가장 많으며, 5언고시 5수, 7언고시 2수, 5언절구 64수, 5언율시 13수, 7언율시 26수, 배율 1수 등이다. 특별히 송설당은 詩體의 구별 없이 매우 자유롭게 창작하였다. 또한 한 제목 하에도 五七言, 혹은 絶律이 섞여있으며, 큰 제목 하에 소재목을 단 연작시도 있다. 「憶紅梅」나 「春閨怨」 같은 작품은 한 제목 하에 10수씩 연작으로 쓰였는가 하면 「夏日園中雜詠」은 22 가지의 동식물의 이름을 소재목으로 하여 22수를 연작하였다. 이밖에도 큰 제목 하에 다시 소재목을 단 시는 4제로서 「田家景」 하에 3수, 「灰人龍灣八景韻」 하에 8수, 「詠物」 하에 5수가 각각 소재목을 갖고 있어서 167제 242수며, 별개의 소재목까지 시제로 치면 총 201제인 셈이다.

형식	고시		근체시				배율	계
	五言	七言	五言		七言			
			絶句	律詩	絶句	律詩		
首數	5	2	64	13	131	26	1	242

유형별로 살펴볼 때 뚜렷한 특징은 자신의 내력과 집안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시들은 대부분 긴 장편의 서사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짧은 경우 14행에서 길게는 80행에 이르는 서사적 장편고시가 8편 있는데, 이 중 5편이 자신의 내력과 집안의 일을 소재로 하고 있다. 나머지 작품들은 정치와 영물을 읊은 서정시들이 대부분이다. 장형이지만 서사적 내용보다는 자유로운 시상을 아름답게 전개한 서정시 2수(排律이라고 지칭한 「鞦韆」 20행과, 16행의 고시 「興仁門外淸涼寺避暑」)와 축시 1수(30행의 「賀金雲養允植八旬晬筵」)가 울격을 파괴하고 있다.

제재면에서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를 읊은 시가 120여수로 가장 많았으며, 사물을 읊은 詠物詩도 70여수나 된다. 그 다음이 자신의 내력과 부모님에 대한 그

리움, 조상에 대한 추모의 정을 읊은 자전적 소재로 30여수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경치나 영물을 읊은 시에 비하면 적은 수이지만, 대부분 고시형태로 장형을 이루며¹⁴⁵⁾ 중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송설당집』의 성격을 자서전으로 귀결짓게 하는 요소인 듯 하다. 또 남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시와 추모시, 人事詩類 10여 편이었다. 그 밖에 여인의 정서를 읊은 것으로 매김할 작품도 15편 정도 있고, 다소 관념적 제재의 시편도 보인다.

<소재별 분류>

소재	서경		영물	부모·가문	자신	인사류	여인정한	관념	계
수	100(경치)	21(기행)	70	20	10	10	5	5	240여수

서경시는 사계절의 변화를 고루 다루고 있는데, 대개 각 계절의 작품이 두서너편씩 이어지면서 사계절이 반복되고 있어서 문집에 실린 글의 순서가 쓰여진 순서대로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내력이나 회한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작품 10여 편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이사이 놓였다. 문중의 일과 조상 묘소 단장 등에 관한 시는 끝부분에 몰려 있다. 경물시는 경치를 보고 순간 발흥된 정서를 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그 속에 자신의 감회를 이입시키고 있는데, 대개 인생무상과 思鄉이 주를 이룬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장소, 여행지를 소재로 지은 시가 약 20% 정도로 작가의 넓은 활동 영역을 보여준다. 북쪽으로는 평안북도 신의주 압록강(「次人龍灣八景韻」), 평안북도 정주·선천(「先塋事送錫台至定州宣川」, 「以宣川定州先壟石儀事出加佐洞有感而作」, 「定州宣川先壟設石儀回路有感而作」), 강원도 회양군 금강산(「表訓寺凌波樓」, 「正陽寺歇惺樓」),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楡岾寺山映樓」), 함경남도 안변군 설봉산(「釋王寺」), 개성(「次人松京懷古韻」), 경성(「木覓賞花」, 「興仁門外清涼寺避暑」, 「驚梁津」, 「動物園鸚鵡」), 한강(「望漢江」, 「渡漢江」), 경기도 고양(「高陽先山石物畢役有感而作」, 「次人碧蹄店韻」, 「與鄭華陰出加佐洞」) 경

145) 「記夢」-80구, 「自述」-16구, 「先塋事送錫台 至定州宣川」-14구, 「定州宣川先壟設石儀 回路有感而作」-48구, 「高陽先山石物畢役 有感而作」-62구 등.

북 김천(「藥水洞」, 「鳳凰臺」, 「靑巖寺」), 김해(「金海懷古」) 등을 두루 편력한 셈이다.

영물시는 총 70여종의 物을 읊고 있는데, 세분하면 식물이 23종으로 꽃이 10종(봉선화, 선인장, 해바라기, 국화2, 매2, 난2, 흰초, 홍매, 파초, 연꽃), 나무가 12종(뽕, 능금2, 석류, 복숭아, 대나무2, 계수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오동나무, 소나무, 오얏나무, 대추나무), 야채[호박]가 1종이다. 동물은 총 16종이며, 조류가 10종(제비, 해오라기, 갈매기, 까마귀, 피꼬리, 닭, 참새, 술개, 앵무새, 가을기러기), 곤충이 4종(메미, 반딧불이, 귀뚜라미, 나비), 파충류(개구리)와 포유류(소)가 각각 1종이다. 사물은 23종으로 소지품이 12종(부채2, 등, 갈모, 가락지, 거울, 담뱃대2, 빗, 안경, 벼루, 나무베개, 화로, 갓), 그림이 3종(일본미인도, 학그림, 매화그림), 악기가 3종이며, 폭포, 장승, 그네, 달, 괴석 등이다.

그 밖에 특징은 고사나 전거가 풍부하게 쓰인 점인데 240여수 중 90여수에 인용되고 있으며, 두보·이백 등 唐詩 쌍벽들의 시문을 用事한 예도 보인다.¹⁴⁶⁾

주제별로 분류하면 여행지와 영물예찬 및 특징을 표현한 시가 90여수, 계절의 정한을 읊은 시가 40여수, 또 외로움과 인생무상을 읊은 시가 30여 수, 자신의 내력과 회한, 事親思鄉, 門戶보존 등 자신에 대한 글이 30여수, 한적함과 여유로움을 읊은 시가 20여수, 영물을 통한 사회의식을 발현하고 있는 시가 20여 수, 閨怨 20여 수 등이다. 그 밖에도 제 1차 세계대전에 관한 느낌, 관념시 등이 있다. 우국지심과 애민, 보은의 정회는 주로 영물시와 서경시에 은미하게 스며 있다.

『송설당집』에 수록된 다른 사람들의 송설당 詩文에 대한 평을 살펴보면 대개 비슷하다.

베를 찢는 여가에 때때로 문자를 익힌 규중의 부녀자로서 붓을 대기만 하면 비단같이 아름다운 문장을 이뤄냈다. 그런 송설당의 「自序」를 보면 문은 꾸미지 않아도 스스로 법도에 맞고 위치가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 시원하게 되었고, 읊어나 절구들은 모두가 예스럽고 아담한 품격에 흠뻑 무르익어서 단 한 점이라도 불같은 기운이 없으니, 봄 꽃봉우리처럼 활짝 피어서 인공적으로 붉거나 희게 만들지 않아도 문장이 완성되었다.¹⁴⁷⁾

146) 陶淵明 「歸去來辭」, 王勃 「勝王閣序」, 張衡 「南都賦」, 王維 「春日直門下省早朝詩」, 李白 「春思詩」, 「聽蜀僧浚彈琴」, 「對酒憶賀監詩」, 吳琚 「醉江月詞」, 鮑照, 劉禹錫, 孟浩然, 高適, 憑延登 등.

147) 「又機杼之暇 時習文字閨中巾幗 便成筆下綿繡 而觀其松雪堂自序文 不加雕飾自成規度

많은 문장들은 고상하고 아담하면서 이쁘기도 하여, 옛날의 여사들에게서 구하더라도 짝이 될만한 글이 드물다.¹⁴⁸⁾

문장은 절로 배 짜듯이 나와 문장과와 女士의 명예를 겸하였도다. 한 덩이 정신의 원기는 우뚝하여 무너뜨리는 물결에 선 지주와 같고, 백 편의 아름다운 글은 밝기가 모래를 헤쳐 금을 단련하는 것 같다. 마음을 寓意하고 시를 읊되, 반드시 經典의 의리를 좇아 지었다.¹⁴⁹⁾

문득 이 세상 오늘을 당하여서도 그의 충절로 인한 분노와 憂國의 뜻은 性情의 바른 데서 나온 것이요, 한탄과 영탄으로 드러난 것은 그의 詩文 약간 편인데, 말하자면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 일을 회고한 글들이 이것이다.¹⁵⁰⁾

이상의 평들을 종합해 볼 때 공통점은 ‘법도에 맞다’는 것과 ‘힘이 있고 자연스럽다는 것’ ‘憂國과 感恩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이다. 법도에 맞다는 것은 ‘시의 형식이나 구성 등에 크게 어긋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경전의 의리를 좇아 지었다’는 점은 그의 시에 陶冶性情의 載道, 혹은 貫道文風이 있어 이른바 詩經遺意¹⁵¹⁾가 있음을 지적한 뜻한다. 하지만 그 범위나 깊이는 관용적 어귀나 표현에 머물러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문장이나 단어의 범주를 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여성 작가들이 중국의 유명시인들의 시에 차운을 많이 해서 지었다는 기록이 있지만¹⁵²⁾ 송설당의 한시는 차운 보다는 그들의 시의 이미지를 차용한 典據의 흔적들이 눈에 띈다. 그 중에서도 이백과 도연명, 백거이의 시구절이 자주 用事되었 으며, 시풍도 많이 닮아 있다. 송설당은 한시의 言志와 天機自發의 작법을 모두 수

理義疏暢 律詩及絕句諸作 并濃艷古雅 無一點烟火氣 如爛漫春葩 不由人工 紅白成章(金允植, 『松雪堂集』, 권1, 『松雪堂集序』).

148) ‘文章亦古雅而濃艷 求於古之女史 罕與儔匹’ (華陰 鄭崙秀, 『松雪堂集』, 권3, 『次韻詩』).

149) ‘文章自出機杼 又兼女士之譽 一團精華 屹如頽波砥柱 百篇麗藻 若披沙鍊金 寓之心詠之詩 必從經義’(進士左山金英九, 『松雪堂集』, 권3, 『松雪堂銘』).

150) ‘當此世之今日 其忠憤憂國之志 出於情性之正 發於咨嗟詠歎者 其詞藻若干若篇 曰感恩懷古是耳’(平山 申鉉中, 『松雪堂集』, 권3, 『松雪堂傳』).

151) 昊天罔極-‘小雅’, 莫採我庭桑-‘小雅’, ‘眼鏡’의 炎火-‘小雅’, ‘紅梅’의 狡童-‘鄭風’, ‘鷄淒’의 淒淒-‘鄭風’, 鶴鳴-‘小雅’, 樛木-‘周南’, 絺綌-‘周南’, 斧珈-‘鄘風’, 穆莪-‘小雅’, 蒹葭-‘秦風’, 元戎-‘小雅’, 織女-‘小雅’, 淒風急雨-‘鄭風’, 四牡-‘衛風’, 舊臣-‘大雅’, 嘉賓-‘小雅’, 切磋琢磨-詩經, 劬勞-‘邶風’.

152) 김명희, ‘조선시대여성문학과 생활’, 『조선시대 여성문학과 사상』, 이회, 2003, p.33.

용하고 있는데¹⁵³⁾ 언지의 시에서는 효의식, 감은의식, 올바른 성품을 추구하는 주체의 의식과 함께, 여성으로 태어나서 마음껏 포부를 펼쳐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자의식이 담겨 있다.

조선시대 여성의 한시 작품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이다.¹⁵⁴⁾ 松雪堂은 시기적으로 볼 때 三湖庭詩壇¹⁵⁵⁾과 한시 작가 중 마지막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吳孝媛(1889~?)¹⁵⁶⁾ 사이의 시인이다. 송설당은 50세 가량 됐을 때 식민지 시대를 맞는다. 물론 망국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던 조선왕조의 핵심부에서 40대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의 사상은 이미 상경하기 전인 40세 이전 고향 김천 땅에서 형성된 것임은 당연하다. 그 이유는 그가 궁중에 선을 당게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행적으로 보아 이미 고향에서 부를 축적할 때부터 세워진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행적은 근대 식민지 시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철저한 유교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은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해 알 수 있다. 송설당은 삼호정시단보다 나이가 대략 40여년 늦고, 오효원보다는 34년이 빠르다. 30년 이상의 차이는 한 세대 이상의 차이이다. 吳孝媛을 마지막 한시작가라고 하지만, 기존의 한시 작가들과는 다르게 봐야한다. 오히려 吳孝媛은 개화기의 첫 시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통의식이 없는

153) 권태을, 『崔松雪堂의 漢詩 概觀』, 『최송설당집』, 송설당 기념사업회 엮음, 도서출판 명상, 2005, p.118.

154) '1894년을 轉期로 한국에 본격적으로 西歐文化가 유입되기 전에 창작되어 현전하는 한국 女流詩로 추정되는 작가는 45명 정도이다'(황재균, 『韓國 古典 女流詩 研究』, 『한국 고전 여류시문학의 특질』, 참조 집문당, 1985, p.225.). 또한 20세기 초에 편찬된 『대동시전』에는 여성 시인들을 名媛과 娼妓로 나누어서 전자에 45명, 후자에 40명의 작품을 수록했다.(이혜순 외,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p.24).

155) 신분적 열세에 있던 서녀와 기녀, 소실이었던 운초, 경산, 금원, 죽서, 경춘 등을 '삼호정시단'이라고 부른다. 雲楚는 성천의 妓女로 부용당이라고도 한다. 몰락한 양반가출신으로 詩妓로 이름이 높아 김이양의 소실이 된다. 남편의 덕택으로 남성들과도 시를 주고받으며 교류하였는데 후에 『雲楚堂詩稿』에 329수가 실렸다. 금원(1817~?)은 기녀로 출발하여 김덕희의 소실이 된다. 문집 『湖東西洛記』에 시 26수가 실려 있다. 朴竹西(1817~1851)는 반야당 박종언의 서녀로 서기보의 소실이 되었다. 妓女, 庶女 시인들은 사대부와 여향시인 양쪽을 모두 교류할 수 있는 여건에서 풍부한 시세계를 보이고 있다.

156) 오효원은 14세때 공금형령죄로 감옥에 갇힌 부친을 구하고자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아버지를 구해낸 일이 화제가 되어 서울의 권력가들과 사귀는 계기가 되고, 일본 중국 등을 여행하면서 각 나라 고위층과 사귀는 상류층이 된다. 호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나라의 고위층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후에 한시집을 냈다는 것 등이 송설당과 비슷한 면이다. 松雪堂은 1922년(68세)에 문집을 내고 오효원은 1929년(40세)에 문집을 낸다. 1929년에 나온 『小婆女史詩集』은 제목부터가 문집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는 듯 하다. 또 이듬해 재판을 찍었다는 사실은 기존 전통 문집과는 다른 독자층의 확보를 의미한다.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상은 이미 유교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기독교적 윤리관에 젖어 있었다. 오호원의 한시 창작은 양적으로 무려 500여수에 이르는데, 한시라는 형식을 빌리고는 있지만, 담긴 사상은 개화기 기독교적 여성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창작된 송설당의 漢詩는 한말 최후의 女流漢詩作家라 할 수 있다.

1. 敍景詩

송설당의 한시 유형 중에 가장 많은 시는 서경시이다. 100여수의 서경시는 사계절이라는 평범하면서도 단조로운 소재를 매우 예민한 감각으로 다양하고도 아름답게 그때그때의 특징을 잘 포착하고 있다. 같은 계절이라도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다른 색채로 계절을 맞이하거나 보내는 작가의 다양한 어휘와 묘사는 매번 다른 그림과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같은 계절이라도 한 작품으로 끝내는 경우보다는 연이어서 같은 계절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이 이어져 많을 경우 네 다섯 수까지 이어진다.¹⁵⁷⁾

다음에는 계절과 관계없는 시가 나온 후에 다음 계절에 대한 시가 배치되는 일이 반복된다.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하였는지, 아니면 창작 순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1권 전체 목차에서 계절의 정서를 직접 노래하지 않았더라도 계절감을 알 수 있는 작품을 찾아 분석해 본 결과 계절별로 정취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략 여섯 번 사계절이 나타나고 있어서 6년의 계절이 순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호방성과 여유로움

157) 1권 66번째의 「霜落」, 67번째 「秋雨」, 68번째 「秋崖晚景」, 70번째 「餞秋」, 71번째 「落葉詩送人」으로 가을의 정취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후 세 수 건너 띄어 「元朝祝」 2수가 실리는데 정초, 겨울의 이미지를 흠뻑 담고 있다.

계절감각을 소재로 하는 작품에는 우선 편안한 심사가 자연의 조화와 어우러져 즐거운 마음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다. 작가의 환경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느낌과 함께 자연물을 대하는 작가 심성의 따뜻함과 함께 삶의 연륜을 느끼게 한다.

暇日登高望	한가한 날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니
韶光正可憐	맑아한 봄 경치 정히 사랑할 만 한데
行人垂柳外	길가는 사람들 늘어진 버드나무 밖으로 가뭇 사라지고
遊子落花邊	노니는 이 꽃지는 동산에 웅기중기 모였네.

<권1.「春望」>

시집 중 서경시로는 가장 먼저 나오는 봄 경치를 소재로 한 시이다. 「春望」은 봄을 나타내는 자연물들의 묘사보다는 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상이다. 특히 봄의 아름다움 대신 지는 꽃들 속에서 즐겁게 노는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작가의 예리한 감각이 느껴진다. 봄의 생산과 상승 등 역동적 이미지보다는 초탈과 담담한 작가의 의식을 엿보게 한다. 이는 작가의 당시 나이를 짐작케 하기도 하는데 궁을 나온 시기가 1908년으로 추정됨에 따라, 환갑을 기념하여 출판할 계획으로 시들이 쓰여졌다는 점을 근거로 추정하면 50대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니는 이들이 지는 꽃 곁에 있다’함은 혹 자신의 황혼기, 혹은 杜甫의 ‘落花時節’을 암시함일까?

五月支離七月忙	오월은 지리하고 칠월은 바쁜데
掛鋤閑臥柳陰涼	호미를 걸어두고 서늘한 버드나무 그늘에 누웠다
山邊日暮牛蹄亂	산마을 해 저물자 소 발자국 잔데
烟雨蕭蕭一笛長。	이슬비 자욱한 속에 먼 데 피리소리 들려오네.

<권1.「田家景(1)初秋耘畢」>

野色青黃鳥鵲多	가을 들판 까막 까치 많으니
教兒去看上坪禾	애야, 저 벼이삭 좀 잘 지켜라
驅之不去兒心苦	쫓아도 날아가지 않으니 애타는 아이 마음
盡日啼號奈爾何。	온 종일 소리치는 너 참 안됐구나.

<권1.「田家景(2)秋田驅雀」>

陌上棉田淨夕暉	언덕 위 목화밭 저녁 햇살 맑은데
秋來摘盡見花稀	가을 들어 다 따니 보이는 꽃도 드르네
時看遺絮臨風吐	때때로 남은 솜 바람맞아 토해내
收入南隣寡婦機。	남쪽 이웃 과부 베틀에 들어간다.

<권1.「田家景(3)寡婦拾絮」>

「田家景」은 가을의 농가풍경을 初秋, 仲秋, 晚秋로 나누어서 농사일 과정 중 사소한 순간을 사진찍 듯 화판에 옮겨놓고 있다. 계절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작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우선 ‘초가을 김매기를 마치고’는 바쁘게 김을 매고 난 후에 달콤한 휴식과 분주한 귀가 장면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다. ‘가을 논 새 쫓기’는 새를 쫓는 안타까운 아이의 마음과 풍성한 들녘이 대비되면서 흐뭇한 미소를 머금게 한다. ‘과부 목화솜 줍기’는 추수가 끝난 쓸쓸한 들녘과 뒤늦게 벌어진 목화를 따는 알뜰한 과부의 뜻하지 않은 수확에 만족해하는 이미지가 대조적이다. 세 수는 모두 가을철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면서도 농사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행동들이 대상이 된 것과, 관찰자와 대상자의 심상이 대조적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김매기를 마친 농부들의 뿌듯한 심사와 비 속에서 집을 찾아 귀가하는 농부들의 바쁜 심사, 새를 쫓는 임무를 완수해야하는데 새들은 말을 듣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아이들의 심사와 그것을 듣는 이의 만족스러움, 텅 빈 들녘을 바라보는 마음과 버려진 들녘에서 늦게 터진 목화솜을 따며 흐뭇해 하는 아낙의 심사는 모두 대비되기는 하지만 여유 있는 행동이다. 새 쫓는 아이야 괴로운 심정이겠지, 출렁대는 황금물결을 보는 어른들의 심사는 여유롭기만 할 것이다. 작가는 이런 가을 날, 농부의 심사가 되어 풍요로운 논과 들판을 보면서 추수의 즐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섬세한 농민애적 감성을 엿볼 수 있지만, 그 현장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여유로움이 드러난다.

蒼崖紅葉色初勻	푸른 언덕 붉은 단풍잎 고르게 드는데
曲曲雲屏綿繡新	구비구비 구름병풍 비단을 수놓은 듯 새롭다

更是菊花相點綴

게다가 국화가 여기저기 피어

九秋風景勝三春。

구월 가을 풍경이 봄철보다 낫구나.

<권1.「秋崖晚景」>

「秋崖晚景」은 단풍의 붉은 색이 더 많아져서 노란국화가 점을 찍은 듯 띄엄띄엄 보이는 풍경을 그리고 있다. 매년 오는 가을이지만 새롭게 맞이하는 작가의 시선이 한가롭다.

櫻花淡泊杏花紅

앵도꽃은 담박하고 살구꽃은 붉은데

馥馥濃香滿院風

질디질은 향기 뜰에 가득 날린다

正是一年春色好

진실로 일년 중 봄빛이 가장 좋은데

故園歸思日忽忽。

고향에 돌아갈 생각 나날이 바쁘기만 하구나.

<권1.「遣悶」>

桃花含雨柳含煙

복사꽃은 비를 머들가지는 안개를 머금어

初日當窓露景妍

아침 해 창에 비치자 맑게 갠 경치 곱기도 한데

數聲啼鳥茅簷靜

두어 마디 새소리 뿐 초가 처마는 고요해

猶自山人未覺眠。

산사람 정작 깰 줄을 모르누나.

<권1.「鳥啼山客猶眠」>

簷前啼鳥弄春聲

처마 앞 우짖는 새 봄을 희롱하는데

睡起東窓日已明

자다 깨보니 동창은 정작 밝았네

可愛臨風門外柳

사랑스러워라, 호능청 바람탄 문 앞 버들가지는

枝枝黃嫩舞新晴。

가지마다 노란 여린 잎 휘날어져 맑기도 하여라.

<권1.「睡起」>

위의 세 수는 이어지는 시들로 노곤한 봄의 정취를 잘 표현한 시들이다. 「遣悶」은 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이지만, 고민을 떨쳐버릴 정도로 아름답다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제목을 「遣悶」으로 정한 작가의 기지가 엿보인다. 또 아름다움 때문에 고향 생각을 더하게 된다는 역설적 표현이 돋보인다. 「鳥啼山客猶眠」과 「睡起」는 늦잠을 자게 하는 봄의 노곤함과 한 해의 시작, 젊고 싱싱함을 상징하는 이미지

들이 조화를 이뤄 시의 분위기를 더욱 경쾌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송설당의 시에서 경물을 읊은 것들은 비교적 안정감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2) 달관적 애상

송설당의 서경시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계절의 정취 속에서 세월의 무상과 탄로에 대한 애상이 자주 표현되고 있다.

迷離芳艸色	아름다운 풀빛은 눈이 부신데
悵悵落花情	낙화의 정은 쓸쓸만 하구나
時聽流鶯囀	때때로 들리는 찌꼬리 소리에
無端午睡驚。	괜히 놀라 낮잠 깬다오.

<권1.「卽事」>

「卽事」는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에 놀라는 작가의 심사를 표현하고 있다. 엇그제까지만 해도 사랑할 만한 봄의 아름다운 경치가 어느새 꽃 떨어진 가지에 풀빛이 돋고 낙화의 쓸쓸함을 보며 빠른 시간의 흐름에 두려움마저 느끼는 작가의 심사를 노정하고 있다.

繁華好時節	좋을시고 춘삼월 꽃다운 계절
羅綺競鞦韆	아릿따운 여인네들 그네뛰기 시합인데
綠柳金絲裊	푸른 버드나무엔 황금가지 간드러지고
靑樓繡箔蹇	화려한 누각은 수놓은 발을 걷네.

... .. 중략

畫架宜斜日	그림같은 그네에 거의 해는 기울고
雕欄起暮烟	아로새긴 난간엔 저녁 연기 이는데
只憐春色老	가련구나, 이 봄도 다 하니
凋此艷陽年。	꽃다운 이 청춘도 조락하나봐.

<권1.「鞦韆-排律」 일부>

봄의 정경 속에서 그녀를 타는 처자의 모습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靑靑」은 율격을 배제한(5언 20행) 의도만큼 매우 자유로우면서도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세밀화를 그리듯이 표현했다. 그러나 무심하기사 봄만한 것이 또 어디 있는가? 꽃의 붉음만 견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봄, 그 청춘마저 거두어 가기에 작가는 흐르는 세월을 붙잡고 싶어 하는 애상의 심정을 감출 수 없었던 듯 하다.

疎螢明滅度前林	몇 마리 반디 깜박깜박 앞 숲을 나닐고
雲月微茫夜欲深	구름 속 희미한 달빛속에 밤은 깊은데
愁倚曲欄何限意	휘어진 난간에 의지한 시름 어찌 끝이 있겠는가
一秋庭綠候虫吟.	가을 한 밤내 프락의 귀뚜라미만 울어예누나.

<권1.「夜吟(1)」>

가을이 여름의 끝자락을 잡고 시작되는 변화를 예민하고 섬세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몇 마리 반디의 깜박거림은 등잔불이 그 수명을 다해가는 모습처럼 소멸의 분위기를 주고 있다. 게다가 가을의 정원에서 철 맞은 귀뚜라미가 무슨 애간장이나 에이런 듯 울어예니 잠은 고사하고 함께 시름으로 지샌다 했다.

西池落盡藕花香	서녘 못에 연꽃향기 다 지고
虛閣秋生夜月涼	텅 빈 누각 가을 기운 달빛마저 썰렁한데
世間多少傷心事	세상에 마음 상할 일 얼마간 있으나
都付風前一嘯長。	모두 바람에 부쳐 날리고 길게 휘파람 하노라.

<권1.「夜吟(2)」>

濃華低笑艷姬顏	길고 화려한 모습으로 곱게 환히 웃으며
大葉高擎碧玉盤	큰 잎사귀 펼쳐 파란 구슬 소반 높이 쳐들고
憑欄日暮悠悠意	해 저문 난간에 기대어 긴 시름하노라니
奈此秋風白露寒。	어쩌랴, 이 가을 바람에 찬 이슬 내리면.

<권1.「池荷」>

「夜吟」(1), (2)와 「池荷」는 목차상 이어진 작품으로 큰 소재는 계절의 변화를 다

루고 있지만, 제재면에서 「夜吟(2)」와 「池荷」 모두 연꽃을 시적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오히려 「夜吟(2)」는 「池荷」와 짝을 지어야 어울릴 것 같다. 두 작품의 제목은 다르지만, 목차상 이어져 있을 뿐 아니라, 소재가 같아 같은 장소에서 발흥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심기는 대조적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을의 깊이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夜吟(2)」와 「池荷」는 시간상 뒤바뀐 듯하다. 「池荷」에서는 아직 연꽃이 활짝 피어 웃고 있지만, 「夜吟(2)」에서는 연꽃 향기가 다 진 가을정원이다. 작가는 「池荷」에서는 꽃이 환히 웃고 있지만, 벌써 서늘한 가을밤을 견뎌낼 근심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향기마저 사라진 지금은 오히려 시름을 바람에게 던져버린다고 표현하고 있다. 유추하자면 꽃이었을 때와 시들었을 때 인간 심사의 변화를 은근하게 표출하고 있다.

霜落青山百卉凋
一秋寒景正蕭條
惟有菊花楓葉好
嫩黃濃紫鬪嬌夭。

서리 맞은 푸른 산 온갖 꽃 시들자
온 가을 싸늘한 경치가 정히 소삼한데
오직 국화와 예쁜 단풍만이 남아서
연노랑 검붉은 빛 요염을 뽐내누나.

<권1.「霜落」>

鳥不高飛坐愁濕
泡花頃刻漲庭階
依然夢愕風波海
一草堂如畫筋齋。

새가 높이 날지 않고 시름겨운 듯 비맞고 앉았고
포말진 낙숫물 잠깐 사이 뜨락 섬돌에 불어났는데
부시시 꿈에서 깨어 바다의 풍파인가 놀라니
초가집 하나 자못 그림 배 방불कु나.

<권1.「秋雨」>

半規殘日掛遙岑
獨坐蕭蕭葉下林
邱壑間逢伊阻友
秋冬際作別離心
庭前漸覺蛩聲歇
杯面猶餘菊影深
縱似當時春盡限

반만 남은 지는 해 아스란 서산에 걸렸는데
쓸쓸히 숲 속 나뭇잎 아래 홀로 앉았자니
세상에서 한가롭게 만나는 못보던 친구들
가을 겨울 사이에 생기는 이별의 마음
뜰 앞에 풀벌레 소리 점점 성글어가고
술잔에는 아직도 국화 그림자가 깊게 남아 있다
당시엔 봄이 끝없이 갈 줄 알았는데

却無芳草可相尋。

도리혀 아름다운 풀들 찾을 수 없구나.

<권1.「餞秋」>

盡日聲乾啄啄鴉

온종일 바삭바삭 탁탁 쪼는 까마귀

虛亭自此減烟霞

빈 정자부터 안개가 사라진다

嗟君去後惟風雪

아, 그대 떠난 뒤 바람과 눈만 내리는데

悵悵離懷倍落花。

쓸쓸한 이별의 회포 낙화 때보다 배나 더 하네.

<권1.「落葉詩送人」>

위의 네 수도 목차상 이어지는 시들로 모두 가을의 정취를 표현한 시들이지만, 가을날의 다양한 풍경이 영상처럼 이어지고 있다. 결국 가을의 시작부터 가을을 보내는 마음까지 순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霜落」, 「秋雨」는 가을이 시작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우선 「霜落」은 서리가 내려 꽃이 지는 가운데에 국화와 단풍의 노란색과 붉은색의 조화를 이루는 풍경이다. 「秋雨」는 가을비가 내리는 모습이 외롭고 쓸쓸하다. 「餞秋」는 곱게 물들었던 나뭇잎이 지는 숲에 앉아서 가는 가을을 보내는 이별의 마음에 세월의 흐름을 안타까워하는 정서를 싣고 있다. 「落葉詩送人」은 잎이 다 떨어진 뒤 찬바람과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오자 꽃이 떨어질 때보다 더 쓸쓸하다는 심사는 이별의 아픔보다는 세월의 무정함을 더 아쉬워하는 작가의 恨情을 읽을 수 있다.

3) 맑고 고요한 심상

서경시에는 깨끗한 정서와 고요한 분위기가 섬세하게 어우러져 읽는 이의 性情을 순화시켜주는 작품도 있다.

錦襖清風上小樓

비단외투 입고 찬바람 맞으며 작은 누각에 오르니

靑山白沒漢南州

푸른 산 순은으로 덮힌 한수 이남 고을

梨花滿地春先到

배꽃이 땅에 가득 봄이 먼저 찾아와

銀海連天凍不流。

은빛 바다 하늘에 잇대 얼어 흐르지 않는 듯.

<권1.「雪景」>

겨울의 서울(한양)풍경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다. 눈이 덮힌 산야를 ‘배꽃이 땅에 가득찬 듯’하다는 시적 이미지는 정작 봄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면서도 ‘은빛 바다처럼 고요한 세상이 하늘과 닿아 얼어붙은 듯’하다는 표현은 한겨울의 추위와 함께 오싹한 청량감으로 전해온다.

積雪城西屋

서쪽 성 지붕에 눈 쌓이고

新萋又一年

새 책력은 또 1년을 맞는다

橋斷春生水

다리에 봄물 끊어지고

苑深夜宿煙。

깊은 동산에 밤 연기 짙 깔렸네.

<권1.「新年偶懷」>

정초의 겨울 분위기를 한적한 시선으로 담았다. ‘新萋’은 堯임금 때의 ‘萋萋故事’로 ‘새 책력을’을 뜻하며, 줄줄줄 흐르던 시냇물이 얼어붙었다는 표현은 인적마저 끊긴 스산한 겨울 풍경을 비유함이다.

洞府虛明徹九霄

골짜기 마을 텅 비어 하늘까지 흰한데

林端餘雪尚飄搖

숲 끝에 남은 눈 아직도 흔들리고

鶴夢寒醒松下石

소나무 아래 돌에서 학 꿈꾸다 깨어보니

酒旗凍着柳邊橋。

버드나무 가 다리께 주막 깃발 얼어붙었네.

<권1.「雪止」>

깨끗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담은 서경시는 겨울을 표현한 시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雪止」의 ‘깃발마저 얼어붙었다’는 표현은 인적마저 끊긴 겨울의 정적인 이미지를 잘 살려내고 있다.

송설당의 서경시의 큰 특징은 의외성이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 같은 경치를 보아도 그 대상이 일반성을 벗어난다는 점이다. 큰 사건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주체 자체도 경쾌함 속에서 우울함을 본다든가 하는 섬세

함과 의외성이 작품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2. 紀行詩

여행지를 소재로 삼아 창작한 작품의 유형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작가의 고향인 김천[思鄉], 두번째가 한양을 비롯한 한강 풍경이 다수이며, 나머지는 사찰과 명승지 遊覽詩들이다. 김천에서는 「鳳凰臺」와 「靑巖寺」 「八龍庵」, 「藥水洞」 등이 있으며, 한양의 풍경을 노래한 작품으로는 「武橋川漂母」와 「鷺梁津」, 「興仁門外淸涼寺避暑」, 「木覓賞花」 등도 기행시의 범주로 볼 수 있다. 또 한강을 보며 지은 「望漢江」, 「雨外風帆」, 「渡漢江」, 「漢江觀漲」 「偶吟」 등이 다수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한강이 소재가 된 시에는 작가의 다양한 언지가 표출되고 있어서 단순히 경치를 읊은 시와는 다른 특색을 보인다. 그 밖에 「次人碧蹄店韻」, 「次人松京懷古韻」, 「次人龍灣八景韻」가 각각 경기도 고양시 벽제와 개성, 압록강 부근을 여행하며 느낀 서정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금강산의 사찰을 둘러보며 느낀 감회를 표현한 「表訓寺凌波樓」, 「正陽寺 歇惺樓」, 「楡岾寺山映樓」, 「釋王寺」 등의 기행시도 있다. 기행지의 감회를 읊은 시들의 특징은 서경과 함께 사회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시편들이 다수 있다.

1) 고향과 어머니 생각

한양과 선산이 있는 곳, 사찰 등을 제외하고 송설당이 소재로 삼고 있는 경치는 많지 않다. 한양과 김천을 오가며 생활했던 작가에게는 고향방문 길이 곧 여행길이기도 했다.

金陵南十里

藥水洞天開

奇石千年古

금릉 남쪽 십리에

약수동이 하늘로 열렸는데

기이한 돌덩이는 천년이나 됐고

蒼松一色栽	푸른 소나무는 한 빛으로 심겨있다
麝塵初不到	속세의 시끄러움 애초에 이르지 않고
仙鶴日常來	신선 학만 날마다 찾아오지
爲我萱堂壽	내 어머니의 장수를 위해
願言汲取回。	약수 길어 돌아갈까 하노라.

<권 1. 「藥水洞」>

藥水洞은 경북 김천시에 있는 마을로 샘물 맛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송설당은 그곳의 풍경 속에서도 어머니를 위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단순히 그곳의 풍치에 대한 감회를 읊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老患에 대한 孝心이 가미되어 묘사되고 있다.

始到名區不世情	이름난 곳 처음 이르자 세속 정리와 사뭇 달라
仙緣漸近似前生	신선 인연 점점 가까워 마치 전생인가 싶은데
今行剩得烟霞疾	오늘 걸음 실컷 일상에 무뎠어
盡日山光與水聲。	하루해 다하도록 산빛과 물소리 듣는다.

<권1. 「靑巖寺」>

‘하루 종일 산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한다’는 표현이 작자의 여유있고 안정된 심사를 대변한다. 청암사는 고향에 있는 사찰로서 타지방의 사찰을 방문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심경을 엿보게 한다. ‘마치 전생과도 같다’는 표현조차도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한 안정감을 받는 작가의 심상이 잘 무늬어 있다.

憶昔金州如夢中	옛 김해를 돌이켜 보니 꿈결같은데
招仙臺月二陵楓	초선대에 달 흰히 떴고 두 왕능에 단풍 들었구나
乘車一往非難事	수레 타고 한 번 가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其奈人情勢不同。	인정상 형편이 다르니 어찌하리.

<권1. 「金海懷古」>

김해는 김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 듯 하다. 멀리 보이는 김해의 이릉을 보면

서 쉽게 갈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인정의 형편 때문에 갈 수 없다는 표현은 당시 작가의 생활을 궁금케 한다. 김해는 작가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용교가 1899년부터 약 2년 여 동안 군수를 지냈던 지역이기도 하다. 작가가 청암사의 주지를 대면했던 해가 1905년이라는 기록이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대략 궁중을 나온 후 나들이가 자유로웠던 것을 미루어 보면 1908년 이후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이미 이용교가 공금형령에 연루되어 면직된 해인 1905년 이후이므로 관련을 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송설당의 시에서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작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지만, 이 시는 갈 수는 없지만 그 곳의 일이 꿈결같다는 표현은 신라왕조의 융성했던 과거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특히 수로왕과 왕비 허씨의릉인 이릉에 대한 언급이 화락했던 부부의 금슬을 회상하는 감회의 표현이라해도 무리는 아니겠다.

이 밖에도 「봉황대」 등 고향 주변의 명승지에 대한 기행시를 남기고 있으며, 선산을 오가며 느낀 감회를 시 속에 담기도 하였다.

2) 한강과 우국 연민의식

40여년을 김천에서 살았던 작가는 그 이후 살게 된 한양의 풍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남산의 풍경을 읊은 「木覓賞花」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홍인문 밖 사찰을 찾은 느낌을 적은 「興仁門外淸涼寺避暑」도 당시 풍속과 경관을 전해주는 시이다. 또한 시 제목에 등장하는 ‘노량진’과 ‘무교천’은 요즘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지명이다. 다음 시는 한강 주변인 노량진 포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明沙如月爲誰留	맑은 모래에 달빛은 누굴 위해 머물러 있나
薄暮行人喚渡頭	저물 무렵 행인이 나루목 건너달라고 부른다
百帆圖懸風急處	거센 바람 부는 곳에 온갖 배들 그림처럼 매달려 있는데
悠然中有一漁舟。	그 가운데 고깃배 한 척 유유히 떠 있구나.

龍驤亭畔大江流	용양정 가에 큰 강은 흐르는데
嫩柳長堤艷女遊	노란 버들 긴 뚝방엔 꽃다운 아씨들 노닐고

夜夜浣紗明月下
一叢鳴杆響空洲。

밤마다 밝은 달 아래 명주 빠는 빨래터엔
한 떨기 방망이 소리 텅 빈 물가에 울려 퍼진다.

<권 1. 「鷺梁津」>

달빛을 받으며 환하게 빛나고 있는 백사장과 행인들의 발길이 끊긴 나루터에 뒤늦게 도착한 손님이 사공을 부른다. 하루 일을 끝낸 배들이 평화롭게 매여 쉬고 있을 때 고깃배 한 척만이 유유히 떠있는 그림이 시각적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반면에 두 번째 수는 고요한 저녁녘에 명주를 빠는 방망이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리는 그림이다. 읽는 이의 귀에 빨래방망이 소리의 여운이 길게 남는 청각적 감각이 살아있는 작품이다.

仙寢花香同水逝
烽岑樹色入雲晴
山河有異人重到
泉石怡靈予晦名
(指清涼館主人)。

임금님 신선 자리 꽃향기는 물과 함께 흘러가고
봉수대 위 나무빛깔은 갠 구름 사이로 돌아온다
산과 물 기이하자 사람들은 줄지어 찾아오고
샘물과 바위들이 나의 근심을 풀어준다(청량관 주인).

<권1. 「興仁門外清涼寺避暑」 일부>

청량사는 경기도 한성부 삼각산에 있던 사찰이다. 당시 한성 사람들의 피서지로 즐겨 찾았던 모양이니, 사대부들의 여름나기 풍습을 짐작할 수 있다.

終南春色好
樹樹盡着紅
無人自開落
不須怨東風。

남산의 봄빛 좋아
나무마다 붉은 꽃 피었네
보는 이 없어도 제양 피고 지니
동풍을 원망할 필요야 없겠지.

<권1. 「木覓賞花」>

남산의 꽃을 읊은 시에서는 꽃을 즐겁게 봐줄 주인을 잃어버렸으나(망국을 의미하는 듯 하다) 동풍은 아랑곳하지 않고 꽃을 피고 지운다. 이는 동풍을 원망할 일은 아니지만, 웬지 속내를 몰라주는 동풍이 야속하다는 반어적 표현이며, 안타까운

작가의 심정이 우회적으로 표현된 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시중에는 ‘한강’이 소재가 된 시들이 많다. 한강과 관련된 시들은 작가의 사회의식이 투영되고 있다.

一帆纔去一帆來	돛단배 하나 가자마자 한 돛단배 또 오니
江上征帆日機回	강 위를 지나는 돛단배 하루에 몇 번이나 돌아오가는가
可憐無限江山好	가련하다, 무한 강산 좋기만 한데
忙去忙來底事催。	바쁘게 오가며 재촉하며 사는구나.

<권1. 「望漢江」>

아름다운 경치를 돌아볼 틈도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정서가 느껴진다. 워낙 바지런하고 분명한 만큼 잘 살아야 하건만, 몸만 바쁠 뿐 여의치 못한 하층민의 삶과 애환은 언제나 애환일 뿐이기에 식자인의 필봉을 적신다.

一色晴沙步夕陽	한결같이 맑은 모래밭 석양에 견노라니
江流同我素心長	흐르는 강물은 나와 같이 깨끗한 마음 길기도 하다
願言搢此無窮逝	원컨데 이 맘 가지고 끝없이 가서
幻作仁波漸入荒。	요술처럼 어진 물결 되어 사방팔방 적시었으면.

<권1. 「渡漢江」>

반면에 「渡漢江」은 깨끗하고 긴 강을 자신의 성정에 대입하면서 어진 물결이 되어 세상을 고루 교화시켜 나가고 싶다는 사회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海門煙雨日冥冥	바닷문은 안개비로 어둑어둑한데
賈舶商船次第行	장삿배 차례로 줄지어 지나간다
長風吹破鯨魚浪	긴 바람이 불어 고래같은 큰 물결에
箇箇雲帆一葉輕。	흰 돛단배들 하나같이 나뭇잎인양 가벼워라.

<권1. 「雨外風帆」>

빛속에 바람 맞고 가는 돛단배를 그린 작품이다. ‘한강’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장삿배들이 줄지어 지나간다는 표현에서 한강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안개비가 내리고 어둑어둑해지고, 물결은 고래같이 크게 일어나는 매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고기잡이를 하는 작은 배들의 모습이 매우 위태롭다는 작가의 언지를 드러내고 있다. ‘賈舶商船’은 커다란 권력체이거나 외국의 세력에 비유한 듯 하다. 열강의 다툼 속에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는 나라의 운명이 어둠과 비, 파도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 ‘바람 앞 등불’처럼 깜박이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또한 큰 상선에 비해 나뭇잎 같은 돛단배들의 모습은 열악한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느끼게 한다. 불안한 상황과 그 속에서 버텨내는 작은 배의 생존이 대립되는 시이다.

長江隱隱響空雷
曲曲浪高何壯哉
知是五臺山下水
掀天動地震時來。

긴 강 쿵쿵 흐르니 허공에 우레소리 울리는듯
구불구불 물결 얼마나 웅장하더냐
알겠다, 오대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천지를 흔들며 잠깐 사이 흘러왔구나.

橫濫無涯却渺茫
有時如怒復如狂
朝來聞說居人語
未及前年一尺強。

갑자기 끝없이 넘치며 아득히 흘러가는데
때때로 성난 듯 미친 듯
아침에 와 사는 사람 말 들으니
지난해보다 한 자쯤 덜 왔구나.

茫然雨埃失風沙
去馬來牛不辨涯
且莫奔流滄海入
恐君貽笑大方家。

아득한 먼지비 모래바람으로 바뀌니
가는 말 오는 소 끝을 분별치 못할래
푸른 바다로 분주하게 흘러가지 말아라
현인 군자에게 웃음거리 될까 걱정일레.

汪汪漾漾復滄滄
箭樣飛來屋樣高
可惜旱餘霖雨作
歸於汗漫起波濤。

출렁출렁 넘실넘실 도도히 흘러가며
화살처럼 빠르고 지붕처럼 높구나
아깝다, 가물다가 장마비 일어나더니
결국은 널리 파도까지 일으키누나.

鷗鷺失羣休問諸
魚龍移窟肯忘於
何當借得治洪水
疏導橫流尊舊居。

갈매기 해오라기 무리 잃었어도 물을 데 없고
물고기들 굴을 옮겼으나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어찌하면 홍수 다스릴 솜씨를 빌려서
흘러가는 물을 인도하여 옛 거처를 찾게 할까.

<권1.「漢江觀漲」>

다섯 수는 연작시로서 모두 한강 물이 범람하는 현장을 노래하고 있다. 게다가 그 위험도가 다음 수로 이어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첫 수에서는 마른천둥이 친다. 비는 오지 않지만 물굽이가 강하다. 이는 먼 곳에는 강한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마른천둥의 의미는 당시 사회분위기에서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곧 닥칠 위험을 암시하는 불안의 시간이다. 세 번째 수는 아득하던 먼지 비가 모래바람으로 바뀌어 현실로 닥친다.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혼돈의 상황이다. 그러나 작가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푸른 바다로 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는 누구에게 하는 경고인지 의심스럽다. 다만 현인군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부 혼탁한 정세를 타고 민족을 배신하는 인사들이 그 대상은 아닐지 추측해 본다. 네 번째 수에서는 그 물줄기가 출렁출렁하고 도도하다. 흐름도 화살처럼 빠르고 파도는 집채처럼 높다. 가뭄에 고마운 단비이기를 바라던 소망은 결국 두려움으로 바뀐다. 마지막 수에서의 거친 물살에 거처를 잃은 새와 물고기들에 대한 걱정이 거대한 재난으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누군가 물을 잘 다스려 당황한 백성들의 안식처를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지는 이 시가 결코 장맛비로 수위가 불어난 한강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게 한다.

滾滾漢江東逝水
浪花淘盡幾英雄
往事悠悠無問處
等閒秋月又春風。

넘실넘실 한강 물 동쪽으로 흐르는데
그 물살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 씻겨갔을까
지난 일은 그저 그대로 물을 수 없고
무심한 가을 달 또 봄바람 분다.

江水連天漲急濤

강물이 하늘에 닿은 듯 물결이 급히 불어나고

扁舟一葉勢如豪	한 잎사귀 조각배 그 세력이 호탕하다
他人爭涉印否否	남들은 다투어 건너지만 나는 안 하리
故作傍看上邱高。	옆에서 보기만 해도 높은 언덕 오르듯 하네.

喫驚風波旱路行	바람과 파도에 몹시 놀라 육로로 가니
羊腸豹虎險於鯨	굽은 길, 사나운 맹수 고래보다 사납다
從今非馬非船搭	지금부터는 말도 배도 타지 않으리
教子爲書教僕耕。	자식에게 글, 종들에게 밭가는 것 가르치려네.

灌園蒔花樂在中	밭과 꽃에 몰대니 그 가운데 즐거움 있어
偷閒管領一春風	한가히 지내면서 봄바람 관리한다
就看和氣團圓處	온화한 기운이 원만하게 뭉친 것 보니
好惡何關白與紅。	좋고 나쁨이 어찌 흰 꽃이나 붉은 꽃에 관계되리.

<권1.「偶吟」>

「偶吟」도 네 수의 연작시로 소재는 ‘한강’이다. 첫 수는 무심히 흘러가는 강물을 보며 자연의 “不廢江河萬古流 <杜詩諺解>”에 비한 人生無常의 傷情을 노래했다. 어쩌면 무심히 흐르는 물살, 그 세파 속에서 살아남고자 애쓰는 일엽편주의 모습은 안타까움마저 스며있다. 일엽편주는 세파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당대 지식인이나 백성들의 삶을 의미함이라. 그러나 작가 본인은 그 물살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인다. 육로를 택하지만 육로 또한 평탄하지는 않은 듯 하다. 물론, 서해로 흐르는 한강을 ‘東流水’라 한 것은 중국인들의 관용적 詩句를 인용한 것이다.

셋째 수는 정작 張晩의 “風波에 놀란 沙工은 비폭라 물을사니/ 九折羊腸이 물도 곤 어려왜라/ 이 後란 비로 물도 말고 밭갈기만 하리라”<靑丘永言>를 漢譯한 절조다. 이른바 육지의 ‘표범과 호랑이(九折羊腸)’가 바다의 ‘고래보다 더 사납다(물드곤 어려왜라)’라면서 육지도, 바다도 말고, ‘아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치고, 종에게는 농사나 짓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그러므로 마지막 수에서 채마밭에 물주고 꽃 심는 즐거움에 만족하겠다는 화자의 표현은 거센 세류에 뛰어들지 않고, 소박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즉 ‘한강’이 세상사가 거칠게 돌아가고 있는 時代潮流를 상징하는 것으로 유추했음을 알 수 있다.

3) 명승지와 자유로움

송설당의 한시 중에서 사찰이나 명승지 여행이 소재가 된 작품은 전체 시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다. 당시 금강산 여행이나, 압록강 유역의 여행 등은 당대 아낙들에게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던 듯하다.

夢見金剛已十秋	꿈에 금강산을 본지 10년
今來得上凌波樓	지금에야 능파루에 올랐노라
看吾眉黛僧休笑	내 눈썹 보고 저 중아 웃지마라
寧是男兒始壯遊。	내가 남자라면 어찌 처음 왔겠는가.

<권 1. 「表訓寺凌波樓」>

꿈에서나마 보고 싶던 금강산을 찾은 소감이다. 물론 송설당의 인생 설계는 한낱 여성이기보다는 남성적이었다. 그 스케일이 그렇고, 그 用心이 그렇다. ‘寧’ 一字의 속내는 남·녀의 성의 문제라기보다, ‘이 웅장한 명승을 이제야 보게 되었음’에 대한 아쉬움이다. 그 장쾌함에 대한 탄성이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사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나 숙연한 자세보다는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탁 트인 심정의 토로가 사찰을 대하는 작자의 의식세계임을 엿보게 한다.

山家晝掩綠雲扃	산촌마실 대낮에도 푸른 구름문 닫아
塵客巾裳好暫停	티끌 세상 선비들 잠시 머물기 좋구나
禪界原來多勝地	법계란 본디 승지를 터잡느니
遊人到處盡名亭	노는 사람 이르는 곳마다 이름 난 정자도 많지
村龍臥伏跑花白	시골 삼살개 흰 박꽃 보고 짖어대고
野犢遙鳴荳葉青	들판 송아지 푸른 콩잎 보고 울어대네
汗雨前途歸意少	가랑비 내리는 앞길에 돌아갈 마음 적으니
願言學佛寂忘形。	원컨대 부처님의 고요와 장자의 잊는 법 배우고 싶다.

<권1. 「興仁門外清涼寺避暑」에서>

사찰 풍경을 묘사하는 작가의 심정은 매우 경쾌하다. 사찰이나 명승지를 찾은 감회를 지은 시들은 ‘한강’을 소재로 한 시들에 비해 개인적이다. 또한 중의적 표현보다는 경치에 대한 직설적인 묘사가 많이 보인다. 다음 시도 사찰의 엄숙하고 경건한 가운데에서도 다소 재치가 가미된 심상이 표현되고 있어서 여행자의 호기까지 느껴진다.

巾幗秋風拜世尊	가을 바람 부는데 수건 쓰고 부처에게 기도하노니
千年靈蹟在空門	천년 신령스런 자취 절간에 있다
御書碑屹龍蛇動	임금님 비석글씨 우뚝히 용과 뱀 움직이는 듯
馳馬臺荒鳥雀喧	말 다니는 축대 거칠어지고 참새들 요란한데
無數峰巒羅佛像	수 많은 봉우리는 아라한 상이요
至今樹木老皇恩	지금도 수목들 부처의 자비 속에 자란다네
恨余癯骨仙緣薄	한스럽다, 내가 신선 인연 적어 수척한 채
平地歸來欲斷魂	속세로 돌아오니 정신이 아찔하구나.

<권1.「釋王寺」>

사찰을 소재로 한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작가의 심사는 경쾌함이다. 그러면서도 속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기도 한다. 특히 「釋王寺」에서는 계속 부처님의 자비를 받고 있는 수목을 부러워하는 작가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아마도 지난 궁궐시절의 그리움과 함께 조선왕조의 멸망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감춰져 있음일까.

이 밖에도 망국의 원통함을 슬며시 숨긴 작품들도 있다.

譙樓獨上忽悲歌	초루에 홀로 오르니 갑자기 슬픈 노래 떠올라
五百繁華一逝波	오백년 번화했던 세상이 한 물결에 씻겨 갔네
聖德長懸新日月	성스런 덕은 새로운 해와 달에 매달려 있고
餘民猶在舊山河	남아있는 백성은 아직도 옛 산하에 살고 있다
既爲異代吾無與	다른 시대가 된 것에 내가 무엇을 관여하리
不識何心感自多	모르겠다, 어떤 마음으로 느끼는 바 많은지를
回首可憐行樂地	머리 돌려 바라보니 가련키만 하여라, 번화하던 옛 터

空令過客費吟哦。

부질없이 지나는 나그네로 하여금 시만 읊게 하누나.

<권1. 「次人松京懷古韻」>

비극적으로 막을 내린 조선왕조의 흥망에 대한 작가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고려의 도읍지 개성은 작가에게 역사적 현장이면서 오늘의 국가적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곳, 이른바 杜詩 의 “風波山河左 城春草木深<杜詩諺解·十·春望>”이랄까? 길재의 “오백년 도읍지를 匹馬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결은 간데없네/ 어즈버 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는 忠節의 화한을 되씹을 뿐, 다른 시대가 된 것에 내가 무엇을 관여하리”라는 言志는 분명 회한과 안타까움에 다름 아니다.

欲識龍淵幾尺深

용연이 몇 척이나 깊은지 알려거든

須看翠壁立千尋

천길이나 우뚝 솟은 푸른 절벽을 보라

丹青古廟飛鴉集

단청 입힌 옛사당에 까마귀 날아 모이고

盡日靈風吹滿林。

온종일 신령스런 바람 울창한 숲에 불어오네.

<권1. 「次人龍灣八景韻」 여덟 수 중 ‘龍淵翠壁’>

신의주 압록강변의 팔경을 노래한 「次人龍灣八景韻」시 여덟 수 중 한 수다. 용연은 의주 북쪽 8리에 있는 九龍淵과 절벽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아름다운 절벽과 깊은 연못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시각과 청각적 이미지가 잘 어우러진 한 편의 題詠詩이다.

島上黃蘆入渺茫

조도에 누런 갈대 아득히 보이는데

秦風白露結爲霜

진풍에 ‘흰 이슬이 서리가 되었네’라 했지

晚來莫作花如雪

늦게 와서 갈대 꽃을 눈이라 하지 마라

恐似遊人老更狂。

노는 사람이 늙고 미친 것 같아 두렵다.

<권1. 「次人龍灣八景韻」 여덟 수 중 ‘鳥島黃蘆’>

차운과 전거를 원용한 시로서 옛 선인들의 한시 창작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마지막 행의 표현은 거센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이 밖에도 개성, 벽제점, 의주 등 역사적 사건이 관련된 곳이나 명승지를 여행했을 때는 주로 차운시를 창작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행시 중에 여자에게 채워진 속박에 대해 억눌렀던 감정을 강한 어조로 발화하고 있으며, 그 의식세계는 그 행위 자체가 아낙의 일이 아닌 사대부의 입장에 서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특히 담대함과 막힘없는 표현이 경쾌함을 전하고 있어 기행시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3. 詠物詩

송설당의 작품에는 자연물을 비롯해 사물을 제목과 소재로 다룬 詠物詩가 대부분이다. 또한 경물시와 함께 계절의 순환에 맞춰 각 계절별 산물이 연이어 소재가 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봄에 대한 경물시에 이어 여름에 나는 뽕잎이나 비, 부채, 능금, 석류, 봉선화 등을 소재로 한 영물시는 물론 파초를 소재로 한 시가 이어지면서 가을의 쓸쓸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해바라기, 국화를 소재로 한 시들이 이어지고, 다시 겨울의 대나무와 매화, 난초 소재시가 군을 이루며 배치되었다. 소재에 있어서 여성화자라는 한계를 갖지 않고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서경시와는 달리 사물에 의지하여 자신의 의지와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약 30%, 인간사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나타낸 작품도 적지 않다. 하지만 영물시답게 소재의 특징을 살려 성격이나 효용성에 비중을 둔 작품도 30%가량 되는데 일상적이고 사실적이다.

1) 신선의식

송설당의 영물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물과 자신을 일치시키거나, 사물의 형질에 기대어 자궁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심한 경우는 자신을 신선과 일치시키고 있는 작품도 있다.

吾看吾影子	내가 내 그림자인 나를 보면
眞眞在寶鏡	참 내 모습 보배스런 거울 속에 있구나
天然疑信間	진짜 모습을 의심하고 미더워하는 사이
姮娥月中嘆。	항아가 달 속에 비추는구나.

<권1. 「鏡」>

진진한 모습이 거울 속에 있다는 표현은 자신을 미화시키는 표현이다. 하지만 정말 진실한가? 의문을 던져보는 가운데 문득 달에 사는 항아의 모습을 본다고 고백한다. 항아는羿의 아내였지만, 남편이 서왕모로부터 받아온 불사약을 훔쳐 먹고 달나라로 달아난 달의 요정이다. 이런 ‘항아’를 자신과 일치시킬 수 있음은 아마도 자아에의 ‘나르시즘’ 혹은 ‘獨身’의 허허로움을 대비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丹鳳千年去不回	붉은 봉황새는 천년전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斜陽獨上暫徘徊	지는 해에 홀로 봉황대에 올라 잠시 머뭇거리네
憑欄一嘯飄然下	난간에 기대 한 번 휘바람 불고 홀쩍 내려오니
誰識青蓮羽化來。	누가 알겠느냐, 이태백이 깃털 달고 날아 왔는지.

<권1. 「鳳凰臺」>

李白의 [登金陵鳳凰臺]<唐詩三百選>를 용사한 작품으로 재치가 엿보인다. 물론 자신과 이백이 같을 수야 없지만, 이백이 신선이 되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희화성마저 풍긴다. 하지만 의식 이면에는 신선의 유유자적함을 흉내 내는羨望意識이 엿보인다.

難期千仞鳳	천 길 높이 나는 봉황도 되기 어려운데
況又十洲仙	항차 또 십주의 신선이라니
堪惜兼雙美	아깝다, 두 가지 아름다움 다 가졌으면서도
名傳下界田。	시골 목정밭에서나 그 이름 전하다니.

<권1. 「鳳仙花」>

1,2구는 꽃 이름을 破字한 句法이지만 3,4구에서는 봉황새나 신선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자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 작품도 신선의 기질이 있으면서도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을 연상케 하는, 이른바 시적 퍼스너의 自比와 무관하지 않다.

圭葉琴枝日見長	넙적한 잎 거문고 만들 가지 날마다 크는데
風來露滴作陰涼	바람 불고 이슬 맺혀 서늘한 그늘 만든다
憐渠此世無人愛	가련하다, 이 세상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 없으니
那得移根在嶧陽。	어찌하면 뿌리를 역산으로 옮기랴.

<권1. 「桐」>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 차라리 오동나무를 사랑하는 신선이 살고 있는 역산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마음이 오동나무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세상은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데, 그 이유는 신선 세상에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반어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滿地碧陰蟬滿天	푸른 그늘 땅에 가득, 매미소리 하늘 가득한데
清音交奏自年年	맑은 소리로 연주하며 해마다 지내왔네
憐渠動營長如許	불쌍하다! 너 부지런히 경영하여 얼마나 자랐는가
飲露成仙恐未然。	이슬 마시고 신선 못 될까 걱정이라네.

<권1. 「蟬」>

이 작품에서도 신선 선망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매미가 긴 시간을 인내하며 맑은 소리로 부지런히 노력하였는데, 혹여 신선이 못되면 어찌할까? 하는 작가의 두려움(恐)이 한낱 미물을 향한 동정심이기 전에 시적 주체에의 신선 선망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咫尺聞天香	가까운 곳에서 하늘 향기 들으니
賴汝月中桂	바로 달 속의 계수나무 너 아니더냐
賜我滌塵藥	나에게 티끌 씻는 약을 주니
時時拜上帝。	때때로 옥황상제에게 절을 올린다.

달 속의 계수나무가 자신에게 티끌을 씻는 약을 주었다는 표현은 옥황상제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자긍심이 스며있다. 티끌을 씻었다는 의미를 ‘가문의 명예를 되찾게 했다’는 현실적 의미로 파악한다면 옥황상제는 그에게 복권을 해 준 고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그로 인해 신선이 된 듯하다.

이 밖에도 영물시 외 기행시 「靑巖寺」에서도 ‘始到名區不世情 (이름난 곳 처음 당도하자 세상 모습이 아니고)/然緣漸近似前生 (신선 인연 점점 가까워 마치 전생과 같네)’라는 표현에서 자신의 전생이 신선이었다고 말하는 등 신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표현이 자주 감지된다. 그런가하면 달을 관찰하면서 자신을 귀양 온 신선과 일치시키고 있는 작품도 있다. “閱盡吾生今古恨(들춰보니 지금이나 옛날이나 한스런 나의 모습)/千秋停一謫仙杯(천년간 살아온 모습이 적선의 술잔에 딱 멈춰구나)”언제 어디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죄인의 모습인 자신을 적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략

皇曰爾松雪	황제께서 이르기를 ‘너 송설은
萬劫桑海變	일만 세월 뽕나무가 바다로 변했으니
爾復降人間	너는 다시 인간세계로 내려가거라
朕且召而見	짐은 또 너를 불러 볼 것이다’
御手貺二箱	임금께서 손수 두 상자를 주셨는데
暖香玉座遍	따스한 향기가 옥좌에 두루 퍼졌다
松雪再拜受	송설이 두 번 절하고 받아서
恨出廣寒樓	광한루로 물러 나와
復從去時路	옛날 길을 다시 따라
歸家如鞭電	번개처럼 집에 돌아왔다
會我諸昆季	여러 아우들을 불러 모아놓고
誇恩共欣忭	은총을 자랑하면서 함께 기뻐하였다
忙手開二箱	바쁘게 손을 놀려 두 상자를 열어보니
皜皜心目眩	눈이 부서 마음과 눈이 어질어질했다
一箱鶴氅衣	한 상자에는 학창의가

一箱白羽衣	한 상자에는 백우의가 들어있다
松雪忽驚歎	송설이 갑자기 놀라 탄식하기를
皇恩謬至此	황제의 은총이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二物雖云好	두 물건이 아무리 좋아해도
現生鳥用是	금생에 어찌 이것을 입을 수 있으랴.

<권1, 「記夢」 일부>

조선시대 규방의 여인들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완고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고난과 갈등을 신선의 세계로 도피하여 탈출구를 찾는다. 그러나 송설당의 신선의식은 다른 여성 작가의 신선의식과는 다소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허난설헌이나 호연재처럼 현실의 갈등을 이상적인 환상의 세계에서 해소하려는 것¹⁵⁸⁾은 같지만 송설당은 그 환상을 현실로 이어지게 하여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실제 현실의 벽을 깨뜨리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記夢」에서 그는 꿈이라는 가상현실을 설정하고는 있지만 옥황으로부터 남자 신선들이 입는 鶴氅衣와 白羽衣를 하사받아 현실로 온다는 내용에서 환상을 빌어 세상의 규율을 깨는 현실적 실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른 여류작가들은 신선의 세계를 환상의 세계 속, 생명의 공간에서 노니는 반면 송설당의 신선의식은 현실 공간에 있다.

2) 자존의식

송설당 영물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물의 특성에 의지하여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자기 확신이나 미화, 혹은 과시라 할 정도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지가 도도하며 중국에는, 여성적 한계를 넘어 남성 지향성이 엿보이는 작품들도 있다.

處高自有奔流勢	높은 데 있으며 제냥 쏟아지는 기세
經險那無散亂聲	험한 곳 지나자니 어찌 흩지는 소리 없으랴
知爾在山非爾性	산에 있는 것이 너의 본성 아님을 알겠으니

158) 열상고전연구회, 『호연재 김씨의 생애와 문학』, 도서출판 보고사, 2005, p.225.

何時能到大江平。 어느 때 평평한 큰 강에 도달하겠는가.

<권1.「瀑布」>

1,2구는 제멋대로, 거침없이 자유롭게 흐른다. 험한 낭떠러지 지날 때 흘리는 소리가 오히려 폭포의 장엄성이다. 3,4구에서는 그 기개는 분명 넓은 세상에서 펼쳐질 성품이라고 말한다. 「瀑布」에서 느낄 수 있는 작가의 성품은 여성적이기 보다는 남성의 기상과 흡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적 여성적 금 굿기는 후대 사회 환경이 만들어 낸 것이다. 처음부터 인간의 본성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었던 것이다. 송설당은 여성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포부와 기상을 표현하고 있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는 강에 이르러 넓은 세상의 인자가 되겠노라는 강한 의지와 자긍심이 전해지는 작품이다.

世識婦人飾	세상에서 부인네들 꾸미개로 일컫는 중
徒重金玉環	다만 금가락지는 가장 중하게 여기나니
圓成無滯限	둥그랗게 만들어져 막히거나 다함이 없어
能海又能山。	바다도 되고 또 산도 될 수 있다네.

<권1.「指環」>

여성들의 꾸미개 중 그 역사성으로나 의미상으로 가락지만 한 것은 없다고 한다. 일찍이 未堂 서정주 시인도 善德女王을 짝사랑하다 죽은 志鬼의 무덤을 찾아가 그 누워 자는 무덤위에 끼었던 반지를 벗어 준 일을 “하지만 사랑이거든/ 그것이 참말로 사랑이거든/서라벌 千年의 知慧가 가꾼 國法보다도/늘 항상 더 타고 있거라”¹⁵⁹⁾라 했는가 하면 “이 비인 금가락지 구멍에/끼었던 손가락은/이 구멍에다가 그녀 바다를 조여 끼어 두었지만/그것은 구름 되어 하늘로 날아가고”¹⁶⁰⁾이라고 노래했다. 이른바 永遠을 向한 環狀의 무한 속엔 불변의 진리·사랑·영원이란 哲理가 內在했음을 천명한 함축의 미학이 있다 하겠다. 이처럼 가락지는 여성성의 상징이 된 영물이지만 송설당이 읊은 가락지는 그 여성성이 오히려 막힘이 없는 만물과의 통함을

159) 서정주, 『신라초』, 『선덕여왕의 말씀』, 정음사, 1961.

160) 서정주, 『미당서정주 시선집』, 『비인 금가락지 구멍』, 민음사, 1991.

의미해서 여성성을 규정짓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自愛秋容淡	사랑스런 가을의 담백한 얼굴
東籬曉採菊	동쪽 울타리에서 새벽 국화를 따다
香露寫前史	향기 나는 이슬로 옛 역사를 베끼니
千年文郁郁。	천년 전 문장이 더욱 빛나는구나.

<권1.「菊」>

자못 東晉의 陶淵明의 그윽한 전원풍을 느끼게 한다. ‘새벽에 국화를 따는 정황’ 부터 순연한 여성적인 취향이기보다는 전원 취향의 남성적 유유자적이요, ‘글을 베끼는 행동’은 더욱 고급 文士의 隨記的 일상이다. 또한 시 속에 임신양명을 꿈꾸는 의식이나 대타적 사회의식이 엿보이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여성들로서는 常軌일 수 없는 일이었다. 대개가 가문과 집안, 남편과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당시 사대부 부녀자들의 지향점이었다. 때문에 송설당의 임신양명의 의지는 무의식적 남성지향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운명적 환경이었다. 자신의 학문의 깊이에 대한 자긍심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食肉非余思	죽순(竹肉)을 먹자는 게 내 뜻이 아니고
所居常有竹	사는 곳에는 항상 대나무 있어야지
勁節直臣同	굳은 절개는 곧은 신하와 같아서
霜雪誠難服。	서리와 눈으로도 굴복시키지 못하네.

<권1.「竹」>

物色依然處士家	의연한 자태 처사의 집에 걸맞아
雨餘菊葉綠交加	비를 흠뻑 맞은 국화잎 푸른빛을 더해만 간다
園丁且莫尋常看	정원사들아, 평범하게 보지 말라
待到霜前可作花。	서리 내리기를 기다려 당당히 꽃 피울 것이니.

<권1.「菊」>

위낙 ‘松·竹·菊’은 선비의 반려니, 三經이 그것이다. 대 [竹의 ‘中通外直’이야 周

茂淑의 蓮과 함께 군자의 풍모의 상징이자, 오상고절의 대명사다. 고로 대나무의 勁節直臣의 自己化, 혹은 자아의 메타포인 셈이다. 맑고 신선한 기운을 가진 대나무이지만 자신을 알아주던 왕휘지가 떠난 뒤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으며,¹⁶¹⁾ 충신의 굳은 절개를 찬양하기도 한다. 「菊」은 응지를 품고 수신하고 있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 자신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이는 시이다.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집안과 사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세대였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닫힌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입질을 하고 꿈을 꾸었던 것이다. 문집을 내기 위해 창작을 했던 때는 50이 넘어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송설당은 여자라는 불리한 조건을 숙명처럼 짊어졌으면서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가능성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굴의 의지는 청년의식이라 할 수 있다.

忘機我似白鷗心	기미를 떨친 내 마음 갈매기 같아
一點塵埃肯許侵	한 점 티끌인들 어찌 끼어드라
好向江南波浩蕩	강남의 호탕한 물결 찾아가기 좋아해
不關風雨自浮沉。	비바람 무릅쓰고 스스로 헤쳐나간다.

<권1. 「鷗」>

風前毛羽政脩脩	바람 앞에 날개는 정녕 찢어질 듯 하나
秋色長空萬里遙	가을빛 먼 하늘 만리 창공을 다닌다
滄浪水濶蒼苔岸	창랑의 물은 툭 터지고 이끼 낀 언덕
好向江南一任飄。	멋지게 강남 향해 바람 부는대로 맡긴다.

<권1. 「秋雁」>

많은 비방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의지와 호방함이 보이는 작품들이다. 「鷗」에서는 남들과 영키고 싶은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으니 개의치 않겠다는 초월적 의지를 보여주며, 「秋雁」은 아무리 세상사가 마음을 끌어도 툭 털어버리고

161) ‘…子猷去後無知己 一任來人間主人’. (『松雪堂集』 권1, 「竹」).

호방하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장부다운 의지를 보여준다.

屹立庭除尺許身	우뚝 마당 구석 한 자 남짓한 돌
層巖瘦骨近天真	야원 모습 마른 것이 타고난 천품 그대로
幽藏每被煙霞護	그윽히 내와 안개 속에 감춰져
不畏塵間有力人。	세속 힘있는 사람 아랑곳 하지 않누나.

<권1. 「怪石」>

바위 [石] 역시 마찬가지다. 굳이 유치환의 “ 내 죽으면 한낱 바위가 되리라… 애련에 물들지 않는…” <바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 天質을 지키기야 쇠도 금강석도 바위만 하라,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외형조차 바꾸지 않는 것이 바위다. 일찍이 상대 定法師의 “유독 못 봉우리 밖에 빼어나서, 외롭게 흰 구름 가운데 우뚝 하여라(獨拔群峰外 孤秀白雲中)”한 자화상이라 할 것이다. 아이러니한 비유이지만 송설당은 자신을 마당 구석에 서 있는 삐죽하고 바짝 마른 바위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한시 역시 남성 취향의 절조와 의지의 표현임에 틀림없다. 그 마른 괴석은 안개의 보호를 받으며 숨겨져 있지만, 결코 세속의 누구도 겁내지 않는다는 작가의 발화가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보인다. 알아주는 이야 없지만 그는 안개에 감춰져 있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지만, 그 능력은 겨룰자가 없다는 자신감에 찬 기상을 느끼게 한다.

이상의 시들에서 송설당이 세상을 향해 말하는 담론은 한 때 영광과 은총을 받았으나, 지금은 몰려나 있는 상태이며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서 등용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菊’에서는 세월이 흘러 노년기에 들었지만 가을에 꽃피는 국화처럼 더 늦기 전에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며 자신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 돌과 시내를 그 본질이 강인하고 자유로우며 당당하다. 송설당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강하고 자유로운 남성적 이미지에 부합시키고 있다.

3) 효용의식

자신이 사용하는 사물을 읊은 시들 중에는 매우 사적인 정감이 표출되는 동시에 실용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어서 일상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작품들도 있다.

曲似初生月 구부러진 모습이 초승달 같은데
應是姮娥梳 아마도 이것은 항아의 빗이겠지
任余理髮役 나의 머리 손질 맡기니
一生不暫疎。 일생동안 잠시도 떨어지지 말자꾸나.

<권1「梳」>

예컨대 앞 시대 妓房文學의 1인자로 통칭되는 黃眞伊의 「詠半月」만해도 ‘誰斷崑山玉(누가 곤륜산의 옥을 잘라내)/ 裁成織女梳(직녀의 얼레빗을 만들었던가)/ 牽牛一去後(견우님 한 번 가신 후)/ 謾擲碧虛中(토라져 허공에 내던졌나봐)’이라 하여 碧空에 걸린 반달, 그것은 분명 조물주의 조화요, 자연의 섭리건만, ‘誰裁’의 人爲로 환치하므로 ‘玉梳’가 되어 직녀의 수중에 놓였다가 만리 창공에 버려진 얼레빗으로 유추됨을 버리고 간 님, 견우에 대한 怨情으로 미화되었다. 공중에 버려진 빗, 그것은 분명 자신에의 비유일 것이다.¹⁶²⁾ 극적인 이야기가 있고 시적 감수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황진이의 빗과는 달리 송설당의 빗은 이야기는 있으나 시적 형상화는 없다. 황진이의 빗은 허공에 떠 있지만 송설당의 빗은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송설당은 자신이 사용하는 사물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황진이는 자연물을 자신과 연관지어 사물에 유추한 후에 자신의 심정을 표출시키고 있다. 즉 황진이는 초승달을 보고 빗을 생각하고 님과의 이별을 노래했다면 송설당은 빗을 보고 초승달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읊는다.

爾本崑山玉 너는 본래 곤륜산의 옥인데
何爲我眼鏡 어찌하여 내 안경이 되었는가
曾逃炎火劫 일찍이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松雪好相映。 소나무와 흰 눈 잘 비추는구나.

162) 金甲起, 『漢文學史』, 새문사, 2003, p.322.

<권1, 「眼鏡」>

「眼鏡」에서도 시적 화자가 자신의 안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게다가 ‘어찌하여 내 안경이 되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소나무와 눈을 잘 비춘다는 표현은 지나칠 정도로 직설적이며 인위적이다.

吸烟鮮鬱氣	연기를 빨아들이면 울적한 기운 시원해지는데
其名曰烟竹	그 이름은 담뱃대라 한다
一體兼五行	한 몸뚱이에 오행을 모두 지니고
辟邪穢氣逐。	사악한 기운과 더러운 기운 쫓아낸다.

<권1, 「煙竹」>

「煙竹」도 매우 직설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이다. 송설당의 詠物詩는 사물의 의미의 재발견이나 형상화보다는 자신의 현실적 효용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주 마주치는 일상사에 대한 시적 감수성은 매우 사실적이며 현실적 관념들과 연결되어 있다.

孤燈結穗寸心開	외로운 등잔에 심지 돋구어 불붙이고
每趁黃昏壁上來	황혼이 될 때마다 벽에 걸어 밝힌다
賴爾三更何所事	어떤 일로 너는 한 밤중
書兒續婦各隨才。	글쓰는 아이와 길쌈하는 아낙에게 재주를 따르게 했느냐.

<권1, 「詠燈」>

「詠燈」도 등잔불의 시적 형상화보다는 실용적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每到初秋夜	해마다 초가을 밤이 오면
聲聲促織鳴	찍찍 울어대며 베 짜라고 재촉하는가
忽忽添繡亂	하늘한 나래 부벼대니
札札度梭輕	찰찰 북이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듯
似織天孫恨	아마도 직녀의 한을 짜는 듯

空令懶婦驚
有時搗衣處
兼起故園情。

속절없이 게으른 며느리를 놀리는 듯
수시로 옷 다듬질하는 곳
자못 고향의 정 함께 일깨우는구나.

<권1.「促織」>

또한 귀뚜라미의 날개 부벼대는 모습을 베를 짤 때 북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비유하면서 게으른 며느리를 놀라게 하는 일상적인 감각 매개체로 보고 있다. 대개 가을날의 귀뚜라미 소리는 여인의 외로운 정서를 그리는 것이 일반이지만 송설당의 귀뚜라미는 고달픈 여인의 삶과 고향을 연상시키고 있다.

呀然窓竇漸微明
終此人心百慮生
已向隣家知動靜
爲看雲物占陰晴
鳥啼啞啞冲天去
鷄下于于散地行
整頓枕茲咸盥洗
紛紜內外各經營。

행 뚫린 창문 희미하게 밝아오면
이때부터 사람 마음 온갖 근심 생긴다
이미 이웃집 넘겨보니 동정을 알 수 있고
저 구름을 보며 날씨를 점 칠 수 있겠다
까마귀는 짹짹 허공을 지나가고
닭들은 구구구 이리저리 흩어지네
베개자리 정돈하자 세수하고
부산하게 안팎으로 맡은 일을 하는구나.

<권1.「早朝卽事」>

일상적 소재를 詩的 긴장감보다는 무덤덤한 객관자, 혹은 타설적 자세로 진술하고 있지만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의 동적인 이미지를 살려 잘 표현하고 있다.

위의 시편들은 시적 소재를 형상화하기 보다는 현실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시들은 송설당 시 가운데 가장 많이 눈에 띄는데¹⁶³⁾ 松雪堂 시의 특징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 끝없이 내리는 비를 보면서 자신의 하염없는 근심과 일치시키는 「夜雨」¹⁶⁴⁾나, 잠이 오지 않는 밤의 심경을 나타내는 「月夜

163) 『松雪堂集』 권1, 「春望」·「日本美人圖」·「漆夜吟」·「夜雨」·「詠扇」·「月夜」·「庭桑」·「煙竹」·「梳」·「眼鏡」·「葵」·「梅」·「柳」·「竹」·「菊」·「南菰」·「促織」·「早朝卽事」·「田家景」·「贈坎上人」·「詠燈」·「烏啼山客猶眠」·「駕梁津」·「田夫夏半耨畝」·「夕」·「贈申栗峰」·「金海懷古」·「藥水洞」·「聞歐西報有感而作」 등이 현실적 관념을 그대로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품들이다.

164) 「小屋門臨澗水流 水流農意共悠悠 無端半夜虛簷雨 添却愁中一倍愁」(『松雪堂集』 권1, 「夜

」165)도 理想의 세계나 非現實의 이미지의 사용보다는 그치지 않는 새벽 닭 울음소리로 밤을 지냈음을 시사하고 있다.

爾亦於人盛有遭	너도 좋은 인연을 만나
全體團圓戴頭高	온 몸이 단단하고 동그랗게 머리 위에 얹혔구나
醉來倒着池塘去	취했을 때 거꾸로 쓰고 연못가에 가면
笠影婆娑活水濤。	삿갓 그림자 너울너울 물결에 덩실덩실.

<권1.「冠」>

「冠」은 술 취한 사람이 썼을 때의 모습이 희화적으로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적 묘사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 「木枕」도 베고 잔다는 일상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은 고사인용으로 평이한 서술로 이뤄진 작품이며, 「硯」도 “서생들 책상에 없을 수 없다(書生几案不宜無)”로 서생들과 동고동락하는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烟竹」도 “길가는 나그네는 걸음을 재촉하며 손에 들기도 하고(路客催行携在手)/발가는 늙은이는 붙잡고 일하다 머리에 꽂기도 한다(田翁執役插於頭)”처럼 사실적 묘사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관념이나 고정된 인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작품도 눈에 띄지만 시적 발흥에서가 아니라, 발상 자체가 매우 관념적이고 풍교적이다.

如何班婕妤	어찌하여 저 반첩여는
空待秋風扇	부질없이 가을 부채를 기대했으리오
四時隨我手	사시사철 내 손을 따라다니며
風情共月面。	바람을 일으키는 정에 달처럼 예쁜 얼굴을 가지고서.

<권1.「扇」>

班婕妤와 桑田碧海의 고사를 실제 생활과 사고에 적용시켜 실용적으로 전환하는 기지를 보이고 있다. 班婕妤의 古事를 현실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아쉬움을 나타내는 작가의 의식이 엿보인다. 곧 부채는 반첩여가 자신의 신세를 가을이면 관심

雨」).

165) ‘檢書曉燭短 坐久覺神清 四逕無人迹 隣鷄不已聲’ (『松雪堂集』, 권1, 「月夜」).

밖으로 버려지는 부채에 비유한 것을 탓하고 있다. 여름, 가을 상관없이 항상 손을 떠나지 않는 부채도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부채의 역할은 바람을 일으킬 때만이 아니라, 달리도 쓰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재치있으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다.

戒于蠶室婦	조심하시오, 누에 치는 아낙들이여
莫採我庭桑	우리 마당의 뽕을 뜯지 마시오
幻作麻姑域	허깨비처럼 마고할미 이야기를 지어내서
欲看三變滄。	뽕나무 발이 세 번 바다가 되는 것을 보고 싶소.

<권1.「庭桑」>

또한 桑田碧海의 고사를 통해 긴 시간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의지로 도전해 보겠다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마당에 있는 뽕나무에서 뽕잎을 뜯으면 바다가 되는 일이 더디게 된다. 하지만 뽕잎을 따지 않는다면 세 번의 바다가 되는 것을 좀 더 빨리 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식은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흐르는 시간과 허무한 인생에 대한 도전의식을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시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오래 살고 싶다는 의지의 표출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고사를 현실에 적용시켜 뽕나무를 실제 그대로 두고 보자는 사실적 의지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그만큼 송설당의 인식은 고사마저도 사실과 현실에 밀착되어 있다. 고사를 고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인식하려는 의식은 송설당의 삶을 이끈 현실적이고도 혁신적인 면을 엿보게 한다.

4) 피해의식

사물보다는 자연물을 노래한 시에서는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피해의식이 보인다. 하지만 상투적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太黑翻教百鳥猜	검디검은 날개는 모든 새들이 미워하는데
林間屋上幾飛廻	숲 속 지붕에 몇 번이나 날아왔던가
休言十二聲皆惡	열두 가지 소리를 모두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啞啞啼時反哺來。

각각 울 때마다 봉양하러 온 孝鳥란다.

<권1, 「鳥」>

이 작품은 당시 자신에 대한 외부 인식을 대변한 듯 하다. 당시 송설당은 김천에서 서울에 옮겨 온지 얼마 되지 않아 궁인이 되고, 복권을 성취해 명실공히 사대부가의 면모를 갖추고, 거부가 되는 등 당대 세도가로 입신하게 된다. 이런 송설당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이는 당시 고종의 측근으로 알려진 鄭煥德이 지은 책¹⁶⁶⁾에서도 그 사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송설당이라는 이름의 거론과 함께 그를 폄하하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 것은 당시 송설당의 성공담이 향간의 화제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위의 시는 이런 상황에서 작가의 피해의식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모두가 싫어하는 까마귀이지만 예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견뎠는지를 암시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 즉 이런 저런 소문이거나 여러 모습을 비방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효심만은 누구도 따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송설당 자신에 비유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한다.

春梁鞠衣勝綺羅

봄 물 들인 옷은 비단보다 곱고

一生花柳不離他

한 생을 버들꽃에서 다른 나무로 옮기지 않네

如今老大誰相惜

지금 늙음을 누가 안타깝게 여기겠는가

歲月從前枉擲梭。

세월을 돌아보면 척사도 무릎을 꿇었네.

<권1, 「鶯」>

또한 꾸미지 않는 품성, 또는 저 시골에서 올라온 자신의 태생을 봄물들인 앵무새로 비유한 듯하다. 그러나 순박할지 모르나 고절한 의지와 부지런함은 누구도 탓할 수 없다고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이도 자신에 대한 곱지 않은 주변 시선에 대한 항변으로 해석할 수 있다.

古家門巷老槐多

낡은 마실 늙은 느티나무거리

166) 주46) 참조

雨葉風枝歲月磨
莫遺頑根穿蟻穴
功名富貴此中過。

비 바람 맞은 잎과 가지 세월에 시달렸구나
고집스런 나무뿌리에 개미굴 지천이니 뚫지마라
공명과 부귀가 이 가운데 있구나.

<권1. 「槐」>

세월의 풍파에 시달린 오래된 느티나무 밑에 부지런히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개미굴을 목격하고 쓴 시다. 곧 그 부지런한 노력이 부귀와 공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송설당이 오래된 문벌 귀족의 입장이었다면 개미들에게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부탁을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반대의 입장이다. 결국 작고 힘없는 생물들이지만 부지런한 치산은 거목 느티나무도 부러워할 공명과 부귀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는 벼슬을 얻는 것만이 입신의 길이 아니라, 재물을 모으는 일도 곧 부귀와 공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爭得枝食暮喧繁
叢薄疎籬自一村
不識網羅生計足
何須去入翟公門。

먹이 구하고자 가지 다투며 저물녘에 요란한데
거칠고 성긴 울타리에 저들끼리 모여 사는구나
알지 못할까, 넉넉한 생계란 모두 그렇겠지
하필 꼭 참새들 세계만 그러랴.

<권1. 「雀」>

「夏日園中雜詠 二十二首」 연작시는 여름날 동산에서 본 22가지 사물을 보고 자신의 심경을 읊은 것이지만, 대부분 작가가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물건을 보는 시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앞선 시들이 사적이었다면 여름동산에서 읊은 시들은 사회적인 언지가 깃들여 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을 의미하거나 전반적으로 외세에 영합하는 사회상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사물을 보는 시각이 자신에서 외부로 열려 있다. 「雀」에서는 삶의 본질인 경쟁이 어찌 인간 세상에만 있으랴. 거칠고 성긴 울타리에 모여 살면서 생계를 위해 바쁘게 돌아가는 새들의 지저귀임에서 인간사의 이치를 읽고 있다. 특히 고사에 나오는 적공을 빗대어 부귀와 공명을 벼슬아치들의 대문 안에서만 얻으려는 소인배들을 꾸짖고 있다.

門前古木嘯飢鶯

문 앞 고목에서 울부짖는 굶주린 매

底事於人不受憐 인간에게 일을 끝까지 아뢰어도 동정을 얻지 못하네
 鷺訴鷺鷥還可笑 제비와 피꼬리의 아침과 호소는 도리어 웃음만 당하니
 爭如日日戾于天。 어찌 날마다 하늘에 하소연하는 것과 같겠는가.

<권1, 「鷺」>

「鷺」은 고독한 충신의 모습을 간신배들과 비교하고 있으며, 「鷥」은 종일토록 재잘대는 제비의 바쁜 모습을 “사뭇 인간들 잘난 체 하는 것보다 더하구나(似勝人間說是非)”로 표현, 시끄러운 세상사를 풍자하고 있다.

그 외에 「鷄」는 비바람이 불던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재 할 일을 하는 성정을 높은 덕으로 여기는 작가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蟬」은 “불쌍하다! 너 부지런히 경영하여 얼마나 자랐는가(憐渠動營長如許)/이슬 마시고 신선 못 될까 걱정이다(飲露成仙恐未然)는 표현에서 노력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뜻을 펴지 못할까 염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시들의 공통적 정서는 생물의 특징을 여러 사람들의 성품에 비유하면서 세상사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지만 대개 사대부의 談論法이 그러하듯 他說的 觀念語로 도식화 되어 있다. 단 22수의 연작시에서 각기 생물의 특징에 맞는 사회적 언지를 넣어 지었다함은 역시 그 文力의 과시라 하겠다.

4. 自傳詩

송설당의 한시 작품 중에 자전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서술한 작품은 10여수이다. 비교적 전거를 차용하여 형상화시키면서도 자전적 내용을 암시하는 작품은 오언절구 「自懷」 二首와 오언율시 「元朝祝」 2수이며 문집 3권 부록의 차운시의 모델이 되는 「松雪堂原韻」은 동명의 제목이 2수로 모두 칠언율시이다. 이 두 수는 事君과 女嘆의 정조가 담겨 있다. 그 외의 자전적 내용의 작품은 서사시 형태로 지나온 일이나 문묘수축의 과정이 일의 진행 순서대로 서술되고 있다. 그 길이는 짧게는 14구부터 80구에 이르는 장형이다. 80구의 「記夢」은 꿈의 기록을 통해 자신의 지난날의

고난을 옥황상제로부터 위로받고 신선이 되는 내용이며, 16구의 「自述」은 자신이 여자로 난 원망과 포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62구의 「高陽先山石物畢役有感而作三十一韻」과 48구의 「定州宣川先壟設石儀回路有感而作」, 14구의 「先塋事送錫台至定州宣川」은 모두 가문의 영욕과 복원의 감회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일의 진행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서술되고 있다. 이 시들은 내용 전개방식이 가사와 흡사하며, 영물시나 경물시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작품 수는 영물이나 경물시에 비하면 적지만, 내용이 길고 반복되고 있어서 문집 전체 분위기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자전시는 크게 작가 스스로 자신의 심정과 능력을 표현한 내용과 신원설치의 동기와 과정, 가문복원과 회고로 나눌 수 있지만, 한 작품에 전 과정이 표현된 시도 있다.

1) 자신의 내력-고난과 역경 극복

송설당은 자신이 가문의 명예를 되찾은 일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 자부심은 당대 사회의 편견을 깨고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여자로서 해냈다는 점과,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고종과 엄비를 만나게 되어 소원을 이룬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자전시 중 궁중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언급한 것은 한 편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당시 궁중을 나온 심정을 짐작케하는 작품이 한 수 있을 뿐이다. 다음 시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金縷歌一曲	금루가 한 곡조를
誰送杜秋娘	누가 두추랑에게 보냈는가
繡肚吞無吐	비단을 삼킨 채 토하지 못하고
終來伴白楊.	결국 흰 버드나무와 짝지어 살게 되었구나.

文章稱李杜	문장으로는 이백이나 두보를 최고로 하고
將略說關張	장군의 계략은 관우나 장비를 말하더라
盛代鳴音律	좋은 시대엔 음률이나 울리고
亂世竭忠良.	난세에는 충성과 지혜를 다하리.

이 작품은 자전적 내용을 담은 시 중에서 은유가 가장 많은 작품이다. 金縷歌는 金縷衣¹⁶⁷⁾를 읊은 곡명¹⁶⁸⁾으로 두추랑의 남편 李錡(이기)가 항상 불렀다고 한다. 杜秋娘은 금릉(남경)의 여자로 15세에 李錡(이기)의 첩이 된 후 어느 날 李錡(이기)가 반란을 일으키어 죽게 되자, 대궐에 적을 두고 궁에 들어갔다. 경릉의 총애를 받았으나 목중이 즉위하자 황자의 여스승이 되었다. 황자가 장차 자라서 장왕에 봉해지게 되었는데 장왕이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자, 두추가 그로 인해 직책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고사¹⁶⁹⁾의 주인공이다. 황자 영친왕의 보모였던 송설당이 망국으로 인해 영친왕이 일본에 볼모로 잡혀가자 궁을 떠난 것과 비슷하다. 이처럼 두추의 삶과 자신의 삶이 비슷한 것은 물론 두추의 고향 당나라 금릉은 송설당의 고향 김천의 옛 이름과 같아 동질감을 더 느낀 듯 하다.

첫 수는 고향으로 물러난 두추랑은 시문의 재주가 마치 臟腑에 가득찬 비단같이 아름다웠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고요히 살았다는 뜻으로, 송설당 자신도 재능은 있지만 맘껏 펴지 못함을 寓意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수는 첫 수와는 다른 의지의 표현이다. 태평성대에는 이백과 두보처럼 음률을 올리지만, 난세에는 관우와 장비처럼 충성과 지혜를 다 하는 것이 도리임을 말하고 있다. 작품의 제목이 「自懷」인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궁을 떠나 할 말을 못하고 살고 있지만, 망국지탄의 형국에서는 충성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白雲孤松一小堂	흰 구름 외로운 소나무 작은 집
此心非欲遠流芳	이 마음은 하소연을 멀리 흘려보내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早閱風霜餘老能	일찍이 풍상을 맞아 늙은 나머지에
晚霑雨露愧榮光	늦그막에 임금의 은혜를 받으니 그 영광 부끄럽기만 하구나
夏清冬溫誠不及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하여

167) 황금처럼 빛나는 실로 만든 옷.

168) 杜牧의 「杜秋娘」에 붙여진 노래. '秋持白玉聲 與唱金縷衣 勸君莫惜金縷衣 勸君須惜少年時' 참조.

169) '杜秋 金陵女也 年十五 爲李錡妻 後錡 叛滅 籍之入宮 有寵於景陵 穆宗即位 命秋皇子傳姆 皇子壯封漳王 王被罪廢削 秋因賜歸故鄉.' (『漢語大詞典』).

春霄秋日恨須長
來生做得何因果
第待修文奏 玉皇。

봄 하늘 가을 낮 길어진 것만 한탄했다
내생에 만약 어떤 인과를 얻게 된다면
차례차례 문장을 닦아서 옥황상제께 올리리라.

<권1.「松雪堂原韻」>

笑我濫稱松雪堂
此心不欲伍群芳
可期經歲青蒼質
祇愛無塵皎潔光
業墜箕裘情靡極
身爲巾幗恨須長
人間多少風霜劫
他日吾將訴玉皇。

우습구나. 외람되게 송설당이라 일컬으니
이 마음 아름다운 꽃들과 똑같으려는 것 아니다
세월 지나도 푸르고 푸른 자질은 기약할 수 있는데
다만 사랑하는 것은 티끌 없이 깨끗한 빛이다
가업을 이어받을 정은 끝이 없는데
여자 신세가 된 한이 길고도 길구나
인간 세상은 풍상의 세월이 많은 법
이 다음 내가 하느님께 하소연하리라.

<권1.「松雪堂原韻」>

위의 두 작품은 송설당 자신이 같은 운자에 맞춰 지은 두 편의 동명 작품으로 『송설당집』 권3 부록에서 130여명이 차운한 시이기도 하다. 두 원운시는 배치상 전반부(167제 중 41번째)와 후반부(167제 중 160번째)로 떨어져 있다. 전반부에 배치된 ‘白雲孤松一小堂’으로 시작되는 시는 伸冤雪恥를 해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시는 문집 권1에 비교적 앞부분에 배치된 것으로 궁을 떠나는 정한을 읊은 「自懷」(167제 중 16번째 배치)와 함께 궁궐, 임금의 은혜 등과 매우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하지만 후반부에 배치된 ‘笑我濫稱松雪堂’으로 시작되는 원운은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나라에 대한 보은과 감은의식에서 벗어나 한 개인으로의 심정을 읊고 있다. 자신의 당호의 내력과 의도를 말하고 여자로 태어난 한을 옥황상제께 아뢰어보겠노라는 심회를 적고 있다.

天地巍巍日月明
資生萬物各成形
惟是人生靈且貴

천지는 우뚝 솟고 해와 달은 밝아
만물의 탄생 도와 각각의 모양을 완성시킨다
오직 인간만은 신령스럽고 또 귀하니

網倫禮節體元亨
三才我亦參人品
却恨終爲女子身
心常洞洞而燭燭
遺訓何時不思親
欲將至願訴上帝
默默垂鑑表情眞
他生做得何因果
忠孝家中快活人
共作賢良伊傳侶
遭逢聖代帝堯君
東西事業經營後
百世遺芳發達文。

삼강오륜 예절을 원형에서 본받았구나
삼재에 해당하는 나도 인간 등급에 들지만
한스러운 것은 여자 몸이 된 것
마음은 항상 넓고 시원히 뚫려 반짝반짝 밝은데
남기신 유언 어느 때든 부모님 생각지 않으리
지극 소원 하느님께 하소연하려고
잠자코 고개 숙여 진실한 정 비춰본다
후생에 어떤 인과를 얻어야만
충효 집안에서 쾌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고
어지신 이윤과 부열의 짝이 되어
태평성대 요임금을 만나
이런 저런 사업을 경영한 뒤에
백세 뒤에 아름다운 모습 남겼으면.

<권1.「自述」>

이 작품은 규방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실제 『송설당집』 卷二의 가사에도 같은 제목의 비슷한 작품이 있다. 특히 전반부 표현은 규방가사 身邊嘆息類 중에서도 女身因果嘆 歌辭에서 볼 수 있다.¹⁷⁰⁾ 여성을 긍정하면서도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는 것이 특징이다. 송설당은 여성으로 태어난 한은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넓고 시원히 뚫려 반짝반짝 밝아서’ 부모님 유언을 잇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어떤 인과를 얻어야만 후생에 충효집안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을지 질문하면서 어진 재상과 짝이 되어 어진 임금을 도와 나라에 쓰이기를 소망하는 포부가 그려지고 있다. 이 작품에는 어떤 은유나 비유도 없이 자신의 여자 된 한과 포부를 서술하고 있어서 서사성이 짙다. 또 앞의 감은과 여탄, 군자의 포부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작가의 성품을 한 눈에 읽을 수 있다.

.....전략

生爲巾幗身
風霜自奔汨

살아서 남편 잃은 몸이 되어
풍상을 겪으며 바빠 살아왔고

170) 권영철, 『규방가사 신변탄식류』,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1979. p.13.

晝宵常蹙蹙	낮과 밤을 항상 조심하면서
六旬如一日	육순을 하루같이 지내왔다
立揚本無路	입신양명하기에는 본래 방법이 없으니
事業況可必	하물며 사업을 어찌 감히 기대하겠는가
家道縱零替	비록 집안 길이 구차하게 되었으니
先業焉繼述	선조의 일을 어찌하면 이을 수 있을까
且以匹婦視	또 아녀자의 시각으로 보면
猶有一身吉	오히려 일신에 길한 일이나 있을지
人皆有夫婦	남들은 모두 부부가 있으나
我獨無家室	나는 홀로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人皆有子女	남들은 모두 자녀가 있으나
我則只親姪	나는 단지 친조카 뿐이로다
萬念徒輾轉	오만가지 생각에 얹치락뒤치락
中心如有失	마음속에 뭔가 잃어버린 것 같다.

.....후략

<권1. 「記夢」 일부>

송설당 한시 중 가장 긴 「記夢」은 작가의 삶을 자전적으로 읊은 시로서 80구에 이르는 장편거작이 있다. 전반부 8구는 잠 못 이루는 밤에 평생 쌓인 한을 누구와 풀 것인지 생각에 잠긴 주인공이 있다. 위 부분은 80구 중 9구에서 24구로 남편 잃은 몸이 되어 입신양명할 방법이 없어서 선조의 일을 이을 길이 막연한 것을 평생 쌓인 한으로 표현하고 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몸이라, 오만가지 생각과 喪失感에 뒤척이는 절대고독의 파노라마다.

다음 56행은 남가몽을 이루어 칠원의 나비가 되어 선계에 이르게 된다. 항아와 직녀를 만나고 옥황께 나아가게 된다.

.....전략

俄到玉皇前	조금 있다가 옥황상제 앞 이르러
拜稽心惶慄	큰 절 올리니 마음이 떨려오네
皇曰爾松雪	황제께서 '너 송설은
塵劫儼已畢	옛 조상들이 진 업보를 이미 다 마쳤다

有懷言無隱	생각나는 것 말하고 숨기지 말며
有冤訴之悉	원통함을 모두 하소연하거라'
松雪俯而泣	송설이 엎드려 흐느끼면서
不能開啓舌	입을 열지 못하는구나
皇曰爾松雪	황제께서 이르기를 '너 송설은
止泣聽朕說	흐느끼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爾懷或難奏	혹 네 생각을 아뢰기 어려울 수도 있고
爾冤或難雪	너의 원통함을 씻기 어려울 수도 있다'
松雪默無言	송설이 잠자코 말하지 않으나
雙眼淚不絕	양쪽 눈에 눈물이 끊이지 않는다
滂沱濕衣巾	눈물이 줄줄 흘러 옷과 수건을 적시는데
不覺聲嗚咽	오열하는 소리를 깨닫지 못한다
皇曰爾之泣	황제께서 이르기를 '너의 울음은
亦可究情曲.	또한 곡직한 정을 끝까지 더듬어 볼만 하구나.

.....하락

<권1. 「記夢」 일부>

32구부터 37구는 옥황과의 대면장면이다. 옥황은 송설에게 억울함을 숨기지 말고 호소하게 하였으나 말을 잊지 못하고 오열만 하니 '실컷 울어라' 하며 옥황은 이미 헤아리고 상자 둘을 주어 인간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돌아와 형제들께 은총을 자랑하며 상자를 열어보니 은거하는 선비들이 입는 학창의와 신선의 옷이어서 '비록 좋긴 하나 현세에 어찌 쓰리오'라며 탄식했다는 내용으로 맺는다. 이는 비록 꿈을 빌어 표현하고는 있지만, 작가 스스로 자신의 과업 완수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옥황상제가 직접 신선으로 등극시켰다는 것은 자기만족감에 빠져 있는 작가의 심리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깊은 한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풀 수 없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특히 옥황상제와의 대면에서 '皇曰-'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시구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서사적 기법과 서술적 표현을 거침없이 한시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과감하고 실험적이다.

2) 가문 복원과 자축

나머지 장형의 시는 모두 문묘 수축에 관한 내용을 읊은 작품들로서 가문의 내력과 그것은 복원하는 사업의 규모와 심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시라기보다는 산문에 가깝다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되살린 가문의 면면을 자세히 적고 있어서 시의 목적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門戶何零替	우리 가문 언제 이리도 망가졌는고
逮今百四年	어언 일백 사년이 지났구나
遺訓思圖報	부모님 유언에 보답하려 했는데
先塋久失傳	선조 무덤을 오랫동안 잃어버렸네
對羹難飽喫	국을 먹으려해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臨臥不甘眠	누워 있어도 단잠을 잘 수 없구나
孜孜如負泰	열심히 하려 해도 편안치 못해
洞洞若深淵	캄캄한 게 깊은 연못 같구나
慕先瞻北雪	선조를 추모하러 북녘 눈을 쳐다보며
送汝向西天	너를 서쪽 하늘로 보내니
神靈歆感否	신령께서는 느낌이 있으신지
子職尙油然	자식의 직분은 아직도 홀려내려오니
改蒞又堅石	때를 바꾸고 돌을 세우기도 하며
庶竭此心懸。	끝까지 이 마음 다 하리라.

<권1. 「先塋事送錫台至定州宣川」>

이 작품은 선조 무덤 단장을 위해 조카를 선영이 있는 정주 선천으로 보내며 자신의 그간의 조상에 대한 마음을 적고 있다. 가문 복원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마음 깊숙이 새겨있었는지를 독자들에게 알리고도 남을만한 직접적이고도 사실적 표현들이다.

.....전략

終身勞我思

죽을 때까지 내 생각을 괴롭혀

今春送泰姪
 搜訪從便宜
 幸賴皇天佑
 次第盡在茲
 中心喜欲狂
 爰謨設石儀
 採石城西岡
 三朔琢磨之
 招招李漢模
 工手巧且奇
 先遣寢郎敬
 事由告神祇
 乘彼鐵路去
 千里風雨馳
 翼弟導我前
 泰及斗分隨
 瑩域霜露降
 痛哭尊一丘
 墓儀復如新
 先靈陟降斯
 兼旬役告竣
 天寒氷凍時
 淒愴再拜退
 雙眼淚如絲
 山月入懷照
 江風拂面吹
 松柏漸蒼然
 望望坐如癡
 汽笛催行李
 聲聲欲恨誰
 問爾從我者
 倘知此心悲。

금년 봄에 석태 조카를 보내서
 이리저리 살피게 하였다
 다행히도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이 일을 하게 되었다
 마음 속으로 미치도록 기뻐해야
 석물을 설치하자고 의논하였다
 뫼부리에서 돌을 캐어
 3개월 동안 쪼고 다듬어
 석수장이 이한모를 초빙해 오니
 돌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고 기묘하다
 먼저 능참봉 하던 경을 보내서
 사연을 귀신에게 고하게 하였다
 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천리를 비바람처럼 달려갔다
 광익 아우가 내 앞에서 인도하고
 태와 두가 나누어서 따라왔다
 선영 묘역에 서리와 이슬 떨어져
 통곡하면서 술 한잔 올렸다
 묘역을 새롭게 다시 만드니
 선조의 신령이 여기에 강림하시겠네
 20일 만에 완성을 고하자
 날씨는 엄동설한이었다
 서글픔에 두 번 절하고 물러나니
 양쪽 눈에서 눈물이 실 같이 흘러내린다
 산 달은 가슴 속에 비추고
 강 바람은 얼굴을 때리는구나
 소나무와 잣나무 점점 울창해가니
 멀리 바라보며 앉아있는 모습 바보 같다
 기차 소리 갈 길 재촉하니
 소리마다 누구를 한스러워 하느냐
 묻노니, 나를 따르는 자는
 아마도 이 슬픈 마음을 알겠지.

이 작품은 석묘신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간의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가문의 몰락과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가문의 복권을 이루겠다는 꿈을 키운 내력, 이를 임금의 은총으로 이룰 수 있었던 기쁨과 묘 단장을 위해 돌은 깎고 준비하는 과정, 걸린 시간, 완성후의 심정 등을 상세히 표현했다. 마지막 8구에서 묘단장을 끝내고 성묘를 하고 돌아오면서 느낀표현이 한시다운 정서를 담고 있을 뿐, 앞의 구들은 한시의 표현이라 하기에는 너무 사실적이고 서사적이다.

昔栽崔門昌	옛날 우리 최씨 문중 번창했을 때
簪組世澤長	큰 벼슬로 대대로 은택 입었다
清德交河守	맑은 덕으로 교하에서 군수 지낸 분도 계시고
文章騎省郎	문장으로 기성에서 벼슬한 분도 있었다
天不喪斯文	하늘이 이 학자를 버리지 아니해서
迺誕守愚堂	이에 수우당을 탄생시켰다
素履棲晉山	본래 진산의 계통을 밟아서
草木被昭光	초목에 밝은 빛을 입으니
嗚呼已丑冤	아아! 슬프다 기축년 그 원통함
欲語涕泗滂	말을 하려면 눈물이 줄줄 흐른다
維茲德陽山	오직 이 덕양산에
三世衣履藏	3세의 옷과 신발이 묻혀있다.

.....중략

天氣日載陽	따뜻하고 좋은 날에
召彼良工來	저 훌륭한 목수를 불러오니
漢模暨鳳祥	한모와 봉상이었다
爰送寢郎侄	능참을 하던 조카를 보내
董役山之岡	산소를 감독하게 하고
光弟躡其後	광익 아우가 그 뒤를 따라
旬朔事奔忙	열흘간 일이 바빴다
載諏辰之吉	좋은 날을 골라서
三墓排石床	세 묘에 석상을 배열하고

村丁齊力運
 呼耶動夕陽
 適勁金子筆
 銀鉤石面煌
 改莎謹封築
 薦我清酒香
 又幸羣季至
 墓前雁一行
 大父翰振氏
 肅恭拜侑觴
 邈矣三百年
 萬事屢變滄
 先靈猶不泯
 愀然見洋洋
 頂祝萬千世
 遺孫庶無殃
 不覺悲權并
 感淚滿沾裳。

시골 청년들 힘을 합해 운반하는데
 어야 소리 지르며 석양까지 날랐다
 힘 있는 글씨 화려한 필체
 날카로운 글씨가 돌면에 빛난다
 뗏장을 바꿔 조심스레 축대를 쌓고
 향기로운 청주를 올리라고 했다
 또 다행스럽게 여러 아우들 찾아와
 묘 앞에 형제들이 기리기처럼 한 줄로 늘어섰다
 대부 한진씨가
 엄숙하고 공손하게 술잔 올리는 것을 도와
 아! 기나긴 삼백 년
 모든 일이 여러번 변했구나
 선조의 신령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아
 긴장하여 옷깃 여미니 혼령이 보이는 듯
 이마 대고 절하며 만천세토록 자손들에게
 재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감동의 눈물 치마 가득 적시네.

<권1. 「高陽先山石物畢役 有感而作三十一韻」>

이 시는 화자의 가문이 현창함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많다. 전반부 8구는 최씨 문중에 번창했던 시기를 더듬으며 대대로 큰 벼슬한 사람이 많았다는 점을 들고, 그런 가문이 멸문의 수모를 당한 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절을 알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당황하지 않고 가문의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규중의 여자로서 조상의 묘를 관리할 수 없는 처지에 마음 아파하다가 드디어 때를 만나 뜻을 이루게 되었음을 보고하듯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아우들이 벼슬을 다시 받고, 옛 가문의 위치를 다시 찾았음을 표현하고 있어서 작가 스스로 무척 대견스럽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가의 어조는 마지막 수 「慈親八十八壽生朝識喜」에서 정점을 이루면서 한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어머니의 88세 생일을 맞아 생일잔치를 열어

드리며 작가 스스로 만족해하며 지난 시절의 회한과 앞으로의 효도를 다짐하는 내용이다. 작가의 절절한 효심이 절로 전해지는 한편 성공한 한 자식의 모습도 겹쳐진다. 이런 효과는 송설당의 숨길 수 없는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심은 영물시나 경물시에도 고루 나타나 있지만, 가문에 대한 의식은 영물시나 경물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대신 장형 서사시에서는 호방함과 자유로움 등 서정적 정서 대신 가문 현창과 복원에 대한 집착의식이 부각되고 있다.

자전시는 그 내용과 길이가 한시영역이라기보다는 가사영역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이다. 일의 진행순서대로 적어나간 점 등이 매우 서사적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권2의 언문사조(가사)로도 표현되고 있어서 문집의 전체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따라서 문집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매우 분명한 특징이다.

제 2 절 언문사조

김운양은 『송설당집서』에서 송설당의 작품들 중 국문가사를 더 높이 평가했다.

국문가사의 경우에는 더욱 더 장점이 많아서 곡조의 품격이 충심하여 맑고 가사의 뜻이 온화하고 고와서 푸른 바다에 사는 늙은 용이 국문가사를 갖고 노는데 턱 아래 여의주의 영롱하고 멋진 채색이 파도 사이에 은은하게 비쳐 빛나는 것 같았다. 모르겠다. 부인으로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또 어찌 힘들이지 않았는데도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풍류 놀이를 하고 글을 쓰는 선비들이 형설지공을 하면서 그 해를 다 보내고 나서도 그가 지어놓은 문장을 보면 마치 매미나 벌레가 우는 것 같아서 병뚜껑으로도 쓸만한 것이 못되는 작품을 손가락으로도 다 꼽을 수 없다.¹⁷¹⁾

171) ‘國文歌詞 尤爲長處 而調格冲淡 辭意和婉 如滄海老龍 戲他領下 明珠玲瓏 寶彩隱映於波濤之間 未知夫人不學 而能如是乎 不工而能如是乎 苟有操觚弄墨之士 雪窓螢火兀兀窮年及見其所爲文則如蟬鳴虫咽 不足一吟 而爲覆瓿之資者 指不勝擗’(淸風金允植, 『松雪堂集序』, 『松雪堂集』, 권1).

『송설당집』 권2의 권명은 ‘諺文詞藻’이지만 김운양은 ‘국문가사’로 칭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문사조’는 국문가사를 통칭해 부르는 이 시대 명칭인 것을 알 수 있다. 김운양은 송설당의 가사에 대해 조격의 담박함, 시어의 온화하고 아름다움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품격 있는 가사를 짓는 송설당의 모습을 ‘푸른 바다에 사는 용이 국문가사를 갖고 노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꽤나 나이든 여인의 가사 짓는 농익은 여유로운 태도를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늙은 용이 국문가사를 희롱하는 모습은 ‘턱 아래 여의주의 영롱하고 멋진 채색이 파도 사이에 은은하게 비쳐 빛나는 것 같다’고 하여 창작된 작품 편편마다 문자 그대로 ‘珠玉’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송설당 가사는 이와 같은 김운양의 내용 극찬 외에도 몇 가지 점에서 그 의의가 발견된다. 첫 번째는 전통 여성가사들의 계보에서는 매우 드물게 작가가 확인되는 記名 작품이라는 점, 두 번째는 새로운 근대매체에 담겨지는 가사 계보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서정시라는 점이다.

우선 여성가사에서 위치를 보기로 한다. 흔히 규방가사라고도 하는 조선후기 여성들의 가사에서 발견되는 작품 대부분은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조 규방가사는 대략 6000여 편이 남겨져 있고, 이 가운데 600여 편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¹⁷²⁾ 그런데 이 가운데 현재까지 작가가 알려진 것은 총 9명, 작품 11편이 전부이다.¹⁷³⁾ 그 작가와 작품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746년 이충실의 처 안동 권씨(1718~1789)의 <반조화전가>, 전의 이씨(1723~1748)의 <절명사>, 연안 이씨(1738~1815)의 <쌍벽가> <부여노정기>, 공인 남원 윤씨(?~1801년)의 <명도자탄가>, 순헌왕후 김씨(1789~1857)의 <김 대비 훈민가>와 <부인 훈민가>, <太平詞>이다. 은진송씨(1803~1860)의 <금행일기>와 1896년작 홍씨부인의 <홍씨부인 계녀사>, 윤희순(1860~1935)의 <신세타령>과 <義兵歌>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명씨 작품과 무명씨 작품의 비율 차는 너무 커서 비교 가치가 있을 지 의문스러운 정도이다. 그런데 송설당에 이르러, 작가는 겨우 1인 추가이

172) 백순철, 『閨房歌詞의 作品世界와 社會的 性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p.7, p.28.

173) 나정순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이하 기명 규방작품 소개는 이 책에 따른다.

지만, 작품수로는 49편이라는 다량이 추가된다. 앞에서 언급한 기명 여성작가 중에서 송설당과 거의 동시대에 작품 활동을 한 사람은 윤희순 한 사람 뿐이다. 이로써 근대에 들어서서 규방가사 전통의 마지막은 ‘송설당’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 우뚝 그 맥이 이어졌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¹⁷⁴⁾

두 번째 근대가사문학의 계보에서 송설당 가사의 위치를 보기로 한다. 이 시기에는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의 발달로 발표지면이 확대되면서 가사작품은 양적인 면에서는 전대의 어느 시기 못지않은 많은 작품이 창작되었다. 내용도 丈夫豪氣, 風俗勤勉, 遊覽紀行, 風物敘景, 頌祝追慕, 憂國啓蒙, 布教信仰, 懷古敘事, 道德教訓 등 매우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런 양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가사 대부분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교훈, 계몽적 특성을 지닌다. 한마디로 서정가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종교를 포교할 목적가사를 양산한 일부 작가를 제외하면 서정가사를 지은 작가로는 송설당이 최다 서정가사 작가라 할 수 있다.¹⁷⁵⁾

한국가사문학사에서 이상과 같은 의의를 띠고 근대 초를 장식하는 송설당 국문가사는 이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경향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제 여기서는 이러한 송설당 국문가사의 구체적인 작품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기로 한다. 첫째 국문가사의 형식과 소재적 특징을 먼저 살피고, 다음으로 그러한 특징을 근대라는 시대적 특징과 관련하여 장르의 변이적 성격을 고찰한 후, 최종적으로 한시와 연문사조의 관련양상을 살펴 송설당 작품 전체가 입체적으로 조망되도록 하겠다.

1. 단형성과 영물 소재

송설당 가사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보다 형식에 있어서 20구미만의 단형이 80%이상이라는 점과, 소재면에서 사물을 노래한 가사가 50%를 차지한다는

174) 송설당이 여성작가 계보에 속하지만, 작품양상은 조선조 규방작가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절과 제4장 송설당의 의식세계에서 본격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175) 한석수, 앞의 논문, p.157.

점이다. 이러한 ‘단형성과 영물 소재’는 서로 무관한 두 영역이 아니라 송설당 시세계를 위해 긴밀히 결합된 ‘형식과 소재’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송설당 가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소재들은 창송, 백설, 노송, 한선, 실솔, 난초, 국화, 분죽, 홍매, 목단화, 연꽃, 무궁화, 봉선화, 향일화, 해당화, 달, 단비, 석류, 파초, 수선화, 청포도, 낙엽 등이다. 이들 소재를 읊은 작품들은 매우 정제된 감정이 절제되어 표현되었다. 그런데 이들 영물 소재 작품 대부분이 10구미만의 짧은 형식이거나 10행과 20행 사이로 20여 편이나 된다. 20행이 넘는 작품은 10여 작품이며, 유일하게 60행이 넘는 작품은 88행 한 편뿐이다.¹⁷⁶⁾ 일반적으로 300행 이상을 장형가사라 하고, 60행 이상을 중형가사라 하며, 중형보다 짧은 단시형을 단형가사라 한다.¹⁷⁷⁾ 송설당의 가사는 하한 구수율이 20행을 전후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시조의 변격형인 장형시조나 잡가류와도 상충되어 단형가사일 경우 그 구분이 어렵다는 이론¹⁷⁸⁾도 있다. 이는 두루마리 형식의 일반적 규방가사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송설당의 단형 작품들은 때로 한시를 언문적 표현으로 바꿔놓았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이는 작가의 창작 태도가 작품의 소통을 염두에 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한시의 표현 도구인 한문을 읽을 수 없는 작가층을 고려한 의도가 이러한 단형적 형태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또한 송설당 가사의 ‘단형적인 특징’과 더불어 ‘중결형 생략방식’은 漢詩나 시조의 변용성이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히 송설당의 가사는 창작 태도면에서 흥의 유발과 言志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한시와 같은 맥락의 흐름을 갖고 있으며, 시의 소재면에서도 서사적 연사가 아닌 서정적 정감의 표출이 많다.

풀이푸르거든	내가덩령은줄알고
공산명월요적혼밤	저두견슬피울제
나의우름침작하여	구십월세단풍이
낙엽되어소슬커든	나간줄노

<권 2. 「자감(自感)」>

176) 「즈술(自述)」, 松雪堂, 『松雪堂集』, 권2.

177) 홍재휴, 「가사의 범주 설정과 주석 방안」, 『한국가사문학의 주석과 그 정리 방안의 모색』,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연구소, 2002, p.29.

178) 홍재휴, 앞의 논문.

송설당 가사 중 가장 짧으면서 가장 감성적인 작품이다. 삶의 허망함을 강조하면서도 죽음을 관조하는 심상이 극히 정제된 언어로 표현되고 있어서 음미를 요한다. 이러한 절제미는 뚜렷한 漢詩적 요소이다. 그러나 마지막 읊어구를 결구한 기법은 시조의 결구법과 같다. ‘낙엽이 소슬커든 나간줄로’ 이 부분은 「자감(自感)」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동시에 많은 상념과 정서가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 이처럼 긴 여운을 남기는 이 작품을 과연 가사라고 할 수 있을까? 가사는 시조와 달리 내면의 정서를 긴 글로 풀어낸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가사의 이러한 풀어냄의 기능이 발견되지 않는다. 긴 설명도 없이 마치 망자의 말 같이 느껴지는 언어와 이미지로만 되어 있다. 4행의 형식도 漢詩 결구 형태와 흡사하다. 이를 漢詩로 바꾸면 五言絶句에 맞을 듯 하다. 시조와 동일한 결구 생략법에도 불구하고 4행이어서 3장 시조 형식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시의 결구형태인 4행 구조에 주목하면 한시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역시 이 작품을 가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단형이다.

이런 형식적 특징으로 하여 그의 언문사조는 한시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몇 작품 외에는 대부분이 형식만 언문이고 단형이지, 그 내용은 매우 서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송설당 가사는 한시의 절구나 읊시에 가까운 단형으로 변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송설당 가사의 이런 특징은 대략 작가의 두 가지 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작가의 문학창작의 장르적 기반이 본래 한시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익숙한 한시 기법이 국문가사 창작에 자연스럽게 활용되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자를 읽을 수 있는 독자층과 그렇지 않은 독자층을 고려한 작가의 창작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작품들을 통해 송설당 가사의 이러한 특징을 좀 더 분석해 보자.

서북창문(西北窓門)열어노코

인왕북악(仁旺北岳)바라보니

중중층층(重重層層)석벽(石壁)은

정신골격(精神 骨格)쇄락(灑落)하고

울울청청(鬱鬱青青)저초목(草木)은

관대의상(冠帶衣裳)방불(彷彿)한데

담담(淡淡)히쫄구름은

오는손님만기는듯

곤곤(滾滾)히흐르는물	가는손님전별(餞別)인 듯
골격정신(骨格精神)관대의상(冠帶衣裳)	석벽초목(石壁草木)부쳐두고
오고가빈객(賓客)들은	한운류수(閒雲流水)맛터있다
구중춘식(九重春色)취선도(醉仙桃)라	요지연(瑤池宴)을과(罷)후후에
류선침상(遊仙枕上)꿈을찌니	소소슬슬(蕭蕭瑟瑟)저추풍(秋風)이
만단슈회(萬端愁懷)이리킨다	저풍경(風景)이세월(歲月)을
그렇저렇보니다가	적송선조(赤松仙子)날 찾거든.

<권2. 「우음(偶吟)」>

로장(老將)은무용(無用)이라	기력(氣力)이점삭(漸衰)하니
로당익장(老當益壯)허언(虛言)일세	마음까지줄어간다
담비스대로벗을삼아	이리저리거닐다가
압뒤뜰을비회(徘徊)하랴	화초슈목(花草樹木)덤고(點考)하니
어제아침피든꽃시	금일(今日)저녁락화(落火)되고
지나간봄시납시가	이가을에황엽(黃葉)이라
화초슈목(花草樹木)너의들은	째가오면회생(回生)하니
가련(可憐)하다우리 인생(人生)	한번가면자취 없다.

<권 2. 「감회(感懷)」>

「우음(偶吟)」이나 「감회(感懷)」는 우선 가사 보다는 한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제목이다. 실제 제1권에 실린 한시에도 「偶吟」 제목으로 두 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한시의 작품들은 저녁에 들려오는 퍼리소리를 듣고 느낀 바를 읊은 것과 무심히 흘러가는 한강 물을 보고 쓴 시들이다. 이처럼 「偶吟」이라는 제목은 그야말로 어떤 전경이나 상황 앞에서 느껴진 바를 우연히 읊을 때 한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목이다. 위의 가사 「우음(偶吟)」도 창밖에 보이는 인왕산을 보며 느낀 소회를 적은 것으로 규방가사에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는 제목이며, 그 내용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감회(感懷)」도 역시 일반적인 가사의 창작태도처럼 말하고자 하는 발화,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먼저 있어서 쓴 글이 아니라,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뜰을 거닐다가 영감이 일어 쓴 작품이다.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가사 작품 내용과 다르며, 「감회(感懷)」라는 제목도 가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한시투 제목이다. 송설당의 가

사에서는 이처럼 사물이나 경치를 보고 일어나는 즉흥적 감흥을 기술한 작품들이 많다.

창외(窓外)에일지지(日遲遲)하니
 지나간밤악(惡)흔풍우(風雨)
 천슈만지(千樹萬枝)시넙피니
 몇날몇시못다가서
 방초방초(芳草芳草)록음방초(綠陰芳草)
 왕손(王孫)은귀불귀(歸不歸)라
 만단심회(萬端心懷)지향(指向)업서

모춘삼월(暮春三月)느것세라
 홍벽도화(紅碧桃花)간곳업고
 냇얼골을다시본듯
 록음방초(綠陰芳草)시절(時節)이라
 헛다져서저문날에
 한번가면못을인성(人生)
 장우단단(長吁短歎)절노는다.

<권 2. 「서회(敘懷)」>

인간고락(人間苦樂)만스중(萬事中)에
 괴왕스(既往事)틀싱각(生覺)하니
 일기(日氣)점점(漸漸)화창(和暢)하나
 영휘원(永徽園)을향히가서
 원근산천(遠近山川)바라보니
 홍도벽도(紅桃碧桃)삼식도(三色桃)는
 천스만스(千絲萬絲)양류스(楊柳絲)는
 사양방초(斜陽芳草)저문날에
 일단심중(一段心中)미친마음
 창망(蒼茫)히다저운산(雲山)아

무정세월(無情歲月)약류파(若流波)라
 천슈만흔(千愁萬恨)시로워라
 바라논곳적막(寂寞)하니
 국궁(鞠躬)히고비례(拜禮)후후
 도라간봄다시와서
 화문보(花紋褥)를펼쳐논듯
 초록장(草綠帳)을드리운듯
 일거왕손(一去王孫)불부회(不復回)라
 엇지하면푸리보리
 일후(日後)다시무려볼가.

<권 2. 「추감(追感)」>

위 두 작품도 가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형식이다. 두 작품의 제목 「서회(敘懷)」와 「추감(追感)」역시 가사에서 보기 드문 것이다. ‘자나간 밤 악한 폭풍우’에 ‘홍벽도화 간곳없다’는 표현이 현장감을 주는 동시에 ‘왕손은 귀불귀’라는 아래 구절과 대응되면서 나라 걱정이 숨어있는 언지의 표현이다. 「추감(追感)」역시 엄비 묘소가 있는 영휘원을 돌아보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왕가의 전성기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노래했다. 이는 개인사에서 비롯된 회포이기는 하나, 여인들의 가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형식과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전통적인 가사제목은 「제녀가」, 「신행가」, 「훈민가」, 「여자탄식가」, 「백발가」, 「노처녀가」, 「청년과부가」, 「슈심탄」, 「소군원가」, 「영친곡」, 「화전가」 등 ‘-가’가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송설당의 가사에는 이같은 「-가」의 형태를 단 한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20세기 초에 쓰여진 윤희순의 가사에도 「신세타령」이라 하여 가사에서 사용치 않는 제목을 사용하는가 하면, 「의병가」라는 작품은, 제목은 전통적 규방가사의 「-가」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 때문에 가사장르 귀속문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또한 20세기 초 신문에 발표된 가사에서도 관습적인 노래 제목 보다는 「血性隊」, 「相逢有思」와 같은 독특한 제목이 간간히 눈에 띄지만 그 현상이 전면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송설당 가사 작품에는 가사 혹은 노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해 오던 오래된 관습적 제목이 단 한 편도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송설당 가사 작품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창송(蒼松)」·「백설(白雪)」·「즈술(自述)」·「술지(述志)」·「견민(遣悶)」·「우음(偶吟)」·「추감(追感)」·「감은(感恩)」·「근친(觀親)」·「한양성중류람(漢陽城中遊覽)」·「김해회고(金海懷古)」·「춘풍억향원(春風憶鄉園)」·「약슈동(藥水洞)」·「발환경제(發還京第)」·「중양(重陽)」·「추야감회(秋夜感懷)」·「한선(寒蟬)」·「실솔(蟋蟀)」·「란초(蘭草)」·「국화(菊花)」·「분죽(盆竹)」·「홍매(紅梅)」·「목단화(牡丹花)」·「영도스상연화(永導寺賞蓮花)」·「무궁화(無窮花)」·「봉선화(鳳仙花)」·「향일화(向日葵)」·「히당화(海棠花)」·「명월(明月)」·「희우(喜憂)」·「농자대본(農者大本)」·「석류(石榴)」·「파초(芭蕉)」·「슈선화(水仙花)」·「청암스(靑岩寺)」·「금릉풍경(金陵風景)」·「청포도(靑葡萄)」·「탄락엽(歎落葉)」·「루디선묘봉심금립석기스(廬代先墓奉審及立石記事)」·「송석덕지정유선천선묘봉심(送錫台之定州宜川先墓奉審)」·「선묘립석경영(先墓立石經營)」·「송운동운석(松雲洞運石)」·「빅현금봉학산성묘(白峴及鳳鶴山省墓)」·「무골산성묘(舞鵲山省墓)」·「갈현성묘(葛峴省墓)」·「송당감회(松亭感懷)」·「즈감(自感)」·「동지야(冬至夜)」

이 제목들은 송설당 가사 작품 전체의 제목들이다. 이들 제목들은 제목 그 자체만 보아서는 도저히 전통적인 가사 제목으로 볼 수 없다. 규방가사는 물론 남성들이 쓴 가사 작품들에서도 결코 사용된 적이 없는 제목들이다. 그럼 이 작품 제목들은 어디서 유래하는가? 이들 제목들은 오히려 『송설당집』 제1권 한시의 제목과 통

한다.

「思親」·「春望」·「卽事」·「毛之洞」·「途中」·「贈斗兒」·「鳳凰臺」·「瀑布」·「日本美人圖」·「漆夜吟」·「夜雨」·「夜雨」·「題暎人」·「詠扇」·「月夜」·「自懷」·「庭桑」·「秋雁」·「林檎」·「石榴」·「漁翁」·「秋雁」·「渡漢江」·「深夜急雷」·「漢江觀漲」·「雪止」·「次人松京懷古韻」·「撥悶」·「贈人」·「漫筆」·「散步」·「言志」·「松簷」·「閒居信筆」·「書贈文醉山」·「偶吟」

위의 제목들은 송설당 한시에서 사용한 제목들 중 일부만 제시한 것이다. 제목만 보아서는 ‘가사’와 ‘한시’의 장르 구별이 어렵다. 바로 이 점이 조선조 장르에서 ‘가사’와 ‘한시’가 그 제목만으로도 확연히 구별되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소재에 있어서도 서사성을 띤 것보다는 사물을 직접 제재로 삼고 나아가 제목까지 사용한다. 이전 시기 규방가사에서는 제재가 제목이 되는 경우 보다는 화자의 명칭이나 신분, 놀이나 주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대비된다.

황산(黃山)아잘잊거라

북당하(北堂下)에고퇴(告退)호후

덩거장(停車場)을당도(當到)호여

괴덕성(汽笛聲)이무정(無情)호다

풍우(風雨)갓치오느길에

가을빛치찬란(燦爛)호고

울울청청(鬱鬱青青)저송림(松林)은

륭건릉소(隆健陵所)완연(宛然)호다

아아(嗟哉)호다저남산(南山)아

만호천문(萬戶天門)명월(明月)일세

나를보고반기는듯.

감천수(甘泉水)아다시보자

여러데형(弟兄)상휴(相携)호고

털마상(鐵馬上)에분수(分手)홀 제

산과물이변기처럼

좌우도던(左右稻田)황금(黃金)편듯

미산역(梅山驛)을다다르니

백령(百靈)이호위(護衛)호듯

양양(洋洋)할손한강수(漢江水)요

남문역(南門驛)에하거(下車)호니

북악산(北岳山)과인왕산(仁旺山)은

<권 2. 「발환경대(發還京第)」>

고향 땅을 방문하고 어머니, 형제들과 헤어져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심경을 노래한 「발환경대(發還京第)」는 기행가사이다. 기행가사는 가사의 유형들 중에서 가장 긴 장형태를 띠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기행가사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단형이다. 뿐만 아니라 끝맺음에서 보이는 생략법 또한 기존 기행가사와 많이 다르다. 그런가 하면 규방 기행가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청유의 서두 형식, 훗날 기약의 말미 형식 등도 생략되고 있다.

또 다른 기행가사 한 편을 보자

한양성중(漢陽城中)살펴보니	반도강산(半島江山)슈선지(首善地)라
웅장(雄壯)하고번화(繁華)홀손	금성탕디(金城湯池)아아나.

.....중략

육지형선(陸地行船)저던차(電車)로	동물원(動物園)을드러가니
날짐성길짐성이	낫낫치다모엿네
산중호걸(山中豪傑)희상령물(海上靈物)	영특(英特)하고괴이(奇異)하다
백슈진공(百獸震恐)저스예(獅貌)며	초군비에(超群脾睨)저호표(虎豹)는
털창(鐵窓)안에웃다갓다	벽력(霹靂)갓치고함하고.

.....중략

불지종가(佛之宗家)통도스(通度寺)오	법지종가(法之宗家)해인스(海印寺)라
법당정던(法堂正殿)굉장(宏壯)하고	단청치식(丹青彩色)화려(華麗)한데
삼층포단(三層蒲團)탁즈(卓子)우에	안여반석(安如磐石)놓히안겨
십이시(十二時)로등향다미(燈香茶米)	가진공양(供養)밧들더니
홀지(忽地)에디위변천(地位變遷)	박물관(博物館)에드단 말가
감중련(坎中連)숨은손에	홍하사수(恒河沙數)미진(未盡)케라.

<권 2. 「한양성중류람(漢陽城中遊覽)」>

「한양성중류람(漢陽城中遊覽)」은 일반적인 기행가사에서 보이는 서사와 결사가 생략되어 있다. 즉 기행에 오르기 전 여장을 준비하는 서사,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회포를 정리하는 결사가 없다. 이 작품은 곧 바로 목적지에 도착하여 그곳만의 경치를 읊고 있다. 첫 구부터 ‘한양성중 살펴보니’로 시작하고 있다. 특히 규방 기행가사들은 대개 일정한 형식을 취하는데, 이 작품에는 그 형식이 없다. ‘어와 우리 벗님네야 이기사를 들어보소’, 와 같이 시작하여 ‘이만으로 줄이고서 후일계약 다시하세’와 같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사형제 완유가」 179)는 임인년에 사형제가 한양을 구경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흥겨웠던 심정

과 여자 됴을 한탄한 가사인데, “어와 세상스야 육십이 당두토록”으로 시작하여 “산고회심 문장으로 답가지어 보내시오”로 끝내고 있다. 또 「청양산수가」¹⁸⁰⁾는 청양산에 올라 경치를 묘사한 작품인데 “청량산늑늑봉은 우리선조 장구쇠라”로 시작하여 “어와 벗님네야 다시와볼가 흐노라”로 맺고 있다. 이와 같은 규방 기행가사의 일반적 형식이 「한양성중류람(漢陽城中遊覽)」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이 송설당 기행가사에서는 기행가사의 일반적 형식이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개의 규방 기행가사가 화수회나 화수계의 단체 기행과 달리 단독 여정을 즐기는 모습이 여유롭게 나타나는 것 또한 특징이다.

이처럼 송설당 가사는 기존 규방가사의 형식과 상당히 다를 뿐 아니라, 나아가 공격 발화 양식 담화가 아닌 지극히 사적인 정서만을 드러내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한시나 시조의 표현법에 근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가사에는 양식적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규방에서는 4·4조의 기계적 율격의 정형성을 사용한 장편화와 내용에서의 이념화 지향이 많이 나타난다. 남성들을 위한 풍류방 공간에서는 가창을 위한 가사가 대중화의 기미를 띄며 창작되기 시작한다. 이 풍류공간의 가사를 흔히 가창가사라고 하는데, 음보 이탈과 단형화를 보이며 그 중심 내용은 애정 주류로 나타난다. 송설당 가사는 이러한 조선후기 가사의 양식적 변화의 여맥을 잇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 차이 또한 적지 않다. 우선 송설당 가사는 단형가사 형식을 취하면서도 정형화된 기계적 율격을 많이 사용한다. 단형이라고 해서 애정가사를 창작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때로 事君의 정과 가문을 바로 세우는 감개가 넘쳐나고 있어서 분위기는 유교적 전통을 보여준다. 또한 당시 규방가사는 점점 길어져서 춘향전과 같은 긴 내용을 담아낼 정도의 율독 중심의 장편가사들이 많이 창작 되었다. 하지만 송설당의 가사는 그러한 가사의 향방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것이다. 전통양식을 따르기보다 나름대로 새로운 변용을 추구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설당 가사에서 보이는 새로운 변용은 이상의 양식적인 측면 외에 작품내용에서

179) 작자 미상, 「사형제 완유가」, 「규방가사 I」, 가사문학대계 ③,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pp.525-530.

1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pp.531-536.

도 발견된다.

란초(蘭草)란초(蘭草)저란초(蘭草)야	내어디로쫓츠왓노
명지산림처스가(名在山林處士家)라	처스(處士)쫓츠예왓노야
옥옥청향군즈꿘(郁郁清香君子佩)라	군즈(君子)쫓츠예왓노야
지란공처동취미(芝蘭共處同趣味)라	지초(芝草)짜라예왓노야
란혜동근화상스(蘭蕙同根花相似)라	혜초(蕙草)짜라예왓노야
말근향기(香氣)고흔티도(態度)	화중상품(花中上品)분명(分明)흔듯
심곡(深谷)중에성장(生長)히도	꽃답기느데일(第一)이라
화초(花草)에는란국(蘭菊)이오	슈목(樹木)에는막죽(梅竹)일세
란국막죽(蘭菊梅竹)말근지취(志趣)	스군즈(四君子)라 이르나니
그중에설리고송(雪裡孤松)	이아니오청(五淸)인가.

<권 2, 「난초(蘭草)」>

향일화(向日花)느충신화(忠臣花)라	키도크고현앙(軒昂)하다
너마당에심은뜻을	그늬라써침작(斟酌)하라
달과갓치등근꽃이	히를향하기우리니
아참써는향동(向東)하고	저녁써는향서(向西)하여
한씨라도일치안코	충심성의(忠心誠意)직혀간다
꽃닙마다빗누르니	중앙정식(中央正色)이아닌가
임을향흔일편단심(一片丹心)	슈유(須臾)인들움길손야
숙상한풍(肅霜寒風)소슬(蕭瑟)한	화엽(花葉)이식불변(色不變)하니
뒤뜰에설중고송(雪中孤松)	네가덕실(的實)너벗인듯

<권 2, 「향일화(向日花)」>

위의 「난초(蘭草)」와 「향일화(向日花)」는 영물 소재로 송설당의 가사 일반에서 발견되는 양상과 같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규방 여인의 일만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난초」, 「향일화」는 그 내용이 여성적 소망이나 일상을 그리기보다 군자의 기품을 노래하고 있다. 「난초」에서는 산림처사, 향청군자 등 그 이상형들이 남성들로 이뤄졌으며, 사군자와 함께 자신을 상징하는 松을 포함시켜 五淸을 찬양하고 있다. 「향일화」에서는 충심성의(忠心誠意)를 지키며 임금을

상징하는 중앙정색(中央正色)을 드러내는 기상으로 임금을 향한 마음을 뒤뜰에 눈 덮인 소나무, 즉 자신에 비유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작가이지만 소재를 다루는 방식은 남성적이다. 송설당의 가사에는 여성가사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신변탄식의 주제가 거의 없고, 그 대신 자존감과 영물예찬, 조상 산소를 단장하는 축하의 의미, 임금과 어머니 은혜에 대한 보은의 심경 등이 주로 담겨있다. 규방가사는 말 그대로 규방의 여인들의 정서가 서린 작품들이다. 그런데 송설당의 작품에서는 여성적 정한을 노래한 작품은 「自述」과 「述志」 정도이다. 그 외에는 여성성이 간취될 만한 정한이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제가 歎老와 불변의 絶義, 感恩과 頌祝追慕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남녀 공통적인 주제가 되는 것들이다.

특히 「蒼松」과 「白雪」은 자신의 당호를 옆두에 두고 소나무와 눈의 특성을 찬미하고 있는데, 그 기상은 남성적인 것으로까지 나아간다는 특징을 보인다.

무려보세무려보세	울울함만(鬱鬱含晩)저창송(蒼松)아.
춘풍화류(春風花柳)란만(爛漫)홀제	구든마음구지직혀
성식불변(聲色不變)언건(偃蹇)하니	장부웅심(丈夫雄心)네아니며
하일산중(夏日山中)말근 바람	락락덩덩(落落亭亭)웃득서서
지지엽엽(枝枝葉葉)울창(鬱蒼)하니	호걸괴상(豪傑氣像)네아니며
황국단풍(黃菊丹楓)구추시(九秋時)에	릉상고절(凌霜高節)거오(倨傲)하여
신기(神氣)가장름렬(凜烈)하니	렬스정조(烈士貞操)네아니며
엄동설한(嚴冬雪寒)찬바람에	굿센정신(精神)렁락(冷落)하여
적갑창염(赤甲蒼髯)특연(特然)하니	신즈충절(臣子忠節)네아니나.
네지조(志操)와네충심(忠心)은	세한(歲寒)후(後)에더욱안다.

.....중략

우로턴은(雨露天恩)잡흐라고	종남산하(終南山下)풍설중(風雪中)에
인왕북악(仁旺北岳)바라보고	국궁(鞠躬)하고섯는모양(貌樣)
가지가지충절(忠節)이오	넙시넙시충심(忠心)이라.

.....중략

천종만종(千種萬種)초목중(草木中)에	너갓튼류(類)또잇는나.
백운명월(白雲明月)도커니와	백설중(白雪中)에빛이논다.
창송백설(蒼松白雪)두글즈를	상합(相合)하니송설(松雪)이라.

여기서 소나무는 작가를 비유한 상징물이다. 작가는 소나무를 스스로 丈夫雄心, 豪傑氣像, 烈士貞操, 臣子忠節 불변하다고 노래한다. 여성의 기풍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丈夫忠臣의 모습만 그리고 있다.

.....전략

턴상비비(天上霏霏)쳐러지니	빅락턴(白樂天)이그아니며
슈중점점(水中漸漸)딛혀오니	빅릉파(白凌波)가네로구나.
폐각산문(閉却山門)천일슈(千日睡)는	빅운선생(白雲先生)잠들었고
만고력스(萬古歷史)편찬(編纂)홀제	빅미선생(白眉先生)쳐맞쳤다.
명월로화(明月蘆花)추강상(秋江上)에	학(鶴)을일코방황(彷徨)하며
일천리외(一千里外)오문상(吳門上)을	말에비겨바라본듯
정신진정(精神鎮定)홀슈업서	눈을씻고다시보니
설청운산(雪晴雲山)북풍한(北風寒)에	옥우정영(玉宇崢嶸)조출하야
천산비도(千山飛鳥)쏟아지고	만경인종(萬頃人蹤)전혀업다.
고쥬스림(孤舟蓑笠)저로옹(老翁)은	독조한강(獨釣寒江)홀노있고

.....중략

변천시대(變遷時代)저러하고	문명세계(文明世界)이러흔듯
기중에독립창송(獨立蒼松)	더욱히유식(有色)하야
양춘(陽春)을화답(和答)하니	만고불변(萬古不變)송설(松雪)인가.

눈 내린 산하 풍경과 내리는 눈을 보며 그 고결함과 깨끗함을 찬양한다. 흰 눈이 세상을 다 덮어도 우뚝 선 푸른 소나무 빛은 더욱 곱고 따뜻한 봄을 맞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은 어디에도 고생스런 과거사나 홀로 사는 외로움에 대한 탄식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긍심, 또는 스스로에 대한 자족감이 넘치는 작품이다. 여성 가사에서 보기 힘든 당당함을 풍긴다. 이처럼 송설당 대부분의 가사에서는 여성적인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없고, 남녀의 공통적 주제가 녹아있을 뿐이다. 특히 자손의 번창과 감은, 충심을 주제로 담은 많은 작품들, 「한양성중류람(漢

陽城中遊覽)」, 기타 금릉 기행 소감을 읊은 「금릉풍경(金陵風景)」, 「김해회고(金海懷古)」 등 기행가사류에도 여성적인 정서나 내용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것은 좀체 발견할 수 없다.

락가산하(洛伽山下) 타히중(普陀海中)	즈죽(紫竹)으로울을삼고
턴연(天然)호개안것는다	쌍(雙)상토판저동즈(童子)는
감로슈병(甘露水瓶)슈양(垂楊)가지	억조창성(億兆蒼生)살니라고
더령(待令)호고섯는형상(形像)	관음죽(觀音竹)이네아니나
송설당전(松雪堂前)츠군죽(此君竹)은	고절청풍(高節淸風)벗이되야
일보평안(日報平安)호야보세.	

<권2. 「분죽(粉竹)」 일부>

「분죽(粉竹)」은 자유롭고 편안한 심사를 읊고 있다. 분재를 즐기는 화자의 한가한 시간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 안에 여성적 정서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부귀(富貴)롭다목단화(牧丹花)야	화중왕(花中王)이네로구나
번화(繁華)호다목단화(牧丹花)야	국색천향(國色天香)네로구나
비온뒤에바라보면	목욕(沐浴)호미인(美人)갓고
아침날에시로보면	단장(丹粧)호화선(花仙)이라
침향당반의란간(沉香亭畔依欄干)에	진일군왕간부족(盡日君王看不足)은
당명황(唐明皇)씨양귀비(楊貴妃)가	너를화(化)히되엇구나
리화도화(李花桃花)만발(滿發)호고	형화방초(杏花芳草)흔날일제
가지버더넙만피고	꽃소식(消息)이적막(寂寞)호여
구십춘광(九十春光)허송(虛送)호니	범채(凡卉)와성질(性質)달너
지조(志操)가가장높다	일은영화(榮華)가소(可笑)로워
만년부귀(晩年富貴)취(取)호이라	황미시절(黃梅時節)도라오미
해당화(海棠花)를압세우고	록음(綠陰)속에반만우서
무루녹게고흔티도(態度)	나를보고반기논듯
군봉잉잉(群峰嚶嚶)노리호고	호喋분분(蝴蝶紛紛)춤을추니
화세계(花世界)의지극(至極)호락(樂)	왕즈칭호(王者稱號)맛당흔듯.

<권2. 「목단화(牧丹花)」>

「목단화(牧丹花)」를 노래한 영물가사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여유롭고 자유롭다. 규방가사에서 흔히 꽃에 자신을 비유하거나, 꽃과 자신을 대비시켜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49개 작품 중에서 자신의 과거사와 남편과 자식 없는 신세를 읊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즈술(自述)」과 「술지(述志)」뿐이다. 그러나 이 두 작품에서도 비탄의 신세 타령이 아닌 여성으로서의 달관의 모습이 보인다. 「즈술(自述)」은 매우 긴 작품이다. 그러나 송설당의 자전적 삶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동시에 송설당 가사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여성적 정한과의 차별성을 감지하기에 적합하므로 길게 인용해 보기로 한다.

<序辭>

광대(廣大)흔러른턴디(天地)	소소(昭昭)흔발근일월(日月)
산과물이성긴후에	음양이괴(陰陽二氣)조판(肇判)하니.

.....중략

부모의성육지은(生育之恩)	턴디(天地)에서다를소나
남녀(男女)를물론(勿論)하고	성육(生育)키는일반(一般)이라
우리부모(父母)나를나서	구로(劬勞)헉여기르실제
손바닥에진주(眞珠)처럼	품가온디명월(明月)처럼
스랑키도괴지업고	익기기도한량(限量)업다
륙월염턴(六月炎天)더운날과	엄동설한(嚴冬雪寒)치운찌에
의복음식(衣服飲食)철을 따라	아모췌록몸이편케
장성(長成)토록길넛스니	니아모리녀즈(女子)라도
부모은혜(父母恩惠)이줄소나	하물며우리부모.

.....중략

<序辭 中 회고 부분>

부친췌야(晝夜)탄식(歎息)말삼	가운(家運)이불형(不幸)헉야
신미년(辛未年)서적란(西賊亂)에	외가유씨(外家劉氏)화익(禍厄)으로.

.....중략

불형(不幸)히하세(下世)하니	의탁무처(依託無處)외론 몸이
-----------------	-----------------

훈학아동(訓學兒童)싱익(生涯)삼아	근근조생(僅僅資生)지니가나
네가남의종손(宗孫)으로	슬하삼녀(膝下三女)뿐이로다
누를가히의뢰(依賴)하며	어느조손(子孫)디(代)를이어
선세기업(先世基業)일워보며	선형향화(先塋香火)부절홀고
조부이상(祖父以上)륙세(六世)분묘(墳墓)	덩주(定州)선천(宣川)되섯스니
천리원정(千里遠程)먼먼길에	하일하시(何日何時)츠저가서
성알(省謁)하고도라오리	디하(地下)에도라간들
선조령전(先祖靈前)엇지가며	네가눈을감을소나.

<本辭>

우리부친(父親)탄식(歎息)말삼	쥬쥬야야(晝晝夜夜)귀에저저
니아모리어리기로	일시(一時)나이즐손가.

.....중략

슬푸다이니몸이	녀즈(女子)몸이흔(恨)이로다
임오(壬午)삼월(三月)십일일(十一日)에	종데(從弟)광익(光翼)립후(立後)하사
서씨문(徐氏門)에취처(娶妻)하야	부모랑친(父母兩親)식스범절(食事凡節)
효성(孝誠)으로봉양(奉養)하고	선형향화(先塋香火)계절(繼絕)하니
엇지아니깃부리오	당상쌍친(堂上雙親)강녕(康寧)키를
쥬야축턴(晝夜祝願)원(願)이러니	병(丙)스즈(字)가원슈(怨讐)로다
병술륙월(丙戌六月)십구일(十九日)에	우리부친(父親)병환(病患)으로
백약무효(百藥無效)하세(下世)하니	가이업시망극(罔極)하다.

.....중략

안비막기(眼鼻莫開)골몰(汨沒)하중	의여식(衣與食)은즈족(自足)하나
심곡간(心曲間)에밋친근심	문호보전(門戶保全)분묘슈축(墳墓修築)
즈손충효(子孫忠孝)상전(相傳)하야	화순최씨(和順崔氏)번창(繁昌)하기.

.....중략

<結辭>

황텡(皇天)이감동(感動)하사	광무(光武)오년십일월에
탕척신원(蕩滌伸冤)턴은(天恩)무려	부도양춘(復觀陽春)이날이야
특명(特命)으로광익(光翼)아우	영릉(英陵)참봉(參奉)초스후(初仕後)에
정삼품(正三品)에승즈(陞資)하고	한익(漢翼)해익(海翼)종형데(從兄弟)를
륙품관직(六品官職)무려스니	엇지아니깃부리오
부친님을되섯스면	양당(兩堂)에영화(榮華)런만.

.....중략

최씨족보(崔氏族譜)수정(修正)코즈	종손(宗孫)집과협의(協議)하야
거창(巨創)흔일고준(告竣)하니	초생강무(此生更無)여흔(餘恨)일듯
세월(歲月)이여류(如流)하야	포류지질(蒲柳之質)육순(六旬)이라
너심곡(心曲)에미진(未盡)말삼	타일천터(他日泉臺)부친전(父親 前)에.

<권 2. 「즈술(自述)」>

「즈술(自述)」은 송설당의 가사 중에서 가장 긴 88구로 된 작품이다. 자신의 집안 내력에서부터 탄생, 어린시절, 역경, 성은, 신원, 가문 복원, 선묘 봉심과 입석의 일 까지를 순차적으로 적고 있다. 송설당 가사에서는 드물게 가사의 전형적인 구성으로 이뤄진 「즈술(自述)」은 크게 序辭 - 本辭 - 結辭의 세부분으로 나뉜다. 그런데 自歎의 성격보다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 자축하는 의미를 더 많이 담아내고 있다.

序辭는 만물이 생겨날 때 인간이 가장 귀하고 부모님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소중하게 길러주셔서 그 은혜 잊을 수 없는데, 오직 아들을 얻지 못해 아버지가 늘 탄식했음을 안타까이 회상한다. 아버지의 탄식 내용은 최씨가문의 멸문지사와 가문을 재건하고 제사를 지낼 아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회고 형식의 입체적 구성으로 되어 있어 작품 전체에서 보면 격자적 구성이다.

그 다음이 本辭 부분으로 부친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결심하고 동동축축 고생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침선(針線)으로의지(依止)하야 주야(晝夜)가상관(相關)업시/고생(苦生)으로지니갈제 악의악식(惡衣惡食)꺼릴손가/지성(至誠)이면감탄(感天)이라 부친(父親)피셔상의(相議)하고/식산(殖産)으로업(業)을하니 진에태산(塵埃泰山)일반(一般)이라”할 정도로 재산을 모으기 위해 애쓰는 이 부분은 다른 일을 소상히 밝힌 것에 비해 비교적 간단히 처리하고 있다.

과거의 어려웠던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고 싶지 않은 작자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만약 조선 후기 규방가사였다면 과거의 역경묘사인 이 부분이 훨씬 구체적으로 확장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안의 멸문지사와 부친의 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도 자신의 과거 고난의 역경은 간략히 넘어가고 있다. 이런 태도는 송설당이 문집을 낸 목적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문집이 되찾은 문중의

중엄함과 다시 일으키게 된 감회에 초점이 맞추어졌듯이 자신의 비루했던 과거를 낱낱이 밝히는 일은 가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 만큼 그의 가사는 자탄의 요소들 보다는 되찾은 가문의 영광과 이를 회복한 기쁨, 어엿한 사대부가의 후손다운 면모를 돋보이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結辭는 皇天의 감동으로 蕩滌伸冤하여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감격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원으로 인하여 동생들이 영릉참봉, 정삼품 등 육품 관직에 오른 후 1908년 화수회를 열고 원근종족 다 모인 가운데, 농사짓는 이에게는 전답 주고, 공부하는 자는 공부시켜 일문을 안보한다. 1914년에 정주 선천의 累代墳墓를 찾아 봉축하고 비석과 상석을 배치하고 최씨족보를 수정하니 이 생애 여한이 없다고 신원 후의 가문을 바로 세우고 정리한 과정을 자세히 적고 있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에도 「즈술(自述)」에서는 비탄의 정조가 아닌 자부심이 넘쳐나고 있다.

이상 송설당 가사의 대표적 특징으로 지목될 수 있는 ‘단형성’과 ‘영물 소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징들은 조선 후기 가사, 그 중에서도 후기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가창가사’, ‘규방가사’와도 구별됨을 살폈다. 특히 규방가사와의 구별성은 내용면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송설당 작품들 중 매우 드문 장편가사 「즈술(自述)」에서조차도 일반적인 여성적 내용과는 다르게 전개됨을 확인했다. 이런 점에서 송설당 가사는 우리 가사문학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고 말 할 수 있다.

2. 장르의 변용과 실험성

『송설당집』 권2에 ‘諺文詞藻’의 시가작품들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가사로 분류한다. 당시 ‘詞藻’라는 명칭은 주로 신문에서 시가를 실는 난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신문의 ‘사조’란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대한매일신보」이다. 「대한매일신보」는 1905년부터 발행되는데, ‘사조’란은 1908년 11월 29일 국문판의 ‘스조’, 국한문판의 ‘사조’라는 명칭으로 첫 선을 보였다. 이후 이 난의 작품들은 계속 한글과 한자

병용 두 가지 문형으로 실리다가 1910년 중반 이후 뜸해진다.

신문 ‘사조’란의 시 형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하나는 초·중·종 三章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종장의 첫 구는 반드시 세 글자로 하고 쉽표를 찍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읊어구가 끝날 때마다 쉽표를 찍고, 장이 끝날 때마다 마침표를 찍는다는 특징이다. 이는 바로 시조의 전형적인 형식이다. 이런 까닭에 학계에서도 「대한매일신보」 ‘사조’란의 이 형식을 時調로 보고 있다. 또한 이 때 ‘사조’란의 작품들을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근대 계몽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들 ‘사조’란의 작품들을 흔히 ‘근대계몽기 시가’라고 일컫는다.¹⁸¹⁾

그런데 ‘사조’란 시조들은 ‘3·4’조의 전형적인 음수율 외에 시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4·4’조의 음수율을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종장 첫 구에서 지켜져야 할 3자가 아닌 경우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3장 형식이 아닌 7행의 시, 나아가 아예 행 구분이 없는 4음 4보격의 작품이 나타나면서 시조로부터의 탈형식도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09년 5월경 「대한매일신보」 ‘스조’란에는 16, 13, 20, 24, 18, 20행의 弔辭 성격이면서 4음4보격의 가사 형식의 글이 여섯 차례나 실리면서 ‘스조’가 반드시 시조 형식만을 싣는 난이 아님을 알리게 되고, 또한 한동안 사조란이 중단되기도 한다. 그 외에 종장이나 종장이 길어지거나 후렴구와 연시조도 등장하는 등 평시조 정형성의 흔들림을 보인다. 하지만 ‘사조’란의 전반적인 형식은 시조의 전형적 틀이 지배적이었으며 1909년 후반부터는 다시 평시조의 3·4조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송설당의 ‘언문사조’는 「대한매일신보」의 ‘사조’란에 실린 작품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신문의 사조란은 시조의 삼장형식, 종장 첫 구의 세 글자 규칙을 거의 대부분 지킨다. 그러나 송설당의 ‘언문사조’는 3장 형식이 아닌 여러 행으로 나타나며, 음수·음보율도 3·4조 4음보격이 아닌 4·4조 4음보격으로 가사에 더 가깝다. 송설당 국문시가에서도 3·4 / 3·4 음수율이 가끔 나타나지만

181) 강명관·고미숙은 대한매일신보 ‘사조’란의 시들을 ‘시조’라고 하였고, 그 작품들을 정리해서 세 권의 자료집을 출간했다. 강명관·고미숙, 「근대계몽기시가자료집」 1~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특징지를 만한 정도는 아니다. 또한 사조에 실린 시가들처럼 대구 사이의 쉽표나, 행이 끝났을 때에 마침표도 없다.

류슈갯튼저광음이	쏟살갯치빨니가서
록음방초승화시에	소년처럼길튼학가
츄우오동엽락시에	밤이도려길엇구나
전전반측잠못일워	지닌일파오노일을
두루두루싱각다가	잠흔숨을못일워라
<u>동방에우는실술</u>	너는무삼흔이집혀
긴긴밤이다진토록	자른소리긴소리로
쵸쵸절절석거울고	저중턴에놓히껴서
올고가는외기력이	너는어이나를미워
서리차고깊흔밤에	기룩기룩부르저저
간신간신들야든잠	영영아조업서진다
몸을이러문을열고	썰에나려산보호니
<u>서턴에걸린달은</u>	<u>교교히벳슬퍼고</u>
<u>은하는기우러져</u>	<u>야식이창망흔데</u>
<u>흰서리찬괴운이</u>	<u>스람을음습흔다</u>
<u>다시급드러와서</u>	<u>촉불을도도켜고</u>
<u>침상에저소셜이</u>	<u>아마도니벳인듯</u>

<권 2. 「추야감회(秋夜感懷)」>

「추야감회(秋夜感懷)」는 총 17행으로 이뤄졌으나 시조의 삼장형식이 아니다. 전반 12행은 후기가사 형식인 4·4 / 4·4로 이뤄진 반면 13행부터 다섯 행은 다시 전기가사 혹은 시조 음수율처럼 3·4 / 3·4로 바뀌고 있다. 「추야감회(秋夜感懷)」의 이러한 전반적인 음수 음보율의 특징은 바로 가사의 운율이다. 즉 계몽기 ‘시조’형식과 현격히 다르다. 그러면서도 작품의 마지막 결구 방식은 시조형식과 흡사하다.

턴심 뜻은 돌과, 슈면에 부는 바람
 상하서식 상응하여, 정정세계 되엇서라

언제나, 세계풍운 쓰러내고, 이와 ㄹ치.

「天心曲」¹⁸²⁾

天心에 돛은 달과, 水面에 부는 바람.

上下聲色 相應하여, 淸淨世界 되엿서라.

언제나, 世界風雲 쓰러내고, 이와 ㄹ치.

「天心曲」¹⁸³⁾

대장부 이 세상에, 무슨 스업 급선무인고.

십년에 갈어둔, 칠척검이. 서리스날에 록이 난다.

뉘라서, 일성벽력에, 더 덕병을.

「장부스」¹⁸⁴⁾

앞의 두 작품은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天心曲」의 국문판·국한문 혼용판은 동시에 보인 것이다. 두 판본의 작품이 모두 종장 말구가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와ㄹ치(하리라)”로 끝나야 완결된 문장이 되지만, 모두 ‘하리라’를 생략하여 시조 종장 말구 생략법을 잘 따르고 있다. 이러한 생략방식은 세 번째 작품에서도 똑같이 이어진다. 신문 ‘사조’란의 삼장 시들은 이같이 종장 말구 생략의 시조 양식이다. 그런데 송설당의 「츄야감회(秋夜感懷)」의 결구도 같은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아마도 내 벗인듯”은 ‘아마도 내 벗인듯(하노라)’의 ‘하노라’의 생략이다. 이처럼 송설당 국문시가 작품은 전체적인 시 형식은 ‘가사’이면서도 종장 마무리는 ‘시조’형식을 취한다.

그러면 송설당 국문가사 작품은 계몽기 가사 형식을 따른 것인가? 일반적으로 계몽기 가사의 특징으로는 4음보격의 율격, 분연 형식, 반복어구의 삽입이 거론된다.¹⁸⁵⁾ 그런데 송설당의 작품은 ‘4음4보격’을 고수하면서도 ‘분연’이나 ‘반복어구의 삽입’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송설당 가사를 계몽기 가사의 형식을

182)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8일 국문판 ‘스조’.

183)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8일 국한문판 ‘詞藻’.

184)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10일 ‘스조’.

185) 고은지, 「계몽가사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234..

그대로 따랐다고 말 할 수 없다.

송설당의 사조는 가사의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처럼 가사의 4음 4보격의 형식적 완결성을 유지하려는 경향¹⁸⁶⁾을 보이면서 종결형 생략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송설당 가사형식의 특징이다. 그런데 비단 송설당 가사 뿐 아니라 이는 근대 계몽기 신문매체를 통해 발표된 가사나 창가, 시조 등의 문학 양식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이다. 따라서 송설당 가사 형식은 일정 부분 근대적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기존 가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호명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소재가 되는 자연 경물을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기존 가사의 작법도 찾아 볼 수 없다.¹⁸⁷⁾ 뿐만 아니라 종결형에서 말 걸기 수법의 청유나 권유의 일반적 형태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처럼 타자를 향한 말걸기 방식 대신 사적인 감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내용면에서는 계몽기 가사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신문 ‘사조’란에 실린 작품들은 대부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담론에 입각한 개인의 행동과 의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시들이 대부분이다. 그에 비해 송설당의 작품은 극히 개인적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송설당의 ‘언문사조’는 조선 후기 가사를 계승한 것인가? 후기 가사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간혹 3·4/ 3·4 음보율의 작품도 눈에 띄지만 전반적으로 4·4/4·4음보를 정확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점이다.

비가왔네비가왔네	큰가뭄에비가왔네
구년지슈훈을마라	비가와야풍년이래
반도강산곳곳마다	째지말고나리소서
스야농형흙속호계	너릴째로나리소서
스람스논근본중에	물과불이웃뚝이나
가물머는불이일고	비오면은물이만타
이리치로보드리도	비가와야더욱조코
병인으로말호여도	슈승화강스려나네

186) 백순철, 앞의 논문.

187) 백순철, 앞의 논문.

년곡화곡물론호고 병든스람흔리치라
 가뭄고황집흔병이 비안이면풀일손야
 그림으로하날덕덕 우로지은데일이라
 한보지락두보지락 오일일춌덩흔삼어
 우순풍도축원이라 깃부도다깃부도다
 금일비가깃부도다 즈금이후태평장산
 격양가를부르리라.

<권 2. 「희우(喜雨)」>

옥분우에선연특식 룡파선녀하강흔듯
 슈선화가네로구나 춘하츄빅화시절
 고요적막잠즈다가 락목한턴빅설중에
 금잔옥대말근티도 송이송이향괴로니
 출문일쇼대강황은 황산곡의시入구런가.

<권 2. 「슈선화(水仙花)」>

「희우(喜雨)」와 「수선화(水仙花)」는 ‘언문사조’의 시구절, 시행 배치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이러한 시구절 배치 방식은 이들 가사가 ‘4·4’ 음수율을 얼마나 정확히 잘 지키고 있는 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위 작품들에서는 「수선화(水仙花)」의 “춘하츄(빅화시절)”의 단 한 구절을 제외한 전체에서 4·4 음수 규칙이 지켜졌다. 즉 송설당 가사의 음수·음보 규칙은 후기가사를 잘 계승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 가사 특징은 음수·음보율 이외에는 더 발견되지 않는다. 가사의 결구방식 특징이 송설당 가사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설당의 가사에서는 네 번째 구로 끝을 내는 작품에서도 마지막 구의 표현이 기존의 가사와 다르다. 대개 가사의 끝구는 ‘하야보세’나 ‘부디마오’, ‘다시보자’ 등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 걸기 수법의 청유나 권유가 일반적 표현이다. 그러나 송설당 가사는 내용에 있어서 사적인 감상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결구방식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시조 종장법인 말구 생략 방식이 아닌 서술어가 있는 경우에도 ‘생각하니송설인가’, ‘탄고불변송설인가’, ‘사시동관호오리아’, ‘일후다시무려

불가, '상아래서울지마라' 등은 개인의 심적, 외적인 상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타인과의 공유 또는 하소연의 담론을 특징으로 하는 후기 규방가사 신변 탄식류 표현과는 거리가 있다.

이처럼 송설당 가사는 후기가사의 4·4조 규칙성에 그 결구 방식의 도입에 시조 종장의 말구생략법 혹은 타자에게 말 걸기 수법인 청유어법의 제거 방식을 결합한 독특한 양식적 특징을 갖는다. 특히 마지막 구에서 서술어를 생략한 작품이 17편으로 전체의 30%가 넘는다. '타일천대부친전에'(2회), '한번오면가미업게', '적송선자찾거든', '태산대해유경일듯', '나를보고반기는듯', '아마도내벗인듯', '왕자청호맛당하듯', '나는대로군조되게', '무궁무진변성하게', '아녀자의사랑일듯', '내가적실내벗인듯', '아마네가제일인듯', '백천세무궁하게', '저기적이단장성가', '내회포를누가위로', '나간줄노' 등의 표현은 시조에서 볼 수 있는 표현들인데, 이를 가사 양식에 사용함으로써 작품전체에 새로운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마지막 서술어를 생략하는 기법은 묘한 여운을 주는 송설당이 만들어 낸 독특한 표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송설당의 '언문사조'는 온전한 계몽기 시가 형식만도 아니며, 동시에 기존의 전형적인 규방가사의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다. 송설당의 '언문사조' 형식은 계몽기 신문의 '사조'난의 시조 형식과 후기 가사의 운율을 결합시키면서도, 그 안에 담아내는 내용은 계몽의식이나 타자 지향 발화가 아닌 사적 감정이나 개인 심회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냈다고 말 할 수 있다.

3. 한시와 언문사조의 친연성

1) '同名'의 한시와 언문사조

송설당의 한시와 가사에는 공통적으로 가문의 내력이나 신원 후 가문 복원사업에 대한 동일 내용이 중복 창작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 외에도 두루 발견된다. 같은 소재와 제목의 작품이 '한시'와 '가사' 각각의 양식으로 중복 창작되고 있다. 『송설당집』 권1의 漢詩와 권2의 언문사조 중에 '同名'이거나 '같은 소재'의 작품은 모두

17편이 있다. 그 중에는 한시의 내용을 운문으로 번역했다고 의심될 정도로 같은 내용이나 이미지를 읊은 작품도 두 편이나 된다. ‘同名’ 異形의 작품 비교를 통해 송설당의 창작의도가 단순한 장르적 특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작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櫻花淡泊杏花紅	앵도꽃은 담박하고 살구꽃은 붉은데
馥馥濃香滿院風	질디질은 향기 뜰에 가득 날린다
正是一年春色好	바로 이것이 일년 중 좋은 봄빛인데
故園歸思日忽忽。	고향 돌아갈 생각에 날마다 바쁘기만 하구나.

<권 1. 「遣悶」>

춘풍화류(春風花柳)란만(爛漫)홀제	봄을 짝해오라는가
록음방초(綠陰芳草)승화시(勝花時)에	넉힐짜러오라는가
중양가절(重陽佳節)구추시(九秋時)에	황국(黃菊)보러오라는가
엄동설한(嚴冬雪寒)잔바람에	미화(梅花)차즈오라는가
유실무실(有實 無實)오동실(梧桐實)과	유스무스(有絲無絲)양류스(楊柳絲)는
각기(各其)한씨뿐이언만	한갈갓흔져로송(老松)은
스시청청(四時靑靑)푸르렀다	우리인성(人生)너와갓치
하날님의발원(發願)호여	한번오면가미업게.

<권 2. 「견민(遣悶)」>

위 두 작품은 「견민(遣悶)」이라는 동일 제목을 달고 있으나 전혀 다른 정취를 읊고 있는 송설당의 한시와 언문사조다. 가사 「견민(遣悶)」은 짧지만 시상의 전개에 있어서 운율감이 살아나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타하는 화자의 마음이 절로 읽혀진다. ‘綠陰芳草昇華時에’, ‘重陽佳節九秋時에’ 등처럼 한시구에 현토를 붙여 4음 4·4조를 만들어 운율감을 살리는 것은 당시 가사 창작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른 것이다. 이는 당시 유행한 언문풍월과도 통한다.¹⁸⁸⁾ 언문풍월은 1901년에 등장하여 1917

188) ‘한시 양식 중 7언 절구 및 7언 율시 형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거기에 한자 대신 국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순국문체 한시 형식의 독특한 양식을 언문풍월이라 했는데 한시 형식을 모방한 일종의 패러디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김영철, 「한국 개화기 시가 장르의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6. p.25).

년에 소멸된 시험적, 역사적 성격을 띤 것으로 비록 짧은 기간의 실험적 모색으로 끝나긴 했지만 한시와 국문시가의 오랜동안의 평행선을 깨고 장르접합의 공동영역을 모색코자 했던 노력으로 평가받았던 장르였다. 이러한 장르적 접합모색이 이뤄졌던 같은 시기에 창작된 송설당의 8행 「견민」은 이런 점에서 전통적 가사 양식이 아닌 계몽가사의 단형에서 영향을 받은 듯하다. 당시 신문에 실리는 가사는 지면 사정상 장형보다는 단형이 추구되었기 때문이다¹⁸⁹⁾. 한편 계몽가사는 분연체를 시도한 반면 송설당 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내용면에서도 계몽적인 성격을 띄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몽가사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가사 「견민」은 8행 을 시형태와 흡사하여 칠언율시를 연상케 한다. 가사 「견민」과 한시 「遣悶」의 차이점 이라면 가사는 ‘우리 인생’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일반적·보편적 정서를 노래한 데 비해, 한시는 송설당 일개인의 정서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문 가사와 한시가 반드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현상도 발견된다. 이를 ‘홍매’를 노래한 한시와 국문가사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滿庭蒼翠裏	뜰에 가득 푸른 나무 속에
栽得一紅梅	한 떨기 홍매를 심었네
看看奇愛地	기이하고 사랑스런 것이 눈에 띄이니
許汝花中魁。	네가 꽃 중에 으뜸이구나.
娟娟垂玉骨	예쁘고 예쁜 옥같은 모습
艷艷飾冰腮	얼음같이 하얀 뺨은 요염하게 꾸민 듯
似我掌中寶	마치 내 손 안 보배 같아
積年義以培。	해가 갈수록 그 義도 더해만 간다.
作我眼前景	나에게 눈앞의 경치를 만들어주고

189) ‘애국계몽기 신문에 등장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사양식을 살펴 본 결과, 가사 양식의 변화를 추동했던 보다 근원적인 힘을 신문이라고 하는 창작 환경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신문을 소통환경으로 전제 한 이상, 장형(長刑)가사 양식으로서의 지속적인 창작에 한계가 오게 된다. 신문 지면에 허용된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짧아져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은지, 「계몽가사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83).

死生共樂哀
羅浮佳女笑
漢水玉人來。

죽고 삶,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했었지
나부산 미녀의 웃음으로
한강의 옥 같은 사람이 찾아온 듯 하였다.

淡香侵肺腑
情誼等胞胎
隨適主人志
良我股肱哉。

맑은 향기는 가슴속을 적시며 들어오고
情과 友誼는 내 뱃속에 가득 찬 듯
가는 곳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진실로 나의 팔다리가 되었었지.

狂風吹昨夜
何處寄香胎
奈乏調羹手
自比冷春盃。

미친 바람이 어제 저녁에 불더니
어디서 향기로운 속을 부쳐왔는가
어찌하나 국을 요리하는 손이 부족하니
지금부터 봄 잔이 추워지겠구나.

森森眼前語
錚錚耳邊哈
夜夜轉反席
幾待夢中廻。

말소리는 눈앞에 어른어른
웃는 소리는 귀에 쟁쟁
밤마다 자리에서 옆치락뒤치락
얼마나 꿈속에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렸던가.

寄語狡童伴
花姑爾應媒
若使花市買
不愛萬金財。

교동에게 말을 흘려 보내
꽃에게 중매를 서려했는데
만약 꽃을 살 수 있다면
만금의 재물도 아끼지 않으리.

欲忘不能忘
衣箱強然開
長短針線跡
件件依舊裁。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네
옷상자 그대로 열어두었네
길고 짧은 바느질 자국
건건마다 옛날 머름질 그대로구나.

愛我一朶物
惟恐沒塵埃
儻伴琪花去

나를 사랑하던 한 떨기 홍매화
오직 티끌 세상에 떨어질까 두렵구나
아마도 신선 세계 꽃과 함께

翱翔到蓬萊。 높이 날아 봉래산에 갔나보다.

紅梅歌一曲 홍매가 부르는 노래 한 곡조
歲月使人催 세월이 사람을 재촉하는구나
春風應有信 봄바람에 응당 소식 있으리니
何日復歸來。 어느 날 다시 돌아올거나.

<권1. 「憶紅梅 10수」>

풍취일야만관산(風吹一夜滿關山)에	민화일곡(梅花一曲)반겨두고
스랑튼정(情)못니기여	황봉백담(黃蜂白蝶)압세우고
홍미소식(紅梅消息)탐지(探知)홀제	이정(愛情)으로작지삼아
면면(面面)히방문(訪問)흔다	병간미월양상의(屏間梅月兩相宜)라
병풍(屏風)속에숨었는가	일산미죽청풍(一山梅竹自淸風)에
바람에붓쳤는가	미류정춘춘식분(梅柳爭春春色分)에
양류(楊柳)아네아느냐	미란동처춘정염(梅蘭同處春正艷)에
란초(蘭草)는네알니라	진일문화화불어(盡日問花花不語)요
종야문월월부답(終夜問月月不答)을	아마도홍미(紅梅)즈최는
화고(花姑)네가알니라.	

<권2. 「홍미(紅梅)」>

홍매는 송설당이 데리고 있던 몸종의 이름이다. 두 노래는 모두 어느 날 집을 나간 지 소식이 단절된 홍매에 대한 그리움을 읊고 있다. 따라서 한시 「憶紅梅」와 가사 「홍미(紅梅)」는 내용과 주제가 거의 비슷하다. 한시는 홍매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연유로 그리워하게 되었는지를 풍부한 은유로 암시하고 있다. 가사는 홍매와의 인연과 집 나간 내력은 생략한 채 홍매의 행방을 애타게 찾는 심경만을 노래하고 있다. 대개 가사는 장형이라는 형식 특성 때문에 서사성을 갖기 쉽고 이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한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장르이다. 그러나 송설당은 가사와 한시의 이러한 형식 특성을 반대로 사용하고 있다. 한시 「憶紅梅」에서는 유일하게 부연설명까지 붙여 홍매가 어느 날 말없이 사라진 몸종임을 밝히고 있다. 반면 가사에서는 상징과 은유를 사용, 홍매를 매우 서정적 이미지로만 그리고 있어서 송설당의 개인사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홍매가 몸종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

차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 같은 경우는 가사의 함축적 표현이 한시를 읽음으로 보충될 수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한시의 은유나 중의성을 가사의 풀이 방식이 보완해 줄 것이라는 상식을 송설당의 위 작품에서는 뒤집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이번에는 같은 소재를 읊은 가사와 한시로 된 「藥水洞」을 보기로 한다.

金陵南十里	금릉 남쪽 십리에
藥水洞天開	약수동이 하늘로 열렸다
奇石千年古	기이한 돌덩이는 천년이나 됐고
蒼松一色栽	푸른 소나무는 같은 빛으로 심겨있다
麝塵初不到	속세의 시끄러움은 애초에 오지 않고
仙鶴日常來	신선학만 날마다 찾아 온다
爲我萱堂壽	내가 어머니의 장수를 위해
願言汲取回。	물 좀 길어 돌아갈까 하노라.

<권 1. 「藥水洞」>

춘풍화류(春風花柳)번화시(繁華時)에	연어잉제(燕語鶯啼)꿈결갓다
츄풍(秋風)이이논곳에	초목(草木)마다슈심(愁心)이라
저초목(草木)을비겨보니	백발친당(白髮親堂)두렵도다
련친지심(戀親之心)더욱간절	철마(鐵馬)를촉행(促行)하야
금릉고향(金陵故鄉)나려가서	모당전(母堂前)에비알(拜謁)하고
형대합석(兄弟合席)깃분정의(情誼)	엇더타비(比)할손야
약슈동(藥水洞)에령약슈(靈藥水)가	연년익슈(延年益壽)하던말을
고로상전(古老相傳)들었기로	구십모당(九十母堂)시위(侍衛)하고
약슈동(藥水洞)을향히가니	금릉즈고(金陵自古)명승지(名勝地)라
괴암괴석(奇巖怪石)업슬소나	전일(前日)보든져바위가
약슈(藥水)를등에실고	나를보고만기는 듯
사모(紗帽)바위할미바위	망쥬석(望柱石)이이아닌가
억만년(億萬年)의구(依舊)하어	넋괴약(期約)을일치말고
장생약슈(長生藥水)인도(引導)하야	너와함찌만만슈(萬萬壽)를
우리친당(親堂)드려쥬소.	

<권 2. 「약수동(藥水洞)」>

「藥水洞」이라는 동일 제목의 위 한시와 가사는 소재와 주제가 같아서 얼핏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시적 관점은 크게 다르다. 한시는 멈춰 서서 음미하듯 서서히 진행되는 음악에 비유된다면 가사는 내달리듯 매우 빠른 템포의 음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사는 연로한 어머니 걱정과 조바심이 난 자식의 마음을 알아주는 고향산천 약수동의 친숙하고 정겹고 고귀함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작품 중 주제를 좀 더 절절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장르는 가사라 할 수 있다. 한시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天機自發적 작품인데 반해 가사는 아름다운 경치를 향해 자신의 소망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어서 화자의 절실한 마음이 생동감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한시와 가사 작품에서 소재, 주제, 내용이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紅梅」나 「藥水洞」 그리고 집안 내력에 관련된 일부 작품 외에는 앞의 「遣悶」처럼 비록 제목 혹은 소재가 같더라도 작품 내용은 현격히 달라지고 있다.

自愛秋容淡	사랑스런 가을의 담백한 얼굴
東籬曉採菊	동쪽울타리에서 새벽 국화를 만다
香露寫前史	향기 나는 이슬로 옛 역사를 베끼니
千年文郁郁。	천년 전 문장이 더욱 빛나는구나.

<권 1. 「菊」>

절개(節概)롭다저국화(菊花)야	신기(神奇)롭다저국화(菊花)야
락목한던(落木寒天)쇼슬(蕭瑟)헌데	너만홀노피엿고나
허다화초(許多花草)/만컨만은	너를특히스랑키는
리화도화(李花桃花)란만(爛漫)하고	록음방초(綠陰芳草)번화(繁華)하야
구십춘광(九十春光)조흔씨를	뜻이업시다마리고
륙월염던(六月炎天)풍우(風雨)중에	깎히든잠찌쳐나서
만년부귀(晩年富貴)성(盛)흔기운(氣運)	지지엽엽(枝枝葉葉)번성(蕃盛)타가
고인(故人)갓흔말근바람	추월정신(秋月精神)씩고잇서
신체(身體)가강건(康健)하고	심기(心氣)가청상(淸賞)하미

황금(黃金)백금(白金)봉(封)흔다시
 머리우에이고서서
 반갑도다중양가절(重陽佳節)
 아담(雅淡)흔다저국화(菊花)야
 아름다운늬흔절기(節概)
 봉지봉지(封紙封紙)입을열고
 가득히계깃분마음
 각식화초(各色 花草)사랑턴중
 옥화분(玉花盆)에고히움겨
 들며보고나며보고
 류슈(流水)갓치가는광음(光陰)
 초동설한(初冬雪寒)밍렬(猛烈)기로
 남창전(南窓前)에안비(安排)흔나
 나날이감쇠(減衰)기로
 인로화역로(人老花亦老)로다.

봉지봉지(封紙封紙)견봉(堅封)흔여
 씌오기를고디타가
 기약(期約)맞쳐도라오니
 향기(香氣)롭다저국화(菊花)야
 령상량로冷霜涼露)가소(可笑)롭다
 나를향히웃는구나
 비(比)헐곳이전혀업다
 네가홀노데일(第一)이라
 협실(夾室)중에정(精)히두고
 무궁무진(無窮無盡)스랑터니
 구츄가절(九秋佳節)다지니고
 극진(極盡)히호지(護持)흔야
 담(淡淡)흔든고흔티도(態度)
 늘근쥬인(主人)비겨보면

<권 2. 「국화(菊花)」>

두 작품 모두 ‘국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 한시 「菊」은 진나라 도연명이 곤궁 속에서도 국화를 가꾸며 지켜왔던 절개를 노래하고 있다. 그에 비해 가사 「국화(菊花)」는 늦가을 홀로 향기를 피우는 국화를 칭송타가 어느덧 계절이 깊어 국화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송설당 자신의 늙음과 동일시하고 있다. 한시 「菊」과 가사 「국화(菊花)」의 작품 의미는 전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叢竹登盆欲過身
 軒窓賴爾得清新
 子猷去後無知己
 一任來人間主人。

내 키를 넘으려 하는 분에 오른 대나무
 마루 창에서 너의 맑고 신선한 기운을 받는다
 왕희지 떠난 뒤에 자기를 알아주는 이 없어
 오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구나.

<권 1. 「竹」>

食肉非余思
 所居常有竹

고기를 먹자는 게 내 생각 아니고
 사는 곳에는 항상 대나무 있어야 한다오

勁節直臣同
霜雪誠難服。

굳은 절개는 곧은 신하와 같아서
서리와 눈으로도 굴복시키지 못하네.

<권 1. 「竹」>

금릉고원일총죽(金陵故園一叢竹)을
창전(窓前)에노와두고
너와나와두스이에
지취(志趣)도갓거니와
네가비록초목류(草木類)나
군자숙녀(君子淑女)구든절(節)이
것흔곳고안은통히
순(舜)임금이통쇼(洞簫)지어
봉황(鳳凰)이춤추니
소상강수(瀟湘江水)저문날에
방울방울피를일워
원일신(一身)에덤쳐스니
락가산하(洛伽山下)보타해중(普陀海中)
턴연(天然)히개안져느디
감로수병(甘露水瓶)수양(垂楊)가지
더령(待令)히고섯는형상(形象)
송설당전(松雪堂前)처군죽(此君竹)은
일보평안(日報平安)히야보세.

옥분(玉盆)에옴겨다가
일일시시(日日時時)상디(相對)하니
지취정의(志趣情義)혼가지라
정의(情義)도한량(限量)업다
고절청풍(高節淸風)갓쥬어서
마되마되밧쳐구나
말근곡조(曲調)맛당키로
취성구곡남훈던(吹成九曲南薰殿)에
봉안죽(鳳眼竹)이네아니며
황영이비(皇英二妃)슬픈눈물
한덤두덤떠러져서
소상반죽(瀟湘班竹)네아니며
죽죽(紫竹)으로울을삼고
쌍(雙)상토싼저동자(童子)는
억조창성(億兆蒼生)살나라고
관음죽(觀音竹)이네아니나
고절청풍(高節淸風)벗이되야

<권 2. 분죽(「粉竹」)>

세 작품 모두 대나무를 소재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작품은 늘 곁에 두고 아끼던 왕휘지가 떠난 뒤 홀로 남겨진 대나무가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言志이다. 그런 대나무 형상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두 번째 시는 대나무의 오상절개를 통해 서리와 눈으로도 꺾을 수 없는 자신의 절의를 나타내고 있다. 가사는 대나무의 곧은 품성을 고사속 다양한 주인공들, 즉 순임금의 봉안죽, 황영이비의 소상반죽, 낙가산하 보타해중, 동자의 관음죽, 그리고 자신을 상징하는 송설당 앞의 대나무를 서로 견주며 높은 절개와 맑은 정신을 벗하여 잘 지내보자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대나무와 관련된 전고와 이미지들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로 보이지만 한시와 가사의 의미 지향은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다.

靑楓壯士去	푸른 단풍 들어 충신이 떠나면
所懷獨楚蘭	오로지 초나라 난초 생각뿐
莫恨生幽谷	깊은 골짜기에 났다고 한탄하지 마라
清香可遠觀。	맑은 향기는 멀리서도 볼 수 있으니.

<권 1. 「蘭」>

란초(蘭草)란초(蘭草)저란초(蘭草)야	네어더로쫓쳐왔노
명지산림처스가(名在山林處士家)라	처스(處士)쫓쳐왔노야
옥옥청향군즈픽(郁郁清香君子佩)라	군즈(君子)쫓쳐왔노야
지란공처동취미(芝蘭共處同趣味)라	지초(芝草)짜라왔노야
란혜동근화상스(蘭蕙同根花相似)라	혜초(蕙草)짜라왔노야
말근향기(香氣)고흔티도(態度)	화중상품(花中上品)분명(分明)흔듯
심곡(深谷)중예성장(生長)히도	꽃답기는데일(第一)이라
화초(花草)에는란국(蘭菊)이오	슈목(樹木)에는미죽(梅竹)일세
란국미죽(蘭菊梅竹)말근지취(志趣)	스군즈(四君子)라 이르나니
그중에설리고송(雪裡孤松)	이아니오청(五淸)인가.

<권 2. 「란초(蘭草)」>

위 두 작품은 모두 ‘난초’를 노래하고 있다. 한시 「蘭」은 모두 떠났다고 섭섭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궁벽한 곳에 외로이 있어도 난초의 그윽한 향기는 멀리 퍼지게 마련이라는 희망과 위안의 노래이다. 가사 「란초(蘭草)」는 난초예찬을 하다가 난초가 사군자의 하나임에 착안하여 사군자를 예찬하고, 마지막에 눈 속에 오롯한 소나무(松雪)까지 넣어 ‘五淸’을 노래한다. 여기서 ‘눈속 소나무’는 ‘송설’ 곧 자신을 의미한다. 소나무에 비유되고 있는 송설당 스스로를 높임으로써 그 내용은 한시에 비해서 매우 직설적 표현이 되고 있다.

日日北堂思	날마다 어머니 생각날 때면
-------	----------------

開門對石榴 문을 열어놓고 석류를 바라봅니다
誰識西域果 누가 알겠는가. 서역 과실의
辛酸世間留。 맵고 신 세상살이가 남아있다는 것을.

<권 1. 「石榴」>

남창문(南窓門)주렴(珠簾)맞게	각색화목(各色花木)벌었노더
그중에저석류(石榴)논	스람보고반기논듯
입을열고반만우서	순홍치백(唇紅齒白)스랑흠다
리백도홍(李白桃紅)란만(爛漫)하야	구십춘광(九十春光)자랑홀제
요요적적(寥寥寂寂)잠자다가	장미(薔薇)황미(黃梅)필적에야
비로소넋시나며	창포시절(菖蒲時節)꽃이피여
금사보장(錦紗步障)둘너친 듯	구슬발이령롱(玲瓏)하다
삼복(三伏)중에결실(結實)하야	칠팔(七八)구월(九月)점점(漸漸)크미
금낭(錦囊)처럼등근속에	선잉도(櫻桃)빛즈마노(紫瑪瑙)를
경면주사(鏡面朱砂)덤(點)찍은듯	가득소복담어있다
서리호늘찬바람에	기기히짜서너려
탁봉(垢封)호고맛을보미	감산(甘酸)호고청렬(淸冽)하야
오미즈(五味子)와방불(彷彿)하니	리어병이렐어구(利於病而悅於口)라
꽃조코여름조किन	아마네가데일(第一)인듯.

<권 2. 「석류(石榴)」>

위 두 시는 모두 「석류」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한시는 석류의 신맛을 통해 험난한 세상살이의 한 평생을 보낸 어머니 모습으로 연결시키는 言志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가사 「석류(石榴)」는 이런 비유적 의미 없이 석류가 갖고 있는 성정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難期千仞鳳	천 길 높이를 나는 봉황새도 되기 어려운데
況又十洲仙	하물며 또 십주지방의 신선이 될 수 있겠는가
堪惜兼雙美	아깝다. 두 가지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名傳下界田。	저 시골 밭에서나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으니.

<권 1. 「鳳仙花」>

남창화계(南窓花階)봉선화(鳳仙花)야
 꽃화(花)스즈(字)로운(韻)을다니
 줄기줄기청려(淸麗)하니
 송이송이고흔타도(態度)
 담탕(淡蕩)하고번화(繁華)하야
 심규(深閨)중에으녀(兒女)들이
 초저녁달아리에
 꽃과넙을취(取)히다가
 섬섬옥지(纖纖玉指)물드리니
 꽃과갓치일반이라
 으녀즈(兒女子)의스랑일듯.

시봉(鳳)스즈(字)신선(神仙)선(仙)스즈(字)
 봉선화(鳳仙花)가네로구나
 마고선녀(麻姑仙女)넉시런가
 봉황(鳳凰)시가나려왔나
 어엿부고스랑흠다
 고흔타도(態度)스랑하야
 삼삼오오(三三五五)씩을지어
 금분(金盆)안에찌여녀야
 성홍(猩紅)하고흔빛이
 녀딩화초천백본(內庭花草千百本)에

<권 2. 「봉선화(鳳仙花)」>

역시 동일한 제목의 한시와 가사 작품이다. 한시와 가사의 특징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한시 「鳳仙花」는 봉선화의 글자를 통해 봉황과 신선의 두 가지 고상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평범한 곳에 살아야 하는 봉선화를 노래했다. 자신을 봉선화에 비유한 듯하다. 도도함과 자궁심이 엇보인다. 그러나 가사 「봉선화(鳳仙花)」는 아녀자들이 손톱에 물들이는 그야말로 생활 속에 정다운 봉선화 그대로이다. 한시에는 작자 개인의 주관적 세계가 표현되고 있다면 가사에는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다.

松雪堂前種芭蕉
 新枝初展長稱腰
 柴門客去秋蕭瑟
 也傍幽人慰寂寥。

송설당 앞에 파초를 심어놓으니
 새로 나온 긴 가지 허리를 두를 만하네
 사립문에 손님 떠나고 쓸쓸한 가을
 아마도 그윽한 사람이 고요함을 위로해 주겠지.

<권 1. 「芭蕉」>

사랑홀스절물소(少)스즈(字)
 인간상스(人間常事)이아닌가
 화계(花階)를바라보니

슬푸도다늙글로(老)스즈(字)
 사창(紗窓)에비겨안져
 무정(無情)타가는광음(光陰)

춘하(春夏)가흔적(痕迹)업시	신량(新凉)이입교(入郊)하니
나무마다락엽(落葉)이요	췌초상심(秋草傷心)창연(愴然)하다
그가온더독더춘식(獨帶春色)	네가덩녕(丁寧)파초(芭蕉)인가
파초선(芭蕉扇)을잊지마소	입시마다부치지어
치세명상(治世名相)기다리세.	

<권 2. 「파초(芭蕉)」>

「芭蕉」라는 동일제목으로 된 한시와 가사이다. 한시 「芭蕉」는 쓸쓸한 가을날의 정서를 파초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 정서의 깊이나 색깔은 시인 자신만이 아는 것, 그의 깊이만큼 느낀다는 것은 어렵다. 한시는 이처럼 개인적이고 불분명하다. 그것은 송설당만의 특징이라기보다 한시가 갖는 오묘함이다. 읽는 사람들의 감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사 「파초(芭蕉)」는 그 의도를 보다 선명히 드러난다. 계절의 흐름 속에 다른 화초들은 낙엽이 지는 가운데, 파초 홀로 푸른색을 띄고 있다. 파초의 푸르름같이 세상 다스릴 명상을 기다리는 심사를 노골적으로 노래한다.

同名異形の 한시와 언문사조를 살펴 본 결과, ‘한자와 한글’이라는 서로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독자층을 의식한 작품은 아닌 듯하다. 즉, 언문사조는 한시를 이해하지 못 하는 독자들을 배려한 의도에서만 창작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같은 제목과 같은 소재이면서도 다른 작품세계를 나타내는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시의 일반적 특징을 가사에서 더 드러내고 오히려 한시를 서사적으로 표현한 작품도 있어서 작가의 실험적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2) ‘同意’의 고시와 언문사조

앞의 ‘同名’ 異形과는 반대로 제목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한시와 언문사조도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 양상을 보면, 한시의 정격구인 4구·8구가 아닌 대부분 자유로운 구를 구가하는 고시형태인 14구, 16구, 30구, 48구, 62구를 취하고 있는 한시 대부분이 가사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의’를 다루나

형식은 한시나 언문사조의 두 형식으로 된 이들 작품의 공통된 내용은 모두 작자 자신의 과거와 집안 내력이다. 그래서 고시들은 서정적이기 보다는 서사성을 띠고 있어서 오히려 가사의 특성을 보인다.

우선 송설당의 가사 중에서 가장 긴 88구의 「죽술(自述)」은 『송설당집』 권1에 송설당 자신이 쓴 「松雪堂序」¹⁹⁰⁾의 내용을 반복한 듯, 보다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도 이채롭다.

天地巍巍日月明	천지는 우뚝 솟고 해와 달은 밝아
資生萬物各成形	만물의 탄생 도와 각각의 모양을 완성시킨다
惟是人生靈且貴	오직 인간만은 신령스럽고 또 귀하니
網倫禮節體元亨	삼강오륜 예절을 원형에서 본받았구나
三才我亦參人品	삼재에 해당하는 나도 인간 등급에 들지만
却恨終爲女子身	한스러운 것은 여자 몸이 된 것
心常洞洞而燭燭	마음은 항상 넓고 시원히 뚫려 반짝반짝 밝은데
遺訓何時不思親	남기신 유언 어느 때든 부모님 생각지 않으리
欲將至願訴上帝	지극 소원 하느님께 하소연하려고
默默垂鑑表情眞	잠자코 고개 숙여 진실한 정 비취본다
他生做得何因果	후생에 어떤 인과를 얻어야만
忠孝家中快活人	충효 집안에서 쾌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고
共作賢良伊傳侶	어지신 이윤과 부열의 짝이 되어
遭逢聖代帝堯君	태평성대 요임금을 만나
東西事業經營後	이런 저런 사업을 경영한 뒤에
百世遺芳發達文。	백세 뒤에 아름다운 모습 남겼으면.

<권 1. 「自述」>

190) ‘余之性崔 貫和順 胎生地 乃嶠南金陵郡也 年甫六七歲 側聞爺孃所言 則曾祖考護軍功公 以守愚堂八世孫 往在辛未 因羣小構陷 歿于景來獄事 祖考司果公 坐謫古阜 卒于配所者 遽經幾十星霜 而顧此筭獨 未能挺身鳴冤 安敢曰有其孫也 幸腹中一塊 夢現異兆 故惟俟其 嗣續之有人 乃誕非男是女 則吾門坎珂 何日湔滌 死難瞑目云 余時雖幼庶 聞輒愕然 乃自 付于心曰 家門有禍 爲祖雪冤 男女奚論 誓以至死必伸 既而年迫二八 方議成婚 余矢志而 告之曰 若一委身於人 親家事有難暇 顧所以決意不嫁 孱鳩錢財 會集宗族 可使以農者農 學者學而競惕度日者 于茲四十有年矣乃 於光武五年辛丑冬 幸蒙天日遍照 快湔舊冤 復覩 陽春 則庶不負乎初心 於是乃家焉 因其昭穆而繼存之 先墓焉 銘其誌碣而表明之 仍感其歲 寒而不渝素質者 物忘有雪中松 故不揣濫而以是爲號焉 歲壬子秋八月也’(「松雪堂序」, 「松雪 堂集」, 권1).

반도강산 삼천리에 이천만중 운운혼중
 나도민족 일본즈로 일턴런더 갓췌건만
 인간삼락 도타흔들 너몸이 너즈되고
 삼종지의 지중하나 너몸에는 관계업다
 풍상고락 부지중에 어언광음 룽순이라
 빅발이 공도되니 홍진만스 쫓이업니
 우리원당 만세후에 삼상을 맞치거든
 만집중에 잠긴신테 칠원호덤 화희가서
 츠세상에 싸인흔을 명명호신 상데전에
 츠레츠레 발원호야 빅두산하 남향나라
 삼천리 화중세계 호즈츰신 적션가에
 장부몸이 되야나서 스셔삼경 룽도삼락
 차메섭렵 능통커든 이부쥬소 스승삼고
 요순우탕 님군맛나 국가스업 다흔후에
 동서양의 위인으로 류방빅세 호야불가.

<권 2. 「술지(述志)」>

위 한시 「自述」과 가사 「술지(述志)」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이처럼 제목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도 내용은 동일한 한시와 가사 대부분이 유독 자전적 내용의 작품들이다. 이런 작품들에서는 송설당의 의도적 창작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동일 내용을 다른 제목의 국문가사로 다시 창작된 것은 이미 예견한 또는 의도한 독자를 겨냥해 설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글이라는 언어로 다시 한번 쓰여진 시가 형태라고 생각된다. 조선 후기는 가사의 소통공간이 서민층과 부녀층에로의 확대현상이 두드러¹⁹¹⁾진 때이다. 따라서 언문사조는 의도 독자의 문자 해독력을 배려한 작가의 의도가 가미된 특수한 형태, 즉 당시 부녀자들의 글을 읽는 수준에 맞춰 창작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송설당이 주자주의적 윤리관이나 애국계몽의식 등 사회화 된 의식을 전달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송설당의 이러한

191) 김학성, 『국문학의 탐구』, 「가사의 현실화과정과 근대적 지향」,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p.204.

이중적 창작방식은 단순히 자신을 알리겠다는 의도에 개인 신상 내용은 물론 개인 정서와 학문 수준 등을 알릴 수 있는 개인차원의 문제를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자서전적이라는 특징을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한시에서는 고시 「自述」(16구)과 「記夢」(80구)이다. 그런데 이 두 한시와 동일한 내용을 언문사조에서는 「술지(述志)」(15구)와 「조술(自述)」(88구)에서 그대로 풀어 놓았다. 또 조상의 묘를 돌아보고 단장하는 감회를 읊은 오언고시 「先塋事送錫台至定州先川」(14구), 「定州宣川先壟設石儀回路有感而作」(48구), 「高陽先山石物畢役有感而作」(62구)는 언문사조에서 모두 124행의 아홉 작품, 곧 「루대선묘봉심급입석기사(屢代先墓奉審及立石記事)」(6.5구), 「선묘입석경영(先墓立石經營)」(15구), 「송운동운석(松雲洞運石)」(10구), 「백현금봉학산성묘(白峴及峰鶴山省墓)」(23구), 「무골산성묘(舞鵲山省墓)」(18.5구), 「갈현성묘(葛峴省墓)」(18.5구), 「송녕감회(松亭感懷)」(19구), 「조감(自感)」(4구), 「동지야(冬至夜)」(9.5구)에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 국문가사 아홉 작품의 124구와 한시 세 수의 구절 수를 합한 124구가 꼭 같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겠으나 흥미로운 사실이다..

송설당의 가사 중 일반적인 정물을 소재로 쓰여진 것들은 시인의 정서를 의탁하여 표출되고 있어서 시조나 한시의 그것과 닮아있다. 다만 고시와 짝을 이루고 있는 언문사조에서만은 서사적 기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형식을 보면 일반적인 가사에서는 단가형식일 경우도 20행 이상인 것이 보통인데, 송설당의 언문사조는 49제 중에서 39제가 20행 이하이다. 이는 일반적인 가사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이어서 전형적인 가사 형식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가사를 ‘長歌’란 명칭으로 부르는 것도 短形詩에 대한 長形詩라는 의미이다. 단형시는 한시와 시조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송설당의 ‘언문사조’는 짧으면서도 ‘행수의 제한 없이 4음 4보격의 율격을 실현’하는 가사의 형식적 외연을 충족시키고 있기도 하다. 또 가사는 내용이 담고 있는 辭意를 쫓아 序辭, 本辭, 結辭의 분단 체제를 이루는 것이 기본형식이다. 그러나 송설당의 가사 작품들은 위낙 단형이어서 가사의 이러한 분단체제를 반드시 갖추지도 않는다.

또한 가사 작품 표기 시에 국문을 원칙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한자어를 국문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국문자 위에 작은 글씨로 한자 표기를 병용하고 있는 것도

송설당 가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송설당 가사의 장르적 특징은 소통신적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유리하다. 작가는 개인적인 이유로 자신의 문집이 사대부집안의 아녀자들에게도 읽히기를 희망한 것 같다. 그 이유는 다음의 사실로 유추할 수 있다. 상경한 지 2년 만에 영친왕의 보모가 되어 10여년의 궁궐생활 후 출궁한 송설당은 막강한 재산과 권세를 갖는다. 이는 주변인들로부터 부러움과 의혹의 시선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런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자기변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는 문집을 기획했으며, 그 목적을 위해서 아녀자들도 읽을 수 있는 언문으로 쓸 수 있는 가사를 선택한 듯하다. 의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 기재로서 언문양식이 불가피했으며, 이들 독자에게는 가사의 전달력과 호소력이 한시나 시조보다 크다는 것을 인식한 듯하다. 일반적으로 漢詩는 서술을 억제하고 서정적으로 비유한다. 비유는 깊은 생각과 음미를 요한다. 음미는 정서적 감동이나 긴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긴장을 준다. 공감을 하면 벽찬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가사에 익숙해진 독자들은 일단 일차적으로 어휘 이해의 벽에 부딪쳐 흥미를 잃고 만다.¹⁹²⁾ 그래서 가사는 시가 전달하기 어려운 많은 정보를 전달할 때 더 유익한 장르이다. 이 때문에 송설당은 한시로 표현했던 시적 감흥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독자층을 위해 다시 한번 언문양식으로 바꿔 쓰게 된 듯하다.

제 3 절 부록에 나타난 題贊

부록에는 「松雪堂原韻」을 차운한 칠언율시 88수와 오언율시 3수, 寒-看-安-殘-彈운을 차운한 시 63수, 칠언절구 3수 등 모두 161수가, 그 밖에 「松雪堂記」 15편을 비롯 19편의 文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의 글은 모두 남자들의 글이다. 부록의 차운

192) 그러나 가사에 서정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남녀간의 순수한 연정을 모티브로 하는 연정가사나 풍류를 모티브로 하는 가사, 혈육이나 배필, 친지, 벗을 이별하는 상황이거나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리는 모티브를 담은 일군의 가사들은 서정적 주제가 표출되기도 한다. (김학성, 『국문학의 탐구』, 『가사의 현실화과정과 근대적 지향』,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p147).

시에는 4종류의 차운이 있는데 송설당이 지은 「松雪堂原韻」 외에 차운한 시는 송설당의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는 운이어서 원운의 작품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작품은 송설당이 무교동에 지은 집에 건 편액의 글씨 ‘松雪堂’을 소재로 하고 있는 만큼 송설당 청송 일변도다.

大書松雪揭中堂	크게 송설이라 써 집 가운데 걸었으니
知取孤標異衆芳	고결함 취하여 못 화초와 다름을 알겠네.
遠引清風生瑟韻	멀리 청풍을 끌어당기니 거문고소리 나고
高攀斜日漏晶光	높이 지는 해를 잡으니 수정빛이 새네.
老枝擎重龍鱗閃	묵은 가지 하늘을 받들어 용의 비늘이 번뜩이고
脩幹衡寒鶴頸長	긴 줄기 차가움 무릅쓰니 학의 목이 기네.
剛恨率居今不見	오늘 날 술거 못 봄이 한스러운데
復誰摸畫寫張皇。	다시 누가 장대함을 본떠 그리랴.

<권3, 前參奉 華陰 鄭崙秀의 次韻詩>

위의 작품은 마치 집(송설당) 앞에 서 있는 듯한 현장감을 전달한다. 게다가 시를 신기에 앞서 차운시를 쓰게되는 과정을 앞에 서술하고 있어서 그 옛날의 현장이 눈 앞에 그려진다.

하루는 내가 형당(衡堂)을 방문하여 서린방의 송설당에서 묵었는데, 형당이 그 주인 송설당여사 최씨의 지행(志行)과 사업과 문장을 말해 주었다. 내가 실로 용모를 가다듬고 청송하고 찬탄했더니 잠시 뒤에 여사가 연로하여 동석함이 혐의될 것이 없다 하고,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와 나에게 차를 내어주고 정으로 또한 극진해 대접했다. 곧 이어, 그가 지은 원고와 여러 사람들이 노래로 화답한 시를 내어 보이며, 이는 내 평생 겪은 풍상이니 원컨대 군자는 한 말씀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내가 그의 지행과 사업을 보니 실로 열렬한 대장부도 행하기 어려운 바가 많고 문장이 또한 예스럽고 우아하며 몹시 아름다워 옛 여사에게서 구하더라도 그와 짝할 만한 이가 드물었으며, 사실을 기록한 글이나 찬양한 글은 이미 제 군자들이 말한 까닭에 나는 덧붙이지 않는다. 우선 거친 말로써 원시(原詩)의 운을 따라 나의 공경하는 마음을 표시한다.¹⁹³⁾

193) ‘一日 余訪衡堂 館于瑞麟坊之松雪堂 衡堂爲道其主人 松雪堂女史崔氏之志行也事業也文章也 余固斂容而稱歎焉 俄而女史 以其年老不嫌同席 攜一僮而出饋余茶情 又款洽 因示其所著文稿 及各人所唱和者曰 此吾平生之所閱歷風霜也 願君子惠一言焉 余觀其志行事業

위 글은 「송설당집」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송설당의 모습이 시나 문이 아닌 글로서 자연스럽게 표현된 부분이라서 색다르다. 또한 차운시가 지어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롭다.

堂-芳-光-長-皇의 운을 차운한 작품이나 그렇지 않은 작품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송설당의 효심과 충성심, 즉 집안을 일으켜 세운 일에 대한 업적과 고종과 엄비에 대한 충성심을 칭송하고 있다. 둘째는 비너 꽃은 여자대장부의 절조와 당당함에 대한 칭송으로 송설당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나라를 위한 충성스런 신하가 되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셋째는 신선의 우아함과 너그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넷째는 그의 업적의 장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誠勤慈母福應長
若爲男子身尊貴
憂國丹忠必報皇。

자모(慈母)께 정성 다해 복은 응당 장구하리.
만일에 남자되어 존귀한 몸 되었더라면
우국 단충으로 반드시 황제께 보답했으리.

<권3, 正三品 夏山 曹字永의 次韻詩>

遐壽將期鶴背長
若化男兒爲輔弼
眞忠直節佐帝皇。

장수는 장차 학배같이 깊을 기대하네.
만약에 남아되어 보필의 신하 되었더라면
곧은 충성 바른 절개로 황제를 도왔으리.

<권3, 前郡守 磊田 李範台 次韻詩>

從此人家生女重
似君志業較男長
世間若有揄揚筆
應採風謠輔聖皇。

이로부터 인가(人家)에 딸 낳아도 중하리
그대의 뜻과 사업은 남자보다 나은 듯하네.
세상에 만약 선양(宣揚)의 붓 있다면
웅당 풍요를 채록해 성황(聖皇)을 보필하리.

固烈大丈夫之所難行者多 文章亦古雅而濃艷 求於古之女史 罕與儔匹 而若其記實之文 揚贊之詞 既有諸君子所言 故余不贅焉 固以無辭 步其原韻 以識余之敬云'(前參奉 華陰 鄭崙秀. 「松雪堂集」, 권3).

是身若化爲男子 이같은 몸 만약 남자 되었다라면
 衰職丁寧補聖皇。 삼공의 신하로 분명 성황을 도왔으리.

이 밖에도 記이나 說, 後識, 등의 글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송설당의 특별한 행위와 기이한 절조는 실로 만 장부가 이루기 어려운 것이요 역사를 상고하더라도 두 손가락 꼽을 수도 없는 일이니, 아아 위대한지고, 석촌의 서문이 죽히 천 마디나 되니 내가 무엇을 덧붙랴.194)

소나무의 절조를 보면 부인의 절조를 알 수 있고 눈의 마음을 보면 가히 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이면서 송설의 지조가 있고 부인이면서 장부의 일을 행하였으니195)

특히 송설당이 지은 시가에서는 충절의식이 사사로운 감은과 보은의식으로 비취지고 있는 반면 차운시에서는 그의 많은 행실이 국가에 충성스런 신하와 같다고 하고 있으며 ‘남자로 태어났으면 분명 충신이 되었을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송설당집』에 실린 작품을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각각 살펴보았다. 내용면에서는 한시와 언문사조가 큰 특징 없이 비슷비슷한 내용이어서 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가사형식인 언문사조는 형식면에서 주로 살펴보았다. 한시 내용 분석에 있어서도 작가의 내적의식이라기 보다는 소재를 중심으로 외적인 요소에 치중한 분석이었다. 경물이나 영물에 대한 작가의 시각과 가치관은 매우 여유롭고 달관적이라는 점과 자전시들에서는 자신과 가문의 역사를 서사적으로 정리한 작품들

194) ‘松雪堂之特行異節 實萬丈夫之難能者 而考之史策 指不再屈 於乎偉哉 石村之序 足以千舌矣 余何庸贅焉’(苞山 郭瀾, 『松雪堂集』 권3, 『松雪堂集後識』).

195) ‘見松之節 可知夫人之節 見雪之心 可知夫人心 夫人而有松雪操 夫人而行丈夫事 以其夫人而能若是乎’(族從 二山 元根 『松雪堂集』, 권3, 『松雪堂說』).

이 많았다. 또한 자전시의 비중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뚜렷한 목적의식이 동반된 시집임을 알 수 있었으며 현실의식, 감정의식에서 오는 충절, 가문과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는 점이 송설당 작품의 외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송설당집』의 가장 큰 특징은 ‘자서전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문집의 중심 메타포는 회고와 자축, 정리라는 세가지 명분이다. 회고는 어떤 계획된 일을 달성했을 때나 완성에 이르렀을 때 이뤄지는 단계이다. 『송설당집』은 목적을 달성한 후에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반추하는 동시에 성취감을 느끼면서, 아울러 달라진 환경을 수용하고 그에 맞도록 자신을 정리하는 목적에서 발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집 권2에 실린 언문사조의 형식적 실험성과 권3의 부록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진다. 송설당의 ‘언문사조’는 온전한 계몽기 시가 형식만도 아니며, 동시에 기존의 전형적인 규방가사의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다. 이는 오직 자신이 겨냥한 독자에게 자신이 알리고 싶은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소통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4 장 송설당의 의식세계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정리하는 특징을 지닌 『송설당집』은 60평생의 인생을 정리한다는 의미답게 지난 과거에 대한 회한이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사를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은 많지 않다. 한시 중에서 과거사를 언급하는 술회나 정취를 다룬 작품은 가정사를 술회한 작품과 ‘累代先墓奉審立石’과 관련된 글¹⁹⁶⁾로 20여 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진술은 그의 작품을 보다 냉정하고 진솔한 관점으로 읽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2장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송설당집』의 소통론적 목적은 신분의 변이를 겪게 된 자신에 대한 사회 일각의 의문의 시선에 대한 해명과 자신의 본질을 보다 바르게 알리는데 있었던 만큼 오히려 ‘나’의 본질적 모습을 전하는데 관심을 더 쏟고 있다. 그런 만큼 작품세계는 잃어버렸던 정체성의 존재함을 보여주려는 지식과 예절에 대한 유교적 범주의 편린들이 보인다. 특히 여성이지만 丈夫豪氣, 風俗勸勉, 憂國啓蒙, 道德教訓 등 양반 사대부의 의식이 반영되고 있는 글들이 많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한 체험에 대한 발흥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고 있다.

본 장에서는 두 장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작품 속에 드러나는 작가의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식이 발견될 수 있겠지만 본 논문은 의도된 문집에 모아진 작품을 텍스트로 하고 있는 만큼 2장에서 살펴 본 생애와 『송설당집』의 발간 목적, 작품의 주제를 중심으로 의식세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송설당집』은 한 평생 틈틈이 쓴 글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목적의식을 갖고 쓴 문집인 만큼 전체 문집에 흐르는 내용이나 주제는 분명하다. 하지만 배면에 흐

196) 한시: 「元朝祝」·「記夢」·「自述」·「先塋事送錫台至定州宣川」·「以宣川定州 先塋石儀事出加佐洞 有感而作」·「松雪堂原韻」·「定州宣川先塋設石儀 回路有感而作」·「高陽先山石物畢役有感而作」·「慈親八十八壽生朝識喜(3수)」, 가사: 「자술(自述)」·「述志(술지)」·「屢代先墓奉審及立石記事(루대선묘봉심급입석기사)」·「先墓立石經營(선묘입석경영)」·「松雲洞 運石(송운동 운석)」·「白峴及峰鶴山省墓(백현급봉학산성묘)」·「舞鵲山省墓(무골산성묘)」·「葛峴省墓(갈현성묘)」·「갈현성묘(葛峴省墓)」·「송녕감회(松亭感懷)」·「동지야(冬至夜)」.

르는 내면의식은 다른 것일 수 있다. 표면상으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살아 가는 작가의 의지가 숨겨져 있지만, 내면의식에는 작가도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세계를 향하고 있는 자아와 그것의 원동력을 이루는 초월적 자아의 갈등과 협력의 모습이 될 것이다.

제 1 절 개인의식

송설당이 이룬 일은 당대 이념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선후기는 사회적 자각과 새로운 사상의 등장으로 양반지배층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성리학적 이념을 전면으로 내세워 보수화의 길로 나갔다. 여성사의 입장에서 18세기를 봉건 사회의 해체기로 볼 수 있지만,¹⁹⁷⁾ 이 시기는 동시에 가부장권이 보다 강화되는 때이기도 하다. 문중이나 동족으로 대표되는 부계 혈족집단의 결속력이 부상하고 결혼제도가 부거제(夫居制)로 정착되고, 재산의 분산으로 인한 경제적 몰락을 막기 위해 장남위주의 상속이 강화되었다. 장자 상속권의 강화는 여성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여성의 몸으로 가문 복권의 꿈을 가지고 살면서,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송설당은 불가능한 일을 이뤄냈다. 송설당의 글은 자신의 험난했던 지난날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그가 이룬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하고자 한다.

1. 가문의식

송설당 가문의식의 출발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다.

부친쥬야(晝夜)탄식(歎息)말삼

가운(家運)이불형(不幸)호야

신미년(辛未年)서적란(西賊亂)에

외가유씨(外家劉氏)화익(禍厄)으로

197) 김정숙, 『경북여성사』, 『중세사회의 해체와 근대 여성의식』, 경상북도, 2005.

우리집에밧쳐와서	부친님스형대(四兄弟)분
남도(南道)로오신후에	구학(邱壑)이박두(迫頭)혼중
부친님하세(下世)하니	턴디(天地)가아득하야
장례(葬禮)를모신후에	편친로모(偏親老母)시봉(侍奉)하교
삼년(三年)을지니고서	쥬스야탁(晝思夜度)싱각흔들
스업(事業)홀일전혀업다	삼스촌(三四寸)을의탁(依託)코저
금릉(金陵)으로도라와서	칠년(七年이)치못되야
모친님하세(下世)후에	삼촌님부즈(父子)분도
불행(不幸)히하세(下世)하니	의탁무처(依託無處)외론 몸이
훈학아동(訓學兒童)성익(生涯)삼아	근근즈성(僅僅資生)지니가나
너가남의종손(宗孫)으로	슬하삼녀(膝下三女)썸이로다
뉘를가히의뢰(依賴)하며	어느즈손(子孫)디(代)를이어
선세과업(先世基業)일워보며	선형향화(先塋香火)부절홀고
조부이상(祖父以上)륙세(六世)분묘(墳墓)	덩쥬(定州)선천(宣川)되섯스니
천리원정(千里遠程)먼먼길에	하일하시(何日 何時)쳐져가서
성알(省謁)하교도라오리	디하(地下)에도라간들
선조령전(先祖靈前)엇지가며	니가눈을감을소나
우리부친(父親)탄식(歎息)말삼	쥬쥬야야(晝晝夜夜)귀에저저
너아모리어리기로	일시(一時)나이줄손가.

<권 2. 「즈술(自述)」에서>

다행스럽게 뱃속에 뭔가 있어서 꿈에 이상한 조짐을 보았는데 그 아이가 대를 이을 아이인가 기다렸더니 낳고 보니 사내가 아니라 여자였다. 그러니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 문중을 어느 날 애나 깨끗이 씻을 수 있겠는가. ‘죽어도 눈을 감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비록 내가 어린 나이였으나 놀라 스스로 맹세하기를 ‘가문의 조상들을 위해 원을 씻는 일에 어찌 남녀를 따지겠는가, 맹세코 죽을 때까지 반드시 풀어드리리라.’ 얼마 후 내 나이 16세가 가까워지자 바야흐로 혼인을 시키자는 의논을 할 때에 내가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한번 남에게 내 몸을 맡긴다면 친정집안 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을 것이니 결단코 내 뜻에 따라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198)

198)「幸腹中一塊 夢現異兆 故惟俟其嗣續之有人 乃誕非男是女 則吾門坎坷 何日湔滌死難瞑目 云 余時雖幼冲 聞輒愕然 乃自忖于心曰 家門有禍 爲祖雪冤 男女奚論誓以至死必伸 旣而年迫二八 方議成婚 余矢志而告之曰 若一委身於人 親家事有難暇 願所以決意不嫁」(『松雪堂集』 권1, 「松雪堂序」 일부).

<권 1. 「松雪堂序」에서>

위의 가사 「즈술(自述)」과 문 「松雪堂序」는 어린 나이였지만 ‘부친의 탄식 소리 일시도 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대를 이을 아이인가 기다렸더니 낡고 보니 사내가 아니라 여자’여서 실망하는 부친의 목소리는 작가에게 평생의 한과 짐을 지워준 것이다. 이에 혼인을 할 16세가 되었지만 ‘한번 남에게 내 몸을 맡긴다면 천정집안 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을 것이니 결단코 내 뜻에 따라 시집을 가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다. 그것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이지만 남자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다. 결혼이 사실이었다면 그것마저도 친정식구들을 위한 희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친정에 돌아 온 후에도 ‘치마를 둘러서 여자지 사내 대장부야¹⁹⁹⁾란 말을 들으면서 치산에 힘을 기울이며 조상의 신원 길만을 생각했다. 그 후 목적을 이루고 ‘옛날의 원통함을 시원하게 씻었고, 따스한 봄날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처음 먹었던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 회한에 젖었다. 그의 시에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노골적인 원망이 표출되고 있으나 무의식적으로는 가문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신의 성을 원망한다. 결국 자기의 존재성을 찾는 길이 곧 가문을 자기 힘으로 일으키는 일이라 생각한 것이다.

반도강산(半島江山)삼천리(三千里)에	이천만중(二千萬衆)운운(芸芸)한중(中)
나도민족(民族)일분즈(一分子)로	일편령터(一片靈臺)갓첫건만
인간삼락(人間三樂)도타한들	너몸이녀즈(女子)되고
삼종지의(三從之義)지중(至重)하나	너몸에는관계(關係)업다
풍상고락(風霜苦樂)부지중(不知中)에	어언광음(於焉光陰)륙순(六旬)이라
백발(白髮)이공도(公道)되니	홍진만스(紅塵萬事)뜻이 업니
우리원당(萱堂)만세(萬歲)후(後)에)	삼상(三霜)을맞치거든
만겁중(萬劫中)에잠긴신데	철원호뎃(剗園蝴蝶)화(化)히가서
츠세상(此世上)에싸인흔(根)을	명명(明明)히신상대전(上帝前)에.
.....하락	

199) 「대구 매일 신문」, 「발굴...여성운동 대구·경북 1백년 -최송철당 여사」, 1998년 8월 5일자, 12일자, 19일자.

「술지(述志)」는 자신의 의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여자는 안 되고 남자만 된다고 하는 세상이치를 원망하고 있으면서도 한계를 가진 여자의 몸으로 그것을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가문의식은 당대 가부장제 사회의 구성원이면 남자, 여자 모두가 갖는 당연하고 평범한 의식이었다. 가문의식은 이미 조선의 유교이데올로기의 기본골격이었으며 이에 반하는 그 어떤 의식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남자들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빈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입신양명의 길을 모색해야 했으며, 여자들은 세상살이를 한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결국에는 가문의 번영을 바라는 심사를 감추지 못했다. 대부분 여성들의 가문의식은 한 집안의 여성으로서, 또는 가문의 객체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는 데서 그치고 있다. 그러나 송설당의 가문의식은 다르다. “인간삼락(人間三樂)도타한들 너몸이녀즈(女子)되고/ 삼종지의(三從之義)지중(至重)하나 너몸에는관계(關係)업다”는 표현은 여성으로서, 가문의 객체로서 갖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가문의식이 아니라, 여자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여자의 일을 포기한다. 즉, 주체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송설당의 가문의식은 먼저 주체가 되기 위한 객체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부터 이뤄진다. 사회의 주체가 되어 자기실현에 이르기 위해 결국 자신의 성정체성을 포기한 삶의 여정을 택한다.

網倫禮節體元亨	삼강오륜 예절을 원형에서 본받았구나
三才我亦參人品	삼재에 해당하는 나도 인간 등급에 들지만
却恨終爲女子身。	한스러운 것은 여자 몸이 된 것.

.....중략

他生做得何因果	후생에 어떤 인과를 얻어야만
忠孝家中快活人	충효 집안에서 쾌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고
共作賢良伊傳侶	어지신 이윤과 부열의 짝이 되어
遭逢聖代帝堯君	태평성대 요임금을 만나
東西事業經營後	이런 저런 사업을 경영한 뒤에
百世遺芳發達文。	백세 뒤에 아름다운 모습 남겼으면.

<권 1. 「自述」 일부>

業墜箕裘情靡極	가업을 이어받을 정은 끝이 없는데
身爲巾幗恨須長	여자 신세가 된 한이 길고도 길구나
人間多少風霜劫	인간 세상은 풍상의 세월이 많은 법
他日吾將訴 玉皇。	이 다음 내가 하느님께 하소연 하리라.

<권 1. 「松雪堂原韻」 일부>

「自述」에서는 ‘신령스럽고 또 귀한 인간은 삼강오륜 예절을 본받아 삼재에 해당하며 나도 인간 등급에 들지만 한스러운 것은 여자 몸이 된’것이라고 가문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없는 여자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있다. 반면 「松雪堂原韻」에서는 ‘마음은 항상 넓고 시원히 뚫려 반짝반짝 밝은데’하는 구절 속에서 여자이지만,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데 그것을 펼 수 없게 하는 세상규율을 원망하고 있다. 이는 결국 그의 일생을 남다르게 살게 한 의식의 시발점은 가업을 이어받을 각오와 능력은 넘치지만 여자라는 이유가 장애가 되는 세상이다.

아래 가사에서도 인의예지와 충효재덕 모두 갖춘 것도 같고, 남녀라 해도 부모님이 귀하게 키운 것도 같은데 어찌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를 원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여자라 해도 남자와 같은 일을 해보겠노라는 포부를 숨기고 있다. 특히 부모님의 은혜가 같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도 같을 수 있다는 정신을 스스로에게 암시하며 신원의 꿈을 다지고 있다.

.....전략

아바지논하날이오	어마니논짜이로다
부모의상육지은(生育之恩)	턴디(天地)에서다를소나
남녀(男女)를물론(勿論)하고	상육(生育)키는일반(一般)이라
우리부모(父母)나를나서	구로(劬勞)하여기르실제
손바닥에진주(眞珠)처럼	품가온더명월(明月)처럼
스랑키도괴지업고	익기기도한량(限量)업다
륙월염턴(六月炎天)더운날과	엄동설한(嚴冬雪寒)치운씨에
의복음식(衣服飲食)철을 따라	아모췌록몸이편케

장성(長成)토록길넛스니	니아모리녀즈(女子)라도
부모은혜(父母恩惠)이줄소나	하물며우리부모
처음으로나를낳고	런생이녀(連生二女)호신후에
성남괴망(生男冀望)다시업서	우리조상(祖上)종손(宗孫)오른
우리집이맛집이오	우리부친소싱(巢筌)오른
내가맛팔명식(名色)이라	엇지감히쇼홀(疎忽)호리

.....후략

<권 2. 「자술(自述)」일부>

가사 「자술(自述)」에서도 종손집에서 장남이 아닌 맏딸로 태어난 것에 대한 죄의식과 책임감을 어깨에 지고 사는 작가의 심사와, 가문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를 보인다. 이런 각오는 가문의식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이는 세상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주체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송설당의 가문의식은 개인적인 의식이라기보다는 유교문화의 집단적 윤리의식이며 공동체 의식이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아실현의 주체의식이 담겨있다. 이는 그가 매달린 가문의식의 성격이 남자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남자들이 가졌던 가문의식은 자신의 입신양명은 곧 가문을 현창하는 것이었으며, 가문에 대한 기여가 곧 자아의 실현이기도 했다. 따라서 남자들의 이념과 이상은 일직선상에 섰으며, 자아인식에 대한 고민은 그 영역 안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송설당의 가문의식은 다르다. 가문을 일으키는 일이 삶의 목적이지만, 이는 표면적일 뿐이다. 송설당에게 가문을 세우는 일은 자신에게 존재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유교담론에서 여자들은 그들의 이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중심요소가 아니었다. 다만 유교적 이념을 실행하는 데에 자손을 낳고 가문을 이어주는 부수적 역할이었다. 늘 남성들의 영역 밖에서 그들의 동조자가 되어야 했다. 송설당의 가문의식은 그런 현실에 대한 반역인 동시에 가족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남자들만이 가졌던 가문의 참된 인자로서의 자기실현에 이를 수 있는 방편이었다. 송설당이 가문의식에 남다른 집착을 보이는 것도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당대의 확고한 의식에 대한 도전과 전복의식이다. 전복의식은 자기 주체의식의 강한 표현이기도 하다.

2. 효의식

송설당의 가문의식의 기저에는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한 것에서 출발한다. 그에게 조상 신원은 곧 부모님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효도는 남녀에 관계없는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 데서 가문 신원의 목표가 시작된 것이다. ‘륙월염천(六月炎天) 더운날과 엄동설한(嚴冬雪寒)치운썩에/ 의복음식(衣服飲食)철을 따라 아모썩록몸이 편케/ 장성(長成)토록길넛스니 니아모리녀즈(女子)라도/ 부모은혜(父母恩惠)이줄소 나 하물며우리부모’²⁰⁰⁾라는 표현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송설당의 효의식은 작품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효는 인류의 근본이다. 효도를 하는 데는 남녀의 구별이 없는 고로 송설당의 효의식은 가문의식 우위에 선다. 어려서 서당 훈장을 했던 부친으로부터 한학을 익혔던 송설당에게는 여자가 가문을 세워서 큰 덕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伸冤雪恥로 인해 훗날 여성인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처지였지만 거기에 매달린 이유는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다. 곧 효심은 가문의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가 매달린 목적 또한 효도의 방편인 것이다.

我家庭一畔	우리집 뜰 한 쪽 구석에
手植尺餘松	직접 심은 한 자 남짓 소나무
想我慈情重	나를 매우 사랑하는 자애로운 어머니
看松念我容。	소나무 보며 내 얼굴을 생각하시겠지.

<권1.『憶鄉第庭畔小松』>

송설당의 어머니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소나무를 보며 어머니를 생각하는 일방적 감성이 아니라 그 소나무를 보며 자신에 대한 걱정을 할 어머니를 떠올린다. 이는 양방향의 교류이다. 물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양방향의 관계이지만 송설당과 어머니의 관계는 모녀간을 넘어 그 이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에게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주는 현실적 존재였으며, 동시에 공

200) 松雪堂, 『松雪堂集』, 권2.

동체를 형성해주는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어머니가 그에게 소중하지 않았을 리 없다. 그에게 어머니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한 남자가 주는 것 이상의 자기 존재성을 부여해주는 실체였던 것이다.

深深漢江水	깊고 깊은 한강물
高高三角山	높고 높은 삼각산
昊天在其上	하늘보다 더 높은 부모님 은혜
雙手遠難攀。	두 손으로 잡고도 오르기 어렵구나.

<권 1. 「思親」>

不肖今年陳甲生	못난 내가 금년에 생일잔치 차려드리며
劬勞回憶淚先成	부모님 은혜 생각하니 눈물이 떨어진다
舌耕資食爺恩重	훈장해 먹여 살린 아버님의 은혜 무겁고
手線傭縫母志清	쌈바느질 한 어머니의 의지는 맑았었지
羅綺遍身懷舊冷	비단옷 몸에 두르니 추웠던 옛날 생각나는데
管絃到耳感新聲	풍류소리 귀에 들리자 새로운 소리 느껴진다
如何未獻春堂壽	어찌해서 아버님께 술잔 드리지 못하고
九十萱花獨太平。	90세 어머니만 태평을 누리시는구나.

尊年四七此軀生	이십팔세에 이내 몸 나오셨는데
不肖於焉陳甲成	어리석은 제가 환갑이 되었습니다
一心深祝龜齡遠	한마음으로 깊이 거북이처럼 오래 사시기를 축수하며
雙鬢仰奇鶴髮清	양 귀밑머리 우러러보니 학의 깃털처럼 세었구나
射葵霞觴浮喜色	술잔을 올려 권하니 기쁜 빛을 띠시고
樂魚風樹感歡聲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노라니 기쁜 소리를 느끼신다
陟岵敢忘劬勞日	높은 언덕 올라도 감히 부모 수고 잊으랴
先供天只永世平。	하느님께 영원토록 평안을 기원할 뿐.

願祝安期生	안기생 같이 오래 사시기를 축원하며
慈堂壽域成	어머님의 장수를 바란다네
愛日桑榆晚	사랑할 날은 뽕나무 느릅나무에 해 걸린 듯 다 가고
喜星寶婺清	기뻐할 날은 맑으신 어머니 모습

未及慈烏哺	까마귀의 효도를 따라가지 못하니
豈忘感鶴聲	어찌 감동스런 학의 소리를 잊을 수 있겠는가
折得三山草	삼신산에 풀을 잘라서
長春拜太平。	이 긴 봄에 태평하시도록 절 드립니다.

<권 1. 「慈親八十八壽生朝識喜」>

「思親」은 『송설당집』 권1의 첫 수이며, 「慈親八十八壽生朝識喜」은 마지막 수이다. 고의적 배열인지는 확인할 바 없지만 공교롭게도 두 수가 모두 어머니를 주제로 하고 있다. 작품 배열이 창작년도별로 배열되었지만, 마지막 수는 더 늦게 쓰인 시와 자리바꿈이 이뤄진 점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문집 구성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주제에 중점을 많이 둔 것을 알 수 있다. 『송설당집』은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하여 어머니 살아생전에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遙想東庭下	멀리 돌이켜 보니 마당에
一樹有林檎	능금 한 그루가 있었다네
慈分嚴護實	어머니께서 능금을 엄하게 보호한 까닭은
知是飼子心。	알겠다, 자식에게 먹이려는 마음이었구나.

<권 1. 「林檎」>

히당화(海棠花)야히당화(海棠花)야	저흰초(萱草)를 네 아느냐
백발조친(白髮慈親) 헌슈발원(獻壽發願)	북당춘우(北堂春雨) 심었더니
여름업는꽃보시고	불초(不肖)녀식(女息)싱각호스
탄식(歎息)호고흔(恨)호신들	쓸데업는외론신세.

.....후략

<권2. 「히당화(海棠花)」 일부>

위의 작품은 송설당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을 짐작할 수 있다. 「石榴」에서도 ‘맏고신 세상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염려와 ‘자식과 남편도 없이 얼마나 외로울까’하는 이중의 걱정을 끼치는 ‘불초(不肖) 여식(女息)’이라는 것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듯하다. 즉 여자로서 남자들이 하는 일을 못할 것은 없지만 남자의 책임을 하려다 보니 여자로서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점을 어머니의 큰 걱정거리였던 것 같다. 하지만 송설당은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 또는 남편이 없는 것에 대해서, 또는 훗날 자신의 영혼을 모셔줄 후사가 없는 것에 대한 근심이나 염려는 별로 드러내지 않는다.

풍우(風雨)를불피(不避)하고 천리(千里)를지척(咫尺)삼아
 괴덕일성(汽笛一聲)저소리에 금릉(金陵)을어서가세
 금천역(金泉驛)을당도(當到)하니 우리형제(兄弟)환영(歡迎)이라
 백발친당(白髮親堂)비알(拜謁)후에 친척정화(親戚情話)깃부도다.

.....후략

<권2. 「청암스(靑岩寺)에서」>

「청암스(靑岩寺)」는 자신에게 고달픔만 안겨주었던 고향과 부모이지만 ‘천리를 지척삼아’ 기적 소리 한 번 울릴 동안에 고향으로 달려가고픈 작가의 심사가 나타나 있다. 어머니가 계신 곳, 그 곳은 작가의 실존적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곳이기도 하다. 인간의 자기실현은 자신이 처한 시대적 환경과 분리될 수 없다. 유교는 인간의 자기실현이 혈연가족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가족은 사회 변동을 따라 움직이며, 그것에 적응하는 이념체계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개인 상호간의 정감이 교차하면서 서로를 생성하는 장이기도 하다. 유교의 세계에서 가족은 개인과 사회를 잇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공동체이다. 가족에 관한 유교적 담론에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나름의 방식이 존재한다.²⁰¹⁾ 이런 의미에서 송설당과 어머니의 존재 의미는 곧 무너진 가문을 일으켰을 때만이 성립한다. 그들의 피나는 희생과 노력은 곧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그 가문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조상숭배는 자손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새롭게 획득해 가는 의식이 된다.

힘들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의 절실한 마음은 곧 자식으로서 당연히 부모

201) 성균관대 동아시아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편,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 청어람 미디어, 2004., p.129.

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는 책임감과 주체의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유교적 이데올로기는 딸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크지 않다. 단지 품행이 단정하여 좋은 가문에 시집가서 자식 낳고 잘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송설당은 딸로서의 도리를 접은 불효자였다. 대신 더 큰 일, 가문의 복권을 위한 장남으로서의 효를 실천했다. 때문에 살아 계신 어머님께는 이중의 걱정을 끼치는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아녀자들처럼 남편과 자식이 없는 것과,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는 의지로 거대한 남자들의 아성에 도전하는 것 모두가 어머니에게는 걱정거리였을 것이다. 효심이 지극한 송설당은 어머니에게 불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어머니에게 근심을 안겨드리고 있다는 불초지심의 마음을 갖고 전전궁궁하면서 살아야 했던 송설당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부담이 뜻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의지에 불을 붙이는 윤활유가 되곤 했던 것 같다. 시집 중간 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생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3. 성취의식

송설당의 글은 오랜 전쟁이 승리로 끝난 뒤 개신장군의 여유로움과 안정된 환경을 느낄 수 있다. 고생을 할 때 쓰인 글들이 아니고 이미 그 고난의 단계를 넘어서서 쓰인 글들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불안함보다는 해원과 평화를 되찾은 기쁨의 정한이 깃들여 있다.

寒天陰雪積

暖氣動蕨灰

災逐前宵盡

福迎此歲來

林葱躋壽域

玉燭炳春臺

霖雨占豐兆

七龍可爾才。

추운 날 음산한 눈이 쌓였는데

따스한 기운이 갈대의 재를 날린다

재앙은 전날 밤 다 없어지고

복은 오늘 아침 찾아온다

푸른 풀에는 태평세상이 올라오고

옥같은 촛불은 성세를 비춘다

장마 비는 풍년 들 조짐이고

일곱 형제는 재주를 발휘할 만하다.

今日爲元朔	오늘은 정월 초하루
門門喜氣多	대문마다 즐거운 기운이 가득하다
母兮千歲壽	어머님! 천 년을 사시고
第矣一家和	아우들! 온 집안 화목하게나
杯樽同里巷	술잔을 온 동네에 똑같이 나누니
雨露滿山河	은혜는 산과 강에 가득하겠네
仙李光中葉	선이 중엽 때 빛났었던 일
新春我詠歌。	새 봄 내가 노래로 읊조린다.

<권1. 「元朝祝」二首>

위의 시는 작자가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실현에 대한 만족감을 얻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가족은 공동생활의 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 살아가는 의미, 죽는 이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상의 공동체이다. 자기실현이라는 인간의 욕망이 가족을 통해 확보될 수 있으려면 공동체적인 의미를 묻는 기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즉 송설당도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는 것이 곧 공동체적인 운명에서의 역할을 해내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송설당의 가족의 현실은 남자의 부재였으며,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도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유교적 집단에서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회가 용인하지 않은 여성적 삶을 포기하고 남성적 삶을 택하는 데는 강한 자기실현 욕구가 필요하다. 공자는 ‘강한 자기 욕구를 가진 사람이어야 진정한 공동체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²⁰²⁾고 했다. 결국 송설당의 가문의식과 효의식은 강한 자기실현 욕구와 실존적 의미 찾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교의 가족 담론은 가족 밖에서 가족 내부를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인간의 본질적 욕구 실현의 맥락에서 가족 내부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정감의 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사회 변동에 따라 가족의 형태나 기능, 원리가 변해가는 측면이라면 후자는 이념과 논리를 초월하여 가지게 되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다. 이런 면에서 이 시는 매우 만족스럽게 정월 초하루를 맞는 송설당의 심경을

202) 성균관대 동아시아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편, 앞의 책, p.132 재인용.

노래하고는 있지만 전자의 측면에 국한된 일그러진 작가의 자화상만을 볼 수 있다. 조상의 숙원이자 자신이 목표한 가문의 복원을 달성한 후의 만족감, 정겹게 고향에서 부모 형제들과 함께 정초를 맞는 분위기가 희망차고 활달하지만 모친과 형제, 일가, 백성, 나라의 걱정 뿐, 자신의 신상에 대한 기쁨의 요소는 찾을 수 없다. 이는 유교이데올로기 속에 경직된 한 여인의 정감이 있을 뿐이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개인적 욕구마저도 일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본질적 욕구가 사회적 현실 속에 용해되어 있는, 즉 인간이 개체로서의 존재 보다는 한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더 높이 추구하는 유형의 만족감을 읽을 수 있다.

.....전략

일일시시(日日時時)복을쥘어 무성(茂盛)호게되느니로
우리조손(子孫)내본바더 나는디로정직(正直)하고
나느디로군주(君子)되게.

<권2. 「영도스상련화(永道寺賞蓮花)」일부>

송설당의 작품에서는 성취과정의 역경을 회고한 시와 성취 후의 여유로움을 노정한 작품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위의 작품도 가문의 복원을 위해 전전공공하던 과거의 심사 대신 되찾은 권세와 안정된 생활 속에서 여유로운 심사를 전하고 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성취 전의 정한 못지않게 쟁취 후의 승리감이 스며있다. 남자의 세계에 대한 여성의 향거는 당시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도 같은 싸움이였다. 그러나 패배만이 예정되었던 싸움을 승리로 끝낸 작가의 인식은 여성의 그것이 아니다. 보통 승리자는 자신의 색깔로 정복지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송설당의 전쟁에서는 승리자가 패배자의 색깔로 변신하고 있다. 마치 그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기 위해 싸워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들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그 변모는 외적인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내적 세계로 넓혀가고 있다. 그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는 「元朝祝」에서 노래한 것처럼 태평세상과 풍년들 조짐, 일곱 형제들의 밝은 미래, 모친의 장수, 화목한 집안과 동네 사람들과의 친목, 선조대의 화평을 되찾는

일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러한 기쁨의 요소 중에는 여성의 본질적 자아와 직접 관련된 일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이미 송설당의 안일은 가족과 가문, 나라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이는 당시 장남의식에 충만해 있던 한 여성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지 엿 볼 수 있다. 남성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해냈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은 의식의 전도현상 또는 성을 초월한 인간의 본연에 가까워지고 있다. 여성으로서, 한 집안의 딸로서의 안일을 찾는 일은 사라지고 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가문을 일으킨 일원으로서, 나라의 녹을 먹었던 신하로서의 만족과 안정감만이 전달된다.

내가본시세뿌리라	두뿌리를키여내어
김산(金山)함평(咸平)두향원(鄉園)에	난와보너심우기는
우리형대(兄弟)우리자손(子孫)	너와갓치번성(蕃盛)호고
너와갓치장원(長遠)호야	백천세(百千世를)무궁(無窮)호게.

<권2. 「청포도(靑葡萄)」>

히당화(海棠花)야히당화(海棠花)야	상데지화(常棣之花)네아느냐
화목(和睦)혈스우리형대(兄弟)	동괴일신(同氣一身)련(連)호가지
부모(父母)이슬가치바다	방비무성(芳菲茂盛)일반(一般)이라
슈유(須臾)라도잊지마려	세세장춘(歲歲長春)피오리라.

<권2. 「히당화(海棠花)」>

무성하게 자라서 대롱대롱 열린 「청포도(靑葡萄)」를 보면서, 형제지우의 의를 이야기하는 「히당화(海棠花)」를 보면서도 가문과 형제들의 번창을 비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밖에도 가사 「先墓立石經營」과 「松雲洞運石」, 「白峴及鳳鶴山省墓」, 「舞鵲山省墓」, 「曷峴省墓」에도 실전한 조상의 분묘를 찾고 단장하는 과정과 함께 지난 일들을 회고하며 자긍심을 만끽하고 있다.

또한 「蘭草」와 「盆竹」에서는 난초의 군자다운 자태와 매난국죽 사군자에 눈 속의 소나무를 더해 五淸이라 부르면서 雪裡孤松인 자신을 빗대고 있다. 「粉竹」에서는 대나무의 굳은 절개를 빗해서 자신도 날마다 평안함을 알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송설당집』 권1의 마지막 수 「慈親八十八壽生朝識喜」도 88세 생신을 맞이하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내용이다. ‘사랑할 날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기뻐하시는 맑은 모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힌다.

멸문한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까지의 긴 여정을 몸을 던져 싸워온 송설당은 자격이 없는 장수였다. 한 여자로서의 본질적 욕망은 일찌감치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걸고 가능성 제로 게임에 달려들었던 송설당은 기어이 자신이 얻고자 한 것을 얻은 승리자이다. 그는 싸움에이기기 위해 개인적인 야망은 버렸지만, 얻은 것은 신분의 복권과 부와 권력이었다. 과연 송설당은 본질적인 자아의 희생으로 얻게 된 반쪽짜리 승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결코 그에게는 반쪽자리 승리감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의 도전에 대한 승리감은 성 차별의 한계를 극복한 성취감과 함께 여성의 객체적, 타자적 존재감이 주체적으로 전도되었다는 면에서 작가 스스로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즉 그의 성취감은 처음에는 자신이 도전한 싸움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도전한 영역에 일원이 된 것에 대한 성취감이다. 즉, 이겨서 빼앗은 승리감이 아니라 적에게 인정받았다는 데서 오는 성취감이다. 특히 여자이지만 남자로서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한 성취의식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제 2 절 사회의식

송설당은 국권상실의 치욕과 아픔을 겪는 조선 왕실의 최후를 함께한 궁녀로서의 남다른 사회의식을 가졌을 수 있다. 그러나 우국충정의 의식보다 신원을 해준 고종과 엄비에 대한보은의식을 더 자주 드러내고 있다. 또한 抗日意識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지만²⁰³⁾ 이는 식민체제 당시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주었을 가

203) ‘송설당의 가사에는 명확하게 抗日 저항의식이 표출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한석수, ‘崔松雪堂의 文學世界와 現實認識’, 『최송설당 기념학술대회 발표집』, 송설당 기념사업회, 2004, p.179).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고 있지만 나라에 대한 걱정이나 애국, 호국의식이 배면에 함축되어 있는 반면 보은의식은 구체적으로 표면에 드러나 있다.

1. 국가의식

1) 感恩과 報恩意識

송설당의 글에서 자주 나타나는 임금에 대한 고마움은 나라에 대한 충성의식이라기 보다는 황실에 대한 사적인 관계에서 온 感恩意識이다. 그에게 엄비와 고종은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준 은인들이며 그가 보모로서 육아를 맡았던 영친왕은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핀 존재이기 때문이다. 영친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없지만 일본으로 잡혀간 영친왕에 대한 걱정 대신에 고종과 엄비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식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咫尺聞天香	가까운 곳에서 하늘 향기 들으니
賴汝月中桂	바로 달 속의 계수나무 덕일세
賜我滌塵藥	나에게 티끌 씻는 약을 주니
時時拜上帝。	때때로 옥황상제에게 절을 올린다.

<권1.「月桂」>

그의 시가에서는 ‘티끌’을 씻게 해 준 옥황상제’에 대한 은혜로움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온다. 티끌은 가문이 짙어지고 왔던 명예를, 옥황상제는 그것을 벗겨준 고종을 지칭하는 것이라. 자신의 생을 걸고 가문의 신원설치에 매달렸던 송설당으로서 고종과 엄비에 대한 감은의식과 보은의식이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시원스럽게 선조들의 한을 풀고 따뜻한 봄날을 회복하니 그때 나는 우로(임금님)의 은혜를 흠뻑 받은 늙고 큰 소나무였다. 한편 조상의 산소를 깨끗이 정돈하면서 추모의 정을 이기지 못

한 그 때에 나는 조상의 산소에 부슬부슬 내리는 눈이었다.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여 근심하는 마음이 두근두근할 때, 그때 나는 그늘진 언덕에 내려 깨끗이 쓸지 못하는 눈이었다. 아침저녁으로 근심만 하며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생각만 했던 그 때 나는 밤하늘에 내리는 눈이었다.²⁰⁴⁾

<권1. 「松雪堂記」 일부>

「松雪堂記」는 작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일생을 밝힌 글이다. 신원 후 자신은 ‘임금님의 은혜를 갚지 못해 조심조심 걱정하며 내리는 눈’이라고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 저변에는 가문을 되살려야겠다는 일념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작가의 심정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로(임금의 은혜)는 결국 ‘시원스럽게 선조의 한을 풀고 따뜻한 봄날을 회복시켜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 전략

우로은택(雨露恩澤)아니며는	네가엇지성장(生長)호며
풍상질고(風霜疾苦)아니며는	네가엇지늘것스며
빅운명월(白雲明月)아니며는	네가엇지한가(閑暇)호리
우로턴은(雨露天恩)갑호라고	종남산하(終南山下)풍설중(風雪中)에
인왕북악(仁旺北岳)바라보고	국궁(鞠躬)호고섯는모양(貌樣)
가지가지충절(忠節)이오	넙시넙시충심(忠心)이라.
류수광음(流水光陰)변전(變遷)흔들	네빗네뜻꼇칠손야.
풍상질고(風霜疾苦)늘근몸이	본색본심(本色本心)불변(不變)호니
천종만종(千種萬種)초목중(草木中)에	너갓튼류(類)또잇는나.
빅운명월(白雲明月)도커니와	빅설중(白雪中)에빚이논다.
창송빅설(蒼松白雪)두글즈를	상합(相合)하니송설(松雪)이라.

..... 후략

<권2. 「창송(蒼松)」 일부>

204) ‘快伸先寃 陽春復回時 余雨露老大之松也 抑又膽掃邱園 不勝愴慕時 余罪罪載塗之雪也 國恩未答 憂心忡忡時 余陰崖未消之雪也 夙夜祗懼 志切報國時 余因天夜到之雪也’(「松雪堂集」, 권1, 「松雪堂記」).

뿐만 아니라 고종에 대한 감은 의식과 함께 고종이 내려준 ‘松雪’이라는 당호를 의식한 듯, 한 겨울에도 곳곳하게 서 있는 소나무에 자신을 비유하여 고종에 대한 자신의 충절과 충심을 노래하고 있다. 정주 선천에 있는 선영에 석물을 세우고 돌아오는 길에 감회를 읊은 다음 시에서도 고종에 대한 감은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 전략

幸賴皇天佑	다행히도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次第盡在茲	하나하나 이 일을 하게 되었다
中心喜欲狂	마음 속으로 미치도록 기뻐하야
爰謨設石儀。	석물을 설치하자고 의논하였다.

..... 후략

<권1.「定州宣川先壟設石儀回路 有感而作」 일부>

작가는 조상의 석물 일을 하게 된 것을 마음속으로 미치도록 기뻐하며 자못 흥분과 희열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시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해준 고종을 옥황상제로 보고 있다. 송설당에게 신원문제는 인생의 핵심이었으며 하늘의 도움 없이는 이를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었던 만큼 꿈을 이루게 해준 고종은 그의 은인이기도 하다. 송설당의 이 같은 의식은 임금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조심조심 공들여 온 과업을 해결하는 데에 극적인 역할자가 되어주었다는 의식, 天佑神助의 의미를 띤다. 이런 의식이 감은과 보은의식으로 이어진다.

존귀(尊貴)하신허비던하(皇妃 殿下)	웅중(隆重)하신허비던하(貴妃 殿下)
승운상천(乘雲上天)하신후에	초종성복(初終成服)못감추와
영휘원(永徽園)을향해가서	두루두루살펴보니.

..... 중략

태산(泰山)갓치놉흔덕택(德澤)	해수(海水)갓치깁흔은혜(恩惠)
차세양보(此世仰報)못다하고	래생(來生)으로괴약(期約)하야
가이업시애통(哀痛)하나	적막황원(寂寞荒原)뿐이로다
서산(西山)머리걸넌해가	도라올길재촉하니
두줄눈물압흘가려	길이자못희미(熹微)키로

이리빗슬저리빗슬

분변(分辨)업시내려올 제

명민(明敏)할손저가치는

양양쌍쌍(兩兩雙雙)나리들어

가는사람작별(作別)인듯

네가본시령물(靈物)이라

우리귀비(貴妃)여턴은덕(如天恩德)

래생앙보(來生仰報)맹세(盟誓)한 일

존귀(尊貴)하신평답하(靈榻下)에

자세자세(仔細仔細)아뢰주렴.

<권2. 「감은(感恩)」>

이 가사는 엄비의 대기를 맞아 김천에서 기차를 타고 한양에 올라와서 엄비가 묻혀있는 영휘원을 돌아보는 심경을 노래했다. ‘태산(泰山)갓치 높흔 덕택(德澤) 해슈(海水)갓치 깊은 은혜(恩惠)’, ‘우리 귀비(貴妃) 여턴은덕(如天恩德) 래생앙보(來生仰報) 맹세(盟誓)한 일’과 같이 그에게 귀비의 은덕은 태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어서 하늘과 같다.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하였다고 하는 그의 의식은 엄비가 결코 나라의 왕비여서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점에서도. 하지만 이런 표현은 반대로 당대 사회의 분위기, 즉 일제를 의식한 표현일 수도 있다. 가까이 모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표현, 엄비에 대한 품성과 자애로움을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글²⁰⁵⁾의 의미를 되새겨 봄직하다.

..... 전략

영휘원(永徽園)을 향해가서

국궁(鞠躬)하고배례(拜禮)한 후

원근산천(遠近山川)바라보니

도라간봄다시와서

홍도벽도삼색도(紅桃碧桃三色桃)는

화문보(花紋襟)를펼쳐논듯

천사만사양류사(千絲萬絲楊柳絲)는

초록장(草綠帳)을드리운듯

사양방초(斜陽芳草)저문날에

일거왕손불부회(一去王孫不復回)라

일단심중(一段心中)매친마음

잊지하면푸러보리

창망(蒼茫)하다저운산(雲山)아

일후(日後)다시무러불가.

<권2. 「추감(追感)」 일부>

..... 중략

205) ‘(1)念昔歌樛木 后感恩不忘 休祥開震鬱 謙德讓坤裳 攝壺勞絺絡 盛筐佐 締嘗 盡誠勤輔 養 東闕祝天疆 (2)隱慈推市丐 盛滿戒房親 衣皂躬昭儉 仁抱衾衆逮 儀文非 聖祖 悲痛有 遺民 鶴駕言旋日 鶴駕言旋日’ (松雪堂, 『松雪堂集』 권1, 「純獻貴妃輓」).

홍릉영휘(洪陵永徽)두릉원(陵園)에 전벽(展拜)하고물너나와
 석주(錫冑)석티(錫台)석두비(錫斗輩)와 산보(散步)하여도라오니.
 후략

<권2. 「중양(重陽)」 일부>

홍릉과 영휘원은 고종과 엄비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작가는 고종과 엄비의 사망 후 종종 두 릉을 둘러보고 그 착잡한 마음을 가사로 남기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감은의식과 함께 한 번 몰락한 왕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없음에 비통한 마음을 개인적 인과관계인 듯 표현하고 있지만 잃어버린 국권에 대한 원통함과 함께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읽을 수 있다.

향일화(向日花)는 충신화(忠臣花)라	키도크고현양(軒昂)하다
니마당에심은뜻을	그늬라서침작(斟酌)하라
달과갓치등근꽃이	희를향희기우리니
아침씨는향동(向東)하고	저녁씨는향서(向西)하여
한찌라도일치안코	충심성의(忠心誠意)직혀간다
씻넙마다빗누르니	중앙정식(中央正色)이아닌가
임을향호일편단심(一片丹心)	슈유(須臾)인들움길손야
숙상한풍(肅霜寒風)소슬(蕭瑟)한데	화엽(花葉)이식불변(色不變)하니
뒤뜰에설중고송(雪中孤松)	내가덕실(的實)니벗인듯.

<권2. 「향일화(向日花)」>

「향일화(向日花)」는 여성가사에서 보기 힘든 연군과 충정이 주제이다. 충심성의를 한 때도 잃지 않는 향일화와 자신을 상징하는雪中孤松이 벗이 될 수 있다는 언지를 통해 잠시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자신의 심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白雲孤松一小堂	흰구름 외로운 소나무 작은 집
此心非欲遠流芳	이 마음은 하소연을 멀리 흘려보내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早閱風霜餘老能	일찍이 풍상을 맞아 늙은 나머지에

晚霖雨露愧榮光	늘그막에 임금의 은혜를 받으니 그 영광 부끄럽기만 하구나
夏淸冬溫誠不及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헤드리지 못하여
春霄秋日恨須長	봄 하늘 가을 낮 길어진 것만 한탄했다
來生做得何因果	내생에 만약 어떤 인과를 얻게 된다면
第待修文奏 玉皇。	차례차례 문장을 닦아서 옥황상제께 올리리라.

<권1. 「松雪堂原韻」>

「松雪堂原韻」은 문집의 대표격 한시이다. 이 시는 문집 부록에서 차운된 시이기도 하다. 그런 시에 고종에 대한 보은 의식이 절절하다. 고종과 엄비에 대한 송설당의 감은의식은 애국심이나 충성심과는 다른 것이다. 자신에게 최대의 난제이자 숙원이었던 문제를 해결해 준 은인에 대한 고마움이다. 그의 작품은 혹시나 했던 신원의 과업을 자기 스스로 이뤄낸 것에 대한 흥분과 신분과 경제력, 사회적 위치까지 단번에 수직 상승한 기쁨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식 상태는 문집이 출간되는 1922년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192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한 듯하다. 갑부가 된 송설당은 여운형, 송진우, 한용운 같은 독립 운동가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실력 있는 청년들을 키우는 일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기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년대 중반만 해도 송설당은 자신의 재산을 불사에 시주하려고 했다는 것을 볼 때 그의 의식에는 투철한 국가관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가 엄비의 사망 후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간 전국에 있는 큰 사찰에 많은 시주를 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개인적 차원의 보은의식과 충절의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천유지들이 학교 설립에 재산을 기부해 줄 것을 부탁할 때에도 해인사에 전 재산을 넘길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그에게 나라를 위한 큰일을 해내겠다는 의식은 별로 없었던 듯하다. 가문의식에 매달렸던 송설당에게 대표적인 유교의식인 忠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다기보다는 感恩과 報恩의식에 더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이 그들에게 과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흡족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재산을 불사에 시주하겠다는 처음 의도 또한 자신에게 베풀어준 두 분, 즉 먼저 돌아가신 고종과 엄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충절과 감은의식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우국의식

송설당이 사회를 보는 의식은 따뜻하면서도 안타까움에 차 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 해 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다.

室如漆色眼如盲	방안이 칠흑 같고 눈은 장님 같아서
不辨形容但辨聲	형용을 분별치 못하고 소리만 알겠구나
安得團團三五月	어찌하면 둥글고 둥근 보름달을 맞아
照他萬像自分明。	저 모든 형상이 스스로 분명해지도록 비추게 될까.

<권1. 「漆夜吟」>

「漆夜吟」은 칠흑같은 어둠의 세상을 환히 비출 보름달을 잃어버린 심상이다. 이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일제하의 현실에 비유한 듯하다. ‘어찌하면’이라는 화자의 고민과 ‘저 만상 비추어 절로 분명케 하라’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은 구국의식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어놓고 항변할 수도 없는 것이 당시 상황이고 보니 그의 작품 속에는 안타까운 심사만이 충만하다.

鳥帽龍鬚八尺身	까만 모자에 용처럼 긴 수염을 가진 팔척 몸둥이
村名里數刻如新	마을 이름 거리 숫자 새로 새긴 듯
東來西去長奔走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랫동안 분주하니
誰是人間失路人。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인간이 길 잃은 사람이라는 것을.

<권1. 「題猴人」>

「題猴人」은 주인을 잃은 백성들이 갈 길을 잃은 채 분주하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장승을 통해 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길 잃은 사람들, 즉 인도자를 잃어버린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다룬 작품들이 있다.

海門煙雨日冥冥	좁은 바다에 가랑비 내리자 날은 어둑어둑
---------	------------------------

賈舶商船次第行
長風吹破鯨魚浪
箇箇雲帆一葉輕。

장삿배 차례로 줄지어 지나간다
긴 바람이 불어 고래같은 큰 물에
한 개 한 개 흰 돛단배들 나뭇잎인양 가볍다.

<권1. 「雨外風帆」>

이 시는 힘없는 백성들의 돛단배가 쉽 없이 오가는 장삿배와 고래 같은 물결이 지척에서 위협하는 어둡고, 비 내리는 험난한 환경 속에서 위태롭게 떠있는 형국이다. 이는 20세기 초 열강들의 침략으로 어수선했던 조선의 운명을 한 장면의 그림으로 그리 듯 표현한 秀作이라 할 수 있다.

茫然雨埃失風沙
去馬來牛不辨涯
且莫奔流滄海入
恐君貽笑大方家。

아득한 비 먼지 바람 모래 날려보내고
가는 말 오는 소 끝을 분별치 못한다
푸른 바다로 분주하게 흘러가지 말아라
현인 군자에게 웃음거리 될까 걱정된다.

鷗鷺失羣休問諸
魚龍移窟肯忘於
何當借得治洪水
疏導橫流尋舊居。

갈매기 해오라기가 무리를 잃었다고 묻지마라
물고기들 굴을 옮겼으나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어찌하면 홍수 다스릴 솜씨를 빌려서
흘러가는 물을 인도하여 옛 거처를 찾게 할까.

<권1. 「漢江觀漲」중 두 수>

이 시들은 한강물이 불어 넘실대며 흘러가는 홍수가 났을 때의 모습이다. 단순히 물 구경을 한 느낌을 옮겼다고보다는 정치적으로 일제의 침탈이 진행되던 시기였던 점으로 봐서 홍수의 상황을 외세의 침탈로 본 듯하다. ‘어찌 하면 홍수 다스릴 솜씨를 빌려서 흘러가는 물을 인도하여 옛 거처를 찾게 할까’하며 고민하는 모습은 화자가 여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모습이 진지하다. 비록 세상을 직접 다스릴 수는 없지만 누군가 바로 이끌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시정이다. 이는 당대 일제 침탈이라는 사회적 환경을 바라보는 한 백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관점이어서 눈여겨 볼 사항이다.

喫驚風波旱路行
 羊腸豹虎險於鯨
 從今非馬非船搭
 教子爲書教僕耕。

바람과 파도에 몹시 놀라 육로로 가니
 굽은 길, 사나운 맹수 고래보다 사납다
 지금부터는 말도 배도 타지 않으리
 자식에게 글, 종들에게 밭가는 것 가르치려네.

灌園蒔花樂在中
 偷閒管領一春風
 就看和氣團圓處
 好惡何關白與紅。

밭과 꽃에 몰대니 그 가운데 즐거움 있어
 한가히 지내면서 봄바람 관리한다
 온화한 기운이 원만하게 뭉친 것 보니
 좋고 나쁨이 어찌 흰 꽃이나 붉은 꽃에 관계되리.

<권1. 「偶吟」일부>

그러나 같은 ‘한강’을 노래한 시이면서도 그의 의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작품도 있다. 「偶吟」은 한강이 소재가 되는 네 수로 이뤄진 연작시로, 작가의 삶에 대한 신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넘실대는 물살에 많은 영웅들이 씻겨갔지만 지난 일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불어나는 물결에 조각배 저항하지만 자신은 건너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인다. 그는 海路도 陸路도 택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며 농사를 짓겠다는 뜻을 보이며 그 가운데서 만족을 찾는다. ‘한가히 지낸다’는 표현은 어떠한 정치적 색채도 띄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며, ‘좋고 나쁨이 흰 꽃이나 붉은 꽃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표현 또한 자연의 이치를 좇아 산다면 큰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삶의 철학을 엿보게 한다. 이는 송설당의 모순된 의식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漢江觀漲」에서는 백성들을 구해줄 어진 세상의 도래를 기원하는 마음이 표현되었다면 「偶吟」은 자포자기나 도피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양면성은 당대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한양의 세도가들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이 옳은가를 구분하고 그른 것에 대항하기보다는 강한 침탈자의 힘에 굴복하여 일신의 안녕을 꾀하는 당대 집권 세력층의 갈등과 모순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是是非非萬事紛
 世間善惡孰能分
 古今變態無終極
 看取長空一片雲。

옳고 그른 온갖 일이 어지럽기만 한데
 세상 선과 악 누가 판단하리오
 옛날이나 지금 변하는 세태 끝이 없어
 높은 하늘 한 조각 구름만 바라볼 뿐.

<권1. 「是非」>

위 시는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을 사람 없는 혼돈의 세태를,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구름만을 바라본다는 당시 지식인의 고뇌에 찬 목소리가 담겨있다.

既爲異代吾無與	다른 시대가 된 것에 내가 무엇을 관여하리
不識何心感自多	모르겠다, 어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많은지를
回首可憐行樂地	머리 돌려 바라보니 오가던 땅 가련키만 해
空令過客費吟哦。	부질없이 지나는 나그네로 하여금 시만 읊게 한다.

<권1. 「次人松京懷古韻」 일부>

이 시는 작가가 개성을 여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표현했지만 주인이 바뀐 세상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무능한, 아니 세상을 되찾기엔 너무 부족한 한 백성으로서 어찌해야할 지를 결정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원망하며 ‘부질없이’ 시만 읊게 한다는 작가의 좌절과 패배의식이 묻어있다.

松雪堂前種芭蕉	송설당 앞에 파초를 심어놓으니
新枝初展長稱腰	새로 나온 긴 가지 허리를 두들만 하네
柴門客去秋蕭瑟	사립문에 손님 떠나고 쓸쓸한 가을
也傍幽人慰寂寥。	은자(隱者)의 곁에서 고요함을 위로해 주겠지.

<권1. 「芭蕉」>

「芭蕉」는 결국 은자(隱者)의 길을 선택한 작가의 적막함과 허탈감이 가을의 쓸쓸함에 묻어 있다. 그리고 세상사에 대한 허무감과 함께 식민지 백성으로서 아귀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一漚纔減一漚浮	한 거품이 겨우 없어지자 한 거품이 생기니
浮世浮生有異不	뜬 세상에 인생살이 다른 게 있으랴
世間夸奪紛紛予	세상에 잘났다고 자랑하는 많고 많은 사람들

無限功名擬久悠。

끝없다는 공명이 오래 갈 수 있으랴.

<권1. 「觀漚有感」>

「觀漚有感」은 한 무리의 명사들이 세상을 들쭉이고 나면 또 다른 무리들이 득세하는 세상사를 물거품에 비유하고 있다. 오랜 시간 영롱한 물거품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듯이 세상사 사람들도 그런 위치로 반복된다는 것을 연륜으로 아는 작가는 세상사를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쉽게 떼어낼 수 없는 것이 세상사이다. 아직도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은자는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은 한 어옹을 부러워한다.

雨洗秋江水更清

가을 강 씻은 비에 물은 다시 맑아지고

漁翁撐出一船輕

어부는 삿대질하고 배 저어 나온다

祇緣不被塵纓縛

다만 티끌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

長得烟波自在行。

평생 아지랑이 물결 속에 제멋대로 다닌다.

<권1. 「漁翁」>

자연은 무심히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지만 작가는 세상사에서 벗어나 결코 가버릴 수 없다는 심경을 드러내는 시이다. 은둔 생활을 하지만 마음만은 편치 않은 심사를 엿볼 수 있다.

一色晴沙步夕陽

한결같이 맑은 모래밭 석양에 걷노라니

江流同我素心長

흐르는 강물은 나와 같이 깨끗한 마음 길기도 하다

願言挹此無窮逝

원컨대 이 맘 가지고 끝없이 가서

幻作仁波漸八荒。

요술처럼 어진 물결이 되어 사방팔방 적시었으면.

<권1. 「渡漢江」>

결국 은둔의 생활자더라도 그의 의식에는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픈 선민의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일신의 평안을 위해서든, 무능력에서든 사회 개혁에 뛰어들지 못하는 의식 속에는 모든 제약을 뛰어넘어 요동치는 사회에 필요한 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

실이 그런 소망을 펼치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요술처럼(幻作)’이다. ‘요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리킨다. 따라서 구국을 위해서 요술이라도 부리고 싶은 간절한 작가의 무의식은 완강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截竹爲余杖	대나무 잘라 지팡이 만들고
剪薛爲余衫	썩대 잘라 내 적삼 만들어
飄然遺世去	홀쩍 세상 버리고 떠나
洞庭扣一帆。	동정호에서 뱃전이나 두드렸으면.

<권1. 「言志」>

결국 송설당은 현실에 뛰어들어 시시비비를 따지는 대신 동정호의 어부가 되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굴원은 「漁父辭」에서 “머리를 감은 자는 반드시 갯을 털어서 쓰고 새로 목욕한 자는 반드시 옷을 털어 입는다한다. 어찌 깨끗한 몸으로 남의 더러운 것을 받는단 말인가. 내 차라리 소상강 강물에 달려들어서 강고기의 뱃속에 장사지낼지언정 희디흰 결백한 몸으로 세속의 먼지를 뒤집어쓴단 말인가.”하였지만 송설당의 떠나고자 하는 세상은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혼탁한 인정이 아니다. 길을 잃은 백성을 안식처로 이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자신을 무능하게 여기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송설당의 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뛰어들 수 없는 당시 사회상을 안타까워하는 자포자기의 심사이다. 무엇인가 할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펼칠 수 없게 하는 완강한 현실은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인 듯 구체적 표현을 생략한 채, 은둔처사가 되어 세상사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의지로 본인의 속마음을 대신하고 있다. 시가 창작된 시기가 대략 1900년대에서 1910년대로²⁰⁶⁾ 보았을 때

206) 원래 문집 완성 시기는 1914년이었지만 허가가 1922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문집 발간이 늦어진 듯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雲養 金允植이 쓴 「송설당집서」 끝에 「甲寅仲春 八十翁 淸風金允植序」라 쓰인 점과 문집 3권에 실린 부록의 글들이 1912년 송설당이 무교동에 저택을 짓고 옥호를 松雪堂이라 懸額했을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하객과 지인 150여명으로부터 받은 차운시들이다. 이 밖에도 1913년 7월 엄귀비의 大葬를 맞아 김천에서 바빠 기차로 상경하는 장면을 읊은 한시 「感恩」, 「純獻貴妃輓」과, 자신의 육순(1913)을 맞아 지은 가사 「자술(自述)」, 「추감(追感)」, 「중양(重陽)」도 창작 시기를 확실히 알게 해주는 작품이다. 또 회갑이 되는 갑인년을 맞아 음력 2월에 조카들을 정주와 선천에 보내어 104년 동안 잃어버린 조상묘를 찾게 하고 석물을 제작하

한양에 살았던 송설당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현장에 있었다 할 수 있다. 1907년 모시던 영친왕이 볼모로 일본에 끌려가고 자신의 복권을 해준 고종이 퇴위하는 등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이 이뤄졌던 때이다. 궁궐 나인으로서 망국의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본 송설당이었지만 드러내 놓고 일본의 찬탈에 항의도 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처지였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가문을 되찾은 기쁨도 함께 했을 시기였지만 몇 편의 시들은 그가 당시 환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西國文明罕與儔	서쪽 나라 문명은 누구와도 상대하기 어려운데
天分區界好相留	하늘이 나눈 경계선을 서로 좋게 가지고 있다가 ²⁰⁷⁾
一朝憤勇由爭地	하루아침에 용기를 뽐내서 땅을 다투고
萬里驅馳起戍樓	만 리 길 말을 달리는 전쟁이 수루에서 일어난다
纓冠倘近黃人義	벼슬아치들은 아직도 황인의 의리를 믿고 있는데
鋒鏑應多赤子愁	창과 화살 든 사람들 많으니 백성들 근심에 빠진다
良手誰能洋海去	훌륭한 솜씨로 누가 능히 대양을 넘죽여
平安普渡巨川舟。	평안히 큰 내 건널 배를 보급하라.

<권1. 「聞歐西戰報 有感而作」>

마음 놓고 현실에 대한 분노와 염려를 나타낼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작가는 멀리 서구의 전쟁소식에 빗대어 소회를 털어놓고 있다. ‘黃人의 義’는 태양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외국인인 와서 스스로 행복한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싸우지 않고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예이지만 무력으로 다투니 응당 백성들의 고난이 커짐을 걱정하고 있다. 누군가 그 혼란을 가라앉힐 사람이 있어서 백성들을 보전하기를 바란다. 이는 1차 세계 대전 소식에 접한 작가의 소감이지만 당시 조선 땅에서도 그

여 기차로 운반, 修築하는 내용의 글들이 시와 가사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증거로는 송설당의 모친의 사망이 1919년인데 문집에 실린 모친을 언급한 많은 시는 아직 생존을 증거하는 작품들이다. 게다가 漢詩 마지막 작품은 모친의 88세 생일을 맞은 정한을 읊고 있다. 이는 1922년 문집이 발행되었다 해도 서문이 쓰인 1914년경에는 거의 모든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다만 한시 중에 「高陽先山石物畢役有感而作」에 ‘병진년(1916년) 봄철’이라는 식귀가 있는 것은 총독부 허가를 얻지 못하는 사이에 보충된 것으로 보인다.

207) 각자에게 주어진 땅을 사이좋게 갖고 사는 것이 옳다는 의미로 침략에 대한 경계의 의미 담김.

에 못지않은 침탈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결코 먼 나라에만 국한된 소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훌륭한 솜씨를 발휘해 줄 누군가는 그 당시 조선에도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다.

작가가 세계 전쟁에 대한 소감을 글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보아 당시 작가의 견문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사회의식은 단순히 규방의 아녀자의 수준으로 보아 넘길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첫구의 ‘서쪽 나라 문명은 누구와도 상대하기 어려운데’라는 표현에서 서양문물에 대한 작가 나름의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경외감일수도 있으며, 우리 동양의 의식과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작가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그의 문집을 세계 여러 나라 도서관에 보낸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 당대 60 넘은 노부인의 세계 인식의 깊이나 넓이를 짐작케 하는 드문 경우이다.

송설당의 작품에서 국가의식이나 사회의식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본이 조선을 꺾기 위해 최종적으로 공략했던 곳이 황실이었으며, 결국 고종은 그들의 침탈을 세계에 알리고자 헤이그 밀사를 파견한 일로 퇴위를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적국에 보내야 했다. 이러한 비분강개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송설당은 영친왕의 보모로서 황실 내부에서 지켜봤던 인물이다. 그도 日人들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그의 글에는 망국의 원통함을 노골적으로 표출시킨 작품은 단 한 편도 없다. 그의 작품은 표면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의식과는 관련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가문의식에 경도된 작가의 면면만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한강’이 소재가 되고 있는 일련의 시들은 강의 상징성만큼이나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우국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한강은 ‘한양’과 함께 조선왕조를 상징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양은 너무 직접적인 비유이며 한강은 비교적 넓은 범위를 상징한다. 그러나 유구한 그 물결만은 우리의 민족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한강에 대한 작품을 10여수나 쓰고 있는 작가는 그 속에서 자신의 흥분과 우국의 충심을 은밀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과 무능한 자신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작가의 의식이 감지된다.

3) 憐民의식

송설당의 시에는 백성들의 삶을 소재로 한 시들이 몇 편 있다. 그중에서도 농민들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남다르다. 시를 쓸 당시 작가의 생활은 한양에서 주로 이뤄졌지만 시는 농민들의 힘겹고 곤궁한 삶과 농촌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면 쓸 수 없는 섬세함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눈길을 끈다.

野人籬落略相同	저 시골 마을들 비슷비슷한데
纏得南菰不見空	호박 넝쿨들 뽕뽕 얹혀 빈곳이 없구나
還有一村三夏景	도리어 한 여름의 경치로 마을을 이루니
全家多在雨聲中。	모든 집들이 빗소리 가운데 있구나.

<권1. 「南菰」>

「南菰」는 옹기종기 모인 시골 마을을 또 다시 호박넝쿨이 한 덩어리로 뽕뽕 얹혀 맨 모습을 애정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스스로 의지하는 모습이 나라의 보호를 기대기 어려운 상황의 농민들의 고달픈 삶을 암시하는 것 같아 애처롭기도 하다.

턴디음양(天地陰陽)조판(肇判)하야	일월성신(日月星辰)버려있고
춘하추동(春夏秋冬)우로상설(雨露霜雪)	풍운조화(風雲造化)빚치(排置)호후
천종만물(千種萬物)성겨나미	최귀(最貴)홀스스람이라
태고(太古)썩에나신성인(聖人)	그일흠이신농씨(神農氏)니
억조창생(億兆蒼生)살니라고	각색농기(各色農器)지어닐식
장기보습흠이가리	첩리(捷利)호계만드러서
슈던평던(水田平田)쌈의이랑	갓가지로다사리고
춘경하운(春耕夏耘)씨를맞쳐	츄슈동장(秋收冬藏)완성(完成)호니
신농씨(神農氏)의닐분덕택(德澤)	하날아리웃썸일세
보턴지하(普天之下)큰근본(根本)이	만스(萬事)중에데일(第一)이라
농스(農事)짓는우리동포(同胞)	신근로고(辛勤勞苦)막심(莫甚)호네
춘소고단(春宵苦短)시벽바람	달계든잠찌쳐나서
부녀(婦女)들을독촉(督促)하야	아참지여일즉먹고
상평하평(上平下平)건답슈답(乾畝水畝)	츠례츠례(次例次例)갈고밀제

춘일지양넙피남묘(春日載陽饁彼南畝)	아참시이덤심(點心)나절
탁주(濁酒)동의밥동고리	반달쳐름써서온다
술마시고밥먹으니	진일근고(盡日勤苦)이것세라
그중에도숨은근심	모닐적에날가물가
모닐뒤에큰비올가	동풍(東風)부러썩마를가
이근심과저괴름을	어되다가비유(比喻)하리
그렇저렇지니다가	륙월염턴(六月炎天)당도(當到)하면
땀이흘너목욕(沐浴)되고	몸이타서흑빛이라
이럼으로말하기를	나락마다신고(辛苦)로다
륙칠월(六七月)이얼는지나	팔월(八月)달이당도(當到)하면
이들저들곳곳마다	누른구름이러나니
바라봐도비부르고	한가(閒暇)하기신선(神仙)이라
우리농인(農人)취포(醉飽)하고	태평가(太平歌)를불너보세.

<권2. 「농자대본(農者大本)」>

가사 「농자대본(農者大本)」은 송설당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알 수 있다.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송설당이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잊기 마련이다. 그러나 송설당의 글에는 농사와 농민에 대한 따스한 연민의 시각이 자주 목격된다. 새벽바람에 깨어나서 밥 지어 먹고 논밭 갈고 나면 어느새 점심나절, 술 마시고 밥 먹으면 종일의 수고로움은 잊지만 마음속에는 모낼 적에 가뭄 들까, 모낸 뒤 큰 비 올까, 동풍이 불어서 썩이 마를까, 이 근심 저 근심 비유할 수 없다. 땀으로 목욕을 하고 몸이 타서 흑빛이 되어 나락 포기마다 피땀이 맺힌다. 팔월이 되면 황금물결 바라만 봐도 배부르고 한가하기는 신선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특히 천종만물 생겼을 때 최고로 귀한 것이 사람임을 강조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신농씨가 농사를 지어냈다며 으뜸으로 주장하는 작가는 농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삶의 수단임을 꿰뚫고 있다. 또한 농사꾼들의 육체적 노동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농사가 잘못될까 勞心焦思 걱정하는 마음까지 헤아리고 있어서 단순히 농민들을 소재로서 다룬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이해하고 있는 작가의 진심을

느끼게 한다.

黃雲割盡稻青青
百指揮鋤着力輕
里舍無人晝灣寂
午鷄飛上屋頭鳴。

누런 구름 걷히자 벼는 더욱 싱그런데
은 손에 호미 잡고 가볍게 힘을 붙인다
마을 집에 사람 없고 한 낮은 고요한데
낮 닭이 풀쩍 날아 지붕 꼭대기에서 운다.

<권1. 「田夫夏半耨畝」>

挾筐懶向畝之中
裙帶麥波一色同
穗穗較黃良久摘
金神太半未全功。

광주리 끼고 밭 가운데로 나른히 가니
치마 허리에 보리 물결 정년 한 빛인데
이삭마다 누른 것 골라 이윽히 따고 따도
가을신이 아직 태반이나 공들이지 않았네.

<권1. 「途中見田婦摘麥穗」>

「田夫夏半耨畝」와 「途中見田婦摘麥穗」는 초여름의 농촌풍경이다. 봄의 경쾌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벼도 푸르고 보리도 익지 않은 보릿고개를 연상시킨다. 농번기는 모두가 바쁜 때이다. ‘텅 빈 동네를 닭이 지키고 있는 풍경이지만, 낮닭이 지붕에서 우는 것은 주린 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²⁰⁸⁾이 공감되는 시이다. 더구나 이어지는 「途中見田婦摘麥穗」는 끼니가 어려워 익지 않은 보리밭에서 익은 보리를 애써 골라 따는 아낙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오뉴월은 보릿고개를 넘겨야하는 고약한 계절임을 은근히 함축하고 있다.

柴門草色月如梳
團扇輕搥暑氣微
簷際尙多經澇麥
化爲白白小蛾飛。

사립문 앞 풀밭에 달이 빗살처럼 비추고
등근 부채 가볍게 흔드니 더운 기운 희미하다
처마 끝엔 아직도 비 맞은 보리 많은데
흰 점으로 변한 조그만 나방 날아다닌다.

<권1. 「夕」>

208) 권태을, 「崔松雪堂의 漢詩概觀」, 「松雪堂集 I」, 최송설당 기념사업회 엮음, 도서출판 명상, 2005, p.45.

「夕」도 아직 보리타작이 끝나지 않았는데 더위와 장마가 몰려왔음을 암시하고 있어서 환영할만한 풍경이 못된다. 세 작품 모두 초여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애정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에 「田家景」 제목하에 각기 다른 부제로 쓰여진 세 수의 시는 초추, 중추, 만추의 가을 농촌 풍경을 나누어 읊고 있다. 특히 세 장면은 농사 중에 쉽게 볼 수 있지만 비중을 두지 않는 장면을 한 폭의 그림처럼 나열해 놓고 있다. 또한 작품 속의 주인공과 그것을 바라보는 작가의 심사를 대비하고 있어서 흔치 않은 기법으로 꼽을 수 있다. 세 장면 모두 농촌 삶의 애환이 스며있는 모습이어서 송설당의 농촌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감지할 수 있다. 「初秋耘畢」은 바쁜 칠월에 호미를 잠깐 걸어두고 서늘한 그늘에 누워 잠간의 휴식을 취하는 농부의 심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秋田驅雀」은 몰아도 도망가지 않는 새를 쫓는 아이의 안타까운 마음이 안됐다고 생각하면서도 결실의 흡족함을 숨기지 못하는 기쁨이 전해지는 시이다. 세 번째 수 「寡婦拾絮」는 가을걷이가 끝난 목화밭에서 뒤늦게 터지는 목화솜을 따는 처량한 과부의 모습을 밝은 색채로 그리고 있다. 섬세한 관찰력과 실제 상황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시적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이런 감성은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송설당의 의식 깊은 곳에 농민으로서의 삶이 깊이 새겨져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昨夜神龍出海東
須臾噓氣見雲同
仙人承露難爲瑞
賢相作霖慙乃功
秧刺生心抽水綠
榴花別樣滿庭紅
從此不飯安南米
萬口歡聲動市中。

어젯밤에 귀신같은 용이 동해에서 나와
잠깐 사이 기운을 불어대니 구름이 몰려온다
신선 이슬 받아도 상서로움 되기 어렵지만
어진 정승이 단비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공로가 되는 것
벼이삭 패니 물에서 빼죽 푸른 싹 돋고
석류꽃은 유달리 뜰 가득 붉은 물들여
이제부터 안남쌀을 먹지 않아도 되겠다고
모든 사람이 저자 가운데서 소리 지른다.

<권1. 「甘雨」>

당시 백성들에게 고마운 것은 풍년을 들게 하는 단비만한 것이 없었을 것이다.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끼니 걱정마저 하게 한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때문에 작가는 신선 이슬 받는 것보다 단비를 만드는 일이 더 큰 공로가 된다고 한다. 작가 형편상 안남쌀을 먹는 형편은 아니었겠지만 자신의 일 인양 기뻐하는 심상에서 연민의식을 느낄 수 있다.

송설당의 ‘농자가 근본’이라는 의식은 그의 작품 특징의 일부라 할 정도로 작품 면면에 스며있다. 작가가 農事와 農者에 대해 애정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농자로서 어려운 과거를 살았고 그들과 함께 고난의 시기를 살면서 농자들이 당시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근본이 되는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農者大本’의식은 한 나라의 근간이 곧 그들이라는 생각이며, 그들이 건재하는 한 나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국충정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2. 여성의식

송설당 작품의 정조는 호방성과 여유로움, 맑고 고요한 심상과 달관적 애상이 대표적이다. 어느 작품은 남성적 감성으로 여성의 입장을, 또 다른 작품에서는 여성이 된 한과 함께 남성이 되지 못한 한을 노래하고 있다.

1) 원죄의식

그의 시가에는 여성으로 태어난 원죄의식이 엿보인다.

咫尺聞天香	가까운 곳에서 하늘 향기 들으니
賴汝月中桂	바로 달 속의 계수나무 너 아니더냐
賜我滌塵藥	나에게 티끌 씻는 약을 주니
時時拜上帝。	때때로 옥황상제에게 절을 올린다.

<권1. 「月桂」>

이 작품에서 말하는 티끌은 가문의 불명예이다. 즉 티끌을 씻게 해 준 약을 준

옥황상제는 신원을 해준 임금이다. 그러나 다른 시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티끌은 가문의 불명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대를 이을 아이인가 기다렸더니 탄생한 것이 사내가 아니라 여자였으니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 문중이 어느 날에나 깨끗이 씻을 수 있겠는가.’ 이는 송설당이 자신의 문에서 직접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어린 마음속에 자신이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모님과 가문에 죄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손으로서 자신의 대를 이어 선대의 基業을 맡을 아들을 원했으나 아들 대신 딸만 셋을 낳은 것에 크게 낙담한 부친이 ‘선조 영전에 어찌 가며 눈을 어찌 감을 수 있겠냐’ ‘구렁텅이에 빠진 문중을 어느 날에나 깨끗이 씻을 수 있겠는가 죽어도 눈을 감기 어렵다’고 하는 탄식 말씀이 맏딸이었던 송설당의 귀에 밤낮으로 젖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 것이다. 어린 나이부터 자신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집안에 복이 될 수 없다는 자괴감은 원죄의식을 배태시켰다. 이런 의식은 자신의 삶의 포기를 맹세하게 한다. 맹세 중에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집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는 남자의 역할을 결심했던 것 같다. 어린 시절의 결의는 가난으로 인해 몇 차례 시련을 겪지만 자신이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해 문중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죄의식에는 변함이 없었던 듯하다. 이는 곧 자신이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원죄의식이 송설당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략

先業焉繼述	선조의 일을 어찌하면 이을 수 있을까
且以匹婦視	또 아녀자의 시각으로 보면
猶有一身吉	오히려 한 몸뚱이에 길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人皆有夫婦	남들은 모두 부부가 있으나
我獨無家室	나만 홀로 남편이 없고
人皆有子女。	남들은 모두 자녀가 있으나.

..... 후략

<권1. 「記夢」 일부>

「記夢」에서 선조의 일을 잇기 위해 결국 홀몸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남편도,

자식도 없는 외로움까지 겪어야 하는 무거운 인생이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원죄 의식은 타고난 운명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감수해야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의식인 점을 비춰 볼 때 송설당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可期經歲青蒼質	세월이 지나도 푸르고 푸른 자질은 기약할 수 있는데
祇愛無塵皎潔光	다만 사랑하는 것은 티끌 없이 깨끗한 빛이다
業墜箕裘情靡極	가업을 이어받을 정은 끝이 없는데
身爲巾幗恨須長。	여자 신세가 된 한이 길고도 길구나.

<권1. 「松雪堂原韻」 일부>

이 시에서도 가문을 빛내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의 빛을 흐리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여자’라는 점임을 고백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을 찾을 수 있는 자신감과 의욕을 갖고 있지만 ‘여자 신세’의 한이 가업을 이을 수 없게 한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가문의 티끌은 신원으로 없앨 수 있었지만 자신이 가진 티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송설당의 고민은 그치지 않는다. 그 고민은 지난날 사대부 아녀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과거일 수도 있다. 그가 여자가 아니었으면 갖지 않아도 될 티끌이며 고민이다.

吾看吾影子	내가 내 그림자를 보니
眞眞在寶鏡	참 내 모습이 보배스런 거울 속에 있구나
天然疑信間	진짜 모습을 의심하고 미더워하는 사이
姮娥月中嘆。	항아가 달 속에 비춘다.

<권1. 「鏡」>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참 모습이다’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실제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거짓된 모습은 아닐까? 의심하는 작자의 심성이 매우 복잡하면서도 진실되게 전달된다. 끊임없이 자신의 참모습을 고민하는 작가의 모습에서 고집스럽지만 강한 자아의식이 발견된다. 더구나 거울의 참 모습 속에서 서왕모의 불사약을

몰래 훔쳐 먹고 선녀가 되어 달로 달아난 항아의 모습을 본다는 표현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 전략

慈兮嚴護實 어머니께서 능금을 엄하게 보호한 까닭은
知是飼子心。 알겠다, 자식에게 먹이려는 마음이었구나.

<권1, 「林檎」>

日日北堂思 날마다 어머니 생각날 때면
開門對石榴 문을 열어놓고 석류를 바라봅니다
誰識西域果 누가 알겠는가. 서역 과실의
辛酸世間留。 맵고 신 세상살이가 남아있다는 것을.

<권1, 「石榴」>

「林檎」이나 「石榴」은 어머니가 송설당을 생각하고 있는 깊이를 알게 한다. 이는 송설당과 어머니의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송설당의 시에는 여자로서, 이성으로서 남에 대한 존재가 없다 그 대신 어머니의 그림자가 있다. 영물을 통해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기대와 사랑, 걱정을 느끼는 작가의 감성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처럼 어머니에 대한 애뜻함이 주조를 이루는 것도 어머니와 자신의 원죄를 동질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과를 보고도 자신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석류에서는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을 탐지하는 작가의 감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부처럼 늘 지니고 있는 의식이다. 이런 의식은 어머니와 딸 송설당이 유교적 이념 속에 길들여진 한 편이라는 개념에 관련된다. 부계가족은 부자관계를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부자관계는 사실 부모와 자녀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유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표성을 둔다. 부자와 같은 특정관계가 중심이 되면 다른 관계들은 부차적이거나 주변적이게 되고, 이것은 또한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심성 구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즉 '父子'가 핵심이 됨으로써 남녀는 물론 부모 자녀 사이에 작용하는 정서적인 구조까지도 변하게 된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가깝게 대하는 '親親'은 자연적인 친밀성을 강화하는 원리인데, 이것은 어머니와

의 관계로 대표된다. 반면에 지위가 높은 사람을 받드는 ‘尊尊’은 상하 질서를 지지하는 인위적인 원리인데 아버지와의 관계로 대표된다.²⁰⁹⁾ 즉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인위적인 이념적 관계가 아닌 자연적인 친밀성을 강화하는 관계이다. 이 친밀성은 강요나 약속이 전제되는 관계가 아니다. 그야말로 이해와 사랑이 전제되는 관계이다. 송설당은 같은 여자로서 유교체제 속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 어머니의 원죄의식을 이해하고, 또 자신이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원죄의식을 갖게 했다는 죄의식을 갖게 된다. 그 원죄의식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인 동시에 자신이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죄의식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장남으로서의 역할만이 어머니와 자신의 죄를 씻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 무의식은 가문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심층에는 부계중심의 유교적 집단에서 소외된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를 이해하고 협조자가 되어야겠다는 친친의식이 발로된 것인지도 모른다.

風定林梢夜漸長	바람 자는 숲에 밤은 점점 깊어지는데
輝輝美影暫爲光	반짝반짝 아름다운 그림자로 잠깐 빛이 되기도 한다
飄零誰念清霜重	떠다니는 모습 맑은 서리처럼 깨끗하다고 누가 생각해 주겠는가
似向晴窓請處囊。	맑은 창 향해 주머니에 모으기를 청하는 듯.

<권1. 「螢」>

「螢」에서는 결국 씻고자 해도 씻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잠깐잠깐 잊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원망과, 서리처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본성을 알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포기하는 심상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의지를 보이는 작품도 있다.

忘機我似白鷗心	잃어버린 나의 마음 갈매기 같아
一點塵埃肯許侵	한 점 티끌 묻는 것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나마는
好向江南波浩蕩	강남의 호탕한 물결 찾아가기 좋아해서
不關風雨自浮沉。	비바람도 개의치 않고 스스로 헤쳐나간다.

<권1. 「鷗」>

209) 성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교육연구단 편, 앞의 책, p.123.

「鷗」은 오히려 변화한 세상 속으로 가서 ‘비바람도 개의치 않고 스스로 헤쳐 나가겠다’는 활달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작가는 어떤 타끌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자신의 성품과 의지를 보이면서 그것이 두려워서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송설당은 되찾은 가문의 명예에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 듯하다. 그러나 송설당의 가문 복원 과업은 인생을 건 도박이었으며 평생의 숙원 사업이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랐다. 사대부 가문의 아녀자로서, 여자로서의 체면을 버려야 했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 제도권의 금기를 어겨야만 하는 모순의 삶을 살았다. 우여곡절 끝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을 것이다. 『송설당집』은 이런 작가의 의도 속에 편찬된 문집이다. 지울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해명이 곧 글을 써서 남에게 읽히는 일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의 이런 의식은 자신이 갖고 태어난 운명, 즉 몰락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난 것을 원죄의식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죄는 또 다시 사회적 관습을 어기게 했고,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생의 목표에 도달한 것이다. 자신의 개인적 영달을 모두 저버리고 가문을 위해 지난한 삶의 질곡을 감내한 송설당 의식의 출발은 몰락한 집안에 장녀로 태어났다는 원죄의식이었다.

2) 남성선망과 성전도의식

송설당의 한시와 가사 모두 자전적 성격을 띤 작품에서 여탄과 동시에 남성선망의식이 표현되고 있다. 한시에서의 여탄은 여성의 강인함이나 자존감으로, 또는 남성의 감성으로 착각할 정도로 남성적 시정으로 나타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반도강산(半島江山)삼천리(三千里)에	이천만중(二千萬衆)운운(芸芸)한중(中)
나도민족(民族)일분조(一分子)로	일편령터(一片靈臺)갓찾건만
인간삼락(人間三樂)도타한들	너몸이녀조(女子)되고
삼종지의(三從之義)지중(至重)하나	너몸에는관계(關係)없다.

<권2. 「술지(述志)」 일부>

이 글에서 작가는 ‘여자의 몸이지만 자신에게는 三從之義가 관계없다.’며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三從之義는 당시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자식을 따르는 삶이다. 어린시절부터 부친의 보호보다는 한 가족을 책임지는 家長이 되었던 작가는 실제로도 남편이나 자식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런 결심은 ‘나도 민족 일본자로 한 조각 정신을 갖췄지만, 인간삼락 좋다고 하지만 내 몸이 여자되고’ 로 끝을 맺지 않는다. 그 뒤에 ‘여자가 되고 보니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생략된 듯하다. 그 후 풍상고락의 세월이 어언 60년이 되었다면서 늙음은 당연한 이치이니 어머니의 삼년상을 치루면 죽음을 맞이하겠노라고 한다. 그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겠다는 이유는 다시 태어나기 위함이다.

霧幕風寒夢亦稀	얇은 천막 찬바람에 잠들기 어려운데
邊天七月早鴻飛	변방 하늘 칠월에 저 기러기는 일찍도 날아간다
此身恨不爲男子	이 몸이 한스런 것은 남자가 되지 못한 것
却羨蘇郎白首歸。	아아! 부럽다 소랑은 늙어도 돌아갔는데.

<권1. 「昭君怨」>

이 작품에서는 노골적으로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는 표현과 ‘남자가 부럽다’는 직언을 하고 있다. 물론 왕소군의 입장을 빌어서 말하고는 있지만 왕소군이 남자였다면 강제로 시집을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결국 그가 女官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였기 때문에 비극적 상황을 맞이한 것이라 여기는 마음이어서 송설당의 여자로 태어난 한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풍상고락(風霜苦樂)부지중(不知中)에	어언광음(於焉光陰)륙순(六旬)이라
백발(白髮)이공도(公道)되니	홍진만스(紅塵萬事)뜻이 업니
우리원당(萱堂)만세(萬歲)후(後)에	삼상(三霜)을맞치거든

만겁중(萬劫中)에 잠긴 신데	칠원호 điệp(剝園蝴蝶) 화(化)하기가
츠세상(此世上)에 싸인 혼(恨)을	명명(明明)히 신상대전(上帝前)에
차례차례(次例次例) 발원(發願)하야	백두산하(白頭山下) 남향(南向)나라
삼천리(三千里) 화중세계(花中世界)	효자충신(孝子忠臣)적선가(積善家)에
장부(丈夫) 몸이 되어야	사서삼경(四書三經) 육도삼략(六韜三略)
차례차례(次第涉獵) 능통(能通) 커든	이부주소(伊傅周召) 스승 삼고
요순우탕(堯舜禹湯) 님군맛나	국가사업(國家事業) 다훈 후(後)에
동서양(東西洋) 의 위인(偉人)으로	류방백세(流芳百世) 하야 불가.

<권2. 「술지(述志)」 일부>

여자로 태어난 한을 옥황상제께 아뢰어 다음 세상에서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시킨 작품이다. 만겁중에 들어 나비로 화하면 이 세상에서 맺힌 恨을 옥황상제께 아뢰어 또다시 백두산 남쪽나라에 효자충신이 나고, 착한 일은 많이 한 집안의 대장부로 태어나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장부로 태어나면 사서삼경 육도병서, 삼략을 섭렵하고 국가에 공헌한 후에 동양과 서양을 망라하는 위인이 되어 백세토록 꽃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고 싶다는 포부는 안타깝다. 이처럼 자기 삶의 철학을 분명히 가진 작가인 만큼 그의 작품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정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여성적 소재를 다루면서도 그 지향의식이 남성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작품이 있다.

..... 전략

三才我亦參人品	삼재에 해당하는 나도 인간 등급에 들지만
却恨終爲女子身	한스러운 것은 여자 몸이 된 것
心常洞洞而燭燭	마음은 항상 넓고 시원히 뿜려 반짝반짝 밝은데
遺訓何時不思親	남기신 유언 어느 때든 부모님 생각지 않으리
欲將至願訴上帝	지금 소원 하느님께 하소연하려고
默默垂鑑表情眞	잠자코 고개 숙여 진실한 정 비춰본다
他生做得何因果	후생에 어떤 인과를 얻어야만
忠孝家中快活人	충효 집안에서 쾌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고
共作賢良伊傳侶	여지신 이윤과 부열의 짝이 되어

遭逢聖代帝堯君
東西事業經營後
百世遺芳發達文。

태평성대 요임금을 만나
이런 저런 사업을 경영한 뒤에
백세 뒤에 아름다운 모습 남겼으면.

<권1. 「自述」 일부>

한시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후생에 어떤 인과를 얻어야만 충효집안에서 태어나서 쾌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구절은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깊은 한과 남성이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여자 몸이 된 것은 한스러우나/마음은 항상 넓고 시원히 뚫려 반짝반짝 밝은데’라는 표현은 여자이지만 결코 남자 못지않다는 의식이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그는 「指環」을 통해 자신의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표현하기도 했다.

..... 전략

圓成無滯限 동그랗게 만들어져 막히거나 다함이 없어
能海又能山。 바다도 되고 또 산도 될 수 있다네.

<권1. 「指環」 일부>

이 작품은 여성성의 유연함과 통쾌함, 시원스런 성격을 찬미하고 있다. 부인들이 중히 여기는 가락지의 특성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유연함과 끈기로 대처하는 지혜로운 면을 말하는 듯하다. 이는 남성적 면모를 가졌으나, 결코 남성이 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무의식의 표현이다. ‘동그랗게 만들어져 막히거나 한계가 없어 바다도 되고 또 산도 될 수 있다’고 말한 「指環」은 여성성의 여러 장점으로 비유될 수도 있는 소재이지만 오히려 속 좁은 남성들에 대한 상대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막히거나 한계가 없는 통쾌한 성품에 비유한 것은 남성이 되지 못한 여성의 무의식적 발로다. 결국 ‘여성도 남성들 이상 될 수 있다’는 내면의식을 엿 볼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남성처럼 되고 싶은 남성선망의식이며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당당함이다.

..... 전략

堪惜兼雙美

아깝다. 두 가지 아름다움 다 가졌면서도

名傳下界田。

시골 목정밭에서나 그 이름이 전하다니.

<권1. 「鳳仙花」 일부>

「鳳仙花」도 여성적 소재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시적 자아의 내면세계는 여성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비범한 이상과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시골 밭에나 있는 인재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출되고 있다. 「指環」, 「鳳仙花」에서 소재가 되고 있는 가락지나 봉선화는 매우 여성적인 소재지만 송설당의 시에서는 여성성의 한계를 넘어 통쾌한 인간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鳳仙花」에서는 홀로됨을 지녔으면서도 깊이 숨겨져 발탁되지 못하는 인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읊은 것과 원대한 포부를 꿈꾸는 것이 남성 못지않다.

天然疑信間

진짜 모습을 의심하고 미더워하는 사이

姮娥月中暎。

항아가 달 속에 비추는구나.

..... 후략

<권1. 「鏡」 일부>

‘내가 내 그림자를 보면/ 참 내 모습이 보배스런 거울 속에 있구나(吾看吾影子/眞眞在寶鏡)’라고 노래한 「鏡」을 보면 그는 결코 여성들이 누리는 여성적인 것을 싫어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집의 시들은 자신이 여자임을 한탄하는 시보다 여자로서의 당당한 자긍심을 보여주는 시가 더 많다. 이것은 여자를 폄하하는 사람으로서는 모순되는 표현이다. 송설당의 여성성 한탄은 바로 재주 있는 여성을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밀어내고 억압하고 제외시키는 세상의 어긋난 이치에 대한 불만이며 한이다.

여성적 소재를 통해 남성들이 꿈꾸는 세계를 말하는 작가의 내면세계는 어느 정도 남성의 세계에 경도된 듯하다. 이처럼 때로는 송설당의 남성지향 의식은 이미 그의 의식에 배어 시속에서 거리낌 없이 드러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나는 의식도 여성성을 드러내는 경우보다는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알 수 없는 유니섹스한 작품들도 散見된다.

觸觸奔流亂石間
跳波沸沫雪霜寒
誰知一泓山溪水
去作滄溟萬里瀾。

이리저리 어지러운 돌 사이를 쏟아져 흘러
물결 튀기는 물방울 찬 눈과 서리 내리는듯
누가 알겠느냐, 한줄기 산 시냇물이
푸른바다 만리 밖 파도를 만들줄.

<권1. 「野川」>

「野川」은 앞의 「指環」과 「鳳仙花」보다는 문집 뒤편에 실린 작품인데 작가의 의식이 점점 여성적 인식에서 남성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설당의 남성지향의식은 어려서부터 무의식적으로 갖게 된 의식이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적응과 도전 의지에서 무의식적으로 세뇌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남성이 될 수 없다’는 자각과 ‘여성이지만 해냈다’는 결과를 통해 ‘여성이라고 못할 것 없다’는 자기 체면과 불확실한 믿음이 확신으로 굳어지면서 복합적이고도 모순된 의식으로 변형된 듯하다. 송설당의 작품에 드리워진 내면세계는 남성들의 세계에 더 가깝다. 오히려 남성적 기질이 느껴지는 작품이 훨씬 자연스럽고 꾸밈이 적다. ‘여자도 할 수 있다’는 의식은 스스로에게 주입한 주술과도 같은 의식이었기 때문에 항상 두 의식은 상존하고 혼용된다. 그러나 환상이 실현됨으로서, 그야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도전했던 목표를 요술처럼 달성한 후 송설당의 의식은 ‘여성 우월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런 의식은 시 가운데서 남성적 필치로 드러난다.

..... 전략

生爲巾幗身	태어나길 부녀의 몸이 되어
風霜自奔汨	풍상을 겪으며 바빠 살아왔다
晝宵常蹙蹙	낮과 밤을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六旬如一日	육순을 하루같이 지내왔다
立揚本無路	입신 양명하기에는 본래 방법이 없으니
事業況可必。	하물며 사업을 어찌 감히 기대하겠는가.

..... 후략

<권1. 「記夢」 일부>

「記夢」에서 작가는 ‘부녀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입신양명의 방법이 없으니 하물며 사업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절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설 그날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그의 일생의 여러 흔적에서 찾을 수 있다.

..... 전략

知爾在山非爾性	산에 있는 것이 너의 본성 아님은 알겠으니
何時能到大江平。	어느 때 평평한 큰 강에 도달하는가.

<권1. 「瀑布」 일부>

..... 전략

園丁且莫尋常看	정원사들아, 평범하게 보지 말라
待到霜前可作花。	서리 내리기를 기다려 당당히 꽃 피울 수 있을테니.

<권1. 「菊」 일부>

「瀑布」에서 작가는 ‘어느 때’인가는 평평하고 큰 강에 도달할 것’이라는 꿈을 갖고 ‘높은 데서 제멋대로 도망가듯 흘러가는 기세로 험한 곳 지나가면서도 흩어지거나 어지러운 소리가 없이’ 흐르는 물을 노래한다. 험난한 여정이 끝나면 평평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때문에 「菊」에서 작가는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라고 확언한다.

夢見金剛已十秋	꿈에 금강산을 본지 10년
今來得上凌波樓	지금에야 금강산 올랐다
看吾眉黛僧休笑	내 눈썹 보고 저 중아 웃지마라
寧是男兒始壯遊。	내가 남자라면 어찌 처음 왔겠는가.

<권 1. 「表訓寺凌波樓」>

고관대작의 부인이 아니면 쉽게 가볼 수 없는 금강산에 가서 지은 「表訓寺凌波樓」를 보면 그의 심곡의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평범한 아낙들은 꿈에나 상상할 여행을 송설당은 실현했다.²¹⁰⁾ 남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일, 권력가가 아니면 할

210) ‘대부분의 양반계층 여성들에게 실제 여행은 남편이나 아들의 지방 부임지에 배종하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꿈꾸고 실행에 옮긴 송설당에게는 범접치 못할 세계가 없었다. 남자가 가면 나도 가고 남자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의식은 남성선망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내 눈썹 보고 저 중아 웃지 마라/ 내가 남자라면 어찌 처음 왔겠느냐’ 조선의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남성들의 지향점, 그들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송설당의 걸음걸음마다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사회적 습속이었다. 그로 인해 겪었던 온갖 고초와 회포가 녹아 있는 작품이다. ‘남자가 아니지만 늦게라도 오고야 말았지 않느냐’는 통쾌한 반문도 될 수 있다. 송설당은 남자도 하기 힘든 신원을 이룬 사람이다. 그가 달성한 일은 ‘여자는 안 된다’는 당대 이데올로기를 보기 좋게 뒤집는 통쾌한 반란이었다.

우리부친(父親)탄식(歎息)말삼	쭈쭈야야(晝晝夜夜)귀에저저
너아모리여리기로	일시(一時)나이줄손가
침선(針線)으로의지(依止)하야	쭈야(晝夜)가상관(相關)업시
고성(苦生)으로지니갈제	악의악식(惡衣惡食)꺼릴손가
지성(至誠)이면감탄(感天)이라	부친(父親)되서상의(相議)하고
식산(殖産)으로업(業)을하니	진에태산(塵埃泰山)일반(一般)이라
슬푸다이니몸이	녀즈(女子)몸이흔(恨)이로다.

<권2. 「自述」 일부>

‘여자이기에 할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일찍부터 無자가문의 長女로서 아들의 역할을 하기로 작심하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일념을 가졌기에 인생의 화두는 ‘조상의 원을 씻는 일에 어찌 남녀를 따지겠는가, 맹세코 죽을 때까지 반드시 풀어드리리라’는 것이었다. ‘어찌 남녀를 따지겠는가’ 이 말은 당시 정치사회적 제도 안에서는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이런 송설당의 각오는 시에도 분명한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전체 작품의 분위기도 남성적 정취를 노정한 호방함이 주조를 이룬다.

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했고 유람만이 목적이거나 건문을 넓힌다는 목적의 여행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한국고전 여성작가 연구』, 이혜순 외, 태학사, 1999, p.243).

笑我濫稱松雪堂	우습구나. 외람되게 송설당이라 일컬으니
此心不欲伍群芳	이 마음은 아름다운 꽃들과 똑같으려는 것이 아니다
可期經歲青蒼質	세월이 지나도 푸르고 푸른 자질은 기약할 수 있는데
祇愛無塵皎潔光	다만 사랑하는 것은 티끌 없이 깨끗한 빛이다
業隆箕裘情靡極	가업을 이어받을 정은 끝이 없는데
身爲巾幗恨須長	여자 신세가 된 한이 길고도 길구나
人間多少風霜劫	인간 세상은 풍상의 세월이 많은 법
他日吾將訴玉皇。	이 다음 내가 하느님께 하소연하리라.

<권1. 「松雪堂原韻」>

많은 사람들이 차운한 원운의 시 「松雪堂原韻」은 자신의 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업을 잇고 싶지만 여자 신세라 어찌할 수 없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가 여성인 것을 한스럽게 여기는 점은 가업을 잇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아름다운 꽃과 같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을 정조와 깨끗한 마음’이다. 그는 아름다운 여자로서, 지고 말면 그만인 꽃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 전략

爾復降人間	너는 다시 인간세계로 내려가거라
朕且召而見	짐은 또 너를 불러 볼 것이다'
御手貺二箱	임금께서 손수 두 상자를 주셨는데
暖香玉座遍	따스한 향기가 옥좌에 두루 퍼졌다
松雪再拜受	송설이 두 번 절하고 받아서
恨出廣寒樓	광한루로 물러 나와
復從去時路	옛날 길을 다시 따라
歸家如鞭電	번개처럼 집에 돌아왔다
會我諸昆季	여러 아우들을 불러 모아놓고
誇恩共欣忭	은총을 자랑하면서 함께 기뻐하였다
忙手開二箱	바쁘게 손을 놀려 두 상자를 열어보니
鵲鵲心目眩	눈이 부셔 마음과 눈이 어질어질했다
一箱鶴氅衣	한 상자에는 학장의가

一箱白羽衣	한 상자에는 백우의가 들어있다
松雪忽驚歎	송설이 갑자기 놀라 탄식하기를
皇恩謬至此	황제의 은총이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二物雖云好	두 물건이 아무리 좋다해도
現生鳥用是。	금생에 어찌 이것을 입을 수 있으랴.

<권1. 「記夢」 일부>

「記夢」은 성취의식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 작품이다. 잠들지 못하고 여러 근심하던 차에 문득 꿈을 꾸었더니 신선의 세계에 안내되어 항아와 직녀에 의해 옥황상제를 만나게 된다. 황제는 그에게 ‘원통함을 말해보라’고 하나 나오는 것은 눈물뿐이라서 말을 못하고 있자 황제는 ‘네 뜻을 모두 헤아렸다’고 말하고 ‘원통함을 씻어 주었다’고 말한다. 두 개의 상자를 주며 세상에 갔다가 다시 오라고 하여 하직하고 돌아와 두 개의 상자를 열어보니 鶴氅衣와 白羽衣였다. 이를 보고 기뻐하기 보다는 ‘황제의 은총이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이생에서는 입어볼 수 없는 남자신선이 입는 鶴氅衣와 白羽衣였기 때문이다. 이 꿈의 의미는 ‘황제가 그를 남자신선으로 대접했다’는 것으로 많은 의미를 던진다. 물론 현실의 한계를 ‘꿈’이라는 설정으로 나타내고는 있지만, 자신의 꿈을 빌어서 스스로 ‘옥황상제도 인정할 만큼 남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남성으로의 전도현상을 보이기에까지 한다. 곧 ‘세상에서는 입을 수 없는 옷이지만 옥황상제께서는 그 옷을 입을 자격을 주었다’는 초월적 자아의식을 갖고 있다.

..... 전략

憑欄一嘆飄然下	난간에 기대 한 번 휘바람 불고 훌쩍 내려오니
誰識青蓮羽化來。	누가 알겠느냐, 이태백이 깃털 달고 날아 왔는지.

<권1. 「鳳凰臺」 일부>

「鳳凰臺」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정서는 유교 사회의 여성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휘바람 불며 훌쩍 내려오니’는 여성적이라기보다는 남성적 기풍을 느끼게 한다.

다. 송설당은 자신의 회포를 거침없이 표출시키고 있다. 느끼는 대로 드러내는 그의 솔직한 작품이야말로 가슴 속에 숨겨진 그의 의식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시정은 작품 곳곳에서 발견된다.

飽眠閑步抵斜曛	배부르고 졸려서 한가히 걷다보니 석양이 드리우는데
耳目空空乏見聞	아득만 하고 멍하니 듣 볼 일 없구나
頓有江山遊覽意	갑자기 강산 유람할 뜻이 있어
一遍快讀子長文。	한 번 자장의 문장을 시원하게 읽어본다.

<권1, 「自嘲」>

「自嘲」에서 보이는 ‘갑자기 강산을 유람할 뜻이 생겨서’ 라는 표현은 자유분방하고 호방함마저 느끼게 하는 싹구이다. 그리고는 그 유람이 곧 ‘史記’를 읽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얼마간의 위트와 여유가 느껴진다. 늘 글을 읽고 자신을 긴장시키는 시인의 자세를 엿볼 수도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文面 어디에도 여성적 정취를 느낄 수 없다. 이밖에도 이런 남성적 豪氣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른바 여장부라 하겠다.²¹¹⁾

截竹爲余杖	대나무 잘라 지팡이 만들고
剪薛爲余衫	쑥대 잘라 내 적삼 만들어
飄然遺世去	홀쩍 세상 버리고 떠나
洞庭扣一帆。	동정호에서 뱃전이나 두드렸으면.

<권 1. 「言志」>

역동적 힘과 담대함이 물씬 느껴지는 시다. 남성들에게나 허용되던 행색이라고 믿었던 표현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작가의 의식이 남성의 세계에 경도된 느낌을 전한다. 이 시는 자신이 여자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 작가의 자유로운 의식을 엿볼

211) 「松雪堂集」 권1, 「漁翁」·「秋雁」·「渡漢江」·「深夜急雷」·「漢江觀漲」·「興仁門外清涼寺避暑」·「次人贈碧蹄店人韻」·「次人漫醉宴韻筆」·「醫師洪鍾哲醉宴韻」·「雪止」·「與文醉山共賦」·「次人松京懷古韻」·「撥悶」·「贈人」·「漫筆」·「散步」·「次書童韻」·「言志」·「松簾」·「閒居信筆」·「書贈文醉山」·「偶吟」·「敬和樵石山人醉譙韻」·「閒觀西戰報有感而作」·「賀金雲養八旬晬筵」 등의 작품 참조.

수 있다. 하지만 유교적 습속 안에 살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던 부분이 남자가 아니라는 점임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는 시도 있다. 거칠 것이 없는 표현인 듯 하면서도 내면의식은 타인의 시선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내면에는 여자도 더럽고 복잡한 세상사 버리고 ‘홀썉’ 세상 떠나고 싶은 때가 어찌 없겠는가, 감히 말을 하지 못할 뿐이라며 남성이 되지 못한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한탄이 되어 표출되고 있는 재미있는 표현이다.

山靜人閒掩竹扉	산은 고요하고 사람 드물어 대사립문 닫혔고
午睡纔罷已斜暉	낮잠 겨우 깨자마자 벌써 해가 기울는구나
天公賦我唯佳景	하느님이 나에게 준 좋은 경치
滿屋青嵐又翠微。	지붕에는 퍼런 아지랑이 푸른 기운 가득하구나.

麥浪家家潤	보리 물결은 집집마다 윤택하고
樹陰處處濃	나무 그늘 곳곳에 짙게 깔렸는데
幽居堪自悅	깊은 곳에 사는 삶 너무도 좋아
青嶂畫重重。	퍼런 장막 그림처럼 겹겹히 둘러있네.

<권1. 「漫筆」>

흔히 그리움의 정조는 여성들의 작품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러나 「漫筆」은 그런 여성적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자연 속에서 여유 있는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정서는 여성이니 남성이니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요하지 않는다. 송설당의 작품은 성의 초월적인 개념을 유도한다. 이 글에는 한 인간의 안정되고 편안한 의식이 있을 뿐이다.

文章稱李杜	문장으로서는 이백이나 두보를 최고로 하고
將略說關張	장군의 계략은 관우나 장비를 말하더라
盛代鳴音律	좋은 시대엔 음률을 울렸고
亂世竭忠良。	난세에는 충성과 지혜를 다했네.

<권1. 「自懷」二首中>

「自懷」는 송설당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신의 이상향을 표현한 글이지만, 난세에 충성을 다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여성의 포부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송설당의 한시는 포부와 정취가 대담하고 자유로운 남성적 의식세계가 엿보인다.

「渡漢江」에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하면서 요술처럼 어진 물결이 되어 사방팔방을 적시는 청렴한 정치가가 되어 성덕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장부다운 모습이다.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조차 불가능한 사회에서 이처럼 원대한 남성다운 포부를 펼치는 자는 많지 않다. 그의 시가 강건하고 쾌활할수록 그가 여자라는 점을 잠시 잊게 된다.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송설당은 여성이면서 여성이 아닌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맘껏 자신의 속마음을 표출시켜서 여자가 남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듯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大唐의 詩聖 杜甫는 “마르지 않는 긴 가람 치렁치렁 만고에 흐른다(不廢江河萬古流)”고²¹²⁾ 했다. 당대 시답잖은 문인배들의 허장성세를 풍자하며, 古人의 문학사적 비중을 추종한 비유임은 물론 자신의 “讀書破萬卷 下筆如有神”한 자긍임이 분명하다. 송설당 역시 ‘맑고 치렁치렁 강물’처럼 영원무궁토록 자아의 존재에 대한 가치의 재창조, 혹은 ‘존재의 그 이유’를 각인코자 했다. 이른바 강물에 자신을 비유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자긍심의 발로인 동시에, 남자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확인의식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다시 한번 요술(첫번째 요술은 가문의 신원이었다)이 일어나 사방팔방에 고루 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기구하고 있다. 여성이지만 자신의 가문에 국한하지 않고, 멀리 널리 생각하는 포부가 장부 못지않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송설당 시가의 내면의식에는 두 가지의 정의식이 공존한다. 남성이 되지 못한 恨에서 비롯한 ‘남성선망 의식’과 함께, ‘여성도 남성 못지않다’는 여성우월의식이다. 이 두 의식은 서로 교차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모두 여성으로 태어난 한을 뿌리로 하고 있다. 그가 참람하고 싶은 대상, 전복의 대상은 바로 여자로 태어난 자신이다. ‘여자는 안 된다’는 사고를 ‘여자도 할 수 있다’로 바꾸는 일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남성을 선망하는 동시에 여성도 할 수 있다는 우월감을 갖고 있다.

212) <戲爲六絕>

3) 사대부의식

그의 시가에는 가문의 내력, 자신의 피나는 여정, 양반가의 자제로서의 품위와 윤리의식 등 사대부로서 손색이 없을만한 작품이 많다.

昔栽崔門昌	옛날 우리 최씨 문중 번창했을 때
簪組世澤長	큰 벼슬로 대대로 은택 입었다
淸德交河守	맑은 덕으로 교하에서 군수 지낸 분도 계시고
文章騎省郎	문장으로 기성에서 벼슬한 분도 있었다
天不喪斯文	하늘이 이 학자를 버리지 아니해서
迺誕守愚堂	이에 수우당을 탄생시켰다
素履棲晉山	본래 진산의 계통을 밝아서

..... 중략

天道實難謀	하늘의 도는 실로 믿기 어려운 것
禍福理無常	화와 복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殘孽墜先業	남아있는 자손들 조상 업적 잊지 못해
零丁滯南鄉	남쪽 고을에 막혀 살았다
誠難知禮節	진실로 예절을 알기가 어려웠으나
貧乏自不違。	가난하고 궁핍해도 스스로 당황하지 않았다.

..... 후략

<권1. 「高陽先山石物畢役 有感而作三十一韻」 일부>

우선 집안의 내력을 밝히는 내용이 많은 만큼 명문 사대부가로서 손색이 없는 족적을 남기려는 의식이 발견되고 있다.²¹³⁾ 이는 『松雪堂集』의 특징이기도 하며 발간

213) 한시 : 「贈斗兒」·「鳳凰臺」·「月夜」·「自懷」·「菊」·「憶紅梅」·「松雪堂原韻」·「自嘲」·「漢江觀漲」·「興仁門外淸涼寺避暑」·「雪止」·「與文醉山共賦」·「散步」·「詠物」·「秋霖」·「李尙書載克夫人趙氏輓」·「聞歐西戰報有感而作」·「賀金雲養允植八旬晬筵」·「與鄭華陰出加佐洞」·「觀李漢摸治石」·「高陽先山石物畢役有感而作 三十一韻」·「表訓寺凌波樓」·「正陽寺歇惺樓」·「楡岾寺山映樓」·「釋王寺」·「慈親八十八壽生朝識喜」

문 : 「松雪堂序」·「松雪堂記」

가사 : 「술지(述志)」·「서회(敘懷)」·「한양성중류람(漢陽城中遊覽)」·「김희회고(金海懷古)」·「춘풍억향원(春風憶鄉園)」·「약슈동(藥水洞)」·「실솔(蟋蟀)」·「란초(蘭草)」·「분죽(粉竹)」·「목단화(牧丹花)」·「해당화(海棠花)」·「명월(明月)」·「석류(石榴)」·「파초(芭

목적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작품 곳곳에는 여성 의식 대신, 생활은 어려웠으나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가문의 위상을 바로 알리려는 작가의 노력을 찾을 수 있다.

志在鸞鴻鵠	의지는 큰 뜻을 당길만한데 두어야 하고
才優辨魯魚	재주는 글자를 분별하기에 넉넉하여야 한다
孜孜能勿怠	부지런히 살면서 게으르지 말아라
幸免馬牛裾。	그래야만 다행이 소나 말이 옷을 입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으리라.

<권1. 「贈斗兒」 일부>

‘贈斗兒’는 양자로 거둔 자식을 일본으로 유학 보낸 후에 訓育하는 글이다. ‘의지는 큰 뜻을 당길만한데 두어야 하고 재주는 글자를 분별하기에 넉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鴻鵠之志의 뜻은 사대부가의 교육이념이다. 이 밖에도 고사나 전고 이용을 폭넓게 함으로써 지적인 능력과 교양 수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我聞雲養子	듣자하니 운양께서는
遐齡滿八旬	장수하여 팔순을 채우셨다 한다
淡泊能守約	성품은 담박하고 행동은 간단하고
憂勤不違仁	조심하고 부지런한 모습 인(仁)에 어긋나지 않았다
早年蓬桑志	이른 나이에 대장부의 의지를 지니고
四牡駐析津	네 마리 말 타고 북경도 다녀왔다

..... 중략

晚福如川至	늦그막에 복은 시냇물처럼 몰려오고
康寧八十春	강령한 80년을 건강하게 사셨다
陽月日之三	10월 날짜로 3일은
恭惟岳降辰	사악의 산신령이 탄생시켜준 날

蕉)·「수선화(水仙花)」·「청암스(靑岩寺)」·「금릉풍경(金陵風景)」·「탄락엽(歎落葉)」·「루터선묘봉십급립석괴스(屢代先墓奉審及石記事)」·「송석타지덩쥬선묘봉심(送錫台之定州宣川先墓奉審)」·「선묘립석경영(先墓立石經營)」·「송운동운석(松雲洞運石)」·「빅현금봉학산성묘(白峴及鶴山省墓)」·「무골산성묘(舞鵲山省墓)」·「갈현성 (葛峴省墓)」·「송당감회(松亭感懷)」.

賀箋來名碩	유명한 학자들 축하 편지 오고
旨酒款嘉賓	좋은 친구들 맛있는 술 보내온다
舞斑摠名駒	색동옷 입고 춤추는 이는 모두가 이름난 망아지들
含飴有瑞麟	엿을 입에 문 이는 상서로운 기린
不失赤子心	갓난아이 마음 잃지 아니하고
黃髮保天真	늙어서도 천진을 보존하였다
晚得仙人術	늦그막에 신선의 재주를 터득해서
導引如鳥伸	인도하고 끌어들이는 게 새가 날개를 펴는 듯
尙父公之年	강태공은 공의 나이에
來渭坐垂綸	위수에서 낚시줄을 드리우고 앉았었다
時有獵車到	때때로 사냥수레가 당도하니
風期暗相親。	바람결에 남 몰래 서로 소식 전하자고 기약한다.

<권1. 「賀金雲養允植八旬晬筵」 일부>

다양한 고사가 인용되고 있지만 그 수준에 있어서는 부녀자의 한계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다.²¹⁴⁾ 그러나 「김운양의 팔순잔치 축하」시에는 비교적 다채로운 고사가 인용되고 있다. 특히 ‘四牡’나 ‘四岳’ ‘嘉賓’ 등 경서에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밤늦게 까지 책을 읽고(「月夜」)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배껴 쓰는 생활(「菊」)을 표현하거나 ‘빈 산에 목석처럼 시름에 잠겨/ 깊은 밤에 의관을 정제했었다’는 표현과 같이 사대부들의 습속을 시행하고 있는 작가를 등장시켜서²¹⁵⁾ 군자다운 생활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강물이 불어 홍수가 났을 때의 모습을 읊은 「漢江觀漲」은 정치적으로 일체의 침탈이 진행되던 시기였던 점을 참고한다면, “푸른 바다로 분주하게 흘러가지 말아라(且莫奔流滄海入)/현인 군자에게 웃음거리 될까 걱정된다(恐君貽笑大方家)< 권1 중>”에서 현인군자의 조롱거리가 됨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그가 정치적으로나

214) 많이 쓰이고 있는 고사는 李太白, 鳳凰臺의 弄玉과 簫史, 姮娥, 舜임금의 두 아내 姮娥, 餘贏, 昭君怨, 長文怨, 此君 王徽之, 西王母, 安期生, 三神山, 杜秋娘, 班婕妤와 趙飛燕, 羅浮山, 嶧山의 梧桐나무, 白玉樓, 玉瓊樓, 碧海山, 王子晉, 九連城, 南柯一夢, 壯周夢, 黃梁夢, 斑綵(노래자), 墮淚碑, 孟嘗君, 漆園吏, 赤松仙子, 坎中連, 恒河沙數 등으로 다른 여성 한시 작가들도 많이 쓰는 수준이다. 가끔 도연명이나 굴원의 시구가 눈에 띄며 가사에서는 유중원의 ‘降雪’, 왕유의 ‘送客’, 이백의 ‘清平調’, ‘把酒問月’, ‘望廬山瀑布’, ‘問月懷’ 임포의 ‘山園少梅’와 ‘和靖處士’, 황정건의 ‘항산곡’의 일부가 시 속에 나온다.

215) ‘空山愁木石 深夜整衣冠’(「松雪堂集」 권1, 「深夜急雷」, p.18).

사회적으로 자유로웠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하는 단서가 된다. 또한 “어찌 하면 홍수 다스릴 솜씨를 빌려서(何當借得治洪水)/흘러가는 물을 인도하여 옛 거처를 찾게 할까(疏導橫流尊舊居)”는 군자의 기상은 물론 군자다운 삶과 지적 수준, 신하로서의 충절과 백성들에 대한 걱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냄으로서 명실공히 자신의 가문의 정통성을 타인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白雲孤松一小堂	흰구름 외로운 소나무 작은 집
此心非欲遠流芳	이 마음은 하소연을 멀리 흘려보내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早閱風霜餘老能	일찍이 풍상을 맞아 늙은 나머지애
晚霽雨露愧榮光	늦그막에 임금의 은혜를 받으니 그 영광 부끄럽기만 하구나
夏清冬溫誠不及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하여
春霄秋日恨須長	봄 하늘 가을 낮 길어진 것만 한탄했다
來生做得何因果	내생에 만약 어떤 인과를 얻게 된다면
第待修文奏 玉皇。	차례차례 문장을 닦아서 옥황상제께 올리리라.

<권1. 「松雪堂原韻」>

임금의 은총을 입은 것에 대한 자긍심이 나타나 있다. 가사에서도 임금과 엄귀비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소재가 되고 있는 작품들²¹⁶⁾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영예와 힘을 은근히 과시하는 구절로도 읽을 수 있다.

다음 작품은 자신의 고절함을 알리고 임금의 은총에 대한 보답과 충성을 맹세하는 작품으로 이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송설당의 늠름한 기상과 대단한 능력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국문으로 쓰는 가사작품이어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부녀자들도 이 작품을 읽으면 그가 대단한 은총을 입은 힘 있는 특별한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는 작품이다.

무려보세무려보세	울울함만(鬱鬱含晩)저창송(蒼松)아.
춘풍화류(春風花柳)란만(爛漫)홀제	구든마음구지작혀
성식불변(聲色不變)언건(偃蹇)흐니	장부웅심(丈夫雄心)내아니며
하일산중(夏日山中)말근 바람	락락명당(落落亭亭)웃득서서

216) 「蒼松」과 「追感」, 「感恩」 등에 황제와 귀비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있음.

지지엽엽(枝枝葉葉)울창(鬱蒼)하니	호걸괴상(豪傑氣像)네아니며
황국단풍(黃菊丹楓)구추시(九秋時)에	릉상고절(凌霜高節)거오(倨傲)하여
신기(神氣)가장름렬(凜烈)하니	렬스정조(烈士貞操)네아니며
엄동설한(嚴冬雪寒)찬바람에	굿센정신(精神)렁락(冷落)하여
적갑창염(赤甲蒼髯)특연(特然)하니	신즈충절(臣子忠節)네아니나.
네지조(志操)와네충심(忠心)은	세한(歲寒)후(後)에더욱안다.

<권2. 「창송(蒼松)」>

가사 「蒼松」은 자궁심과 충성심이 구구절절 베어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자신의 당호 상징인 ‘松’과 ‘雪’을 한껏 미화시킨 작품이다. 작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봐주기를 바라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매우 노골적이며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송설은 蒼松을 가리켜 굳은 마음을 지키는 불변의 ‘丈夫雄心(장부의 큰 마음)’, 落落亭亭 우뚝 서서 울창한 ‘豪傑氣像’, 구월에 凌上高節 자랑하니 ‘烈士貞操(열사의 지조)’이며, 엄동설한에도 赤甲蒼髯하니 ‘臣子忠節(신하된 자의 충절)’이라고 한다. 또 그 지조와 충절은 날이 추워진 뒤 더 알 수 있어서 어려울 때 더욱 더 충성한다는 歲寒圖 속의 소나무라 말하고 있다. 충절을 하는 이유는 우로은택(임금의 은혜)과 風霜疾苦, 白雲明月로 자랐기 때문인데 이런 은택을 갚기 위해 서울 남산 밑 풍설 가운데에서 인왕 북악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며, 예를 갖추고 있는 모양이 충절이며 충심이라고 한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자신의 이 뜻은 바뀌지 않으며 백설 중에 있을 때 더 빛이 난다고 푸른 소나무의 매력을 임금과 연관시키고 있는 모습이 여성의 작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대부가 가질만한 충절의식이 넘치고 있다.

홍릉영휘(洪陵永徽)두릉원(陵園)에	전벽(展拜)하고물너나와
석주(錫冑)석타(錫台)석두비(錫斗輩)와	산보(散步)하여도라오나.

<권2. 「중양(重陽) 일부」>

「중양(重陽)」의 고종과 임비의 무덤을 둘러보고 나오는 행차와 조카들과 산책을 하는 장면은 일반 평민들의 행동이라 볼 수 없다. 여유 있고 품격이 전해지는 표현이 당시 송설당의 사회적 위치를 가름케 한다.

撫琴山日夕	거문고 더듬노라니 산 속 날 저물고
酒醒曲將終	술 깨어보니 노래 곡조 하나 끝나간다
疎竹鳴幽谷	성긴 대나무 깊은 골짜기에 울리고
寒鍾落晚風	차가운 종소리 떨어지는 해 바람결에 들려온다
人生如夢裡	인생이란 꿈속과 같은 것인데
春序屬愁中	봄 이야기를 시름 속에 부친다
瓶底撈明月	항아리 안에 밝은 달을 길어
歸來却笑空。	돌아오면서 허공을 보고 웃는다.

<권1. 「與文醉山共賦」>

하루 종일 신선놀음을 하는 여유로운 작가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興仁門外清涼寺避暑」, 「雪止」 등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엿 볼 수 있다. ‘자고 일어나 나막신 끌며 수풀언덕 오르니(睡餘携屐步林臯)²¹⁷⁾’라는 표현에서도 유유자적하는 삶을 전한다. 물론 어린 시절은 끼니도 잇기 힘든 어려운 살림살이였다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중복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생활에서의 물질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잦은 기차여행, 遊覽 등이 소재로 등장하는 가사가 많으며, 시에도 쉽게 가볼 수 없는 금강산 유람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다.

良工椎鑿下	훌륭한 석수쟁이 송곳으로 파고 들어가니
漸看有光華	점점 빛나는 광채를 보게됐구나
自修君子德	스스로 군자의 덕을 닦으니
曾比琢而磨。	절차탁마에 견주겠구나.

<권1. 「觀李漢摸治石 時余先山石役專此人」>

이 시는 석수쟁이 이한모가 돌 다듬는 것을 보고 지은 시로서, 작가 스스로 당시 선산의 돌일은 전적으로 이한모에게 부탁했었다고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 그 규모가 대단한 듯 하다. 일상적인 일거리는 물론 일꾼들에게 일에 대한 명령을 하는 예도

217) 「松雪堂集」, 권1, 「散步」.

별로 없다. 당시의 집안일은 농사부터 집 고치기까지 대부분 아녀자들이 관여했지만 송설당의 작품에는 살림걱정이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나 백성들의 생활을 걱정하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다. 사대부들이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은 것과 같다. 송설당의 시의 소재들도 뜰에 피어 있는 꽃이나 집안에서 가꾸는 분재, 경물, 자연의 변화, 산책, 여행 등이 주를 이룬다.

장대수(長帶水)가이아닌가	팔대칠대(八代七代)선묘계하(先墓階下)
비석상석향로석(碑石床石香爐石)과	망주석산신석(望柱石山神石)을
초매(次弟)로모신후(後)에	제수진설(祭需陳設)위안(慰安)하니
숫는것이혈루(血淚)로다	묘하빈객(墓下賓客)로쇼(老少)업시
주식(酒食)으로접대(接待)하고	륙묘조모성묘(省墓)길로
봉학산(鳳鶴山)을향히보니	높고나진저괴석(怪石)은
봉학(鳳鶴)이넘노는듯	계체하(階砌下)넓은들은
류변(武弁)의습의(習儀)터라	안산(案山)을바라보니
아미산월(峨嵋山月)이아닌가	혼유상석향로석(魂遊床石香爐石)과
망주석장대석(望柱石長埴石)을	좌우(左右)로모신후(後)에
청작서슈(淸酌庶羞)위안(慰安)하고	친척(親戚)이운집(雲集)하야
준여물(餽餘物로음복(飲福)하고	왕스(往事)를추감(追感)하미
정화(情話)도무진(無盡)하고	감회(感懷)도무궁(無窮)하다.

<권2. 「백현급봉학산성묘(白峴及鶴山省墓)」>

이 가사는 부친의 묘소에서부터 4대 이상 8대조의 실전묘를 찾아 봉심한 것은 물론 모든 묘소에 碑石, 床石, 香爐石, 望柱石, 山神石을 세운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또 그 돌에 쓴 글씨도 화려했던 것 같다. 다음 글은 고양선산의 石物 일을 자세히 적고 있는데 그 웅장한 규모를 알게 해준다. 이러한 석물일은 김천의 송운동과 정주 선천의 네 곳의 선산(백현산, 봉학산, 무골산, 갈현선산)에서 이뤄졌는데 그 내용이 모두 작품으로 표현되고 있다.

..... 전략

三墓排石床

세 묘에 석상을 배열하고

村丁齊力運 시골 청년들 힘을 합해 운반하는데
 呼耶動夕陽 어야 소리 지르며 석양까지 날랐다
 適勁金子筆 힘 있는 글씨 화려한 필체
 銀鉤石面煌。 날카로운 글씨가 돌면에 빛난다.

..... 후략

<권1. 「高陽先山 石物畢役 有感而作 三十一韻」 일부>

특히 조상의 묘를 단장하기 위해 선영에 조카들을 보내어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행보가 아녀자의 역할을 벗어나 있다. 뿐만 아니라 들 다듬기, 옮기기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규모가 무척 큰일이어서 웬만한 재산가가 아니면 엄두도 못내는 일이었다.

..... 전략

황천(皇天)이감동(感動)하사	광무(光武)오년십일월에
탕척신원(蕩滌伸冤)턴은(天恩)무려	부도양춘(復觀陽春)이날이야
특명(特命)으로광익(光翼)아우	영릉(英陵)참봉(參奉)초스후(初仕後)에
정삼품(正三品)에승증(陞資)하고	한익(漢翼)해익(海翼)종형제(從兄弟)를
육품관직(六品官職)무리스니	엇지아니깃부리오
부친님을되섯스면	양당(兩堂)에영화(榮華)런만
령혼(靈魂)이아시는가	손느것이눈물이라
무신년(戊申年)오월일에	친묘슈축(親墓修築)립석(立石)하고
문호(門戶)를성립(成立)코저	원근종족(遠近宗族)다모아다
괴고(惱苦)를불고(不顧)하고	농업자(農業者)는던답(田畓)주고
학업자(學者)는공부(工夫)식여	일문(一門)을안보(安保)하고
편친(偏親)을위로(慰勞)하니	희한(稀罕)하고깃부것만
우리부친못되신일	평생(平生)에흔(恨)이로다
덩쥬선천루터분묘(累代墳墓)	엇지하야성알(省謁)홀고
주야(晝夜)로동동(洞洞)타가	갑인(甲寅)춘(春)이월일에
질(姪兒)석타(錫台)발송(發送)하야	일백스년(一百四年)실전선묘(失傳先墓)
봉심(奉審)하고도라오니	엇지아니만행(萬幸)인가
십세전(十歲前)에석인마음	각분묘를봉축(封築)하고

비석상석(碑石床石)비치(排置)하니	우리조종(祖宗)루더령혼(累代靈魂)
만분일(萬分一)을위로(慰勞)홀가	부여조(父與祖)의미황(未遑)혼일
최씨족보(崔氏族譜)수정(修正)코즈	종손(宗孫)집과협의(協議)하야
거창(巨創)혼일고준(告竣)하니	초성강무(此生更無)여흔(餘恨)일듯.

..... 후략

< 권2. 「조술(自述)」 일부 >

이 시는 자신의 힘으로 멸문된 가문을 바로 세우고 온전한 명문대가로 바로 세우기 위한 많은 일을 한 것을 나열하고 있다. 그 공적은 어떤 사대부도 쉽게 이루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과 이 모든 일을 여자인 송설당이 직접 지휘했다는 점이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표현되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 안정된 모습과 士大夫家 아녀자가 아닌 사대부의 역할을 손색없이 해내는 작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그 누가 대장부다운 기상을 가졌다는 말을 하지 않겠는가?

..... 전략

香露寫前史	향기 나는 이슬로 옛 역사를 베끼니
千年文郁郁	천년 전 문장이 더욱 빛나는구나.

< 권1. 「菊」 일부 >

「菊」은 군자다운 면모를 보이는 작품이다. 사대부 양반은 새벽에 일어나서 경서를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베껴쓰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深夜急雷」에서는 ‘갑작스런 우레 소리에 양쪽 귀를 막아도 참기 어렵다’고 고백할 정도로 여성다운 면모를 보이면서도 이내 의관을 정제하는 차례에서는 그의 본성적인 성품을 넘어서 남성화 된 모습을 보인다. 당시 사대부들은 벼락이 치면 자다 일어나 옷을 입고 갓을 쓰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하느님이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이 여자들에게까지 강요되지는 않았지만 송설당은 시 속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그런 의식들을 실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멸문한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까지의 긴 여정을 몸을 던져 싸워온 송설당은 자격

이 없는 장수였다. 한 여자로서의 본질적 욕망은 일찌감치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걸고 가능성 제로 게임에 달려들었던 송설당은 기어이 자신이 얻고자 한 것을 얻은 승리자이다. 그는 싸움에이기기 위해 개인적인 야망은 버렸지만, 얻은 것은 신분의 복권과 부와 권력이었다. 과연 송설당은 본질적인 자아의 희생으로 얻게 된 반쪽짜리 승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결코 그에게는 반쪽자리 승리감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에게 도전에 대한 승리감은 성 차별의 한계를 극복한 성취감으로 인해 여성의 객체적, 타자적 존재감이 주체적으로 전도된 승리감을 얻고 있다. 즉 그의 성취감은 처음에는 자신이 도전한 싸움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도전한 영역에 일원이 된 것에 대한 성취감이다. 이겨서 빼앗은 승리감이 아니라 적에게 인정받았다는 데서 오는 성취감이다. 특히 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자이지만 남자로서 갖는 사대부의식의 표출은 여성의식의 역설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복잡적이라 할 수 있겠다.

3. 근대의식

1) 평등의식

송설당의 글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애정어리다.

광대(廣大)흔너른턴디(天地)	소소(昭昭)흔발근일월(日月)
산과물이성긴후에	음양이괴(陰陽二氣)조판(肇判)하니
초목(草木)으로의식(衣食)삼어	만물(萬物)이조생(資生)홀제
곤충어벌(昆蟲魚鱉)비금주슈(飛禽走獸)	갓갓지로싱겨났다
괴중(其中)에우리인생(人生)	최령(最靈)호고최귀(最貴)하니
최령(最靈)흔것무어시며	최귀(最貴)흔것무어신고
인의례지(仁義禮智)갓쫘스니	그아니최령(最靈)호며
충효지덕(忠孝才德)닥가스니	그안이최귀(最貴)호가
아버지논하날이오	어마니논싸이로다

부모의상육지은(生育之恩)

턴디(天地)에서다를소나

남녀(男女)를물론(勿論)하고

상육(生育)키는일반(一般)이라.

..... 후략

<권2. 「자술(自述)」 일부>

우선 사람에 대한 인식이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귀하다는 인본주의 의식과 함께 ‘부모님의 생육지은 천지에 다들소나’ ‘남녀물론하고 생육키는 일반이라’는 의식은 효도는 남녀에 관계없이 같다는 인식이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평등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때였지만 어린 송설당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18, 19 세기는 실학, 동학, 천주교 등의 교리 확산으로 인해 민간 사이에 ‘인간 평등’의식이 퍼졌다. 하지만 피지배층에게는 의식일 뿐이지 그것을 체화시켜 나가는 일은 꿈속에서도 불가능한 세상이었다. 따라서 처음에 송설당이 남성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평등의식이라기보다 원죄의식이다. 송설당은 아들을 낳지 못한 어머니의 죄를 딸로 태어난 자신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다섯 살 어린 나이에 자신의 출생이 한 집안에 액운은 물론, 어머니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의식이 생성되었으리라. 이는 자신이 사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원망의식²¹⁸⁾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으며, 자라면서 차츰 ‘인간은 모두가 같다’는 사회의식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우연히도 그는 동학혁명의 발상지 교부와 인연이 있다. 그는 松雪堂이라는 당호를 갖기 전에는 줄곧 ‘古阜宅’으로 불렸다. 그 이유는 그의 선조들이 홍경래 난에 연류되어 유배된 곳이 교부였기 때문이다. 부친은 교부에서 나서 살다가 송설당이 나고 자란 김천으로 이사를 왔다. 그런 이유에서 교부택이라고 불리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도 김천에 사는 나이 든 분들은 그를 ‘교부할머니’라고 일컫는다. 한 대담 기사²¹⁹⁾에서 송설당은 나이 40에 상경하게 된 이유를 ‘동학난에 살 수가 없어 난을 피해 왔지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상당한 재력을 갖춘 상태에서 동학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난의 주체가 아니라고 해서 난리의 중심부에 살았던 송설당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리는

218) 주34) 참조.

219) ‘교육사업에 희생한 최송설당 일생 전 재산 삼십이만원으로 김천에 고보설치’(『조선일보』, 1931년 1월 1일자).

없다. 부호가 되기 전에는 그도 학정에 시달리는 농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가진 ‘인간은 모두 같다’는 의식은 동학난의 주체들처럼 다른 농민들을 구하고 나라를 바꾸는 것과는 너무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같다’는 의식은 자신의 가문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에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확고하게 자리잡은 의식은 제한된 방식으로만 보게 하는 사회 규범을 깨뜨렸으며 불가능하다는 일을 무시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순탄치 않은 인생역정 속에서도 조상의 雪冤을 하겠다는 의지는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녹봉을 받는 궁녀가 되어 立身揚名을 이루고 伸冤雪恥의 꿈을 이룬다. 이런 삶처럼 그의 시에서도 자신의 주체성과 평등의식이 전제된 행동이 다양하게 드러난다.

송설당은 자신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타인을 보는 눈도 평등했다. 어느 날 사라져버린 몸중에 대한 그리움이 진솔하고 섬세하게 표현되고 있는 시에서 송설당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는데 매우 파사롭다.²²⁰⁾

滿庭蒼翠裏	뜰에 가득 푸른 나무 속에
栽得一紅梅	한 떨기 홍매를 심었네
看看奇愛地	기이하고 사랑스런 것이 눈에 띄이니
許汝花中魁。	네가 꽃 중에 으뜸이구나.
娟娟垂玉骨	예쁘고 예쁜 옥같은 모습
艷艷飾冰腮	얼음같이 하얀 뺨은 요염하게 꾸민 듯
似我掌中寶	마치 내 손 안 보배 같아
積年義以培。	해가 갈수록 그 義도 더해만 간다.
作我眼前景	나에게 눈앞의 경치를 만들어주고

220) 歌辭에도 같은 소재와 주제로 다뤄진 「홍매」라는 작품이 있다. ‘풍취일야만관산(風吹一夜滿關山)에 미화일곡(梅花一曲) 반겨듯고/스랑튼 정(情) 못 니기여 황봉백뎃(黃蜂白蝶) 압세우고/홍미소식(紅梅 消息) 탐지(探知)홀제 인정(愛情)으로 작지 삼아/면면(面面)히 방문(訪問)한다 병간미월양상의(屏間梅月兩相宜)라/병풍(屏風) 속에 숨었는가 일산미죽초청풍(一山梅竹自淸風)에/바람에 붓쳤는가 미류정춘춘식분(梅柳爭春春色分)에 양류(楊柳)야 네 아느냐 미란동처춘정염(梅蘭同處春正艷)에/란초(蘭草)는 네 알니라 진일문화화불어(盡日問花花不語)요/종야문월월부답(終夜問月月不答)을 아마도 홍미(紅梅)즈최는 화고(花姑) 네가 알니라.’ (『松雪堂集』 권2, p.24).

死生共樂哀
羅浮佳女笑
漢水玉人來。

죽고 삶,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했었지
나부산 미녀의 웃음으로
한강의 옥 같은 사람이 찾아온 듯 하였다.

淡香侵肺腑
情誼等胞胎
隨適主人志
良我股肱哉。

맑은 향기는 가슴속을 적시며 들어오고
情과 友誼는 내 뱃속에 가득 찬 듯
가는 곳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진실로 나의 팔다리가 되었었지.

狂風吹昨夜
何處寄香胎
奈乏調羹手
自比冷春盃。

미친 바람이 어제 저녁에 불더니
어디서 향기로운 속을 부쳐왔는가
어찌하나 국을 요리하는 손이 부족하니
지금부터 봄 잔이 추워지겠구나.

森森眼前語
錚錚耳邊哈
夜夜轉反席
幾待夢中廻。

말소리는 눈앞에 어른어른
웃는 소리는 귀에 쟁쟁
밤마다 자리에서 앞치락뒤치락
얼마나 꿈속에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렸던가.

寄語狡童伴
花姑爾應媒
若使花市買
不愛萬金財。

교동에게 말을 흘려보내
꽃에게 중매를 서려했는데
만약 꽃을 살 수 있다면
만금의 재물도 아끼지 않으리.

欲忘不能忘
衣箱強然開
長短針線跡
件件依舊裁。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네
옷상자 그대로 열어두었네
길고 짧은 바느질 자국
건건마다 옛날 마름질 그대로구나.

愛我一朶物
惟恐沒塵埃
儼伴琪花去

나를 사랑하던 한 떨기 홍매화
오직 티끌 세상에 떨어질까 두렵구나
아마도 신선 세계 꽃과 함께

翱翔到蓬萊。

높이 날아 봉래산에 갔나보다.

紅梅歌一曲

홍매가 부르는 노래 한 곡조

歲月使人催

세월이 사람을 재촉하는구나

春風應有信

봄바람에 응당 소식 있으리니

何日復歸來。

어느 날 다시 돌아올거나.

<권1. 「憶紅梅 10수」>

그는 이 시의 앞에 간략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어린 여종의 이름은 홍매다. 나이 겨우 15세인데 자태가 아리따고 재주가 아주 민첩하고 총명했다. 내 옆에 두고 담배대, 차 심부름을 하게 하여 그 정이 깊어져 돌보고 사랑하기를 같은 혈육처럼 여겼다. 어느 날 문득 나가 돌아오지 않아 종적을 찾을 수 없으니 그 목소리와 웃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그 애뜻한 모습을 잊기 어려워 붓을 당겨 가슴속 생각을 적는다.²²¹⁾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몸종을 그리는 마음이 마치 자식을 그리워하는 듯 애뜻한 내용이다. 총 10수의 장시이지만 각 수마다 문득문득 아이의 숨결을 느끼며 그리움과 걱정스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심경이 솔직하고 따뜻하게 노정되고 있다. 몸종이었던 아이를 기이하고 사랑스럽게 여겨 어떤 꽃보다도 더 예쁘게 보고 보배처럼 느끼는 작가에게서 신분을 초월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 단순히 자신의 일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그리움과 걱정이 더하는 마음, 눈앞에 아른아른, 웃음소리 쟁쟁해서 보고프고 그리운 심경이 일어 결국 다시 얻을 수만 있다면 만금의 재물도 아끼지 않겠다고 토로한다. 보이는 것마다 홍매의 숨결을 느끼면서 제발 나쁜 곳으로 가지 않았기를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 애타게 기도하는 작가의 심경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몽클한 시이다. 글은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오히려 숨긴 마음을 들킬 수 있는 것이 글이다. 오언절구의 짧은 글들이지만 작가가 홍매를 애타게 찾고 그리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잃고 찾는

221) ‘小婢名紅梅者 年纔及笄年 姿豔天才 質聰敏 在余左右 以供煙竹茶碗 情甚眷愛 視同血肉 一日出門 不還蹤跡 莫追其聲音 笑貌森森在眼 戀戀難忘 因援筆而瀉懷’ (『松雪堂集』 권1, p.6).

듯하여 송설당의 사람에 대한 평등의식 및 그 인간미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 전략

농사(農事)짓는우리동포(同胞)	신근로고(辛勤勞苦)막심(莫甚)하네
춘소고단(春宵苦短)새벽바람	달계든잠써쳐나서
부녀(婦女)들을독촉(督促)하야	아침지여일즉먹고
상평하평(上平下平)건답슈담(乾畝水畓)	차례차례(次例次例)갈고밀제
춘일지양념피남묘(春日載陽飴彼南畝)	아침식이덤심(點心)나절
탁주(濁酒)동의밥동고리	반달처럼써서온다
술마시고밥먹으니	진일근고(盡日勤苦)이것세라
그중에도숨은근심	모널적에날가물가
모넨뒤에큰비올가	동풍(東風)부러썩마를가
이근심과저괴를을	어되다가비유(比喩)하리
그렇저렇지니다가	륙월염턴(六月炎天)당도(當到)하면
땀이흘너목욕(沐浴)되고	몸이타서흑빛이라
이럼으로말하기를	나락마다신고(辛苦)로다
륙칠월(六七月)이얼는지나	팔월(八月)달이당도(當到)하면
이들저들곳곳마다	누른구름이러나니
바라봐도비부르고	한가(閒暇)하기신선(神仙)이라
우리농인(農人)취포(醉飽)하고	태평가(太平歌)를불너보세.

<권2. 「농자대본(農者大本)」 일부>

「농자대본(農者大本)」은 송설당의 농민들을 보는 시각이 일치감과 함께 충만한 애정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작가 자신도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잊기 마련이다. 그러나 송설당의 글에는 농사와 농민에 대한 파스한 연민의 시각이 자주 목격된다. 새벽바람에 깨어나서 밥 지어 먹고 논밭 갈고 나면 어느새 점심나절, 술 마시고 밥 먹으면 종일의 수고로움은 잊지만 마음속에는 모널 적에 가뭄 들까, 모넨 뒤 큰 비 올까, 동풍이 불어서 썩이 마를까, 이 근심 저 근심 비유할 수 없다. 땀으로 목욕을 하고 몸이 타서 흑빛이 되어 나락 포기마다 피땀이 맺힌다. 그러나 팔월이

되면 황금물결 바라만 봐도 배부르고 한가하기는 신선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특히 천종만물 생겼을 때 최고로 귀한 것이 사람임을 강조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신농씨가 농사를 지어냈다고 한다. 결국 작가는 농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삶의 수단임을 꿰뚫고 있다. 또한 농사꾼들의 육체적 노동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농사가 잘 못될까 勞心焦思 걱정하는 마음까지 헤아리고 있어서 단순히 농민들을 소재로서 다룬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이해하고 있는 작가의 진심을 느끼게 한다. 여성가사에서 농사를 欽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 또한 대범하고 평등한 시각에서 사람들을 보는 작가의 시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여타 시에서 보여준 사대부 감각과 비교했을 때 일관성은 없지만 그의 사대부다운 의식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때 농민을 같은 처지로, 또는 따뜻하고 존중의 시각으로 보는 자세는 인간에 대한 의식만은 평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山居花木盛繁華

頗似桃源仙子家

更憐出洞溪流細

未許漁舟上淺沙。

산에 사는 꽃과 나무 몹시도 변화하여

자못 무릉도원 신선 동네 같구나

아깝다! 가늘게 흐르는 동구 밖 시냇물은

얕은 모래 타고 거슬러오는 고깃배를 허락하지 않으니.

<권1. 「雜詠」>

신선이 사는 동네처럼 아름답고 평화롭지만 그곳에 고기를 잡는 배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안타까워한다. 이는 누구나 그런 신선 동네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반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좋은 곳, 좋은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영유할 수 있다’는 금기가 있는 세상을 원망하는 듯하여 작가의 휴머니티를 느낄 수 있다.

이밖에도 석수쟁이의 돌 다듬는 모습을 보며 ‘切磋琢磨’ 하는 군자의 덕에 비견한 작가의 시선도 매우 인상적이다.²²²⁾ 송설당의 작품을 통해 본 평등의식은 거침없는 성격에서 연유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문을 중시하는 유교적 윤리관 입장에서 본다면 모순된 부분이다. 이것이 곧 송설당의 내면의식이다. 송설당은 유교적 윤리관에

222) ‘良工椎鑿下 漸看有光華 自修君子德 曾比琢而磨’ (『松雪堂集』 권1, 「觀李漢摸治石」).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남자만이 가문을 세울 수 있다는 전통적 이데올로기에 도전한 것이다. ‘남자가 하는 일이면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가문의식에 매달렸다고 할 수 있다. 데리다는 ‘남성 對 여성’의 대립적 사고의 대안은 ‘인간(human)’이라는 개념을 설정했다. 그러나 가부장제도의 시초부터 ‘인간’은 ‘남성’을 의미해 왔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²²³⁾ 결국 대립적인 성의 극복은 모두 인간이라는 평등의식이다. 송설당은 이미 그 극복의 방법을 머리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실천에 옮긴 듯하다.

2) 물질중시 자본의식

송설당의 작품에는 조선의 양반사회가 일찍부터 거부하고 천하게 여긴 물질의 힘에 대한 인식이 곳곳에 스며있다.

..... 전략

우리부친(父親)탄식(歎息)말삼	쥬쥬야야(晝晝夜夜)귀에저저
너아모리어리기로	일시(一時)나이줄손가
침선(針線)으로의지(依止)하야	쥬야(晝夜)가상관(相關)업시
고생(苦生)으로지니갈제	악의악식(惡衣惡食)꺼릴손가
지성(至誠)이면감탄(感天)이라	부친(父親)되서상의(相議)하고
식산(殖産)으로업(業)을하니	진에태산(塵埃泰山)일반(一般)이라
슬푸다이니몸이	녀즈(女子)몸이흔(恨)이로다.

..... 후략

<권2. 「즈술(自述)」 일부>

「즈술(自述)」은 자신의 일생을 한 편의 가사 속에 풀어 놓은 작품이다. 부친의 선조 한을 풀지 못하는 탄식을 한시도 잊지 못한 작가는 주야 상관없이 악의악식도 꺼리지 않고 식산에 몰두하였더니 결국 티끌모아 태산은 신분의 고하에 상관없더라고 고백한다. 여자의 몸으로 자신이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223) 성균관대 동아시아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편, 앞의 책, 재인용, p.84.

식산이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은 이미 자본의 힘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을 축적하였다는 표현 다음에 ‘슬푸다이너몸이/ 녀즈(女子)몸이흔(恨)이로다’라는 표현은 입신양명의 길이 막혀있는 상황에 대한 탄식이지만 이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음 행적에서 알 수 있었다. 생활이 넉넉해지자 가문의 한을 풀기 위한 노력은 심화되고, 결국 자본을 바탕으로 송설당은 궁중과 인연을 맺어 고종과 임비의 환심을 샀다. 당시 임비가 회임한 것을 알고 왕자 출생을 예견해주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최고의 출산준비물을 상납했다는 일화를 보더라도 송설당의 물질에 대한 의식을 알 수 있다. 이는 가문복권을 실현하겠다는 송설당의 의지 속에는 이미 물질의 힘이 사회의 제도나 관습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할 수 있다.

古家門巷老槐多

雨葉風枝歲月磨

莫遣頑根穿蟻穴

功名富貴此中過。

낡은 마실 늙은 느티나무거리

비 바람 맞은 잎과 가지 세월에 시달렸구나

고집스런 나무뿌리에 개미굴 지천이니 뚫지 마라

공명과 부귀가 이 가운데 있구나.

<권1. 「槐」>

「槐」는 세월의 풍파에 시달린 오래된 느티나무 밑에 부지런히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개미굴을 목격하고 쓴 시다. 곧 그 부지런한 노력이 부귀와 공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송설당이 오래된 문벌 귀족의 입장이었다면 개미들에게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부탁을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집스런 나무뿌리에 개미굴 지천이니 뚫지마라’며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결국 작고 힘없는 생물들이지만 부지런한 치산은 거목 느티나무도 부러워할 공명과 부귀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는 혁명적인 사고이며 재물을 모으는 일이 곧 부귀와 공명이 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대변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十載聞名久

今秋識面初

文章多古雅

십년 동안 이름 들은 지 오래지만

올 가을 처음 만나 보았네

문장은 고풍스럽고 단아한데

家計復何如。

살림은 어찌 그러하다뇨.

<권1. 「贈申栗峰鉉中」>

「贈申栗峰鉉中」는 솔직하고 흥미로운 시이다. 이 한 편의 시가 송설당의 당시 사대부들에 대한 생각을 시원스럽게 말하여주는 듯하다. 사대부들은 학문의 깊이와 문장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었던 시기이지만, 송설당은 그의 훌륭한 문장솜씨에 대한 칭찬보다는 구차한 살림살이 걱정을 더 하고 있다. 실학자들은 利用 후에 厚生이며, 그 다음이 道德이라고 했다. 만약 송설당이 유학자로서의 士林學派를 따랐다면 實事求是를 주장한 실학자들의 이론을 따랐을 듯하다. 그의 이런 생각은 다음 시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詩情緣景須開硯

酒債無償每典衣

却恐繁華難久住

居然春盡又斜暉。

시 짓는 정은 경치를 만나면 벼루를 열게 하고

술 빚 갚을 길 없을 때마다 전당포에 옷을 맡긴다

변화란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이 걱정

그대로 있노라니 봄은 다 지고 또 저녁햇살 넘어가네.

<권1. 「次書童韻」>

이 시에서는 시 짓는 행위와 술값 걱정이 대비되고 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분명한 논리로 살피고 있는 작가의 관점을 볼 수 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태평한 양반의 모습 속에서 재물걱정을 하는 송설당의 인식은 이미 당시 사회가 지난날의 사회가 아님을 암시한다. 게다가 ‘전당포’의 등장과 변화에 대한 인식은 작가가 근대화의 물결 속에 살고 있었다는 당시 환경을 짐작케 한다.

..... 전략

若使花市買

不愛萬金財。

만약 꽃을 살 수 있다면

만금의 재물도 아끼지 않으리.

<권1. 「憶紅梅 10수」 일부>

이 시도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보여준다. 사랑하고 아끼는 종을 위해

재물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식은 인간적이면서 자본주의 색채가 짙다.

가난한 가정형편 때문에 일찍 철이 든 송설당은 스스로 마르크스의 토대와 상부 구조 이론을 터득했는지도 모른다. 오늘날에는 아주 일반적인 이론이니만큼 그 시대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교 이데올로기는 그것을 유지할 경제권이 없는 속 빈 강정이 되고 있었다. 송설당은 권력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를 명민하게 알아차린 것 같다. 가문의 신원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는 발상은 곧 돈은 권력을 가져다 줄 거라는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면 송설당의 기적과도 같은 ‘가문 신원’의 성달은 기적이 아니라, 자본이란 ‘힘의 승리’를 보여준 일례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송설당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합리적이고 실리적 자본주의 색채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3) 문명과 세계의식

송설당의 문집은 20세기 초 이 땅에 서구의 신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던 때에 쓰이고 출간된 만큼 근대의식의 흔적이 散見되고 있다.

..... 전략

은하(銀河)는기우러져	야식(夜色)이창망(蒼茫)한데
원서리찬기운(氣運)이	스람을음습(蔭襲)한다
다시금드러와서	촉(燭)불을도도켜고
책상(冊床)에저소설(小說)이	아마도너벗인듯.

<권2. 「추야감회(秋夜感懷)」 일부>

「추야감회(秋夜感懷)」는 당시 아녀자들의 독서생활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쓸쓸한 가을밤에 소설을 벗 삼는 작가의 모습이 그려지는 시이다. 이 시기에는 단행본 생산과 유통의 측면에서 신소설과 고전소설이 구별되지 않고²²⁴⁾ 유통되었다. 고전소설과 신소설이 구할자본으로 출간된 시기인 만큼 송설당이 읽은 소설은 그 중

224)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pp.66~67.

에 하나로 여겨진다.

..... 전략

전일(前日)보던고더청탁(高低淸濁)	하나엿시미몰(埋沒)하니
변천시대(變遷時代)저러하고	문명세계(文明世界)이러흔듯
괴중에독립창송(獨立蒼松)	더욱히유식(有色)하야
양춘(陽春)을화답(和答)하니	만고불변(萬古不變)송설(松雪)인가.

<권2. 「백설(白雪)」 일부>

「백설(白雪)」은 전에 보던 세상이 하루가 멀게 달라지는 변화를 감지하고 있던 작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문명의 변화 속에서도 작가의 의식 세계는 흔들리지 않은 듯 하다. 세상사가 날로 변화하여도 푸른 소나무는 그 절조를 더한다는 표현이 전통적 인식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 전략

덩거장(停車場)을당도(當到)하여	털마상(鐵馬上)에분슈(分手)홀제
괴덕성(汽笛聲)이무정(無情)하다	산과물이번개처럼
풍우(風雨)갓치오는길에	좌우도던(左右稻田)황금(黃金)편듯
가을빛치찬란(燦爛)하고	미산역(梅山驛)을다다르니.

..... 후략

< 권2. 「발환경대(發還京第)」 일부>

..... 전략

경부선(京釜線)저기차(汽車)로	쏟살갓치스행하야
만천천리정(反千里程)저금릉(金陵)을	순식간(瞬息間)에당도(當到)하니.

..... 후략

<권2. 「근친(覲親)」 일부>

송설당의 가사에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철마’라는 표현이 생소하지만 기차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알 수 있다. ‘산과 물이 번개처럼 / 풍우같이 오는 길에’라는 표현이 오늘날 고속전철 이상의 속도감을 느꼈던 것으로

로 보인다. 또 ‘전차’를 ‘육지를 다니는 배’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신문물에 대한 경이감과 함께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 전략

이층삼층(二層三層)신건가옥(新建家屋)	고터광실(高臺廣室)질비(楸比)하니
여염(閭閻)이박지(撲地)하여	종명정식(鐘鳴鼎食)이아닌가
슈호문창(繡戶紋窓)류리세계(琉璃世界)	이목(耳目)이현황(炫煌)하다
지리(支離)흔질풍폭우(疾風暴雨)	신혼(神魂)이아득타가
운권청턴(雲捲青天)시로보고	흉학(胸海)가활연(豁然)하여
육지형선(陸地行船)저던차(電車)로	동물원(動物園)을드러가니

..... 중략

식물원(植物園)을도라드리	화초(花草)집을바라보니
천종만류(千種萬類)화초중(花草中)에	두렷시섯느파초(芭蕉)
절후(節侯)가상관(相關)업시	스시장청(四時長靑)무성(茂盛)하다
모란작약(牧丹芍藥)영산홍(映山紅)과	목서서향(木犀瑞香)적촉화(躑躅花)는
고흔빛과말은향기(香氣)	사람을음습(蔭襲)하다
봉각층계(鳳閣層階)벗긴길노	박물관(博物館)을당도(當到)하니
금석조기(金石磁器)서화고물(書畫古物)	처소처소(處所處所)가득가득
그중에이상한일	섯고안진저보쳐(補處)는
불지종가(佛之宗家)통도스(通度寺)오	법지종가(法之宗家)해인스(海印寺)라
법당정면(法堂正殿)굉장(宏壯)하고	단청치식(丹青彩色)화려(華麗)한데
삼층포단(三層蒲團)탁조(卓子)우에	안여반석(安如磐石)놓히안져
십이시(十二時)로등향다미(燈香茶米)	가진공양(供養)받들더니
홀지(忽地)에디위변천(地位變遷)	박물관(博物館)에드단 말가
감중련(坎中連)몹은손에	홍하사수(恒河沙數)미진(未盡)케라.

<권2. 「한양성중류람(漢陽城中遊覽)」 일부>

「한양성중류람(漢陽城中遊覽)」은 당시 한양의 풍물을 짐작케 하는 작품이다. 2층, 3층 고층 건물과 화려한 무늬의 유리창이 달린 건물들을 보고 눈과 귀가 현란하여 푸른 하늘을 한 번 보고 숨을 크게 쉬었다는 표현은 작가가 느꼈던 경이감과 함께 현장감이 느껴진다. 박물관에 있는 불상에 대한 감회는 기존 인식에 대한 변

화가 쉽지 않은 듯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송설당은 도시(한양)에 들어선 근대 문명의 흔적을 보고, 관심을 작품 속에 드러내고 있지만 그에 현혹되기보다는 전통적 인식 위에서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

이 밖에도 작가의 의식이 동양으로, 서양으로, 세계로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작품도 있다.

..... 전략

츠세상(此世上)에싸인혼(恨)을	명명(明明)호신상대전(上帝前)에
츠례츠례(次例次例)발원(發願)호야	빅두산하(白頭山下)남향(南向)나라
삼천리(三千里)화중세계(花中世界)	효조충신(孝子忠臣)적선가(積善家)에
장부(丈夫)몸이되야나서	스서삼경(四書三經)육도삼략(六韜三略)
츠대섭렵(次第涉獵)능통(能通)커든	이부쥬소(伊傅周召)스승삼고
요순우탕(堯舜禹湯)님군맛나	국가스업(國家事業)다훈후(後)에
동서양(東西洋)의위인(偉人)으로	류방백세(流芳百世)호야불가.

<권2. 「술지(述志)」 일부>

「술지(述志)」는 제목 표현대로 작가의 뜻을 말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다시 태어나게 해 준다면 조선 땅에 장부의 몸으로 태어나기를 희망한다. 또한 국정에 참여한 후에 동양과 서양에서 알아보는 위인이 되어 세상에 백세토록 꽃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전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의 소망이 세계로 열려 있다는 점은 매우 이채롭다. 이 같은 표현은 당시 박물관에 앉아 있는 부처를 보고 혀를 차던 노인의 의식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또 당시 70을 내다보는 부녀자의 시각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 작가의 대범한 기상과 의식은 이미 동양권, 즉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게 확장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송설당이 자신의 문집을 세계 도서관에 보낸 것도 동서양에 그 이름이 남겨지기를 바란다는 의식의 실천이었다고 볼 수 있다.

西國文明罕與儔	서쪽 나라 문명은 누구와도 상대하기 어려운데
天分區界好相留	하늘이 나눈 경계선을 서로 좋게 가지고 있다가
一朝憤勇由爭地	하루아침에 용기를 뽐내서 땅을 다투고
萬里驪馳起戍樓	만 리 길 말을 달리는 전쟁이 수루에서 일어난다

纓冠徇近黃人義

鋒鏑應多赤子愁

良手誰能洋海去

平安普渡巨川舟。

벼슬아치들은 아직도 황인의 의리를 믿고 있는데

창과 화살 든 사람들 많으니 백성들 근심에 빠진다

훌륭한 솜씨로 누가 능히 대양을 넘죽여

평안히 큰 내 건널 배를 보급하라.

<권1. 「聞歐西戰報 有感而作」>

이 시는 1차 세계대전 소식을 듣고 지은 듯하다. ‘서쪽 나라 문명은 누구와도 상대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작가의 서양에 대한 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해준다. 열강들의 식민지 다툼이 궁궐 안에서까지 치열하던 시기에 궁궐에 있었던 송설당은 다른 사람에 비해 외국에 대해 듣는 바가 많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시가에서 전통적 의식이 서양의 어떤 것으로 대체되거나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서양의 1차 세계대전을 바라보고 있다. ‘하루아침에 용기를 뽐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황인의 의리를 말하고 있다. ‘황인의 의리’는 국력이 강하면 스스로 와서 항복한다는 논리로 순리를 좇아 평화롭게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또 전쟁 중에 고통을 당하고 근심에 빠지는 것은 백성들이라면서 누군가 그들을 구해주면 좋겠다는 인도주의적 의식을 표출시키고 있다. 이런 의식은 서양인에 대한 경계심 보다는 그들을 같은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동양적 사고인 측은지심의 표출이어서 작가의 인간적 면모를 짐작케 한다. 즉 동서양의 사람, 그 중에서 백성들에 대한 고충은 어느 곳에 살든 같은 것으로 보는 송설당의 의식의 깊이와 대범성을 엿 볼 수 있다. 실제 삶에서도 송설당이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위한 모금에 참여한²²⁵⁾ 것을 보더라도 그의 세계는 조선이라는 나라 안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송설당의 근대적 활동과 의식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목표는 가문의 완벽한 복권과 사대부 가문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것이었다 할 수 있다. 문집을 낸 후인 1923년 고향에 학교를 설립하는데 전 재산을 희사할 것을 결심하기 전만 해도 그의 의식은 전근대적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데 충실한 것이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송설당이 여자라는 제약 때문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차츰 가능케 됨으로써 불가

225) 주77) 참조

능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그 사회에 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즉 자아정체성을 찾기 위한 의식의 발로였는지도 모른다. 이는 근대적 의식이다.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그 진가를 펼쳐 보이고 싶은 욕망, 그것은 분명 객체로서 존재했던 이 땅의 여성들의 자각의식이기도 하다.

4) 정체성 확립의식

정체성이란 자기의 내적 충동 및 욕구, 외적 압력이나 도덕적 구속들을 자기다운 방식으로 조정 통합함으로써 고유한 자기 동일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자각과 노력이다. 송설당은 처음에 가문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인자가 되고자 하는 자기실현 의식으로 역경의 삶을 살았지만 목표의 완성 후에는 사회의 당당한 주체가 되기 위해, 주체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의지를 보인다. 이것은 개인적 주체의식을 넘어 사회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의식의 발로이다. 이처럼 여자도 남자 못지않은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의식하는 데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한 근대의 물결 일 것이다. 객체로서 머물던 한 사람이 자기 성취를 이룬 후에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조심조심 변방에서 중앙으로 발길을 옮기는 의식은 분명 근대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 곳곳에서는 이런 정체성 확보의식이 깔려 있다. 특히 가사 「조술(自述)」처럼 자신의 집안의 내력과 신원의 과정, 자신이 이뤄낸 일들을 매우 자세히 밝히는 작품들에 그 의식이 더 드러난다.

..... 전략

황천(皇天)이감동(感動)호사	광무(光武)오년십일월에
탕척신원(蕩滌伸冤)탄은(天恩)무려	부도양춘(復觀陽春)이날이야
특명(特命)으로광익(光翼)아우	영릉(英陵)참봉(參奉)초소후(初仕後)에
정삼품(正三品)에승조(陞資)하고	한익(漢翼)해익(海翼)종형제(從兄弟)를
육품관직(六品官職)무려스니	엇지아니깃부리오
부친님을되섯스면	양당(兩堂)에영화(榮華)런만
령혼(靈魂)이아시는가	손논것이눈물이라
무신년(戊申年)오월일에	친묘슈축(親墓修築)립석(立石)호고

문호(門戶)를성립(成立)코져	원근종족(遠近宗族)다모아다
뢰고(惱苦)를불고(不顧)하고	농업즈(農業者)는던답(田畓)쥬고
학업즈(學者者)는공부(工夫)식여	일문(一門)을안보(安保)하고
편친(偏親)을위로(慰勞)하니	희한(稀罕)하고깃부것만
우리부친못되신일	평생(平生)에흔(恨)이로다
명유선천루더분묘(累代墳墓)	엇지하야성알(省謁)홀고
쥬야(晝夜)로동동(洞洞)타가	갑인(甲寅)춘(春)이월일에
질오(姪兒)석타(錫台)발송(發送)하야	일백스년(一百四年)실전선묘(失傳先墓)
봉심(奉審)하고도라오니	엇지아니만행(萬幸)인가
십세전(十歲前)에식인마음	각분묘를봉축(封築)하고
비석상석(碑石床石)비치(排置)하니	우리조종(祖宗)루더령혼(累代靈魂)
만분일(萬分一)을위로(慰勞)홀가	부여조(父與祖)의미행(未遑)한일
최씨족보(崔氏族譜)수정(修正)코즈	종손(宗孫)집과협의(協議)하야
거창(巨創)한일고준(告竣)하니	츠성강무(此生更無)여흔(餘恨)일듯
세월(歲月)이여류(如流)하야	포류지질(蒲柳之質)륙순(六旬)이라
너심곡(心曲)에미진(未盡)말삼	타일천타(他日泉臺)부친전(父親 前)에.

<권2. 「조술(自述)」 일부>

자신이 가문을 위해 한 일을 서사적으로 나열하면서 자신에 대한 만족과 성취감을 드러내고 있다. ‘천은을 입어 가문 복권을 이루고 특명으로 아우 광익이 영릉 참봉에 오르고 다시 정삼품 품계에 올랐으며 한익, 해익 두 종제는 육품의 관직에 올랐다. 무신년 오월에 친묘를 수축하여 비석을 세우고 가문을 일으키고자 원근 친척 다 모아다 농사짓는 사람은 전답주고 공부하는 이는 공부시켜 가문을 보존하고, 여러 대의 분묘를 봉축하고, 최씨 족보 수정까지 완성하니 이생에 한이 없을 듯 하다.’는 서술은 자화자찬 자긍심의 표현이다. 그러나 「술지(述志)」에서 그는 결국 죽어 장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주체자가 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장부의 몸으로 태어나서 사서삼경 육도삼략 차례로 섭렵하여 능통하거든 이부와 주소를 스승으로 삼고 요순과 우탕 같은 성군을 만나 국가사업을 다 한 후에 동서양의 위인으로 이름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싶다’는 소망이 그것이다. 여자로서 남자들의 성역에 들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하

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장부의 몸으로 태어났다면 더 큰 일을 했을 것이라는 자존감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작가의 심리적 기복이 전해진다.

..... 전략

三山到候忽	언뜻 삼신산에 도착하니
嫦娥携我手	항아가 내 손을 잡아끌고
織女贈我橘	직녀는 나에게 귤을 준다
五雲玲瓏處	오색 구름 영롱한 곳에
菴然紫金闕	우뚝이 붉은 대궐 서있는데
瑤草春可憐	구슬같은 풀 봄은 어여쁘고
瓊花香有馥	아름다운 꽃향기를 풍겨온다
俄到玉皇前	조금 있다가 옥황상제 앞 이르러
拜稽心惶慄	큰 절 올리니 마음이 떨려오네
皇曰爾松雪	황제께서 ‘너 송설은
塵劫儻已畢	옛 조상들이 진 업보를 이미 다 마쳤다
有懷言無隱	생각나는 것 말하고 숨기지 말며
有冤訴之悉	원통함을 모두 하소연하거라’
松雪俯而泣	송설이 엎드려 흐느끼면서
不能開啓舌。	입을 열지 못하는구나.

..... 후략

<권1. 「記夢」 일부>

「記夢」은 정리와 성취의식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 작품이다. 그가 찾으려는 정체성은 남자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완벽한 것이 될 수 없었던 듯하다. 당대 사회에서 주체로서 인정받는 것은 남자가 되지 않는 한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당당한 사람이 되더라도 ‘여자’라는 성적 조건은 떼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記夢」에서 작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자’라는 죄의 사함을 옥황상제로부터 받는다. 꿈속에서라도 자신의 완벽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이면서 남자들의 영역을 완성시킨 자신을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 옥황님도 허락한 자신이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은 것일까? 어쩌면 작가 스스로 경계선에 서서 망설이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불안한 심사는 가문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매달리게 한다.

..... 전략

門戶何零替	우리 가문 언제 이리도 망가졌는고
逮今百四年	지금 일백 사년이 지났구나
遺訓思圖報	부모님 유언에 보답하려 했는데
先塋久失傳	선조 무덤을 오랫동안 잃어버렸네
對羹難飽喫	국을 먹으려해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臨臥不甘眠	누워 있어도 단잠을 잘 수 없구나
孜孜如負泰	열심히 하려 해도 편안치 못해
洞洞若深淵	깜깜한 게 깊은 연못 같구나
慕先瞻北雪	선조를 추모하러 북녘 눈을 쳐다보며
送汝向西天	너를 서쪽 하늘로 보내니
神靈歆感否	신령께서는 느낌이 있으신지
子職尙油然	자식의 직분은 아직도 흘러내려오니
改莎又豎石	때를 바꾸고 돌을 세우기도 하며
庶竭此心懸。	끝까지 이 마음 다 하리라.

<권1. 「先塋事送錫台 至定州宣川」일부>

..... 전략

瑩域霜露降	선영 묘역에 서리와 이슬 떨어져
痛哭尊一卮	통곡하면서 술 한 잔 올렸다
墓儀復如新	묘역을 새롭게 다시 만드니
先靈陟降斯	선조의 신령이 여기에 강림하시겠네
兼旬役告竣	20일만에 완성을 고하자
天寒氷凍時	날씨는 엄동설한이었다
淒愴再拜退	서글픔에 두 번 절하고 물러나니
雙眼淚如絲。	양쪽 눈에서 눈물이 실 같이 흘러내린다.

<권1. 「定州宣川先壟設石儀 回路有感而作」일부>

..... 전략

維歲丙辰春	드디어 병진년 봄철
-------	------------

天氣日載暘
 召彼良工來
 漢模暨鳳祥
 爰送寢郎侄
 董役山之岡
 光弟躡其後
 旬朔事奔忙
 載諷辰之吉
 三墓排石床
 村丁齊力運
 呼耶動夕陽
 適勁金子筆
 銀鉤石面煌
 改莎謹封築
 薦我清酒香
 又幸羣季至
 墓前雁一行
 大父翰振氏
 肅恭拜侑觴
 邈矣三百年
 萬事屢變滄
 先靈猶不泯
 愀然見洋洋。

따뜻하고 좋은 날에
 저 훌륭한 목수를 불러오니
 한모와 봉상이었다
 능참을 하던 조카를 보내
 산소를 감독하게 하고
 광익 아우가 그 뒤를 따라
 열흘간 일이 바빴다
 좋은 날을 골라서
 세 묘에 석상을 배열하고
 시골 청년들 힘을 합해 운반하는데
 어야 소리 지르며 석양까지 날랐다
 힘 있는 글씨 화려한 필체
 날카로운 글씨가 돌면에 빛난다
 뗏장을 바꿔 조심스레 축대를 쌓고
 향기로운 청주를 올리라고 했다
 또 다행스럽게 여러 아우들 찾아와
 묘 앞에 형제들이 기러기처럼 한 줄로 늘어섰다
 대부 한진씨가
 엄숙하고 공손하게 술잔 올리는 것을 도와
 아! 기나긴 삼백 년
 모든 일이 여러번 변했구나
 선조의 신령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아
 긴장하여 옷깃 여미니 혼령이 보이는 듯.

<권1. 「高陽先山石物畢役 有感而作 三十一韻」 일부>

신원이 된 후에 조상의 묘를 찾아 봉축하고 비석을 세우고 단장을 하는 과정을 일일이 표현된 작품들이 많다. 「高陽先山石物畢役 有感而作三十一韻」은 그 중 하나다. 가문의 내력을 알리는 등 가문을 위한 노력과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절절하고 애닦은 가문의식은 가문의 위신을 현창하기 보다는 자신의 가문에 대한 열의와 일념을 강조하여 개인의 성취의식과 자긍심을 보여주려는 작가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이 밖에도 성취의식의 표출은 가문의 완성 외에도 다르게 나타난다.

..... 전략

頓覺輪蹄塵夢遠	갑자기 수레와 말발굽 티끌 세속이 멀어지니
提携盡日坐蟬聲	손을 이끌고 온종일 앉아 매미소리 듣는다
山家晝掩綠雲扃	산 집은 낮인데도 푸른 구름 가운데 닫혀있고
塵客巾裳好暫停	티끌 세상 선비들 잠시 머물기 좋구나
禪界原來多勝地	부처 세상은 원래 좋은 땅이 많으니
遊人到處盡名亭	노는 사람 오는 곳마다 이름 난 정자도 많다
村龍臥吐匏花白	시골 삼살개가 하얀 박꽃 보고 짖어대고
野犢遙鳴荳葉青	들관 송아지는 푸른 콩잎 보고 울어댄다
汗雨前送歸意少	가랑비 내리는 앞길에 돌아갈 마음 적으니
願言學佛寂忘形。	원컨대 부처님의 고요와 장자의 잊는 법을 배우고 싶다.

<권1. 「興仁門外清涼寺避暑」일부>

「興仁門外清涼寺避暑」에서처럼 당대 사대부들이나 함직한 여러 가지 생활환경을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투영함으로써 사대부로서의 당당함 면모를 표출하고 있다. 이 작품의 배경과 소재, 주제 모두는 생활이 어렵거나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편안한 상황이다. 더구나 규방에 갇혀 있어야 할 아낙의 행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활기차고 당당하기 까지 해서 이 시를 읽는 이들에게 두 번의 고정관념을 깨게 한다. ‘번개처럼 심리를 달려 동대문을 나가니 양소매 바람 맞고 걷는 나막신 가볍기도 하구나’ 이 표현은 당시 여염집 여성들의 걸음걸이로 느껴지지 않는 남성의 행보다. 더구나 목적이 더위를 피해 계곡 숲을 찾아가는 걸음걸이 이기에 ‘옛날 여성들은 장옷을 쓰고 땅을 바라보며 조신하게 걸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찬물을 끼얹는다. 또한 풍경을 즐기는 정취도 매우 여유 있어 보인다. 이런 모습은 송설당이 여성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생활 면면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다. 아울러 그 평화로움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 속세의 정을 잊고 자연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소망은 君子餘樂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다음의 「漫筆」도 매우 한가롭고 여유있는 정한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山靜人間掩竹扉
午睡纔罷已斜暉
天公賦我唯佳景
滿屋青嵐又翠微。

산은 고요하고 사람 드물어 대사립문 닫혔고
낮잠 겨우 깨자마자 벌써 해가 기울는구나
하느님이 나에게 준 좋은 경치
지붕에는 퍼런 아지랑이 푸른 기운 가득하구나.

麥浪家家潤
樹陰處處濃
幽居堪自悅
青嶂畫重重。

보리 물결은 집집마다 윤택하고
나무 그늘 곳곳에 짙게 깔렸는데
깊은 곳에 사는 삶 너무도 좋아
퍼런 장막 그림처럼 겹겹히 둘러있네.

<권1. 「漫筆」>

단순히 신분의 복권에서 오는 영예의 되찾음만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생활을 느끼게 하는 자본주의의 색채, 달리 말하면 부르조아적 삶이 연상된다. 이 점이 곧 송설당이 자신의 문집을 읽는 독자들에게 바라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잃었던 부귀영화를 되찾은 사대부로서의 면모를 타인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의 한 인자가 되고자 하는 자기실현의 태도이다. 이는 여성에게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정체성 확보라는 획기적인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정당한 위치에 올라서서 당당하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근대의식이라 할 수 있다.

『송설당집』에 실린 작품들에는 가문의식 못지않게 ‘인생의 정리와 정체성 확립’의식이 들어 있다. 목표를 향해 살아온 긴 여정에서 목표 달성이라는 기점에서 씬표를 찍는 정한과 승리감이 깃들여 있다. 우선 회갑을 기점으로 하여 작품들이 완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도전에서의 승리로 인한 과거의 정리와, 회복한 신분으로 인한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의미를 갖고 삶의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과거의 정리라는 목적은 한 가지의 의도한 일이 끝났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가 인생을 걸고 한 모험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완성된 것이다. 그 인생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伸冤雪恥’를 위한 대역사의 전개와 완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의 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의 60평생 정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이 땅에 살았던 다른 여성과는 너무나 다른 생의 굴곡을 거쳤으

며, 그 굴곡은 여성의 몸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남성들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며, 당시 억압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무모하기까지 한 도전을 가능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목표를 이뤄냈으며, 그는 승전을 자축하는 의미로 이 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마치 길고 지루한 싸움에서 이긴 장군처럼 그의 성취욕과 승리의 기쁨, 자긍심의 파편들은 전리품들처럼 글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송설당 작품을 중심으로 생애를 고려하여 크게 개인의식과 사회의식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개인의식의 저변에는 가문과 효의식이 전제되었으며 이는 곧 사회와 가문 속에서 늘 객체로서 존재해 온 작가가 주체가 되기 위해 생성된 자기실현 의식이기도 하다. 사회의식에는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우국의식이 조심스런 발화로 노정되고 있으며, 오히려 보은과 연민의식이 충만하다. 이는 당시 일본의 침략을 현장에서 목격한 궁녀였다는 신분과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성의식에는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원죄의식에서 비롯된 여탄의식이 급기야 남성선망의식을 거쳐 사대부의 의식으로 변모되고 있다. 송설당의 시가를 역사주의적 비평안으로 읽는다면 여성에게 여성성이 사라졌다는데 의문을 달아야 할 것이다. 이는 남성들이 추구했던 남성주체의 이념을 목표로 살았던 한 여성의 심리 상태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타자로서, 객체로서의 삶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 객체의 주체화가 이뤄지는 전도현상이 심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남성주체로서의 삶이 송설당의 의식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송설당의 정서는 성을 초월한 본질적인 인간의 의식이거나 도전한 세계에 편입한 것에 대한 안도감 내지는 남성의식에 완전하게 동화될 수 있는 사회적 신분적, 문화적 전환이 주는 성취의식에서 오는 만족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몸종이었던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인본주의적 사고와 평등의식이라는 점과, 일찍부터 자각한 자본인식이 성공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모습 등은 근대 의식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작품들을 통해 이미 서양과 열강을 인식하고 있는 작가의 의식세계도 알 수 있었다.

제 5 장 송설당 문학의 의미와 가치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한말과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송설당은 전통과 근대라는 이중의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송설당의 삶과 문학은 전통적 이념 속에서 근대 여명기를 살았던 여성의 의식 변화를 살필 수 있는 매우 적절한 텍스트가 되고 있다. 우선 살아생전에 송설당이 문집을 발간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송설당 문학 자체가 20세기 초반 근대의 태생적 현장에서 탄생되었으면서도 성격은 전통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이라는 이중적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근대의 연구들은 근대성을 하나의 이상형이나 척도로 상정하고 있었던 까닭에 식민지적 특수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근대의 수준에서 결여되는 바를 강조하는 경향을 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세기 초반 발간된 문집류에 실린 풍부한 내용은 간과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우리의 근대성은 있는 그 자체를 전제해야만 비로소 담론의 다양성을 포착할 수 있다. 송설당의 삶과 문학은 근대를 새롭게 보려는 시각에 걸맞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송설당 삶과 문학의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송설당의 삶과 의식은 서로 상반되는 선상에서 전통회귀를 통한 근대의식의 실천이라는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남다른 여정을 펼쳐온 송설당의 삶은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경향이 과연 20세기 초에 식민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앞에 나타났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새로운 해명이 되고 있다. 이는 식민사관적 이식문학론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근대의 모습에 새로운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삶의 목표는 철저한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에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과 의식은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와 자본주의적 사고, 자기실현에의 욕구로 진행되었다. 이는 소위 근대의식이라고 부르는 요소들이다. 송설당은 반생을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가문의 신원을 위해 남성들이 하는 학문의 연마 대신 부의 축적이라는 방법을 택해서 목적을 이루고 있다. 조상의 신원을 이룬 때는 1901년, 이미 구한말 여성들의 의식에는 근대의식이

배태되어 있을 때이다. 특히 조상의 신원을 위해 한양으로 거처를 옮긴 때가 1894년경이므로 이 시기까지 송설당은 일반 상민들처럼 저자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살았던 평범한 아낙이었다. 그에게 인간중심의 근대적 이념이 깃들게 된 것은 사회 분위기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사고는 권력이나 체통에 매달려 물질의 힘을 애써 배격했던 조선사회의 유교적 이념세력들의 붕괴에서 얻어진 자생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삼정의 문란 속에 부패한 관료들은 돈으로 권력과 명예를 살 수 있다는 자본의 위력을 깨닫고 실행 하였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체보다는 더 쉽게 물질적 위력에 굴복할 수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가문을 되찾고자 한 송설당의 의식은 전통적 유교의식이지만 그것을 찾는 방법, 실행의식은 근대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구물결이 거세게 유입되었던 현장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 산 송설당은 신원을 한 후 오히려 자기가 획득한 권력과 명예 등을 이용하여 전통적 습속으로의 회귀를 꿈꾼다. 그의 회귀는 평소에 자신이 지탱하고 있었던 사회에서 온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소외된 자의 여망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 의식들의 마지막 귀착점은 유교주의적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여성성을 넘어서 여성에게 채워진 속박들을 벗어던진 삶의 방법은 여성주의적 방법론이지만 이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남성중심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목적을 이룬 송설당의 삶은 유교적 이념체제에 충실한 남성, 즉 사대부의 모습이다. 이런 의식은 송설당의 의식이 남성화가 되는 성의 전도현상까지 보인다. 이는 근대의 속성이 의식 속에 들어왔지만 그 의식은 현실 속에서 이루지 못한 이념적 실천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뿐 사회 이념적 제도를 바꾸려는 의지와는 별개로 작동되고 있다. 즉 늘렸던 자아에 대한 자각은 새로운 환경의 모색이라는 창조적 현실로 구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고 소외시켰던 이데올로기 체제에 영입되려는 노력으로 발전하는 모순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통으로의 회귀성은 근대전환기의 여성들,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근대적 의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뜻을 이룬 여성이 남성중심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근대의식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말년의 송설당은 전 재산을 육영사업에 기부 사학 건립에 매진하는 등 근대여성의 면모를 보였다. 또 그의 문집이 아니었다면 개화기를 살아간 조선 여성들의 의

식세계를 깊이 살필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근대의 물질은 여성들에게도 예외 없이 불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지위와 자유를 얻는 것 보다 사회의 온전한 주체가 되기 위한 열망이 앞섰다. 이런 의식이 전통으로의 회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송설당의 회귀성은 결코 폄하할 수 없는 우리의 근대의 모습이며 진실이다.

둘째, 전통적 글쓰기 매체로서 진부한 출판물로 치부되었던 20세기 초 문집, 송설당의 문학 작품에서도 근대성의 편린들이 나타나고 있다. 송설당의 단형 가사들은 단순히 전통적인 맥락의 時調나 漢詩형태의 변형으로만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발생한 개화가사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歌詞’라는 이름 대신에 ‘詞藻’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은 송설당 의식이 당대에 유행하는 근대문학양식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된다. 개화가사, 즉 詞藻나 社會燈에 실린 시조나 가사는 새로운 고안된 문학양식은 아니었다. 전통시가의 울조를 바탕으로 그 시대 상황과 정신을 반영한 것이어서 오히려 보수적인 편에 있었다. 그러나 근대 계몽기 가사들은 전통적 요소를 제거하고 도덕적 혁신, 생활의 과학화 등과 같은 주체의식을 형상화하였지만 송설당의 가사는 다르다. 표현기법에서 울어구와 서술어 생략, 서정적 표현 등에서 시조와 한시의 형식을 일부 차용하였지만 철저한 4음보를 고수하고 있으며, 내용과 사상면에서는 보수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목이 같다고 해서 단순히 같은 내용을 한자와 언문으로 나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제목이 다르면서 같은 정서를 다루고 있는 한시는 언문사조의 길이를 따르느라 고시형태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송설당의 실용주의적 의식세계와 『송설당집』이 한자를 모르는 여성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창작 당시 작가의 모험적이고 실험적 기지의 발현이 언문사조라는 독특한 형식의 글을 창작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송설당의 언문사조는 그 표현기법이나 정서를 볼 때 단순히 ‘가사’로만 보기 어렵다. 당시 신문이나 잡지의 ‘詞藻’라는 문예란은 전통적 시가작품을 변용한 다양한 시가형식의 실험장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의 언문사조의 형태를 단순히 가사형식의 변용으로 보기보다는 실험적 작가의식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송설당의 가사가 내용적 측면에서 당시 애국 계몽사상의 범주에 들지 못하고 전근대적 사상에 침윤되어 있을지라도 형태적인 면에서 보이는 다양한 변이 양상은 근대적 산물임을 부인키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송설당집』은 근대적 출판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개의 문집간행은 조상에 대한 추모의 생각과 가문의 존엄을 과시하기 위해 문중이나 후손, 제자들에게 의해 간행되었다. 그러나 간혹 본인이 스스로 펴낸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가문의 존엄을 알리기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문학적 성과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송설당집』은 일정한 기간을 갖고 창작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 기간 중에 이미 문집의 출판 계획을 진행시켜서 본인이 직접 기획출판을 하였다.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와, 읽히고 싶은 독자를 분명히 계획하고, 저서에 참여할 필진들까지도 치밀하게 계획한 저술활동이었다. 게다가 『송설당집』은 당시의 문학이 나라 잃은 슬픔으로 인한 허무주의나 비관적인 시들만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송설당 문학은 전통적 문학 개념을 넘어 나름대로 근대로 가는 길목에서 있었던 잃어버린 우리 것의 근대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은 한 사람의 정신세계의 지도이다. 어떤 이는 정신적 향유물로서 문학이라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세상을 구원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문학한다. 또 어떤 이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문학을 한다. 그러나 송설당의 문학은 의도한 삶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역할을 했다. 대개 옛 사람들은 문학을 생활의 일부로서 행했다. 그러나 송설당의 문학행위는 자기를 표현하여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이뤄졌다. 이런 점에서 송설당 문학 세계는 기존 전통적 문학 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학 정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송설당은 유교적 이념의 틀을 벗어 던지지 않고는 가문의 복권을 실현할 수 없었던 시대에 살았다. 목적은 전통이념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방법만은 전통적 관념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목적 달성은 반쪽의 완성이다. 마치 그의 경계인적 삶과 닮아 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의 사업은 그를 완성시켜 주었다.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전통적 관념에 집착한 채 퇴색해 가는 이념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는 결국 근대화의 바람에 힘껏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실천적 의지는 훗날 여성들에게 온전한 의식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새로운 여성관을 수용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제 6 장 결론

이 논문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를 산 송설당의 삶과 문학을 고찰함으로써 문집 발간의 배경과 함께 역사적·문학적·서지학적 의의와 작가 의식을 통해 ‘근대’의 의미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위와 같이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보았다.

제 2장에서는 송설당의 가계와 생애를 살펴보는 동시에 문집의 서지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가계를 정리하고 생애를 3기로 나누어 살폈는데 우선 태어나서 1901년 고종이 沒籍의 復權을 내리기까지를 1기 곧, 苦難期로 보았다. 이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치열한 생활 전선에 있었다. 제2기는 신원 이후부터 문집을 편찬하는 1922년(67세)까지로, 가문 복원과 報恩期이다. 되찾은 양반사대부의 지위를 확보하고 가문을 재정립하는 등 정체성을 확보하였다. 이 시기에 펴낸 문집은 가문의 위세를 다시 세우는 동시에 신원설치를 이룬 성취감과 반유교적 삶에 대한 해명의 의미가 스며있다. 제3기는 되찾은 권력과 부를 바탕으로 고향 김천에 학교를 세우고 육영사업에 매진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시기로, 社會還元期였다.

제 2장 2절에서는 『송설당집』의 서지학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송설당집』은 기획 출판된 인쇄본이었다. 저술 의도와 독자를 명확히 계획하고 저서에 참여할 필진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저술 활동이라는 점은 근대적 문학 활동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제 3장에서는 송설당집에 수록된 작품들의 장르적 특성을 살피고, 아울러 작품 세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한시는 근대로의 이행기에 창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나 이념은 근대의 영향권 밖에 있었는데, 이는 그를 조선조 마지막 여류시인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송설당의 작품에는 여성적 정서 대신 사대부들에게

서나 나올 법한 사회적 정치적 풍취가 호방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영물시가 많은데, 일부 작품에서는 성을 뛰어넘은 '성의 전도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언문사조는 형식적인 면에서 한시, 시조, 계몽기 가사 등의 다양한 특성이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문가사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규방가사의 형식과 성격을 띤 작품은 두어 편에 머물고, 기존의 규방가사와는 다른 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한시와 같은 소재나 제목의 가사뿐만 아니라, 한시의 절구나 율시 길이의 단형 작품이 많고, 소재에 있어서도 서사성을 띤 것보다는 사물을 제재와 제목으로 삼은 서정적 작품이 많다. 서사적 작품 외에는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19세기 규방가사의 특징과 다른 작품이 대부분이며, 數老나 景物, 紀行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녀 공통의 정서를 담고 있어서 규방가사나 신변탄식류의 가사로 보기 어렵다. 특히 언문사조라는 독특한 권명이 고유의 문학 매체인 문집에 나타남으로서 결코 근대와 전통이 별개의 문화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송설당집』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개인의식과 사회의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자기실현 의식에는 가문의 신원, 효, 성취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가문의식과 효 의식은 자기실현을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당위적 소명이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에서 객체로서의 존재를 주체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가문의 신원과 효는 결국 자신을 제도권 내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편입시켜 실존적 주체성을 획득하려는 작가의 무의식의 표출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의식은 국가·여성·근대의식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자신의 가문을 복권시켜 준 고종과 임비에 대한 보은, 우국과 연민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忠에 대한 인식이나 항일의식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感恩과 報恩, 우국과 연민 의식 속에 간접적으로,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의 침탈을 현장에서 지켜본 궁녀라는 사회적 신분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성의식은 여성으로 태어난 데 대한 원죄의식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탄이 남성선망의식으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한 성의식은 남성화 또는 사대부의식으로 변형되기도 했다.

근대의식은 인간의 평등과 물질 중심의 자본의식, 문명과 세계의식, 정체성 확립

등으로 나타난다. 자본에 대한 인식은 표면적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찍부터 송설당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성품임을 읽을 수 있다. 객체의 주체화에 대한 만족이나 남성선망이 당대 여성의 무의식적 지향점이라면, 정체성의 확립은 여성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이뤄내면서 체득한 확고한 의지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제5장은 송설당의 문학사적 의미를 살피고자 했다. 송설당의 삶은 전통적 이념이 지향하는 삶으로의 복귀를 위한 노력의 연속이었지만, 그 삶의 방법은 그 기본적인 이념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복귀를 위한 일탈이라는 모순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재산의 사회 환원을 통해 간혀 있던 의식을 전복하고 자기완성에 이른다. 또한 『송설당집』은 발간 목적을 갖고 기획 출판된 문집이라는 점이 기존 문집과 다르며 새로운 저술 활동의 근대적 작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의 산물인 신문의 ‘詞藻’란에 실린 작품들의 영향 아래서 전통적 글쓰기를 실험한 것은 전통의 단절로부터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일반적인 견해를 수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결국 본고에서 시도한 전통 속의 근대, 또는 근대 속의 전통 찾기는 의식과 실천이 다르다는 이중의 구조가 당대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송설당에 있어서 근대적 자각은 자신을 밀어낸 환경과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 오히려 그것에 합류 내지는 부합하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몰락한 집안 장손의 장녀로 태어나 여성의 삶을 벗어던지고 장남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송설당이 치열하게 살아간 이유는 결국 유교적이고 전근대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었다. 기존 사회적 이념에서 소외되었던 계층들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사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편입하려고 하는 모순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곧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열린 의식이었으며 근대성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도 근대의 한 모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논자의 결론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松雪堂集』, 최송설당, 조선인쇄주식회사, 대정 11년(1922년).
- 『삼천리』, 초하호, 1930.
- 『東光』, 6월호, 1932.
- 『개벽』, 제2호, 1934.
- 『松雪堂 女史와 金泉中學』, 『松雪』2, 金鍾鎬, 김천중학교, 1956.
- 『徐廷柱文學全集』, 서정주 저, 一志社刊, 1972. 10.
- 『半世紀의 證言』, 李仁, 명지대출판부, 1974.
- 『杜詩諺解』, 영인본 대제각 간 『韓國古典叢書II』, 1976.
- 『閨房歌詞 身邊歎息類』, 권영철 편저, 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1979.
- 『閨房歌詞 I』, 가사문학계③,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蘭雪軒 詩集』, 오해인 역주, 로출판, 1980.
- 『송설 50년』, 송설동창회, 김천중고, 1981.
- 『李朝後期 閭巷文學叢書』, 林熒澤 편, 여강출판사, 1986.
- 『역대가사문학전집 1』, 임기중, 동서문화원, 1987.
- 『애산 이인』, 최영희·김호일, 애산학회, 1989.
- 『松雪 六十年史』, 송설학원 개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삼양인쇄, 1991.
- 『평론 수필집 1』, 한국고전문학대계, 명문당, 1991.
- 『譯註 詩話叢林』, 홍찬유, 통문관, 1993.
- 『詩經』, 성백효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1993.
- 『무정』, 이광수, 계몽사, 1996.
- 『蘭雪齋文集 松雪堂文集 一』, 한국역대문집총서 2357번, 許楚姬, 崔和順 著, 경인문화사, 1997.
- 『漢文學史』, 이병주, 이종찬, 김광순, 송준호, 김갑기 공저, 새문사, 1998.

- 『근대계몽기시가자료집』, 전3권, 강명관, 고미숙 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0.
- 『윤치호일기』, 김상태 역, 역사비평사, 2001.
- 『李白 詩選』, 신하운 편저, 문이재, 2002.
- 『陶淵明詩』, 차주환 역주, 문이재, 2002.
- 『白居易 詩選』, 김정동 편저, 문이재, 2002.
- 『杜甫詩選』, 김의전 편저, 문이재, 2002.
- 『唐代女流詩選』, 유희재 편저, 문이재, 2002.
- 『柳宗元詩選』, 오수형 편저, 문이재, 2002.
- 『王維 詩選』, 류성준 편저, 문이재, 2002.
- 『한국여성시문집』, 허미자 편, 국학자료원, 2003.
- 『申紫霞詩集 1-6』, 김갑기, 정후수 공역, (주) 이화문화출판사, 2003.
- 『송설당의 시와 가사』, 정후수, 신경숙, 김종순 공역, 어진소리, 2004.
- 『국역 北山散稿』, 정후수 역주, 깊은샘, 2004.
- 『松雪堂集 I, II』, 최송설당 기념사업회 엮음, 도서출판 명상, 2005.
- 『강원여성 시문집』 ‘박죽서’.
- 『강원여성 시문집』, ‘김금원’.
- 『강원여성 시문집』, ‘윤희순’.
- 『강원여성 시문집』, ‘이옥봉’.
- 『大韓每日申報』 1908년 1월 18일, 잡보 「文明女士」.
- 『동아일보』 1929년 9월 18일, 「崔松雪堂女史」.

1930년 2월 26일, 「崔松雪堂女史 特志에 金泉人士 大歡喜, 유지들은 감사전보를 보내 ◇教育事業後援會 發起」.

1930년 2월 27일, 사설 「松雪堂의 慶事, 三十萬圓의 散財」.

1930년 3월 5일, 「崔松雪堂女史 聲明書 發表 출생지인 김천을 위하여 中學設立基金調達」.

1930년 3월 24일, 「재단수속 종료로 도에 인가원 제출」.

1930년 3월 31일, 3/3~4, 「金泉高普校의 許可願 提出 김천 일곱 유지가 대구 와서 崔松雪堂女史 事業」.

1930년 10월 5일, 사설 「尙未解決의 金泉高普」.

1930년 10월 21일, 「불인가로 세론비등」.

1930년 11월 12일, 「2만여원 주택까지 제공」.

1931년 3월 21일, 「김천고보교 정식으로 인가」.

1931년 4월 25일, 「김천고보교 개학식」과 「김천고보교의 창립」.

1932년 3월 6일, 「김천고보교 후원회 창립」.

1932년 10월 7일, 「김천의 자랑인 고등보통학교」.

1935년 12월 1일, 「김천고보낙성식」.

1935년 12월 1일, 사설 「거룩한 최송설당」.

1935년 12월 3일, 「3대 기념을 기회로 여생의 수재마저 회사」.

1939년 6월 17일, 「최송설당여사 別世」.

1939년 6월 25일, 「고최송설당 葬儀 대성황리에 거행」.

1939년 8월 12-17일, 「고최송설당 여사의 49일제를 당하여」.

『매일신보』 1930년 10월 27일, 「崔松雪堂 志願대로 金泉高普校 實現 校制는 二코쓰 制 採用 不遠間 正式으로 認可」.

1934년 11월 15일, 「崔松雪堂女史 貴金屬賊漢 전남 장성 가서 배회하다가 發覺되어 遂就縛」.

『조선일보』 1926년 11월 16일, 「國恩에 보답코자 社會事業에 投資」.

1930년 5월 13일, 「김천고등보통교 학제 변경을 중용」.

1930년 5월 18일, 「고보학제 변경에 절대 불응 결의」.

1930년 5월 22일, 「김천고보 인가로 又 復道에 陳情」.

1930년 6월 2일, 「實業校主張하든 것 道에서도 問題轉換」.

1930년 6월 5일, 「당국 기정방침으로 김천고보를 불허」.

1931년 9월 20-21일, 「향토교육을 고조하는 金泉高普校를 차저」.

1935년 12월 2일, 사설 「최송설당여사의 壯舉」.

1935년 11월 30일, 사설 「김천고보의 盛事」.

1935년 11월 14일, 사설 「白崔 兩女史의 봉사적 사업」.

1935년 12월 5일, 「崔松雪堂女史 銅像除幕式 所感(一), 一記者」.

1935년 12월 6일, 「崔松雪堂女史 銅像除幕式 所感(二), 一記者」.

1935년 12월 7일, 「崔松雪堂女史 銅像除幕式 所感(三), 一記者」.

1935년 12월 8일, 「崔松雪堂女史 銅像除幕式 所感(四), 一記者」.

1935년 12월 10일, 「崔松雪堂女史 銅像除幕式 所感(五), 一記者」.

『중외일보』 1930년 3월 15일, 4/1~2, 「金泉高普校 設立 積極 後援決議 崔松雪堂 義捐金外 十萬圓 寄附金 募集 自進 寄附 遷至」.

『조선중앙일보』 1935년 12월 3일, 「최송설당여사 또 3만원 회사」.

『조선중앙일보』 1934년 10월 26일, 「금불이 六千圓어치 훔쳐 가지고 逃亡, 武橋町 崔松雪堂의 親族이 主人 沐浴間 사이에」.

1935년 5월 14일 3/4 「崔松雪堂女史의 銅像建立期成會, 金泉高普學父兄會에서

1935년 12월 3-5일, 「최송설당여사 또 3만원 회사」

『한국일보』, 1962년 5월 24일, 최은희, 「잊지 못할 女流名人们 18」.

2. 단행본

- H.N.알렌, 『朝鮮見聞記』, 평민사, 1986.
-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역, 『다른 세상에서』, 여이연, 2003.
- 강만길, 『韓國近代史』, 창작과비평사, 1985.
- 고미숙, 『18세기에서 20세기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 고미숙, 『비평기계』, 소명출판, 2000.
-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 국제어문학회, 『고전문학 담당층과 문학의식의 제문제』, 보고사, 2004.
- 국제어문학회,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과정』, 보고사, 2004.
- 국제어문학회, 『한국문학사의 전개과정과 문학담당층』, 국학자료원, 2002.
-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을 일구었다』, 가람기획, 2004.
- 김광웅 해설, 김열규, 신동욱 편집,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 김명희 외, 『조선시대여성문학과 사상』, 이회, 2003.
- 김성기, 『한국 고전시가는고』, 역락, 2004.
- 김용직, 『한국문학의 흐름』, 문장, 1980.
- 김정은, 『대중문화 읽기와 비평적 글쓰기』, 민미디어, 2003.
- 김준오 외 공저, 『동서시학의 만남과 고전시론의 현대적 이해』, 새미, 2001.
-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 김태범,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반성과 새로운 모색』, 새미, 1997.
- 김풍기, 『시마(저주받은 시인들의 벗)』, 아침이슬, 2002.
- 김학성, 최원식 외, 『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 비평사, 1990.
- 김학성, 『국문학의 탐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 나정순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리타 펠스키저,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 문영오, 『孤山文學詳論』, 태학사, 2001.
- 박무영, 김정미, 조혜란, 『조선의 여인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

- 개, 2004.
- 박상태, 『전통부재 시대의 문학』, 국학자료원, 1993.
- 박성수, 『조선의 부정부패 그 멸망에 이른 역사』, 규장각, 1999.
- 박영민, 『한국 한시와 여성 인식의 구도』, 소명출판, 2003.
- 백낙천, 『문학과 행동』, 태국출판사, 1974.
- 백문임, 『춘향의 딸들, 한국여성의 반쪽자리 계보학』, 책세상, 2001.
- 백종기, 『韓國近代史研究』, 박영사, 1981.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유교문화권교육 연구단 편,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 청어람 미디어, 2004.
- 성무경,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사, 2004.
- 신명직, 『모던보이 京城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 신명호, 『궁녀』, 시공사, 2004.
- 앤소니 기든스·올리히 벡·스콧 래쉬 저, 임현진·정일준 역, 『성찰적 근대화』, 한울, 1998.
- 열상고전연구회 편, 『호연재 김씨의 생애와 문학』, 보고사, 2005.
- _____, 『동서양 시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1999.
- 윤효정, 『韓末祕史』, (주)교문사, 1995.
- 이능화, 김상억 역, 『朝鮮女俗考』, 동문선, 1990.
- 이병한, 『한시비평의 체제연구』, 통문관, 1974.
- 이숙인 역주, 『여사서』, 여이연, 2003.
- 이야기 한국역사 편집위원회, 『이야기 한국역사 11』, 풀빛, 1997.
- 이영춘, 『國譯 任允摯堂遺稿』, 해안, 1998.
- _____, 『강정일당』, 가람기획, 2002.
- 이종건, 『동양고전의 세계』, 국학자료원, 2002.
- 이혜순 외,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 이혜순, 『한국 고전여성작가의 시세계』, 이대출판부, 2005.
- 전규태, 『한국고전문학사 2』, 백문사, 1993.
-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貞夫人淳昌薛氏의 文學과 藝術』, 1997.

- 전영진 편저, 『규중문학』, 홍신문화사, 1995.
-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54.
- 정운현,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 개마고원, 1999.
-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 정출현, 조현실, 이형대, 박영민,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 조동일,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 한길사, 1982.
- 조윤제, 『韓國 詩歌史綱』, 을유문화사, 1954.
- 차주환, 『中國詩論』,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독자의 탄생과 한국의 근대문학』, 푸른 역사, 2003.
- 최강현, 『조선시대 우리 어머니』, 박이정, 1997.
- 최은희, 『여성을 넘어 아낙의 너울을 벗고(개화여성열전)』, 문이재, 2003.
-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 월인, 2003.
- 한기형, 『한국 근대 소설사의 시각』, 소명, 2001.
- 허미자, 『한국여성문학연구』, 태학사, 1996.
- _____, 『이매창 연구』, 성신여대 출판부, 1988.
- 홍신선, 『한국근대문학이론의 연구』, 문학아카데미, 1991.
- 홍일식, 『韓國開化期の 文學思想研究』, 열화당, 1980.
- 황재균, 『한국고전 여류사 연구』, 집문당, 1985.

3. 논문

- 강명관, 「일제초 구지식인의 문예활동과 그 친일적 성격」, 『창작과 비평』, 1988 겨울호.
- 강숙자, 「한국여성 근대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여성과 문학』, 성신여대 인문과학 연구소, 1990.
- 고미숙, 「근대전환기 여성담론」, 「담론의 풍경: 한국의 근대성 그 담론적 배치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제13차 학술발표회 발표집, 2004.

- 고순희, 「〈太平詞〉는 과연 김대비 작인가」,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_____, 「尹熙順의 義兵歌와 歌辭」,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_____, 「개화기 가사를 통해본 여성 담론의 양성과 특성」,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제 13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4.
- 고은지, 「계몽가사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양식적 원리와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 구인모, 「시, 혹은 조선시란 무엇인가」, 『한국문학』 제25집,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2002.
- 길진숙, 「〈命道自嘆辭〉의 내면의식과 자탄적 슬회」,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김명준, 「鄭澈 歌辭의 意識志向에 關한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 김명희, 「金三宜堂 詩와 文의 考察」, 한국한문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003.
- 김복순, 「1910년대 단편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 김수경, 「창작과 전승 양상으로 살펴 본 <쌍벽가>」,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_____, 「신변탄식류 규방가사 <청송가>를 통해본 자전적 글쓰기의 의미」, 한국고전 여성문학회 제13차 학술발표대회 발표집, 2004.
- 김연희, 「女性歌辭의 近代志向性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 김영철, 「韓國 開花期 詩歌장르의 形成過程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6.
- 김윤미, 「韓國文集의 編纂樣式에 關한 考察」,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 김의환, 「갑오년 9월 재기후의 동학농민항쟁과 그 성격」, 『한국학 연구』 제2집,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7.
- 김종순, 「허난설헌 문학과 생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 김학성, 「가사 장르성격 재론」, 『백영선생회갑기념논총』, 1982, 신구문화사.
- 김희곤, 「최송설당의 꿈과 삶」, 최송설당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2004.

- 나정순, 「전의이씨 제문과 <절명사>의 상관적 고찰」,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리동운, 「조선조 여류시인 松雪堂의 文學世界」, 『한길문학』, 1991년 가을호, 한길사.
- 박상균, 「개화기 ‘冊居間’ 攷 -도서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집,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7
- 박애경, 「잡가의 개념과 범주의 문제」, 한국시가학회 2002년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2002.
- 백순철, 「규방가사와 근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9집, 2003.
- _____, 「최송설당가사의 문체와 현실인식」, 『고시가 연구』 15, 2005.
- 서장문, 「退溪先生文集 刊行經緯 研究」,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 성무경, 「歌辭의 存在樣式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25집, 국제어문학회 2002.
- 신승엽, 「이식과 창조의 변증법」, 『창작과 비평』, 1991, 가을호.
- 심재완, 「崔松雪堂의 歌辭」, 『國語國文學 研究』 제3집, 청구대학 국어국문학회, 1959,
-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의 작품세계와 변모양상」,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_____, 「<이부인기행가사>에 나타난 19세기 여성의 여행체험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제2차 하계워크샵 발표집, 2001.
- _____, 「<錦行日記>에 나타난 기행체험의 의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윤미선, 「조선후기 서민화지향가사의 운율적 변주와 그 의미」,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6.
- 윤상용, 「開化期の 詩歌 研究」, 서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동연, 「화전가로서의 <반조화전가>」,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_____, 「여성가사에 있어 애국담론의 출현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제13차 학술 발표대회 발표집, 2004.
- 이배용, 「한국근대 여성의식 변화의 흐름 -개화기에서 일제시기까지」, 『韓國史 市民講座』, 제15집, 일조각, 1994.

- 이성호, 「오효원 한시의 현실의식 및 여성정감의 특징」, 『한국한문학연구』 제27집, 한문학회, 2001.
- 임명희, 「崔松雪堂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임영배, 「開化期 女性觀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 임혜영, 「최송설당 가사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조성윤·조은, 「한말의 가족과 신분」, 『한국의 사회제도와 사회변동』, 문학과지성사, 1996.
- 조세형, 「가사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 조춘남, 「梁啓超를 통한 萬海의 西歐思想受容」,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 정의영, 「小坡 吳孝媛 研究」,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정종현, 「『민족현실의 알리바이』를 통한 인신 출세의 서사적 정당화」, 『한국문학연구』 제2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0.
- 최규수, 「<김대비 훈민가>의 말하기 방식과 가사문학적 효과」,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_____, 「<홍씨부인 계녀사>에 나타난 자전적 술회의 글쓰기 방식과 의미」, 역락, 2002.
- 崔松雪堂 기념 학술대회집, 「송설당연보」, 송설당기념사업회, 2004.
- 崔然美, 「朝鮮時代 女性著書의 編纂 및 筆寫 刊印에 관한 研究」,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년.
- 최원식,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다시 생각한다」, 『창작과 비평』, 1994 겨울호.
- 최재석, 「朝鮮時代의 門中の 形成」, 한국학보 32. 일지사, 1982.
- 최현재, 「朝鮮後期 敍事歌辭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 허철희, 「崔松雪堂의 詩歌研究」, 『한국문학연구』 제15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2.
- 홍기삼, 「한국문학 전통과 현대적 계승」, 『한국문학연구』 제20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 홍재휴, 「가사의 범주 설정과 주석 방안」, 『한국가사문학의 주석과 그 정리 방안의 모색』,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연구소, 2002.

ABSTRACT

Study of Choi Songseoldang's Literature

Jong-soon Kim

Major in Classical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Songseoldang(1855~1939) was born as a descendant of yangban(the aristocratic class) who fell involved in a conspiracy and lived at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and in the period of modernization. In the period when the dynasty fell and tradition and modern times crossed each other, she overcame the birth limitations as a descendant of a traitor, got out of the traditional frame given to the women of the time, successfully rose in the world and gained fame, and left the traces of arousing one's attention in Korean literary history by publishing her personal collection of works in her later years.

At the age of over forty she was allowed to enter and leave court and granted the pen name of 'Songseoldang' by King Gojong. And she made a wide exchange with the social leadership as well as men of an influential family in the time. In her later years, to erect a private school she returned to the society the enormous property that she had collected during life. From what viewpoint will we see her dynamic life and attitude toward life as a woman that were rare in the time? They can multilaterally be interpreted as a change of traditional ideology and a section of the modern consciousness at the turning point spread widely in the society at that time.

"Songseoldang's Collection" was published in the year 1922 similar to the

period when the magazines of "Pyehu" and "Baekjo" were launched. It was issued for the purpose of accepting changed environment and arranging herself in accordance with it feeling a sense of achievement as well as chewing over the past looking back after achieving a purpose. It was exceptional compared to the existing publication of a collection of works which had attached importance to worshipping ancestors and lineage. Of course, it included the contents about her family such as the history of her family reinstated and a Confucian shrine arranged, but was much intended to highlight her personal administration. It is the publication the author planned to publish in person in her lifetime to issue it. The point can be seen as its individuality and as the modern operation of writing socioculturally. It is significant beyond a collection of works that a person plans and publishes during her lifetime with the purpose of informing the world of it.

For the works carried in the collection, exploring Chinese poems(whose number is more than two hundred and forty with hundred and sixty-seven titles) centering on contents and Gasa(the narrative poems with forty-nine titles) centering on forms showed that the author's perspective and values shown in the poems are very calm, open-hearted and philosophical. And great weight placed on autobiographic poems showed that it was a collection of poems accompanying a clear sense of purpose. The external characteristics of her works can be said to involve her loyalty from a sense of reality and a sense of gratitude and her unusual love for her family and parents.

The trace can be found that her form of speech and writing trend was affected by the Sajo in the column 'Trend' of a newspaper called Gasa of the Enlightenment. Furthermore, judging from the author herself carrying her works under the name of 'speech and writing trend', I cannot affirm that she was not affected by the Gasa. However, she did not have any forms or contents of the poems in the Enlightenment and much removed the forms or contents of the

existing typical Gasas written about women's life in Chosun. Also, her Gasas are characterized by monomorphism of twenty lines or less in thirty-nine titles among forty-nine titles, but cannot be said not to be Gasas because they satisfy the formal extension of the Gasas 'realizing the rule of versification with tetratone and tetrameter unlimited in the number of lines'. The special form of her Gasas can be understood from its characteristics of genre and from the viewpoint of the theory of communication. The author can be seen as having hoped that her own collection of works would also be read by the women in the families of the gentry. She who became a nurse of King Youngchin in two years after she came up to Seoul had lived in court for over ten years. After she left the court, she had great wealth and power. She was fully envied and suspected by those around her. She had probably needed her excuse to put the suspicion to sleep. In such situation, the author can be seen as having planned a collection of works and having chosen the gasa that could be written in speech and writing readable to women for a purpose. However, exploring her Chinese poems of the same name and different forms and her speech and writing trend showed that the trend as if to put sentential meaning on the rule of the four tones was not created only with the intention of considering the readers not understanding the poems. It was because many works expressed different worlds of work despite using the same titles and materials. Also, some works of reveal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oems more in Gasas and rather expressing them narratively reflected the author's experimental sense.

"Songseoldang's Collection" expressed a sense of self-realization, which identifying her family, filial piety and a sense of achievement speak for. Finally, a sense of family and a sense of filial piety were the inevitable calling that had to be overcome in the process of self-realization. Through it she succeeded in making the existence as the object in the society the subject. Identifying her family and filial piety were expressed as the author's sense of achievement for

acquiring existential subjectivity eventually incorporating her as a complete member into the system. Her social senses were expressed as gratitude to King Gojong and his second wife who reinstated her own family, and as patriotism and a sense of compassion. She did not directly express awareness of loyalty or anti-Japanese consciousness but expressed it indirectly and carefully in gratitude and requital of kindness, patriotism and a sense of compassion. It is difficult to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social position as a court lady who observed Japanese pillage in a field at that time functioned as a constraint. Women's consciousness by her was expressed as a sense of original sin for her birth as a woman despite bearing the heavy responsibility for identifying her family, and the grief for it was expressed transformed into a sense of envying man. The uneasy sexual consciousness was also transformed into virilism or a sense of the gentry. Modern consciousness was expressed as human equality and material-oriented capital consciousness, civilization and world consciousness, and identity established. Awareness of capital can be read as the character establishing itself in her unconsciousness from early to attain the purpose of her superficial life. If the women of the time aimed unconsciously at being satisfied with making the object the subject or envying man, establishing her identity can be seen as expressing the firm will she acquired achieving something impossible as a woman. Thus, the value of studying her collection can be found in that it is a peculiar result of formalizing literarily the social reality of the time where one woman who could not become a complete social member had no choice but to become virile in a difficult and long journey of seeking self overcoming the destruction of her family and the shackles of the age.

The following three facts can be known through her literature. One is that her life and consciousness on opposed lines show the duality of practicing modern consciousness through regressing to tradition. It provides a new index to what we are like in modern times biased against the theory of transplant

literature of a colonial historical view. Another is that her creation of Gasa affected by modern modes did not deviate from traditional literary spirit but implemented a new mode of Gasa. The third is that "Songsuldang's Collection" assumes the character of modern publication. The collection will be said to be greatly valuable and significant also in that it pursued new idea.